

【연구보고서 2005-1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농어촌·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2005

오영희 석재은

권중돈 김정석

박영란 임정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 등의 문제이며, 특히 취약계층에 속하는 여성노인, 농어촌 노인, 독거노인 등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의존성이 높아 복지제도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하여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측면에서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심층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오영희 책임연구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으며,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중돈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박영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본원의 임정기 주임연구원과의 공동연구의 산물이다. 구체적인 연구진의 집필분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가족관계 (김정석)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석재은·임정기)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박영란·오영희)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권중돈)

저자들의 원고를 읽고 바쁘신 중에도 많은 조언을 주신 이화여자대학교 김미혜 교수님, 가톨릭대학교 김찬우 교수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최영현 팀장님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본 보고서를 읽고 세심하게 검토해 주신 본원의 변용찬 연구위원, 김안나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손숙자 주임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향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 용 문

목 차

Abstract	19
요 약	21
제1장 서 론	5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2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54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개발	57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57
제2절 국제 비교 및 한국 실태	72
제3절 분석모형 개발	85
제3장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99
제1절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99
제2절 여성노인의 경제상태	108
제3절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136
제4절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168
제5절 요약 및 함의	184
제4장 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191
제1절 농어촌노인의 가족관계	191
제2절 농어촌노인의 경제상태	200
제3절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	227
제4절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255
제5절 요약 및 함의	272

제5장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278
제1절 독거노인의 가족관계	278
제2절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291
제3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321
제4절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354
제5절 요약 및 함의	370
제6장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375
제1절 기본 정책방안	375
제2절 대상별 정책방안	379
참고문헌	392
부 록	399

표 차례

〈표 2- 1〉 노인의 소득원 유형	62
〈표 2- 2〉 60세 이상 노인 거주형태의 추이	75
〈표 2- 3〉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1980~2000)	77
〈표 2- 4〉 노후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추이비교(1980~1995)	79
〈표 2- 5〉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1980~2000)	80
〈표 2- 6〉 노인가족관계 영역구분과 주요내용	85
〈표 2- 7〉 분석내용별 비교집단, 통계모형과 통계기법	89
〈표 2- 8〉 가구규모별 소득기준액(2004년)	91
〈표 2- 9〉 노인소속가구의 가구규모별 소득분포	91
〈표 2-10〉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92
〈표 2-11〉 노인 소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94
〈표 2-12〉 노인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95
〈표 3- 1〉 성별 가구형태분포	99
〈표 3- 2〉 성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100
〈표 3- 3〉 노인의 성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102
〈표 3- 4〉 여성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103
〈표 3- 5〉 남성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104
〈표 3- 6〉 노인의 성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105
〈표 3- 7〉 성별 전통적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106
〈표 3- 8〉 성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107
〈표 3- 9〉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109
〈표 3-10〉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월 평균소득수준 및 비율: 전체 노인 포함	110
〈표 3-11〉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111

〈표 3-12〉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112
〈표 3-13〉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113
〈표 3-14〉	노인소속가구의 성별 소득분포	114
〈표 3-15〉	성별 취업유무	114
〈표 3-16〉	성별 현 취업 직종	115
〈표 3-17〉	성별 근무형태	116
〈표 3-18〉	성별 일 하는 이유	116
〈표 3-19〉	성별 취업 만족도	117
〈표 3-20〉	성별 취업 불만족 이유	117
〈표 3-21〉	성별 향후 계속 취업 희망 여부	118
〈표 3-22〉	성별 현 직장 이직 여부	118
〈표 3-23〉	성별 미취업 이유	119
〈표 3-24〉	성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119
〈표 3-25〉	성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120
〈표 3-26〉	성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여부	120
〈표 3-27〉	성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121
〈표 3-28〉	성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121
〈표 3-29〉	성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122
〈표 3-30〉	성별 취업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123
〈표 3-31〉	성별 주관적 경제형편	123
〈표 3-32〉	성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124
〈표 3-33〉	성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125
〈표 3-34〉	성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126
〈표 3-35〉	성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126
〈표 3-36〉	성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127
〈표 3-37〉	성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128
〈표 3-38〉	성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129
〈표 3-39〉	성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0

〈표 3-40〉	성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0
〈표 3-41〉	성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1
〈표 3-42〉	성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2
〈표 3-43〉	성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3
〈표 3-44〉	성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134
〈표 3-45〉	성별 노인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135
〈표 3-46〉	성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136
〈표 3-47〉	성별 건강실천행위	137
〈표 3-48〉	성별 본인인지 만성질병상태	138
〈표 3-49〉	성별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139
〈표 3-50〉	성별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140
〈표 3-51〉	성별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141
〈표 3-52〉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141
〈표 3-53〉	성별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142
〈표 3-54〉	성별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143
〈표 3-55〉	성별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정도와 보조기 착용률	144
〈표 3-56〉	성별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45
〈표 3-57〉	성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147
〈표 3-58〉	성별 인지기능 장애 비율	149
〈표 3-59〉	성별 문제행동 출현율	150
〈표 3-60〉	성별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151
〈표 3-61〉	성별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152
〈표 3-62〉	성별 재활욕구(구축) 출현율	153
〈표 3-63〉	성별 노인 요양욕구 차이	154
〈표 3-64〉	연령·성별 요양욕구	155
〈표 3-65〉	성별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	156
〈표 3-66〉	성별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157
〈표 3-67〉	성별 수발기간	157

〈표 3-68〉	성별 주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부담정도	158
〈표 3-69〉	성별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159
〈표 3-70〉	성별 수발행위 평균빈도	160
〈표 3-71〉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161
〈표 3-72〉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162
〈표 3-73〉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164
〈표 3-74〉	노인의 성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164
〈표 3-75〉	성별 서비스 인지도	165
〈표 3-76〉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	166
〈표 3-77〉	성별 서비스 희망률	167
〈표 3-78〉	성별 여가활동 참여 실태	169
〈표 3-79〉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170
〈표 3-80〉	성별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171
〈표 3-81〉	성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172
〈표 3-82〉	성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173
〈표 3-83〉	여성노인의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174
〈표 3-84〉	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175
〈표 3-85〉	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175
〈표 3-86〉	성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176
〈표 3-87〉	성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177
〈표 3-88〉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178
〈표 3-89〉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179
〈표 3-90〉	성별 실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179
〈표 3-91〉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180
〈표 3-92〉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180
〈표 3-93〉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181
〈표 3-94〉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영향요인	182
〈표 3-9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183

〈표 3-96〉	여성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184
〈표 4-1〉	노인들의 거주지역별 가구형태분포	191
〈표 4-2〉	지역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192
〈표 4-3〉	노인의 거주지역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193
〈표 4-4〉	농어촌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결과	195
〈표 4-5〉	도시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결과	196
〈표 4-6〉	지역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196
〈표 4-7〉	지역별 전통적 가족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198
〈표 4-8〉	지역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199
〈표 4-9〉	지역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200
〈표 4-10〉	지역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201
〈표 4-11〉	노인의 지역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202
〈표 4-12〉	노인의 지역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203
〈표 4-13〉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204
〈표 4-14〉	노인소속가구의 지역별 소득분포	205
〈표 4-15〉	지역별 노인의 취업경험	205
〈표 4-16〉	지역별 노인의 현 취업직종	206
〈표 4-17〉	지역별 취업노인의 근무형태	207
〈표 4-18〉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이유	207
〈표 4-19〉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208
〈표 4-20〉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	208
〈표 4-21〉	지역별 노인의 취업 유지 희망	209
〈표 4-22〉	지역별 취업노인의 이직여부	209
〈표 4-23〉	지역별 노인의 미취업 이유	210
〈표 4-24〉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210
〈표 4-25〉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211
〈표 4-26〉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여부	211
〈표 4-27〉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212

〈표 4-28〉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212
〈표 4-29〉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213
〈표 4-30〉	지역별 취업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	213
〈표 4-31〉	지역별 주관적 경제형편	214
〈표 4-32〉	지역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215
〈표 4-33〉	지역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216
〈표 4-34〉	지역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217
〈표 4-35〉	지역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217
〈표 4-36〉	지역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218
〈표 4-37〉	지역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219
〈표 4-38〉	지역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220
〈표 4-39〉	지역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1
〈표 4-40〉	지역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2
〈표 4-41〉	지역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2
〈표 4-42〉	지역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3
〈표 4-43〉	지역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4
〈표 4-44〉	지역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224
〈표 4-45〉	지역별 노인 주관적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225
〈표 4-46〉	지역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226
〈표 4-47〉	지역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227
〈표 4-48〉	지역별 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병상태	229
〈표 4-49〉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230
〈표 4-50〉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230
〈표 4-51〉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231
〈표 4-52〉	지역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231
〈표 4-53〉	지역별 노인의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232
〈표 4-54〉	지역별 노인의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232
〈표 4-55〉	지역별 노인의 보조기 착용률 및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 정도	233

〈표 4-56〉	지역별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234
〈표 4-57〉	지역별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236
〈표 4-58〉	지역별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	238
〈표 4-59〉	지역별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	239
〈표 4-60〉	지역별 노인의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240
〈표 4-61〉	지역별 노인의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241
〈표 4-62〉	지역별 노인의 재활욕구(구축) 출현율	242
〈표 4-63〉	지역별 노인요양욕구 차이	243
〈표 4-64〉	연령별 지역별 노인의 요양욕구	244
〈표 4-65〉	지역별 노인의 수발실태	245
〈표 4-66〉	지역별 노인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245
〈표 4-67〉	지역별 노인의 수발기간	246
〈표 4-68〉	지역별 노인의 수발 어려움 및 수발시 가장 힘든 점	246
〈표 4-69〉	지역별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247
〈표 4-70〉	지역별 노인의 수발행위 평균빈도	248
〈표 4-71〉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249
〈표 4-72〉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249
〈표 4-73〉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251
〈표 4-74〉	지역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252
〈표 4-75〉	지역별 서비스 인지도	253
〈표 4-76〉	지역별 서비스 이용경험	254
〈표 4-77〉	지역별 서비스 희망률	255
〈표 4-78〉	지역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256
〈표 4-79〉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258
〈표 4-80〉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259
〈표 4-81〉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260
〈표 4-82〉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260
〈표 4-83〉	농어촌노인의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261

〈표 4-84〉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262
〈표 4-85〉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263
〈표 4-86〉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263
〈표 4-87〉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	264
〈표 4-88〉	농어촌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265
〈표 4-89〉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266
〈표 4-90〉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266
〈표 4-91〉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267
〈표 4-92〉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268
〈표 4-93〉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268
〈표 4-94〉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269
〈표 4-95〉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270
〈표 4-96〉	농어촌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271
〈표 5- 1〉	노인전체와 배우자 유무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	279
〈표 5- 2〉	가구형태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282
〈표 5- 3〉	노인독신가구 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결과	283
〈표 5- 4〉	노인부부가구 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결과 ···	284
〈표 5- 5〉	자녀동거가구 거주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짓분석결과 ··	286
〈표 5- 6〉	가구형태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287
〈표 5- 7〉	가구형태별 전통적 가족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287
〈표 5- 8〉	가구형태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290
〈표 5- 9〉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291
〈표 5-10〉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293
〈표 5-11〉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294
〈표 5-12〉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295
〈표 5-13〉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	296
〈표 5-14〉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분포	297
〈표 5-15〉	가구형태별 취업경험 유무	297

〈표 5-16〉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현 직종	298
〈표 5-17〉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근무형태	298
〈표 5-18〉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일 하는 이유	299
〈표 5-19〉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299
〈표 5-20〉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	300
〈표 5-21〉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계속취업 여부	300
〈표 5-22〉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이직 여부	301
〈표 5-23〉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미취업 이유	301
〈표 5-24〉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여부	302
〈표 5-25〉	가구형태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302
〈표 5-26〉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구직활동 여부	303
〈표 5-27〉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303
〈표 5-28〉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원하는 일 형태	304
〈표 5-29〉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일자리 선택시 우선순위(1순위)	304
〈표 5-30〉	가구형태별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 욕구	305
〈표 5-31〉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관적 경제 형편	305
〈표 5-32〉	가구형태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306
〈표 5-33〉	가구형태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307
〈표 5-34〉	가구형태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308
〈표 5-35〉	가구형태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309
〈표 5-36〉	가구형태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311
〈표 5-37〉	가구형태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312
〈표 5-38〉	가구형태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313
〈표 5-39〉	가구형태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4
〈표 5-40〉	가구형태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5
〈표 5-41〉	가구형태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6
〈표 5-42〉	가구형태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7
〈표 5-43〉	가구형태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8

〈표 5-44〉	가구형태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319
〈표 5-45〉	가구형태별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320
〈표 5-46〉	가구형태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321
〈표 5-47〉	가구형태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322
〈표 5-48〉	가구형태별 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병상태	324
〈표 5-49〉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325
〈표 5-50〉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326
〈표 5-51〉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326
〈표 5-52〉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327
〈표 5-53〉	가구형태별 노인의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328
〈표 5-54〉	가구형태별 노인의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329
〈표 5-55〉	가구형태별 노인의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 정도와 보조기 착용률	330
〈표 5-56〉	가구형태별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331
〈표 5-57〉	가구형태별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333
〈표 5-58〉	가구형태별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	335
〈표 5-59〉	가구형태별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	336
〈표 5-60〉	가구형태별 다른 노인의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337
〈표 5-61〉	가구형태별 노인의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338
〈표 5-62〉	가구형태별 노인의 재활욕구(구축) 출현율	339
〈표 5-63〉	가구형태별 요양욕구	340
〈표 5-64〉	연령 및 가구형태별 요양욕구	341
〈표 5-65〉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	342
〈표 5-66〉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342
〈표 5-67〉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기간	343
〈표 5-68〉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어려움 유무 및 어려움 점	344
〈표 5-69〉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345
〈표 5-70〉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행위 평균빈도	346

〈표 5-71〉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347
〈표 5-72〉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348
〈표 5-73〉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350
〈표 5-74〉	가구형태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351
〈표 5-75〉	가구형태별 서비스 인지도	352
〈표 5-76〉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경험	353
〈표 5-77〉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4
〈표 5-78〉	가구형태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355
〈표 5-79〉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356
〈표 5-80〉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사회단체 가입률	357
〈표 5-81〉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358
〈표 5-82〉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359
〈표 5-83〉	가구형태별 사회단체 참여 영향 요인	360
〈표 5-84〉	가구형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361
〈표 5-85〉	가구형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361
〈표 5-86〉	가구형태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362
〈표 5-87〉	가구형태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363
〈표 5-88〉	독거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364
〈표 5-89〉	가구형태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365
〈표 5-90〉	가구형태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365
〈표 5-91〉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366
〈표 5-92〉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366
〈표 5-93〉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367
〈표 5-94〉	독거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368
〈표 5-95〉	가구형태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369
〈표 5-96〉	독거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영향요인	370
〈표 6-1〉	시설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자	38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진행도	56
[그림 2-1]	노인(60세 이상)의 생활 곤란 인식 국제비교(1995)	78
[그림 2-2]	노인의 기능상태 및 요양욕구 분석모형	97
[그림 2-3]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도 분석모형	98
[그림 6-1]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예시	388
[그림 6-2]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391
[그림 6-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91

부표목차

<부표 1>	집단유형별 노인의 일반특성	402
<부표 2>	집단유형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403
<부표 3>	집단유형별 노인의 건강상태	404
<부표 4>	집단유형별 노인의 수발실태	404
<부표 5>	집단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	405
<부표 6>	집단유형별 노인의 사회참여실태	406

Abstract

Old Persons' Quality of Life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is expected to turn into an aged society in 2018 with the old population composing 14.3% of its total population. Drastic increase of old population rate brings out burden on Korean society and hinders its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appropriate coping policies.

Identification of older persons' needs and collection of objective information and data are prerequisite to developing effective policies for fulfilling their needs, particularly for single older persons, women older persons, and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Using the raw data from 2004 Living Profile and Welfare Service Needs of Older Person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welfare needs of older persons and to provide effective welfare policies for this population, particularly focusing on older women,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and single older persons. Analyses were conducted in four areas of older persons' welfare needs; family relationship, income and employment, health and care, and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Based on the main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measures to provide income security, health security, and social participation of single older persons, women older persons, older persons in rural areas, and socially vulnerable groups.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5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1%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 마련 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임.
 -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노인문제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 등임.
-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은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가 많다는 점과 여성노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음.
 - 전체 노인의 약 2/3가 여성노인이며, 노인인구 중 농어촌지역 거주비율이 높고(40.6%), 독거노인은 제부양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함.
-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에서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시대의 정책방안, 농어촌지역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어촌 노인복지증진 방안, 가구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방안을 모색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 연구방법

- 기존문헌 고찰
 - 노인의 삶의 질 각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자료의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함.
- 기존 자료는 65세 이상 노인 3,278명에 대한 개인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형태분류에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포함된 본인응답 노인(2,851명)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 대상자별 분석에서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기타가구에 포함된 노인은 가구특성상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음.
- 분석방법은 일차적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서술하였으며, 2차 관련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중다회귀분석, 이항 및 다항 로짓분석 등을 활용하였음.

□ 연구내용

- 연구의 내용은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각 영역별 개념 및 분석틀을 정립하였으며, 가용 자료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주요 국가의 관련 통계와의 국제비교를 실시함.
- 정책대상 하위집단으로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노인의 삶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측면에서 노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
 - 노년기 가족관계는 현 시점에서의 세대간 자원교환에 초점을 둔 배우자와 자녀세대간의 관계로 한정함.
 - 노인의 경제상태 영역에서는 실제 노인들의 소득수준과 소득원(공적 혹은

- 사적)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노인소득에서 공적 및 사적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노인의 건강상태 영역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 영양 및 수발욕구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및 수발에 관련된 요인분석을 실시
 -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여가활동, 사회단체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정보화에 관한 실태 파악과 그 관련 요인분석을 실시
- 마지막 장에서는 대상별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 시대의 여성노인정책, 농어촌지역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어촌노인복지 증진, 거주형태를 반영한 노인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방안을 제시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개발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 삶의 질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어의적인 개념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에 대한 추상적 표현임.
- 노인과 가족형태
 - 노년기 가족관계의 척도에서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부부관계와 세대관계로 나누는 한편, 각 관계에서 객관적인 부문(외형적 긴밀성,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및 가정에서의 역할)과 주관적인 부문(관계만족도와 평가 등)을 구분하고 있음.
 - 외형적 긴밀성은 노년기 거주형태,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및 가정에서의 역할은 노인의 기능, 관계만족도와 평가는 가치 및 태도에 상응함.
 - 노년기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에

걸쳐 형성될 수 있음. 이 중에서 그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세대간 관계라 볼 수 있음.

- 세대간 거주형태, 지원교환 유형,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및 자녀만족도 평가는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임.

□ 노인과 경제상태

-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됨.
 -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적 소득원은 다시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저축·임대·이자소득·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이를 소득원천의 영역에 따라 재정리하면, 근로(work)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market)을 통한 자산소득, 가족(family)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혹은 국가(state)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 소득원 유형을 분류할 수 있음.

□ 노인과 건강상태

- 노인보건의 목표가 단순히 질병의 예방이나 수명의 연장이 아닌 삶의 질, 즉, 활동적 여명(active life expectancy)의 연장에 맞추어지고 있음.
 - 노후생활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체적 기능상태는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요양보호제도는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

□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 여가는 자기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행위와 휴식이나 기분전환, 이완과 같은 소극적 활동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성, 공공성 및 사회복지성, 무보수성, 지속성, 창조성, 일상성이라는 여섯 가지 특성을 지님.
-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정보란 ‘발신자 또는 수신자 사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 이후 정보의 가치가 높고 정보의 생산이 산업계의 중심이 되는 사회임.
 - 현재 노인세대들은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빈곤, 정보화 교육기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지식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제2절 국제 비교 및 한국 실태

□ 노인과 가족형태

-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4개국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는 전반적으로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음.

□ 노인과 경제상태

- 노인의 주관적 생활곤란감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5개국 중 한국이 노후의 경제적 생활곤란감을 가장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족의존형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의존형은 증가하는 양상임.
 - 노인의 주소득원의 변화추이에서, 각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노인과 건강상태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최근 OECD는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정책으로 크게 ① 노령 근로자의 취업과 소득보장 제반 연구, ② 사적연금의 범규화 및 모니터링, ③ 장기요양 보호 등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제2차 세계노인대회를 맞이하여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라는 정책 기틀을 발표하였음. ‘활기찬 노후’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기준임.

제3절 분석모형 개발

□ 노인과 가족형태

- 노인들의 세대간 거주형태는 자녀별거에 대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모형을 설정하면서도 분석모형에 동원된 변수들의 영향력과 그 방향에 주의
- 세대간 지원교환은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 일방적 수급형, 상호교환형으로 설정함.
- 세대간 관계에 대한 노인들의 가치 및 태도에서는 세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함께 노인자신들의 자녀관계에 대한 평가를 다룸.
- 자녀관계를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접근하면서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차이를 기술하고 분석

□ 노인과 경제상태

- 노인의 소득은 노인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
 -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유무, 소득수준, 소득원별 구성

- 가구의 소득계층 분포: 가구원 규모별 빈곤선이라는 절대기준 사용
- 노인의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 노인의 총소득, 소득원별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

□ 노인과 건강상태

-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및 만성질병상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에 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함.
 - 성, 거주지역 및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요양 및 수발 실태 분석
- 요양 및 수발 욕구의 다양성 분석
 - 연령, 결혼상태, 학력, 자녀동거여부 등에 따른 차이
-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 노인과 여가·사회참여

-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 여가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
 -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및 건강요인, 가족요인, 사회관계망 요인
 - 종속변수: 여가활동 참여도, 사회단체 가입 및 참여도, 자원봉사활동 참여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도, 컴퓨터 활용도

제3장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1절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 자녀동거여부

- 성별 노인의 가구형태를 보면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이 남성(6.7%)에 비하여 여성(31.9%)이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에 거주

하는 비율은 여성(25.6)보다 남성(58.9%)에서 매우 높음.

- 자녀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성노인의 경우,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수, 소득원천, 기능상태제한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 세대간 지원교환

- 성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은 남녀노인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유형은 상호교환형이며, 일방적 수급형,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의 순서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음.
 - 여성노인의 상호교환형은 60.6%로 남성노인의 44.5% 보다 높았음.
- 여성노인의 경우 세대간 지원교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에는 가구형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수, 소득 등임. 일방적 수급형(vs. 상호교환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임.

□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 남성노인(0.50)들에 비해 여성노인(0.62)들에게서 전통적 태도 점수가 약간 더 높고, 자녀관계만족도 점수는 여성노인(3.72)이 남성노인(3.80)에 비하여 약간 낮게 나타났음.
- 전통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내에서 전통적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은 다소 차이가 있음.
 - 여성노인의 전통적 태도는 가구형태, 거주지역, 연령, 배우자유무,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여성노인의 경우는 자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등임.

제2절 여성노인의 경제상태

□ 소득원별 소득유무

- 여성노인의 소득원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

소득은 약간 높은 반면, 근로사업부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의 항목에서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율 및 소득계층분포

- 노인소속가구의 소득계층 분포에서 여성노인의 41.2%가 빈곤선 이하이며, 이는 남성노인의 빈곤율 31.2% 보다 10% 포인트 높음.
- 또한 여성노인의 소득수준은 월 29.6만원인데 반해 남성노인의 소득은 월 79.1만원으로, 남성노인 소득이 여성노인 소득의 2.6배에 이르고 있음.

□ 총소득수준 영향요인

-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가구형태,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성 변수가 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타 변수의 통제하에서도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부조소득에서는 동일 조건하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관적 경제상태 및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여성노인이라는 요인이 긍정적인 경제상태 인식 및 높은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 건강상태

- 건강실천행위를 보면 건강위해행위인 현재 흡연율과 음주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나, 규칙적 운동실천율과 영양식 섭취노력, 건강검진수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은 편임.
-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유병률은 여성(95.0%)이 남성(84.3%)에 비하여 약 10% 포인트 더 높았음.
-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여성노인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26.2%로 남성노인의 46.9%에 비하여 약 21% 포인트 더 낮았음.
- 낙상사고율에서 여성노인은 18.6%로 남성노인의 9.9%에 비하여 높았음.

□ 요양욕구

- 노인의 시력과 씹기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쁘고, 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본인응답 노인의 신체기능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약 1%정도만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으며,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은 큰 차이가 없음.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경우 항목에 따라 1~10%의 노인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함.
-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능력, 문제행동, 재활마비, 재활구축 영역에서 여성들의 욕구가 남성들보다 높음.

□ 수발실태

- 여성노인(77.2%)은 남성노인(73.5%)에 비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남성노인들보다 높았음. 여성노인의 주수발자는 장남·며느리(34.3%)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80.0%)가 절대다수임.

□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 반대로 ‘보장구대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용(경험)율이 더 높음.
- 성별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주수발자 특성보다는 노인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음.
 -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보다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은 0.2~12.6%로 전반적으로 낮았음. ‘보장구대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용(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
 -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 이용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여성노인이 더 높고, 노인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남성노인이 더 높음.
-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 서비스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교육수준과 재활구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
-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는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주간보호서비스 확대’임.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남성노인이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여성노인의 요구가 더 높음.

제4절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 여가활동 실태

-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낀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사교활동,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보기, 종교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가활동 영향요인 분석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음.

□ 사회단체 활동

- 사회단체활동 참여도는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 및 직능단체라는 5가지 단체의 참여 여부이며, 여성노인들의 경우 종교단체 가입률만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높음.
 - 여성노인(58.2%)의 경우 남성노인(33.0%)보다 종교단체에 향후 가입할 의향 비율이 높고, 이외 사회단체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분석에서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더 많아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 여성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9.0%로서 남성노인(6.5%)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참여도가 높음.

□ 자원봉사활동 실태

- 여성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9.0%,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2.8%로서, 남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18.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
-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함.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 여성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9%로서 남성노인의 11.0%에 비해 이용률이 현격히 낮음.
- 여성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여성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4장 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1절 농어촌노인의 가족관계

□ 자녀동거여부

- 거주지역별 가구형태를 보면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보다 노인독신 또는 노인부부의 노인단독가구 비율이 높고,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농어촌노인(30.3%) 보다는 도시노인(43.8%)에서 더 높음.
- 자녀와 동거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거주지역별 비교에서도 각 집단에서 발견되는 유의미한 변수의 차이는 큼.
 - 농어촌노인들에게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배우자유무, 자녀수, 소득 등임. 도시노인들의 자녀동거확률은 성,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소득, 건강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 도시노인(34.7%)에 비해 농어촌노인(41.6%)에서 일방적 수급형 비율이 약간 높고, 상호교환형 비율(55.8%)은 도시(49.9%)에 비하여 약간 더 낮음.
- 지역에 따라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면,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무교환형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형태, 아들유무, 소득 등에 그치고 있음.
 - 농어촌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확률(vs. 상호교환형)은 노인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에서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
-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농어촌노인의 경우, 전통적 태도는 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소득에 따라 다름.
- 농어촌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성, 자녀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제2절 농어촌노인의 경제상태

□ 소득원별 소득유무

- 지역별 소득원별 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사업부업소득은 농어촌이 38.3%, 도시가 22.8%로 농어촌이 15% 포인트 더 높음. 자산소득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 3.3%, 도시 9.6%로 도시지역이 6% 포인트 가량 높음.
 -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근로사업부업소득을 가진 비율이 높고,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소득을 가진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소지 비율은 도시노인에 비해 낮음.

□ 빈곤율 및 소득계층분포

- 지역별 빈곤율 및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빈곤율은 45%인 반면, 도시지역의 빈곤율은 34%로, 농어촌지역 빈곤율이 11% 포인트 정도 높았음. 빈곤선의 150% 이하에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68%가 포진하며, 도시는 53%가 포진하여 역시 15%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임.

□ 소득수준 영향요인

-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음.

□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도 같은 조건하에서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이 낮음.
 -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대체로 소득원별 소득을 가질 확률은 높음.

□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농어촌노인이라는 요인이 긍정적인 경제상태 인식 및 높은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제3절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

□ 건강상태

- 농어촌노인의 흡연율은 20.4%로 도시노인의 16.1%보다 높은 수준이며, 음주율은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이 비슷한 수준임.

-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농촌노인(18.8%)이 도시노인(34.6%)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매 식사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식을 섭취하려는 노력은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 보다 약간 낮은 편임.
- 농어촌노인의 독감예방접종률과 건강검진수진율은 도시노인 보다 약간 높음.
-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상태의 경우 농어촌노인(92.1%)이 도시노인(90.2%)에 비하여 약간 높음.
-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우 농어촌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41.5%)은 도시노인(36.8%)에 비하여 더 높음.
-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노인은 15.4%로 도시노인과 비슷한 수준임.

□ 요양욕구

- 시력, 청력, 씹기 모두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농어촌노인의 보조기 착용률은 도시노인보다 낮음.
-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거주지역별 차이도 크지 않음.
-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거주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 영역에서 농어촌노인들의 욕구가 도시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요양욕구와 관련된 특징들은 간호처치 욕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음.

□ 수발실태

- 거주지역별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수발자 없음’ 비율이 농어촌노인은 77.1%, 도시노인은 75.7%로 농어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에 비해 약간 높음.
- 수발실태에서 농어촌노인들은 동거가구원이 18.8%, 비동거가구원이 4.1%, 도시노인들은 동거가구원이 20.6%, 비동거가구원이 3.7% 수발함.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보장구대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노

인복지서비스에서 도시노인이 농어촌노인보다 인지율이 높음.

-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 전체노인의 경우 노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노인의 경우 모델이 유의하지 않음.

□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은 0.2~12.6%로 전반적으로 낮음.

- 농어촌노인의 경우 주간보호 이용률이 1.4%,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이 5.3%로 도시노인에 비해 이용률이 높음.
-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전체노인과 도시노인의 경우 연령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일상생활능력(ADL), 재활마비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노인특성인 연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음.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에서 가정간호서비스의 이용희망률이 농어촌노인(51.2%)과 도시노인(42.3%)에서 모두 가장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였음.

-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노인전문병원,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보장구대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였으며,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욕구가 더 높음.
-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 전체노인과 도시노인의 경우 연령과 재활구축변수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
 -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희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음.

□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 장기요양관련 정책 중 요양시설 확대가 42.2%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28.8%), 가정간호서비스 확대(13.7%) 순임.

-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음.

제4절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 여가활동 실태

- 농어촌노인들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사교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결과, 여성 농어촌 노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음.

□ 사회단체 활동

- 농어촌노인의 경우 사회단체 가입률은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농어촌노인의 경우 여성노인,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증가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7.0%로서 도시노인(8.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간 낮음.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 요인분석 결과, 농어촌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많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 자원봉사활동 실태

-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은 10.1%로 도시노인의 16.6%에 비하여 낮음.
-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여성노인,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월평균 용돈액수와 수입액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 농어촌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3%로서 도시노인의 6.5%에 비해 이용률이 절반 정도임.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농어촌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

제5장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1절 독거노인의 가족관계

□ 자녀동거여부

-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을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은 배우자 유무, 성, 거주지역,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 가구형태별로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일방적 수급형(약 48%)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상호교환형(약 39%) 순임.
 -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는 상호교환형이 다수(76.6%)를 차지하며, 다음은 일방적 수급형(19.4%) 순임.

- 노인들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을 다항로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간의 지원교환유형은 큰 차이가 없음.

□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 전통적인 태도는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0.73점)에서 가장 강한 반면,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0.41점)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남. 이는 전통적인 태도가 강한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 가구형태별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회귀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세대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가구형태별로 살펴보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자녀관계 만족도는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제2절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 소득원별 소득유무

-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소득 유무를 분석해 보면, 근로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의 경우 노인부부(34.6%), 독거노인(25.6%), 자녀동거노인(22.5%) 순으로 근로사업부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산소득의 경우에도 노인부부(16.4%), 독거노인(13.6%), 자녀동거노인(8.9%) 순임.
 -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95.2%), 자녀동거노인(93.5%), 노인부부(90.0%) 순임.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노인부부(19.3%), 독거노인(11.5%), 자녀동거(11.0%) 순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소득 원 소지율은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노인부부, 자녀동거노인 순임.
 -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자녀동거노인(83.3%), 노인부부(77.1%), 독거노인(72.9%) 순이고,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도 동일한 순임.

- 독거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원 여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높았으며, 근로사업 부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의 항목에서는 여타 가구형태에 비해 현격히 낮았음.

□ 총소득수준 영향요인

-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유의미하게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공적이전소득, 공공부조소득에서만 같은 조건하에서 독거노인이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이 높으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원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하에서 독거노인 등 가구형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대체로 유의미하게 소득원별 소득을 가질 확률이 높음.

□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독거노인이라는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음.

제3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 건강상태

- 건강실천행위를 보면 독거노인의 현재 흡연율은 11.8%이며, 노인부부 19.6%, 자녀동거노인 19.0%보다 낮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경우 비음주율은 61.4%로 가장 높음.
- 규칙적 운동실천율, 독감예방접종률, 건강검진수진율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가구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며, 자녀동거노인과 비슷한 수준임.
- 독거노인의 경우 영양식 섭취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22.3%로 노인부부가구(41.4%) 또는 자녀동거(37.9%) 보다 매우 낮음.
-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환상태는 독거노인(96.0%)이 노인부부(88.3%) 또는 자녀동거노인(90.2%)에 비하여 약 6~8% 포인트 더 높은 수준임.
 -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을 비교하여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은 관절염(54.9%), 고혈압(45.0%), 협심증·심근경색증(9.3%) 등임.
-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25.6%)은 노인부부가구(38.4%)에 비하여 약 13% 포인트 정도 더 낮았음.
- 독거노인 중 지난 1년 동안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노인은 21.7%로 노인부부(12.6%)와 자녀동거(13.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경우 낙상사고가 가정 내 사고였다는 비율이 29.0%로 노인부부(20.7%) 또는 자녀동거(24.3%) 보다 높은 경향임.

□ 요양욕구

- 독거노인의 시력, 청력, 씹기 능력 등의 신체기능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노인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
 -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도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들의 요양욕구의 차이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문제행동, 재활구축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자녀동거 노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고, 재활구축 영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음.

□ 수발실태

-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수발자 없음’의 비율이 독거노인은 89.0%, 부부노인 75.8%, 자녀동거 69.0%로 독거노인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더 높음.
 - 수발시 가장 힘든 점은 독거노인의 수발자는 심리적 부담이 76.9%, 다음으로는 취업기회 상실,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이 각각 7.7%임.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부부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보다 더 높고,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음.

- 가사지원서비스와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독거노인이 각각 61.5%, 70.8%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독거노인들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집단보다 낮음.
- 가구형태별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서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음.

□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을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제외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독거노인의 이용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음.

- 독거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낮지만 이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요양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음.

□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

-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음.

- 가구형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 노인 연령이 적을수록, 재할구축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 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

□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 장기요양관련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42.1%)’와 ‘주간보호서비스 확대(28.8%)’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부부노인이 44.2%로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게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음.

제4절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 여가활동 실태

- 독거노인들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다른 취미나 창의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와 여가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
-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여성독거노인이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회단체 활동

- 종교단체 가입률만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높을 뿐 다른 단체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음.
- 독거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많아짐.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 독거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10.3%로서, 부부노인(6.5%)이나 자녀동거노인(8.2%)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독거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만성질환의 수가 적을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짐.

□ 자원봉사활동 실태

- 독거노인들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9.9%로서, 부부노인(17.0%)과 자녀동거노인(14.8%)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독거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며,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 독거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8%로서 부부노인 8.8%, 자녀동거노인 4.4%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독거노인 중에서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6.1%로서 부부노인의 32.1%, 자녀동거노인의 25.7%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독거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가능성이 높아짐.

제6장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1. 기본 정책방안

□ 소득보장정책

-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정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경로연금의 내실화
 - 경로연금 발전방향을 향후 연금체계 개편 논의와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우에 공공부조제도와와의 특성을 구분하여 수급자격을 재설계하는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 운영을 실질적 부양 관점에서 현실과 밀접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정책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함.
 - 노인 고용기회 확대
 -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 노인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을 고려하고, 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서비스 체계구축
 - 현재 이용률이 매우 낮지만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함.
 - 기능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양보호서비스체계 구축
 - 자립친화형 주거환경의 개선
 -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한 질적 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개보수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함.

□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노인여가문화시설을 확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
- 정보화 교육의 강화
 - 노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됨. 노인을 위한 컴퓨터 보급사업과 정보화 교육의 강화 등

2. 대상별 정책방안

가.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소득보장정책

-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의 향상
 - 여성노인의 소득보장대책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적 대응을 해소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공헌해 온 여성에게도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여성노인 고용기회 확대
 -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여성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도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보건 및 영양보호 정책

- 여성노인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여성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을 개발·보급
-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보호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이 인지기능 장애 및 문제행동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고, 재활욕구도 더 높았으며, 또한 고연령일수록 영양욕구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기능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인부양자를 위한 성 인지적인 서비스 제공
 -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함.

□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 종교단체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지원
 - 종교단체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내 종교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
 - 여성노인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종교기관에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함.

나. 농어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소득보장 정책

-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 농어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대책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함.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 개선

- 지역특성을 감안한 노인 일자리 개발
 - 농어촌지역에 알맞은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도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함.

□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지역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
 - 기본적인 건강검진 기회제공 및 효과적인 보조기 착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책 마련
-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 간호처치나 재활 관련서비스 욕구를 반영하여 농어촌노인들의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임.
- 노인부양자에 대한 성 인지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 농어촌 지역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단체와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증진
- 자원봉사활동 기회의 확대 및 실비 지원
 - 지역별 노인봉사대를 조직하여 지역개발 또는 복지분야의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 지원
-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기반구축
 - 농어촌노인가구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마을 단위로 방문교육을 실시

다.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 소득보장 정책

-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 공공부조 수급자격 심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 운영을 실질적 부양 관점에서 현실과 밀접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정책노력이 요구됨.

□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 영양개선사업의 실시
 -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영양지도의 실시, 영양개선사업의 실시
-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기능상 독립적이고 인지기능 장애도 별로 없지만 우울증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입 등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개발
 - 독거노인의 경우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용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더 높음. 특히 독거노인은 가사지원 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

□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 독거노인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사회단체 가입이나 평생교육기관

이용시 가입비, 자원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 지역특성을 감안한 여가지원
 - 지역별 차별화된 독거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대책이 요구됨.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기존 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반면,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임.
- 정보화 촉진 지원
 -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사업의 강화

□ 독거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칭)노인지원센터」 기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기존 노인 이용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간 연계기능을 수행
 - 노인(종합)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복합형),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등 복지·보건관련 기관 등
- (가칭)노인지원센터의 기능
 - 첫 번째, 특정 지역내 소재해 있는 복지·보건 기관의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관련정보의 통합 조정관리
 - 두 번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실태를 파악
 - 세 번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각 서비스제공 기관에 서비스를 연계·의뢰
 - 넷 번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제공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2005년 현재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9.1%인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부양비는 12.6%로 생산연령의 인구 약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8년에는 19.7%로 증가하여 생산연령 인구 약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05).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의 마련 없이는 고령사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2005. 5)하고, 대통령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동 위원회의 업무지원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확대 개편되었으며,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고령사회정책 기본방향에서는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집단에 대한 구체적이며 집중적인 정책방안 마련은 복지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 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의 욕구를 파악하여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은 여성노

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들 집단은 노인의 4고(苦)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소외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노인문제에서 성(性)이 고려되는 이유는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가 훨씬 많다는 점과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사회생활의 제영역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으며, 이러한 취약성은 전생애주기를 통해서 지속되기 때문이다. 국가에 따라 여성노인문제의 구체적 양상과 형태는 다르지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건강상의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보편적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약 2/3정도가 여성노인이며¹⁾, 『2004년도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하여 무배우자 비율(11.6% 대 66.1%)과 독거노인 비율(6.6% 대 29.3%)이 높고, 만성질환유병률(남자 84.4% 대 95.0%) 및 기능상태 제한 비율(26.4% 대 42.4%)이 높으며, 가구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비율(19.7% 대 34.0%)이 더 높았다.

또한 전체인구에 비하여 노인의 경우 농어촌지역 거주 비율이 높고(40.6%),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족부양능력의 낮은 수준 등 복지욕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독거노인은 제부양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UN의

주1) <표> 성·지역·세대구성별 65세 이상 인구수

구분	2000년		1995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체	3,371,806	(100.0)	2,640,205	(100.0)
성: 여성	2,084,409	(61.8)	1,665,501	(63.1)
남성	1,287,397	(38.2)	974,704	(36.9)
지역: 농어촌	1,358,752	(40.6)	1,125,688	(42.6)
도시	2,001,341	(59.4)	1,514,517	(57.4)
세대구성 ¹⁾ : 노인 1인 가구	542,690	(16.2)	349,020	(13.3)
기타 가구	2,804,131	(83.8)	2,274,833	(86.7)

주: 1) 집단가구를 제외한 세대구성 비율임(2000년 노인수 3,346,821명, 1995년 노인수 2,623,853명).

자료: 1) 통계청, 『200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제10권, 2002.

2)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제8권, 1997.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과 농어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 독거노인(노인 1인가구)의 비율이 1990년의 8.9%에서 2000년 16.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체수발 등을 비롯한 부양수준이 낮고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여성노인, 독거노인, 농어촌노인 등 사회적 의존성이 높아 노인복지제도에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노인계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하여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복지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노인복지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에 대하여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실태를 분석하고, 대상별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 시대의 정책방안, 농어촌지역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어촌 노인복지증진 방안, 가구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기존조사자료의 재분석, 그리고 관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 각 영역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외국의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 검토를 통해 조사자료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조사자료의 분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4년도에 실시한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일차적으로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중심의 기술통계방법으로 서술하였으며, 2차 관련요인분석을 위해서는 주로 중다회귀분석, 이항 및 다항 로짓 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한편 정책입안자, 전문가 등과의 정책자문회의를 통한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 내용은 우선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각 영역별 개념 및 분석틀을 정립하였으며, 가용 자료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의 관련 자료와 국제비교를 실시하였다.

노인 생활실태 분석에서는 취약계층인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주2)} 등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노인집단에 초점을 두고, 대상집단별 노인의 삶을 완화할 수 있는 복지측면에서 가족관계, 경제상태, 건강상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관계영역에서는 주어진 자료가 횡단적 조사자료임을 감안하여 노년기 가족관계를 현 시점에서의 세대간 자원교환에 초점을 둔 배우자와 자녀세대간의 관계로 한정하였다.

경제상태영역에서는 실제 노인의 소득수준과 소득원(공적 혹은 사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노인소득에서 공적 및 사적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노인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건강상태영역에서는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및 만성질병상태, 영양 및 수발욕구를 파악하고, 장기요양 및 수발에 관련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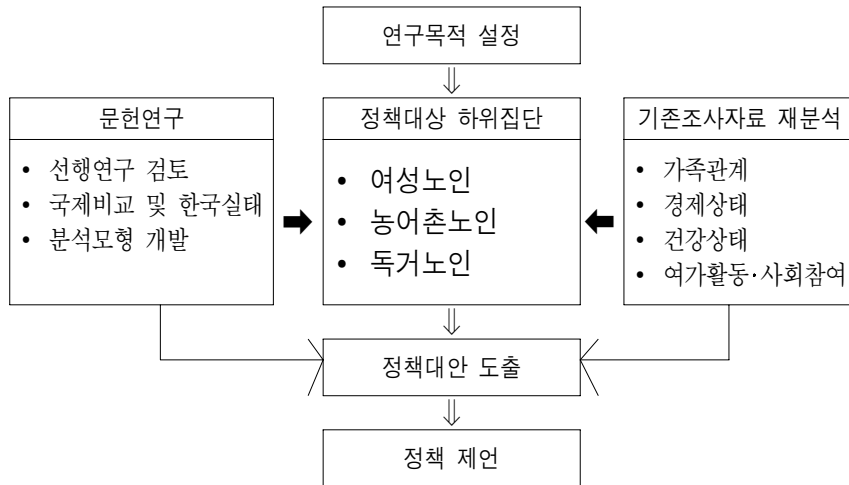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여가활동, 사회단체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주2)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인 농어촌지역은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9개 도지역(道地域)의 읍지역과 면지역 거주노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독거노인가구는 노인 1명이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노인대상자로 정의하였음.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정보화에 관한 실태 파악과 그 관련 요인분석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상자별 분석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여성정책적 시각에서의 고령화 시대의 정책방안, 농어촌지역의 거시적 맥락에서의 농어촌 노인 복지증진 방안, 가구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연구 진행도



3. 연구대상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원자료는 65세 이상 노인 3,278명에 관한 노인개인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중 본 연구대상자는 본인응답 노인으로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포함된 노인만을 분석대상(2,851명)으로 하였고, 기타가구의 노인은 제외시켰다. 이는 기타가구에 포함된 노인은 가구특성상 일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제 2 장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개발

제 1 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삶의 질의 개념

Wingo(1977)는 삶의 질은 다른 상태에 있는 것 보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존재(being better)로서, 개선되고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서, '좋거나 나쁜 것(being good or bad)으로서 보여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삶의 질'의 어의적인 개념을 보면, '삶'은 명사로서 살아있음, 살아나가는 일 등을 의미하고, '질'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의미하며, 바람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을 의미한다. 둘째는 삶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가 지닌 유용성, 내용의 좋고 나쁨, 가치, 등급, 속성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효용이며, 셋째는 비교대상이 되는 다른 삶보다 질적으로 더 나은 삶을 의미한다. 즉, 「삶의 질」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어의적인 개념은 '살아가는 일이 더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상태'에 대한 추상적 표현이다(윤병식 외, 1996).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인간의 욕구는 단순히 소득수준의 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삶의 질」을 '개인 및 인구집단이 향유하는 물리적·비물리적 가치의 총화'라고 정의한다면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여건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Hughes(1990)는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자율성, 만족감, 신체적·정신적 안녕 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환경의 질, 일상생활, 사회적 통합정

도, 문화적 속성의 8가지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이동우·이규식, 1997에서 재인용).

1982년 OECD의 사회적 관심체계에 포함된 지표는 삶의 질을 표시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체계는 건강, 교육과 학습, 고용 및 근로생활의 질, 시간과 여가, 재화와 서비스의 지배력, 물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개인의 안전 등 8개의 분야로 분류하였다(OECD, 1982).

이동우·이규식(1997)은 일반적인 삶의 질과 노인의 삶의 질의 개념은 동일하게 봐야 한다는 논의와 노인의 삶의 질은 그들의 특이한 삶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Cumming & Henry, 1961), 삶의 질 개념이나 그 하위 영역은 모든 연령층에 동일하지만 단지 각 영역이 갖는 가중치만 다를 뿐이라는 주장을 검토한 후 삶의 질의 개념이나 영역구성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지만, 각 영역이 갖는 중요성은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2. 노인과 가족형태

가족연구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지만 대체로 가족의 형태,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 가능하다. 노년기의 가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들도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의 틀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노년기 가족관계의 척도를 구성하려는 김정석(2001)은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부부관계와 세대관계로 나누는 한편, 각 관계에서 객관적인 부문(외형적 긴밀성,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및 가정에서의 역할)과 주관적인 부문(관계만족도와 평가 등)을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외형적 긴밀성은 노년기 거주형태, 가족으로부터의 수혜 및 가정에서의 역할은 노인의 기능, 관계만족도와 평가는 가치 및 태도에 상응한다. 노인들의 가족관계는 아니지만 김두섭 등(2001)의 연구는 중년층이 그 부모들과 맺는 가족관계를 세대간 근접성, 세대간 지원관계, 세대관계의 규범성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또한 노부모와 중년세대간의 관계를 거주형태, 지원기능, 가치 및 태도로 분류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형태, 기능, 가치 및 태도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노년기의 가족관계는 배우자,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그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세대간 관계라 볼 수 있다. 노년기의 가족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들 관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가족관계를 형태, 기능, 가치 및 태도 등의 세 영역에 걸쳐 살피는 한편, 노인들의 가구형태, 성, 거주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 작업에서 부부관계와 세대간 관계를 함께 제시하기란 매우 힘들다. 따라서 노인과 그 자녀간의 관계에 대해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년기의 다양한 가족관계 중에서 노인과 자녀간의 세대관계에 집중하여, 이를 형태, 기능, 가치 및 태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는데, 세대관계의 각 영역 내에서도 적지 않은 세부영역들이 다시 설정될 수 있다. 가령, 외형적 형태에서는 자녀와의 동거여부, 동거자녀와의 관계, 별거자녀와의 관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대관계의 기능면에서도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의 흐름과 정도 등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치 및 태도에서도 일반적 가치부터 노인 개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영역이 설정될 수 있다.

세대관계의 외형적 형태 분석에는 세대간 거주형태가 포함되고 있다. 세대간 동거가 반드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가구를 넘어서서 다양한 형태의 세대간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세대간 동거가 노인보다는 자녀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자녀와의 동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노년기의 거주형태는 노년기의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왔다.

세대간 동거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과 자녀 두 세대가 자신들의 선호(preference)와 자원(resources)에 따라 특정한 거주형태를 함께 결정(joint decision)한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주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들은 자료의 한계

주3) 한국노인들에 대한 연구로는 Kim (2005a), 유성호(1996), Kim & Rhee (1997, 1999a, 2000) 등을 들 수 있음. 외국노인 혹은 국제비교연구로는 Choi (1999), Da Vanzo & Chan (1994),

로 인해 노인세대의 자녀별거결정요인만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도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원들-배우자유무와 자녀수와 같은 인구학적 자원,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 자원, 건강 등이 결합되었을 때 자녀별거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개인의 독립과 사생활을 확보하기 위해 자녀와 별거하려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나 떨어져 사는 노인들도 적지 않다. 특히 농어촌노인의 경우 자녀들이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자녀와의 별거가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자녀와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노년기 가족기능의 분석에서는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다. 세대간 지원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그러한 지원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원의 유무에 앞서 지원에 대한 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정서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가정하여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경제적 혹은 건강상의 지원에 대한 욕구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사회조사에서 지원 대상자의 욕구는 충분히 혹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조사응답자 자신 뿐 아니라 조사응답자가 도움을 제공하는 상대방에 대한 욕구가 제대로 파악되기란 매우 힘들다. 한편, 지원 제공자와 수혜자가 두 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세대간 지원교환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까다롭게 한다. 가령 배우자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주된 지원(주제공자)은 배우자가, 부수적인 지원(부제공자)은 자녀가 할 수 있다. 한편, 노인들이 친손자와 외손자를 돌아가면서 돌보이주면 그러한 도움을 받는 자녀들은 주수혜자와 부수혜자로 등장하게 된다.

노인들의 가치 및 태도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 또한 쉽지 않다. 기존의 연구(Kim & Rhee, 1999; 김정석, 2005b)들에 의하면, 이 또한 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Goldscheider & Jones (1989), Knodel & Ofstedal (2002), Kojima (1989), Logan & Fuqin (1999), Martin (1989) 등을 들 수 있음.

알 수 있다. 자녀와의 세대관계를 둘러싼 노인들의 태도와 가치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resources)은 소득과 같은 경제상황,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및 자녀 존재와 같은 인구학적 상태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령,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할수록 약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들 유무 또한 전통적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가족에 의한 부양은 딸보다는 아들의 몫이 큰 것으로 강조되어 왔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노인들이 아들이 있는 노인들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낮게 예상된다.

세대간 거주형태, 지원교환 유형,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및 자녀만족도 평가는 상호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령, 세대간 거주형태는 지원교환의 유형을 조건지을 수 있는 한편, 지원교환의 욕구와 정도에 따라 세대간 거주형태가 결정될 수도 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일수록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도 커진다. 자녀에 대한 만족도는 상호교환적인 지원이 많을수록 높을 수 있는가 하면,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지원교환을 적게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거주형태, 지원교환, 가치 및 태도 등은 쌍방향적인 인과관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세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영역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3. 노인과 경제상태

노인의 소득원 유형은 크게 공적 소득원과 사적 소득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 소득원은 공적연금 및 생활보호 등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사적 소득원은 다시 근로를 통한 근로소득, 저축·임대·이자소득·사적연금 등에 의한 자산소득, 그리고 자녀 등으로부터의 사적이전소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를 소득원천의 영역에 따라 재정리하면, 근로(work)를 통한 근로소득, 시장(market)을 통한 자산소득, 가족(family)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혹은 국가(state)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으로 노인 소득원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Rainwater, Rein & Schwartz, 1986; Rein & Turner, 1999).

〈표 2-1〉 노인의 소득원 유형

구분	소득원	구성내용
근로소득	근로(work)	임금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자산소득	시장(market)	부동산임대소득, 금융이자소득, 저축, 개인연금, 퇴직금 등
사적이전소득	가족(family)	자녀, 친척 등 비공식 지지망으로부터의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국가(state)	공적연금, 경로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본 연구에서는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을 근로·사업·부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재산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을 자산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공적연금, 기타사회보험급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참전명예수당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하였으며,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기타소득을 사적이전소득으로 분류하였다.

노인 소득원의 공·사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 실태를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미국의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1982)의 연구는 노인의 소득 수준과 소득원천의 변화과정을 설명하고, 연령별, 결혼상태별, 성별, 소득수준별 변이를 분석하고 있다. 석재은·김태완(2000)도 한국의 노인소득 실태를 분석하고 소득원 구성을 노인의 특성별로 분석하였다.

둘째, 역사적으로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의 변화 추이를 추적한 연구범주이다. Rein & Turner(1999)는 복지국가의 발전단계를 복지국가 출현기, 국가적 지배기, 다원화기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가족의 역할 중심기, 국가역할 강화기, 시장역할의 강화와 역할분담의 다원화기로 특징지워지는 역사적 변화를 정리하고 있다.

셋째, 국가간에 노인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 공·사 역할분담이 상이한 점에 착안한 연구범주이다. 복지국가유형별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간의 역할분담을 다루었던 Esping-Andersen(1990)의 연구가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노인 소득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으나, Reinwater, Rein & Schwartz(1986)은 국가간 가구의

소득원 구성에 있어서의 공·사 역할분담의 상이성을 실증적인 조사자료에 기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대만의 노인소득원을 비교한 권혁주(2001)의 연구도 이에 속한다.

넷째, 노인 소득원 구성의 공·사 역할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노인의 가족간 소득이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것으로 Cox(1987), McGarry & Scheni(1995), 손병돈(1998), 김교성(2002)의 연구가 있다.

다섯째, 노인 소득원 중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가 대체적인지 혹은 보완적인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범주이다. Barro(1974)와 Becker(1974) 등 이타주의적 이전동기에 의하여 사적이전을 분석한 연구는 대체관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Cox & Jakubson(1995)은 교환이론의 맥락에서 사회보장이전과 사적이전의 보완관계를 주장하고 있다(진재문, 1999). 또한 진재문(1999)은 사학연금수급자와 생활보호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타주의적 대체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4. 노인과 건강상태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또는 각종 사고의 결과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노인인구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기는 건강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인 변화 과정을 겪는 시기로 신체·정신·정서적 기능 및 사회적 능력이 모두 감퇴되는 시기이며,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질병, 기능적 제약, 정신적 손상과 같은 건강 저해 요인들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건강이 점차 쇠퇴하는 때이다. 건강의 쇠퇴는 노년기의 생활에 많은 위기 상황을 야기하고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노년기에 있어서 건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최근들어 노인보건의 목표가 단순히 질병의 예방이나 수명의 연장이 아닌 삶의 질, 즉, 활동적 여명(active life expectancy)의 연장에 맞추어지고 있다. 노

후생활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신체적 기능상태는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Guralnik & LaCroix, 1992). 인구고령화의 추세에 따라 질병양상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퇴행성질환으로 변환되면서 공중보건학자들은 개선 가능한 위험인자나 만성질환에 의한 노인 장애를 새로운 보건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일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선우 덕 외, 2004).

노인의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건강을 장애, 만성질환 및 증상 등의 신체적 건강스펙트럼(physical health spectrum)에 따라 건강수준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 스스로 건강수준을 판단하는 것이다. 신체적 건강의 측정은 다시 의학적 또는 임상적 측정과 기능상태의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학적 또는 임상학적 관점에서 신체적 건강의 측정은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이 평가수단이 되며 해당 개념으로 질병, 불능, 증후와 증상, 건강잠재력 등이 있다. 특히 노인의 건강을 측정할 때 불능과 사망을 초래하는 질병의 유병상태와 증상이 의학적 측면에서 건강을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강조된다(Stahl, 1984).

노인요양보호(long-term care)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 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로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영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를 의미하며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 복지서비스를 모두 포함한다.

노인부양 관련 기존 연구들은 노인복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를 비롯하여 노인들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며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찬우, 2005).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공공과 민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해외의 케어제공자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이가옥 외, 2005). 노인부양과 관련된 연구는 특히 여성

이 수행하는 돌봄노동에 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장혜경 외, 2004).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5년 OECD 주요 국가에서 조세, 보험, 부조방식 등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복잡한 쟁점과 제도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에 관한 분석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서비스체계, 민간-공공 역할분담, 시설-재가 서비스의 구성과 기능, 서비스 할당에서 계층에 대한 고려, 인력 및 시설공급 체계, 재정분담 및 지출구조 등에 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최은영 외, 2005).

노인부양비용의 결정요인으로는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 노인의 건강상태(level of ill health) 및 사적부양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informal care) 등이 포함된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2002년 가구주의 부모가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는 42.7%, ‘따로 사는 경우’는 56.7%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약 과반수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건강악화 시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약 60%로 자녀와 별거하던 노인들도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전체 수발자 중 취업자는 51.7%이었으며 수발을 위한 취업 중단자는 8.2%, 근로시간 단축자는 약 4%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노동시장 참여와 노인부양자의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들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노인들을 위한 주간보호서비스의 공급이 취약하고, 직장에서도 노인부양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수요조사와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

5. 노인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평균수명의 연장, 퇴직,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증가한다.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노년기의 적응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지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경우 고독감, 소외, 만성적 무료함, 더 나아가 삶 자체에 대한 불행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인복지제도에서는 노년기의 건강, 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강조점을 두어온 관계로, 노년기의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권중돈, 2004). 하지만 노년학 분야의 연구에서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요인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심리사회적 문제를 유발 또는 억제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원형중, 1994; 허준수, 2002; Suh, Diener & Fujita, 1995; Leitner & Leitner, 1996; 나향진, 2003; 나향진, 2004)을 고려할 때, 노년기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의 영역을 크게 ① 여가활동, ② 사회단체활동,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④ 자원봉사활동, ⑤ 정보화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참여하는 단체에서의 활동이 주로 여가활동의 하위활동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단체 참여를 주제로 다룬 선행연구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단체 참여활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여가활동에 포함시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여가활동

노인의 여가활동은 활동장소, 관계범위, 활동목적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활동 장소에 따라서는 ① 가족내에서의 활동, 자녀와의 대화 등과 같은 가족중심형 여가활동과 ② 가족 외부에서의 취미, 오락, 학습, 단체 활동 등에 참여하는 가족외 활동 중심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박재간, 1997).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에 따라서는 ① 혼자서 미술, 음악감상, 서예, 사진, 수집, 독서 등의 활동을 하는 단독충실형, ② 친구들과 어울려 회식, 대화를 나누고, 관혼상제에 적극 참여하는 우인교류형, ③ 가족단

위의 외식, 소풍 또는 집안의 정원손질, 미화, 집수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는 가족충실형, 그리고 ④ 지역 봉사활동,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정치단체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참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태현, 1994).^{주4)}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한 유형의 연구는 여가활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하고, 노인의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참여유형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 것들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여가활동을 독립변인으로 규정하고, 여가활동 참여가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 사기, 고독 및 소외감, 우울감, 적응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연구들이다.

먼저 노년기의 여가활동 유형의 변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Gauthier와 Smeeding(2001)에 의하면, 은퇴 이후의 여가시간은 가사활동과 여가활동에 재분배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노년기에는 주로 수동적 여가활동이 증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Gorden 등(1976)의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가 됨에 따라 여가시간은 연장되지만 여가활동의 범위와 참여도는 오히려 축소되어 70대 노인의 경우 20대의 여가활동 참여도의 1/4 정도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신체적 움직임이 많은 활동보다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정적인 여가활동이 많아지며, 가족 외부 활동보다는 가족내부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활동에 대한 흥미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흥미가 증가하는 활동은 운동경기 관람, 사회적 이슈거리 토론, 단체 활동 참여, 집안장식 등이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흥미가 감소하는 여가활동은 춤, 술, 영화, 스포츠, 옥외활동, 여행, 예술활동, 독서 등이다. 이에 비해 친구방문, 요리, TV 시청, 가족관련 활동 등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흥미에 있어

주4) 여가활동의 목적과 관계범위라는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① TV 시청, 놀이, 장기, 화투, 바둑, 쇼퍼, 차나 술 등의 소일형, ② 수집, 서예 등의 취미활동, 영화나 전시회, 음악회 등의 문화활동, 등산, 골프, 낚시 등의 운동을 포함하는 취미·문화·운동형, ③ 가족, 친구, 이웃과의 만남이나 방문,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참여 등의 우인교류형, ④ 교양 강좌 수강 등의 학습활동, 교회, 사찰, 성당 등에서의 종교활동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을 포함하는 사회단체활동형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모선희, 2004).

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Kelly, 1996b; 장인협·최성재, 2003).

노년기의 여가활동 참여도를 여가활동 목적에 따른 여가활동 유형별로 비교하여 보면, 긴장해소활동은 노년기가 되면서 남녀 모두 참여도가 증가하는 반면 기분전환활동은 연령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발전적 활동은 남녀 모두 소폭 감소하며, 창의적 활동은 노년기가 되면서 성에 관계없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웃노인이나 친구들과의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토론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감각적 쾌락활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orden et al., 1976).

노년기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Kelly(1996b)는 연령 자체가 여가활동의 범위나 종류, 그리고 참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교육, 가족관계, 건강상태나 일상생활 동작 능력,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 등이 여가활동의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노년기의 여가활동 참여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노년기에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노후생활의 적응에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서병숙, 1994; 원영희, 2000; 모선희, 2004; 나향진, 2004).^{주5)}

주5)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직장동료관계, 가족관계 등의 위축된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 유지 또는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고독과 소외감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둘째, 여가활동을 통해서 무엇이든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마련하게 되므로, 무위상태에서 벗어나고 자기유용감과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됨. 셋째, 직장이나 가정에 대한 책임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발휘하지 못했던 자신의 잠재적 재능을 확인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됨. 넷째, 여가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또는 향상시킬 수 있게 됨. 다섯째, 후세대에 삶의 지혜와 문화를 전수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여섯째,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며, 사기(morale)와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 일곱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증진되어, 삶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지게 됨.

나. 사회단체 활동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경험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부분 선행적이고 이론적인 논의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도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연구(김동배, 1999)에 의하면, 현재 노인들의 경우 일을 위주로 생활해왔고 여가 시간은 곧 또 다른 일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간주해온 관계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인들이 문화, 봉사, 취미나 운동, 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이 노인들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60~1980년대까지의 군부독재시절에 사회단체의 결성과 활동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해왔던 사회적 분위기도 현재의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활동 패턴이 가정중심의 활동에서 가족외부 활동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고(김익기 외, 1999), 노인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볼 때, 앞으로 노인들의 사회단체 참여도는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 노인교육

노인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노인교육의 3가지 영역 중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노인들의 교육활동 참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인 자신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Knowles(1977)는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배우려는 욕구와 함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즉각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McClusky(1974)는 노인들이 교육에 참가하는 이유와 교육에 대한 욕구를 ① 노년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

는 욕구(coping need), ② 고독과 소외에서 벗어나 자신을 표현하려는 욕구(expressive need), ③ 타인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욕구(contributive need), ④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욕구(influence need), ⑤ 자아실현 등의 초월적 욕구(transcendence need)라고 하였다. 노인이 아무리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습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노인교육 참여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인들의 학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인지기능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노인의 인지기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노년기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하여 학습능력을 상실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김동배·권중돈, 1998). Cross(1979)는 노인들의 교육 참여를 방해하는 요인을 ① 학습경비, 교통편, 건강약화 등과 같은 노인 각자의 개인적 생활사정에 의해 야기되는 상황적 노인학습 장애요인, ② 노인 스스로 학습활동 그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공부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노인 개개인의 성향적 장애요인, 그리고 ③ 교육기관들이 노인교육의 필요성과 노인들의 노인교육에 대한 욕구를 무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제도적 장애요인에 의하여, 노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라. 자원봉사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는 자발성, 공공성 및 사회복지성, 무보수성, 지속성, 창조성, 일상성이라는 여섯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권중돈, 1998). 이러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의 특성에 더하여 노인 자원봉사 활동은 양방향성, 양면성, 치료성, 자조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동경볼룬티어센터, 1999; 김동배, 2000).^{주6)}

주6) 노인자원봉사의 활동의 특성은 첫째, 노인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를 행하는 측과 받는 측의 상하관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써 ‘받는 것’이며,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보람이나 즐거움으로 이어지므로 노인 자원봉사는 양방향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둘째, 일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입장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한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봉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자원봉사 참여의 효과, 자원봉사자 관리방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인 자원봉사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먼저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퇴직 등으로 인하여 상실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보충해주고, ② 자기 유용성을 확인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③ 노년기의 소외감과 고독을 경감하고, ④ 노후의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해주며, ⑤ 자아성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⑥ 지역사회 속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해줌으로써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 또는 확대시켜주며, ⑦ 신체 및 정신건강을 유지 또는 향상시켜주며, ⑧ 가족이나 후손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들로부터 존중받는 어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Rein & Salzman, 1995; Lawson, 1998; 김동배, 2000; 고양곤 외, 2003). 이러한 개인적 효과와 아울러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Kelly, 1992; 김동배, 2000; 박재간, 2002; 고양곤 외, 2003). 즉,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노인차별주의 의식의 약화, 유희 노인인력의 활용, 사회적 생산성 제고, 노인복지비용 절감 및 복지인력 부족 보완, 그리고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통합의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지닌다.

Haroontyan(1996)이 이러한 노인봉사조직의 결성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제고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의 교육수준, 건강 및 경제상태와 아울러 노인들의 성격적 특성 등이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옥희, 1994; 이금룡, 2001).

사를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서 봉사를 받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노인 자신이 봉사를 행할 수 있으므로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 셋째, 노년기에 타인을 돕거나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노인 봉사자는 신체 및 심리적으로 긍정적 보상을 받고 자신이 가진 심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치료적 특성을 지닌다. 넷째,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노인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문제해결을 돕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년기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조성(自助性)의 특성을 지님.

마. 정보화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정보란 ‘발신자 또는 수신자 사이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보화 사회는 산업사회 이후 정보의 가치가 높고 정보의 생산이 산업계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현재 노인세대들은 경제활동 기회의 제한, 빈곤, 정보화 교육기회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급속히 진행되는 정보지식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노년학 관련분야에서 노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한 정도로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노인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점차 노인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보활용능력, 정보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으며, 노인가구 세대의 컴퓨터 보급율과 인터넷 가입률은 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뒤지지 않으며 노인의 정보화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손연기, 2000). 이러한 노인들의 정보활용률은 노인계층 내에서도 정보화의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보활용률이 높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이 가능하고 교육정도가 높은 화이트 칼라 노인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김혜경, 2002). 그러나 아직은 노인들의 정보화 실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노인들의 정보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들이 좀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 2 절 국제 비교 및 한국 실태

1. 노인과 가족형태

현대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그 형태와 기능이 여러 면에서 대체되거나 축소되고 있다(권태환 외, 1995; 신용하·장경섭, 1996; 정창수 외, 1997; 안병철, 1997; 한남제, 1999). 이러한 가족의 변화는 대체로 산업화와 더불어 발견되는 핵가족

화, 소자녀화 등으로 대표되어 왔다. 또한 최근에는 독신가구, 무자녀가족 및 한 부모가족 등 산업화사회에서 비정형적이라 생각되던 가족형태가 출현함에 따라 가족의 형태와 기능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김승권 외 2000). 가족 형태와 기능의 심대한 변화 속에서도 가족은 그 성원들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역할을 하며, 원만하고 만족스런 가족생활을 이루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은 여전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에게 있어 가족의 중요성은 생애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발견되지만,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는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노년기는 신체노화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 증가, 퇴직에 따른 사회적 역할감소와 경제능력상실, 배우자 혹은 친지들과의 사별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축소, 그리고 이러한 신체적·사회적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소외감과 고독감 증대 등으로 인해 삶의 제 영역에서의 욕구(need)가 그 만큼 더 커지는 시기이다. 특히 노후 삶이 가족책임이라는 전통적 규범이 강하고, 가족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사회제도적 기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한국사회에서는 노년기의 가족형태와 관계는 노인들의 삶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 대한 가족의 중요성, 즉, 가족성원들에 의한 다양한 노인욕구충족과 더불어 가족성원의 욕구(need)에 대한 노인들의 충족 역할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예로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여성들에 대한 노부모의 손자녀 돌보기를 들 수 있다. 일상적인 삶에서 흔히 관찰되는 이 현상은 맞벌이 부부가 갖는 자녀돌보기에 대한 욕구를 이들의 노부모가 상당 부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적 여력이 있는 노부모들이 성인자녀들의 생활에 보탬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노인들은 가족성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쌍방향적인 지원관계는 물론 노인과 이들 가족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무게중심이 달라질 것이다. 이는 노인은 피부양적인 존재라는 인식에 얽매이지 말고, 노인들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도움을 함께 살피려는 노력이 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고찰에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노인들의 가족상황과 그 특성을 국제비교와 시계열적 추이를 통

해 살펴보면, 국제비교에서는 경제, 사회, 복지제도, 문화 등에서 차이가 많은 서구선진국보다는 노인부양에 대한 문화적 전통과 가족현실이 한국 사회와 유사한 인근 아시아 국가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에는 필리핀, 태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이 해당되며, 이들 국가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미국 미시건 대학의 인구연구소(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Michigan)와 현지 연구기관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여년 동안 간헐적이나 전국 규모의 노인심층조사를 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간 비교가 그러하듯이 노년기 가족관계의 비교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사회조사(survey)자료를 통한 국제비교에는 사회조사의 시기, 대상, 측정문항 등의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노년기 가족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는 국가간(혹은 사회조사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노인들의 가족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지표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노년기의 거주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2-2>는 199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4개국(필리핀, 태국, 타이완, 싱가포르)과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2-2> 60세 이상 노인 거주형태의 추이

(단위: %)

국가, 사회조사 및 연도	혼자 거주	배우자와 거주	자녀동거	기타
필리핀				
National Demographic Survey 1988	4.0	10.0	68.0	18.0
National Demographic Survey 1993	3.3	9.1	69.3	18.3
Elderly surveys 1984 (subnational)	2.0	3.0	74.0	21.0
Elderly surveys 1996	5.5	7.9	70.4	16.1
태국				
Elderly surveys 1986	4.3	6.7	76.2	12.8
Elderly surveys 1994	3.6	11.6	72.8	12.0
Elderly surveys 1995	4.3	11.9	70.9	12.9
타이완 (65세 이상)				
Survey of Income & Expenditures 1976		8.8	83.7	7.5
Survey of Income & Expenditures 1980		12.8	81.6	5.6
Survey of Income & Expenditures 1985			17.3	78.3
Elderly surveys 1989	10.2	12.6	70.7	6.6
Elderly surveys 1996	9.6	16.1	69.0	5.2
싱가포르				
Elderly surveys 1988	2.0	3.0	88.0	7.0
Elderly surveys 1995	3.3	5.9	85.0	5.8
한국				
Survey of the Aged Population 1984		22.6	76.2	1.2
Survey of Living Status of Elderly 1994		45.5	49.0	5.5

자료: 필리핀, 타이, 타이완, 싱가포르의 자료는 Knodel & Ofstedal (2002: 148), 한국의 자료는 Kim (1999: 37).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 시점, 조사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혼자 혹은 부부만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비슷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동아시아 유교문화를 공유하는 타이완과 비교해 볼 때, 한국 노인의 거주형태 변화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노인들에 집중하여 1980년대 이후부터의 거주형태 변화를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의 <표 2-3>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거주형태를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녀 없이 사는 비율은 많이 증가하는 한편, 기혼자녀와 사는 비율은 많이 감소하였다. 기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에 비해,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부모들이 아직 사회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혼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사는 경향은 강하게 남아있지만, 일단 결혼한 자녀들은 분가해 별개의 가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해짐을 의미한다.

남녀노인에 따라 거주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자녀 없이 사는 노인의 비율이 지난 20년 동안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노인독신가구 거주비율과 노인부부가구 거주비율을 살펴보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각 연도에 있어서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그러나 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비율은 여성노인보다는 남성노인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이라 할지라도 여성노인들은 홀로 사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사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거주지역별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1980년과 2000년 동안에 자녀 없이 사는 노인들의 비율은 도시보다는 농어촌에서 항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농어촌노인들의 성인자녀들이 교육이나 직장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어촌에 노부모들만 남게 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자녀 없이 사는 노인비율이 유배우자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이는 무배우자에 비해 유배우자들이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능력이 많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별거하면서 부부가구에 거주하던 노인들이 자신의 배우자를 잃고 난 후에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무배우자들의 자녀별거 비율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노년기 거주형태에 대한 이상의 국가간 비교와 시계열적 추이를 통해 볼 때, 현재 한국노인들의 가족형태와 가족관계는 심대한 변화를 경험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65세 이상 노인들의 성, 혼인상태 및 거주지역별 가구형태(1980~2000)
(단위: %)

구분	전체	성		혼인상태		지역	
		남성	여성	무배우	유배우	도시	농어촌
1980년							
자녀없이 사는 비율	19.5	22.8	17.6	13.1	27.3	15.2	22.2
일인가구 거주비율	4.8	1.5	6.8	8.1	0.9	3.3	5.8
부부가구 거주비율	10.1	18.0	5.4	-	22.0	6.5	12.3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61.7	48.2	69.6	74.3	46.3	63.5	60.5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8.8	29.0	12.8	12.6	26.3	21.3	17.3
1990년							
자녀없이 사는 비율	31.8	38.4	27.9	22.5	41.9	24.2	40.5
일인가구 거주비율	9.5	3.5	13.1	17.3	1.1	7.0	12.4
부부가구 거주비율	17.5	30.9	9.6	-	36.5	12.3	23.6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51.5	38.5	59.2	65.0	36.8	56.7	45.6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6.7	23.1	12.9	12.5	21.3	19.1	13.9
2000년							
자녀없이 사는 비율	50.9	58.1	46.6	39.0	61.9	42.5	62.6
일인가구 거주비율	16.8	5.9	23.5	33.7	1.4	13.8	21.0
부부가구 거주비율	29.2	47.5	18.0	-	55.8	23.5	37.1
기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35.7	24.3	42.7	50.6	22.0	41.0	28.3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	13.4	17.6	10.8	10.4	16.1	16.5	9.1

자료출처: 김정석(2002: 268-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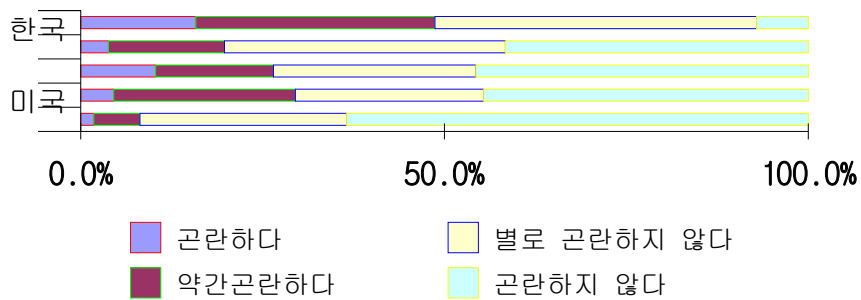
2. 노인과 경제상태

다음은 외국과 우리나라 노인 소득원 구성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원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노인 소득원 구성에 대한 조사 자료는 일본의 총무청장관 관방고령사회대책실 주관으로 1980년부터 매 5년마다 주요국의 노인생활실태를 조사한 자료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조사는 2000년으로 일본, 한국, 미국, 독일, 스웨덴 등 5개국의 60세 이상 노인 1,000명씩을 대상으로 동일설문지로 조사한 결과이다.

노인의 주관적 생활곤란감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의 경우 곤란하다는 15.8%,

약간 곤란하다는 32.8%로 무려 48.6%가 노후의 경제적 생활이 곤란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조사대상 5개국 중 한국이 가장 노후의 경제적 생활곤란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일은 ‘곤란하다’ 및 ‘약간 곤란하다’고 응답한 노인은 총 8.1%에 그치고 있으며, 곤란하지 않다고 응답한 노인이 절반을 훨씬 넘는 63%에 이르고 있어 가장 풍족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 노인(60세 이상)의 생활 곤란 인식 국제비교(1995)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 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 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또한 노인의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 활동기에 저축 등을 통하여 스스로 노후생활에 대비하겠다는 자립형은 미국이 6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가족의존형은 대만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사회보장의존형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높은 59.3%로 나타났다. 보다 흥미로운 것은 1980년과 1995년의 조사결과가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각 국가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추이의 특징은 가족의존형이 감소하는 반면, 사회보장의존형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에는 노후 생활비 조달을 가족에 의존하겠다는

가족의존형이 가장 높은 49.4%를 보였으나, 1995년 조사당시에는 동비율이 28.2%로 대폭 감소하는 대신 사회보장을 통하여 노후생활비를 조달하겠다는 사회보장의존형이 1980년의 8.2%에서 1995년에는 29.2%로 대폭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의식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노후생활비 조달 의식의 국제적 추이비교(1980~1995)

(단위: %)

소득원	한 국		일 본		대 만		미 국		독 일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80	1995	1990	1995
자립형(근로기에 준비)	40.3	41.9	55.0	46.6	24.7	41.2	60.7	62.1	45.2	32.2
가족의존형	49.4	28.2	18.8	12.8	61.4	41.9	0.6	0.8	6.0	3.8
사회보장의존형	8.2	29.2	21.8	37.7	10.6	16.1	29.1	25.7	45.6	59.3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 관방고령사회대책실,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1997, 중앙법규. 재구성

한편, 노인의 소득원 구성이 각 국가에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대만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을 주소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45.4%(2000), 56.5%(199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전형적인 사적이전소득 의존형 국가군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반면, 스웨덴을 비롯하여 독일, 일본, 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소득이전이 주요한 소득원이라고 답한 노인이 각각 80.1%, 75.8%, 67.5%,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국가에서는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적연금은 5.9%, 공공부조 5.0%로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10.9%로 나타났는데, 공공부조의 의존도는 여타국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의 경우, 사적연금을 주소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13.3%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여타 복지영역에서도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미국이 노후소득보장에서도 기업 등 시장이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소득을 노후의 주소소득원으로 답한 노인이 한국, 일본, 대만에서는 비교적 높은 21~28%로 나타난 반면, 미국은 13.9%, 스웨덴 11.8%, 독일은 훨씬 낮은 7.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노인(60세 이상)의 주소득원 국제비교(1980~2000)

(단위: %)

소득원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스웨덴			
	1980	1995	2000	1980	1995	2000	1980	1995	1980	1995	2000	1995	2000	2000			
근로소득	16.2	26.6	28.1	31.3	21.6	20.8	29.9	26.9	15.2	15.5	13.9	4.6	7.1	11.8			
자산소득	소계			5.5	9.9	15.8	11.2	6.6	5.5	6.7	8.8	26.2	23.3	24.3	13.7	12.3	3.1
	재산소득	3.3	4.5	5.6	5.3	2.5	2.3	3.8	4.8	14.5	8.5	7.0	2.0	1.9	0.6		
	예금인출	2.2	4.9	9.6	2.1	2.4	1.6	1.7	1.9	1.7	1.5	0.9	1.6	1.3	0.6		
	사적연금	0.0	0.5	0.6	3.8	1.7	1.6	0.2	2.1	10.0	13.3	16.4	10.1	9.1	1.9		
사적이전	소계			75.6	56.6	45.4	18.7	6.6	6.1	61.6	56.5	3.8	1.6	3.2	1.9	3.3	2.2
	자녀지원	72.4	56.3	43.2	15.6	4.2	3.4	58.2	52.9	0.3	0.0	0.1	0.2	0.2	0.0		
	기타	3.2	0.3	2.2	3.1	2.4	1.7	3.4	3.6	3.5	1.6	3.1	1.7	3.1	2.2		
공적이전	소계			2.0	6.6	10.9	36.1	57.4	68.4	2.3	7.6	54.6	55.8	57.1	77.6	77.3	83.0
	공적연금	0.8	2.9	5.9	34.9	57.1	67.5	2.2	7.3	53.9	55.5	56.6	77.0	75.8	80.1		
	공공부조	1.2	3.7	5.0	1.2	0.3	0.9	0.1	0.3	0.7	0.3	0.5	0.6	1.5	2.9		

자료: 일본 총무청장관 관방고령사회대책실(1997),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 제4회 국제비교조사결과 보고서, 중앙법규, 일본 내각부(2002), 고령자의 생활과 의식-제5회국제비교조사결과보고서에서 필자가 재구성.

또한, 노인의 주소득원의 변화추이에서, 각 국가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는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1980년 조사당시 사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가 75.6%에 달하였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56.6%로 약 20% 포인트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45.3%로 5년동안 약 10% 포인트를 넘는 감소를 보였다. 반면 한국에서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주소득원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10.9%로 여전히 절대비중은 낮으나 1980년의 2.0%에 비하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노후 생활비 조달방안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 현상으로, 실제 노인의 경제적 부양의 책임이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노인과 건강상태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로,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특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성질환의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가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OECD는 고령화와 관련한 사회정책으로 크게 ① 노령 근로자의 취업과 소득보장 제반 연구, ② 사적연금의 법규화 및 모니터링, ③ 장기요양 보호등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장기요양보호의 경우 OECD의 입장은 시설의 도움보다는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요양시설의 경우 정부에 재정부담이 크고 또한 유럽의 경우 질병 발생시 개인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에만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족과 친척이 노인 부양의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노인 보호는 각 가정에서 책임을 지는 방식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노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 식사제공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고 이러한 서비스는 각 지방정부의 의무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증노인에 대한 집중보호는 정부의 보조와 질적 관리 하에서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의 지원이 적은 국가일수록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근 OECD에서 회원국들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2000년을 기준으로 노인요양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영국, 독일 순으로 나타났다(Huber, 2005).

OECD에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각 나라들의 재정, 서비스전달체계, 급여내용과 대상 등에 있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Huber, 2005). 많은 국가들이 현재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공적부문의 비율이 낮지만 이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부분의 경우 가족은 여전히 노인부양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노인요양보장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비공식적 부양의 효과 또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고령화 시대의 복기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관련된 국가간 비교 분석에서 흥미로운 결과 가운데 하나는 후기고령인구의 비율과 재정규모는 상관관계가 별로 없으며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각 국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OECD 회원국들의 경우 공적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노르웨이, 스웨덴)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유형의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최근 스웨덴과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개인의 부양부담을 감소하는 추세이며, 스웨덴의 경우는 보편적인 제도를 유지하되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 제 2차 세계노인대회를 맞이하여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라는 정책 기틀을 발표하였다. ‘활기찬 노후’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신체적 건강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참여를 통해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적인 정책 기준이다.

‘활기찬 노후’란 구체적으로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강, 참여, 안전을 위한 기회를 최대화하는 과정을 말하며, 노인들이 그들의 욕구에 따라 사회에 참여하며 생애주기를 통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안녕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활기찬 노후 접근법은 노인의 인권과 UN의 노인의 5가지 원칙-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과 존엄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정책이 노인의 욕구 중심의 전략에서 노인의 권리를 기본으로 하는 전략으로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활기찬 노후’는 문화적 가치와 전통, 성(Gender), 경제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 건강과 사회서비스, 사회적 요인, 신체적 조건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통해 참여, 건강, 안전이라는 세 분야에 정책 기틀을 세웠다. 노인의 건강을 위한 정책 기틀은 삶의 질을 위하여 질병의 예방과 효과적인 치료, 노인 친화적인 환경, 사회적 지지, 건강한 식사, 영양, 신체 활동,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노인의 수발자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노인의 참여를 위한 정책 기틀은 기초교육과 평생교육, 노동시장에의 참여, 빈곤 탈피와 자원봉사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노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의 안전을 위한 정책 기틀은 사회안전망, 컴퓨터가 제공되어야 하며 노인 학대, 특히 여성노인에 대한 차별의 근절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의 노인정책 수립에 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후생활’ 정책 기틀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성노인의 건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정책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평균 수명이 6~8년 길지만, 많은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에 비해 신체 기능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제한이 없는 ‘건강한 삶의 여명(Healthy Life Expectancy)’ 개념을 사용하여 단순한 장수의 개념보다 건강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요소들을 찾고 여성에게 교육과 적절한 음식 제공, 깨끗한 식수 제공과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시도하며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성 인지적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주7)}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만성질환노인 증가 등으로 노인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현행과 같은 복지와 의료의 분립체제 하에서는 노인의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복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7) HelpAge International은 1983년 설립 이후 세계39개국에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 제안,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임. HelpAge에서는 노인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이며,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생애 주기를 통한 차별과 불이익이 노년이 되면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고령화 시대의 노인정책은 반드시 성 인지적 인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01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5년 2월 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제도실시모형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는 실행위원회 최종 건의안을 토대로 제도시안을 마련하였으며(2005. 3), 현재 노인요양(수발)보장법 제정 입법절차를 추진 중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하여 2005~2007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차년도(2005.7~2006.3)는 6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평가관정 및 수가체계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차년도(2006.4~2007.6)는 1차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노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 및 서비스 대상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2002.10)에 의거하여 2011년 요양수요 완전 달성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요양보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인력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노인부양에 있어서 공적 서비스의 이용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과 함께 살면서 전적으로 가족의 부양을 받는 경우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가족부양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가족 부양과 공적 부양을 함께 받는 경우 및 가족의 부양을 전혀 받지 않고 공적 부양에만 의존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부양체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노인의 요양보호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사적 영역 또는 공적 영역에서 주된 역할을 수행할 인적 자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지원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분석모형 개발

1. 노인과 가족형태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노년기 가족관계에서 주요한 주제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항목에 집중하기로 한다. <표 2-6>은 본 연구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인가족관계의 영역, 분석내용 및 항목구성방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자녀 별거에 대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모형을 설정하면서도 분석모형에 동원된 변수들의 영향력과 그 방향에 주의하기로 한다.

<표 2-6> 노인가족관계 영역구분과 주요내용

가족영역	세대관계 분석내용	항목구성
형태	거주형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구유형구분: 노인독신가구, 노인 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기능	세대간 지원: 지원교환의 유형	경제, 도구, 정서 영역에서의 세대간 지원유무에 근거한 교환유형구분: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 일방적 수급형, 상호교환형
가치/태도	세대관계에 대한 전통적 태도	기혼자녀와 노부모의 동거, 가족 및 자녀의 노후부양 책임, 세대관계의 비물질성의 합계점수: 0~3점으로 구성되며 높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를 보임.
	자녀관계 만족도	자녀관계 만족도에 대한 5점 척도 단일항목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세대간 지원교환을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 일방적 수급형, 상호교환형으로 설정한다.주8) 우선, 자료에 제시된 지원교환의 항목들-경제적 지원, 간병/수발, 손자녀돌보기, 집안청소/세탁/식사준비, 시장보기, 교통편의, 걱정거리나 문제점 등 상담-을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지원대상자의 욕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분석은 유의미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

주8) 이상의 유형과 구분기준 및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은 김정석과 김익기(2000)를 참조하기 바람.

공자와 부제공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주수혜자와 부수혜자를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주제공자이든 부제공자이든 자녀가 지원을 하였으면 자녀로부터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노인들의 지원을 받았으면 주수혜자, 부수혜자에 관계없이 자녀로 지원을 준 것으로 처리한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지원은 지원의 존재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간 지원교환은 지원의 존재여부 뿐만 아니라 교환되는 지원의 양과 정도에 따라 보다 세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 교환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세대간에 교환되는 지원의 종류가 생애주기를 통해 변하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기란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서도 지원의 양과 정도는 측정되고 있지 않아, 지원의 존재여부만을 이용하기로 한다.

세대간 지원교환도 거주형태와 마찬가지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회조사가 노인(혹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은 주로 노인(혹은 자녀)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본 논문 또한 이러한 한계를 가지며, 노인들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자원에 따라 지원교환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와 지원을 서로 주고받든지(상호교환형), 자녀에 대한 지원 없이 자녀의 도움을 받고 있다(일방적 수급형).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세대간 지원교환으로 구분하지만, 논의의 초점은 상호교환형과 일방적 수급형의 비교에 두기로 한다.

세대간 관계에 대한 노인들의 가치 및 태도에서는 세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과 함께 노인자신들의 자녀관계에 대한 평가를 다루기로 한다. 세대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태도를 통해 살펴보는데, 이 태도는 세대관계에 관련된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의 합으로 구성된다. 첫 항목은 기혼자녀가 노부모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가로 그에 대한 동의여부로 측정되어 있다. 둘째 항목은 노후의 생활비 마련에 관한 것으로, 개인, 가족과 자녀, 사회라는 복수 응답자 중에서 가족과 자녀를 선택한 경우로 측정된다. 셋째 항목은 부모가 대접을 받으려면 재산이 있어야 하는가로, 여기에 부정적인 응답이 전통적이라고 간주된다. 이상의 세 가지 항목은 각각 세대간 동거, 자녀

의 노부모부양, 세대간의 비물질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이들 각각에 대한 동의여부의 총합으로 구성되며, 모두 동의하였을 경우 3점이 부여된다. 노인들의 자녀관계에 대한 평가는 자녀관계에 대한 5점 척도의 만족도를 이용하기로 한다.

노후가족관계에 대한 일반적 태도 이외에 노인 개인의 자녀관계에 대한 평가도 분석대상이 되고 있다. 노인 자신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노인의 경제, 건강상태와 더불어 자신들의 개별적인 자녀관계(예컨대, 친밀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어진 자료에서 이에 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세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관계를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접근하면서 노인들의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차이를 기술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노인들의 세대간 거주형태, 지원교환 유형,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 및 자녀만족도 평가에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은 대체로 자원변수와 그 이외의 변수로 구분가능하다. 자원변수는 현재 노인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뜻하는 것으로 인구학적 자원, 경제적 자원, 건강 등으로 구성된다. 인구학적 자원은 배우자 유무, 자녀수, 아들 유무로 이루어진다. 경제적 자원은 개인 단위의 소득원천을 중심으로 접근하며, 주요 소득원천인 근로소득, 재산 및 금융소득, 공적 및 사적연금, 경로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유무로 측정한다.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의 제한 여부로 측정한다. 이상의 자원변수 이외에 고려된 노인들의 특성은 가구형태,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등이 있다. 이들 변수들은 분석항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모형에 포함된다.

세대관계 분석내용에 따라 이용되는 통계기법, 유효사례 및 구분변수(가구형태, 성 및 거주지역) 등이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우선 구분변수에 따른 기술적 통계분석으로 시작된다. 이를 이어, 해당 주제의 전체 사례들을 대상으로 한 다원모형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모형에는 구분변수와 함께 다른 설명변수들이 독립변수로 설정된다. 이 같은 분석은 다른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구분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의도를 가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구분변수에 따라 사례들을 분리한 후, 분리된 사례 각각에 대해 다원모형분석을 실시

한다. 앞단계에서 실시한 다원모형분석이 구분변수의 영향력을 찾으려는 것이라면, 마지막 단계의 다원모형분석은 분리된 집단 내에서의 차이를 찾는 것이다.

<표 2-7>은 분석내용별 비교집단, 통계모형 및 통계기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주형태에서의 구분변수는 배우자 유무, 성, 및 거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배우자 유무는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의 필요조건이 된다. 따라서 다른 분석내용에서와는 달리 노인들의 거주형태에서는 배우자 유무를 구분변수로 설정한다. 한편, 배우자 유무별 거주형태 접근은 분석을 보다 단순화한다는 장점도 가진다.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 중 유배우 노인들은 노인부부가구에, 무배우 노인들은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별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대한 분석을 뜻하게 된다. 자녀동거 여부를 통한 거주형태 분석에서는 이항로지모형이 이용된다.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분석에서 구분변수는 가구형태, 성 및 거주지역이 된다. 지원교환의 유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 일방적 수급형, 상호교환형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무교환형과 일방적 제공형은 세대간의 관계에서 다른 함의를 가질 것이나, 이를 통합하기로 한다. 이는 일방적 제공형에 속하는 사례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분석의 단순명료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한 범주를 축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원통계모형에서 지원교환의 유형을 무교환형(일방적 제공형 포함), 일방적 수급형, 상호교환형으로 축소하고, 상호교환형에 대비해 무교환형과 일방적 수급형이 나올 가능성을 다항로지모형을 통해 추정한다.

세대관계에 대한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 만족도 분석에서의 구분변수 또한 가구형태, 성 및 거주지역이 된다. 전통적 태도는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세 개 항목(기혼자녀의 노부모 동거, 노후부양의 가족 및 자녀책임, 세대관계의 비물질성)에 근거하여 0점에서 3점까지의 점수를 가진 변수로 측정된다. 또한 자녀관계 만족도는 주어진 자료에 있는 그대로 1점부터 5점까지의 점수를 가진 변수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다원모형분석을 위해서는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노인의 세대관계분석은 자녀가 있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가 없는 노인의 경우 자녀와의 동거, 세대간 지원교환, 자녀관계에 대한 평가 등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전체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2,851명의 노인사례 중에서 미혼노인과 자녀가 없는 노인(65명)을 제외한 2,786명을 분석대상으로 정한다.주9)

〈표 2-7〉 분석내용별 비교집단, 통계모형과 통계기법

세대관계 분석내용	비교집단(구분변수)	통계모형	통계기법
거주형태: 자녀와의 동거여부	무배우/유배우 여성/남성 농어촌/도시	1. 자녀동거=f(배우자유무,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아들유무, 소득, 기능상태 제한여부) 2. 구분변수별 자녀동거 모형	이항로짓
세대간 지원: 지원교환의 유형	노인독신/부부/자녀동거 여성/남성 농어촌/도시	1. 지원교환유형=f(가구형태,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수, 아들유무, 소득, 기능상태 제한여부) 2. 구분변수별 지원교환유형 모형	다항로짓
세대관계에 대한 전통적 태도		1. 전통적 태도=f(가구형태,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수, 아들유무, 소득, 기능상태 제한여부) 2. 구분변수별 전통적태도 모형	회귀분석
자녀관계 만족도		1. 자녀관계만족도=f(가구형태,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수, 아들유무, 소득, 기능상태 제한여부) 2. 구분변수별 자원관계만족도모형	

2. 노인과 경제상태

본 연구는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인 중에서도 특히 삶의 질이 취약한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모형 구성의 대원칙은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기 위하여 우리의 표적 분석대상을 그 비교집단과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여성노인, 농

주9) 분석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결측치가 발생하므로 전체 유효사례수는 다소 감소될 수 있음을 밝혀둠.

어촌노인, 독거노인 등 각각의 취약한 노인의 소득특성을 각각의 비교집단 노인의 소득특성과 비교함으로써, 취약한 노인의 소득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고자 하였다. 즉,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인 노인부부가구 노인 및 자녀동거가구 노인에 비해 어떠한 소득특성을 갖는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어떠한 소득특성을 갖는지,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어떠한 소득특성을 갖는지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소득은 노인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의 가처분소득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노인가구의 소득이 아니라 개별 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노인의 소득특성과 관련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소득원별 소득유무에 대한 질문이다. 해당 소득원을 가진 노인들, 혹은 해당 소득원의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들이 각각 얼마나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과 달리 특정 소득원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은퇴가 보편화된 연령계층이므로 근로소득도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 집단별로 특정 소득원의 유무 비율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 자체가 노인 소득의 집단별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둘째, 노인의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소득원별 구성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다. 노인들은 소득원별로 소득이 아예 없는 노인이 상당수 존재한다. 우리는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인가 하는 점도 궁금하고, 소득원별로 소득이 아예 없는 노인들을 모두 포함하였을 때의 노인들의 소득원별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도 궁금하다. 전자는 소득원이 있는 경우의 해당 소득원을 통한 노인들의 평균 혹은 중위소득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후자는 전체 노인의 해당 소득원의 평균 혹은 중위소득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득수준은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양 기준의 측면에서 모두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 집단특성별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 차이가 주는 의미를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노인이 어떠한 소득계층의 가구에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노인생활실태 조사자료는 노인의 대표성 있는 표본

지만, 조사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대적 소득분위를 분석하지 않고, 가구규모별 빈곤선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사용하여 어떤 소득계층에 분포하는지를 분석코자 하였다(표 2-8 참조). 노인이 소속된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원 규모별 빈곤선을 적용하여 빈곤선의 100% 이하, 빈곤선의 120% 이하, 빈곤선의 150% 이하, 빈곤선의 180% 이하, 빈곤선의 200% 이하, 빈곤선의 300% 이하, 빈곤선의 300% 이상 등의 7개 구간으로 나누어 노인 소속가구의 소득계층을 분석하였다(표 2-9 참조). 이를 통해 노인의 집단특성별로 노인소속가구의 소득계층의 분포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표 2-8〉 가구규모별 소득기준액(2004년)

(단위: 원)

소득계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빈곤선 100%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빈곤선 120%	441,871	731,810	1,006,556	1,266,108	1,439,564	1,624,416
빈곤선 150%	552,339	914,763	1,258,196	1,582,635	1,799,455	2,030,520
빈곤선 180%	662,806	1,097,716	1,509,834	1,899,162	2,159,346	2,436,624
빈곤선 200%	736,452	1,219,684	1,677,594	2,110,180	2,399,274	2,707,360
빈곤선 300%	1,104,678	1,829,526	2,516,391	3,165,270	3,598,911	4,061,040

〈표 2-9〉 노인소속가구의 가구규모별 소득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전체
빈곤선 100%	62.4(62.4)	38.4(38.4)	26.4(26.4)	19.1(19.1)	13.3(13.3)	7.1(7.1)	37.3(37.3)
빈곤선 120%	11.8(74.2)	13.6(52.0)	5.2(31.6)	5.2(24.2)	5.8(19.1)	3.8(10.9)	10.4(47.7)
빈곤선 150%	7.2(81.4)	10.9(63.0)	10.7(42.3)	8.8(33.0)	12.0(31.1)	14.2(25.1)	10.2(57.9)
빈곤선 180%	7.2(88.6)	6.4(69.4)	6.4(48.8)	11.9(44.9)	13.8(44.9)	10.9(36.1)	7.9(65.7)
빈곤선 200%	2.6(91.4)	5.1(74.4)	9.8(58.6)	9.8(54.6)	5.8(50.7)	8.2(44.3)	5.6(71.3)
빈곤선 300%	3.8(94.9)	11.1(85.5)	19.3(77.9)	27.8(82.5)	26.7(77.3)	22.4(66.7)	13.5(84.8)
빈곤선 300% 이상	5.1(100.0)	14.5(100.0)	22.1(100.0)	17.5(100.0)	22.7(100.0)	33.3(100.0)	15.2(100.0)
(대상자수)	(667)	(1,207)	(326)	(194)	(225)	(183)	(2,802)

주: () 밖의 값은 소득구간의 구성 비율, () 내 값은 누적 구성비율임.

넷째, 노인의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다회귀분석 모형 설정에 참고하였다(표 2-10 참조).

〈표 2-10〉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구분	총수입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공적연금	공적부조	사적이전	1인당 가구소득	취업	성	만연령
총수입	1.000										
근로소득	0.573**	1.000									
자산소득	0.577**	0.027	1.000								
공적이전	0.424**	-0.028	0.018	1.000							
공적연금	0.441**	-0.005	0.028	0.971**	1.000						
공적부조	-0.070**	-0.095**	-0.059**	0.148**	-0.068**	1.000					
사적이전	0.111**	-0.119**	-0.042*	-0.110**	-0.071**	-0.175**	1.000				
1인당 가구소득	0.458**	0.240**	0.320**	0.185**	0.226**	-0.178**	0.183**	1.000			
취업여부	0.007	0.183**	-0.080**	-0.057**	-0.042**	-0.080**	-0.106**	-0.105**	1.000		
성	-0.351**	-0.312**	-0.161**	-0.206**	-0.222**	0.115**	0.068**	-0.074**	-0.098**	1.000	
만연령	-0.171**	-0.237**	-0.006	-0.046*	-0.083**	0.136**	0.022	-0.098**	-0.117**	0.104**	1.000
교육기간	0.423**	0.221**	0.233**	0.311**	0.343**	-0.126**	0.092**	0.333**	-0.068**	-0.471**	-0.307**
가구주	0.293**	0.225**	0.140**	0.190**	0.152**	0.170**	-0.015	-0.266**	0.082**	-0.439**	-0.027
지역	-0.097**	0.016	-0.098**	-0.068**	-0.066*	-0.021	-0.066**	-0.173**	0.283**	0.016	0.022
독거노인	-0.055**	-0.104**	-0.021	0.008	-0.058**	0.310**	0.069**	-0.300**	-0.041*	0.302**	0.137**
노인부부	0.139**	0.118**	0.091**	0.074**	0.098**	-0.109**	-0.043*	-0.087**	0.109**	-0.338**	-0.165**
자녀동거	-0.090**	-0.028	-0.073**	-0.081**	-0.048*	-0.160**	-0.017	0.348**	-0.073**	-0.075	0.046*
유배우	0.169**	0.186**	0.076**	0.081**	0.123**	-0.202**	-0.052**	0.091**	0.113**	-0.526**	-0.299**
이혼	-0.011	-0.019	-0.007	0.020	-0.010	0.139**	-0.024	-0.036	-0.041*	0.007	-0.050**
사별	-0.168**	-0.176**	-0.074**	-0.100**	-0.129**	0.143*	0.064**	-0.078**	-0.095**	0.524**	0.317**
미혼	0.039*	-0.024	0.022	0.101**	0.089**	0.069**	-0.017	0.006	-0.028	0.038*	-0.016
자녀수	-0.087**	-0.048*	-0.055**	-0.125**	-0.071**	-0.263**	0.131**	-0.032	0.107**	0.033	0.162**
주관적 건강상태	0.234**	0.191**	0.126**	0.079**	0.116**	-0.165**	0.030	0.197**	0.062**	-0.240**	-0.032

<표 2-10> 계속

구분	교육 기간	가구주	지역	독거 노인	노인 부부	자녀 동거	유배우	이혼	사별	미혼	자녀수	주관 건강 상태
총수입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												
공적연금												
공적부조												
사적이전												
1인당 가구소득												
취업여부												
성 만연령												
교육기간	1.000											
가구주	0.191**	1.000										
지역	-0.196**	0.046*	1.000									
독거노인	-0.230**	0.508**	0.045*	1.000								
노인부부	0.255**	0.090**	0.084**	-0.433**	1.000							
자녀동거	-0.054**	-0.532**	-0.123**	-0.438**	-0.621**	1.000						
유배우	0.389**	-0.057**	0.012	-0.616**	0.681**	-0.144**	1.000					
이혼	0.037	0.083**	-0.017	0.174**	-0.102**	-0.050**	-0.150**	1.000				
사별	-0.415**	0.022	-0.001	0.544**	-0.642**	0.167**	-0.942**	-0.107**	1.000			
미혼	0.095**	0.027	-0.044*	0.078**	-0.050**	-0.018	-0.073**	-0.008	-0.052**	1.000		
자녀수	-0.190**	-0.136**	0.172**	-0.127**	0.037*	0.073**	0.052**	-0.134**	0.017	-0.142**	1.000	
주관적 건강상태	0.257**	0.099**	-0.061**	-0.109**	0.067**	0.028	0.114**	0.014	-0.115**	-0.015	-0.025	1.000

다섯째, 노인의 총소득, 소득원별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표 2-11 참조).

〈표 2-11〉 노인 소득수준 영향요인 중다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총소득	log 총소득	
	근로소득	log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자산소득	log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공적이전소득	log 공적연금 + 기타사회보험급여 + 경로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참전명예수당	
	공적연금	log 공적연금	
	공공부조	log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경로연금	
	사적이전소득	log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매우 좋다=5, 약간 좋다=4, 보통이다=3, 약간 나쁘다=2, 매우 나쁘다=1	
독립변수	노인의 인적특성	성더미	여성=1 (남성 기준)
		지역더미	농어촌=1 (도시 기준)
		연령	만연령
		교육기간	교육연수 (문맹=0, 글해독=1, 초등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5, 약간 좋다=4, 보통이다=3, 약간 나쁘다=2, 매우 나쁘다=1)
		취업여부 더미	근로소득 유=1
	노인의 가구특성	결혼상태 더미	무배우=1 (유배우 기준)
		가구형태	독거노인=1 (자녀동거기준) 노인부부=1 (자녀동거기준)
자녀수		자녀수	
1인당 가구소득		log 가구소득/가구원수 ¹	
	가구주여부 더미	가구주=1	

종속변수는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공공부조, 사적이전소득, 주관적 경제상태, 노인 삶의 질 만족도를 각각의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는 성, 지역, 연령, 교육기간, 건강상태, 취업여부, 결혼상태, 가구형태, 자녀수, 1인당가구소득, 가구주여부가 투입되어 영향력 유무 및 그 정도가 분석되었다. 단 근로소득을 종속변수로 할 때에는 취업여부 변수가 제외되었다. 또한 전체노인집단이 아니라 노인집단별로 영향요인을 비교하는 분석에서는 각

노인집단특성을 규정하는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독립변수가 투입되었다. 예컨대, 독거노인 등 가구형태별 비교분석에서는 가구형태 변수, 결혼상태 변수, 가구주 변수가 제외되었으며, 여성노인 등 성별 비교분석에서는 성 변수가 제외되었고, 농어촌노인 등 지역별 비교분석에서는 지역 변수가 제외되었다.

여섯째,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는 근로소득 유무, 자산소득 유무, 공적이전소득 유무, 공적연금 유무, 공공부조 유무, 사적이전소득 유무이며, 독립변수는 취업유무(=근로소득 유무)를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앞의 중다회귀분석모형과 동일하다.

〈표 2-12〉 노인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 변수의 정의 및 측정

변수명	변수값
종속변수	근로소득 if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 0, =1 if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 0, =0
	자산소득 if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 0, =1 if 재산소득 + 금융소득 + 개인연금 = 0, =0
	공적이전소득 if 공적연금 + 기타사회보험급여 + 경로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참전명예수당 > 0, =1 if 공적연금 + 기타사회보험급여 + 경로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참전명예수당 = 0, =0
	공적연금 if 공적연금 > 0, =1 if 공적연금 = 0, =0
	공공부조 if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경로연금 > 0, =1 if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 경로연금 = 0, =0
	사적이전소득 if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소득 > 0, =1 if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 사회단체 보조금 + 기타 소득 = 0, =0

〈표 2-12〉 계속

변수명		변수값	
독립변수	노인의 인적특성	성더미	여성=1 (남성 기준)
		지역더미	농어촌=1 (도시 기준)
		연령	만연령
		교육기간	교육연수 (문맹=0, 글해독=1, 초등졸=6, 중졸=9, 고졸=12, 전문대졸=14, 대졸=16, 대학원졸=18)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좋다=5, 약간 좋다=4, 보통이다=3, 약간 나쁘다=2, 매우 나쁘다=1)
	노인의 가구특성	결혼상태더미	무배우=1 (유배우 기준)
		가구형태	독거노인=1 (자녀동거기준) 노인부부=1 (자녀동거기준)
		자녀수	자녀수
		1인당 가구소득	log 가구소득/가구원수 ^a
		가구주여부 더미	가구주=1

3. 노인과 건강상태

가. 연구 내용

첫째,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및 만성질환상태,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에 관한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다. 2004년 전국노인실태 조사에 포함된 노인의 기능상태 및 수발실태 관련 내용은 청력, 씹기, 시력능력, 요양욕구영역, 수발실태,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및 이용희망률, 그리고 장기요양 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등이다. 이러한 노인의 요양욕구를 성별, 거주지역, 가구형태에 따른 심층 분석하여 여성노인, 농어촌노인, 독거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이용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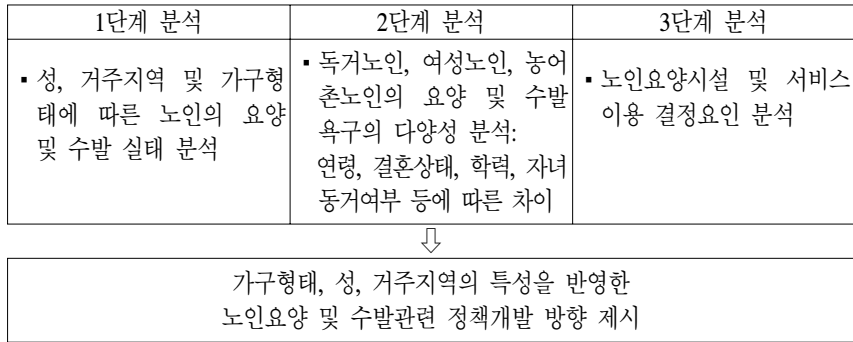
둘째, 노인의 집단간 차이를 반영한 독거노인을 위한 요양 및 수발관련 정책, 여성노인을 위한 요양 및 수발관련 정책, 농어촌노인을 위한 요양 및 수발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나. 연구방법 및 분석틀

첫째, 노인요양 및 수발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조사, 노인요양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조사 등의 문헌연구를 한다.

둘째, 2004년 전국노인실태조사 결과를 2차 분석하여, 노인요양 및 수발관련 내용에 대한 집단간 차이와 영향요인을 탐색한다.

[그림 2-2] 노인의 기능상태 및 요양욕구 분석모형



4.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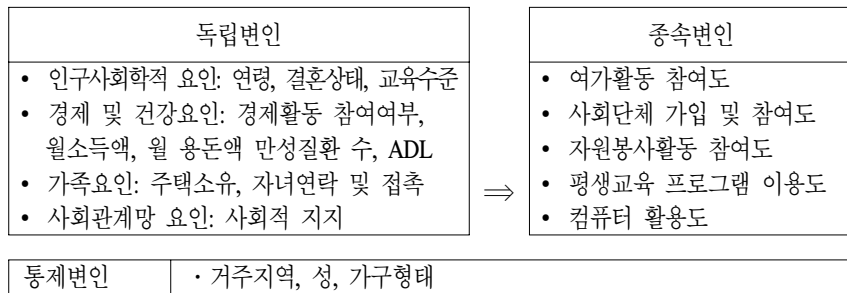
가.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노인, 여성노인,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하여 이들 노인집단의 여가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첫째, 농어촌노인, 여성노인,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사회단체 참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 참여, 정보화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이들 노인집단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욕구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이들 노인집단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 또는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이들 노인집단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모형

[그림 2-3]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도 분석모형



다.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자료에 대한 2차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농어촌노인, 여성노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SPSSWIN의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주로 활용할 것이며, 여가 및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고자 한다.

제 3 장 여성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 1 절 여성노인의 가족관계

1. 자녀동거여부

<표 3-1>은 노인의 성에 따라 노인의 가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2,786 사례 중 노인독신가구는 22.0%, 노인부부가구는 38.7%, 자녀동거가구는 39.3%로 노인독신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와 같이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자녀동거노인의 비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성에 따라 가구형태의 차이를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여성노인(31.9%)이 남성노인(6.7%)에 비하여 훨씬 높은 반면,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비율은 남성노인(58.9%)이 여성노인(25.9%)보다 더 높다.

<표 3-1> 성별 가구형태분포

구분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
노인독신가구	31.9	6.7	22.0
노인부부가구	25.6	58.9	38.7
자녀동거가구	42.5	34.4	39.3
계	100.0	100.0	100.0
(명)	(1,693)	(1,093)	(2,786)

자녀동거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3-2>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자녀수, 소득원천, 기능상태제한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들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거주지역, 아들유무, 소득원천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녀동거여부를 둘러싼 집단내 차이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성에 관계없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여성노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교육수준의 효과는 글을 모르는 여성노인에 비해 글을 해독하거나 초등학교를 다닌 여성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노인들의 자녀동거확률은 글을 모르는 여성노인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3-2〉 성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변수	여성		남성	
	b	exp(b)	b	exp(b)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466***	0.628	-0.769***	0.464
연령(65-69세 기준): 70-74세	-0.062	0.940	-0.163	0.850
75세 이상	-0.131	0.878	-0.307	0.736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246 *	1.279	0.343	1.409
초등학교	0.443***	1.558	-0.011	0.989
중고등학교	0.221	1.248	0.053	1.054
대학교	0.364	1.440	-0.560	0.571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1.094***	0.335	-0.266	0.767
자녀수	0.075**	1.078	0.065	1.067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0.261	0.770	0.691*	1.995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711***	0.491	-0.217	0.805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846***	0.429	-0.694***	0.499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692***	0.501	-0.156	0.856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845***	0.430	-0.785***	0.456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408***	1.504	0.069	1.072
상수	-0.102	0.903	-0.027	0.973

주: *= $p<0.1$, **= $p<0.05$, ***= $p<0.01$

남녀노인의 비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 중의 하나는 배우자 유무의 차별적 효과이다. 여성노인 중에서는 유배우 노인들이 무배우 노인들보다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즉,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이 자녀와 별거할 확률은 남편이 없는 여성노인들의 해당 확률보다 높다. 반면, 남성노인들내에서는 배우자 유무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여성노인들은 남편이 있는 한 대체로 자녀와의 동거를 원치 않거나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자녀수의 효과는 여성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역시 자녀가 많을수록 동거할 확률이 높다. 한편, 아들유무의 효과는 남성노인들에게서만 발견되고 있다.

소득원천의 성별 효과는 소득원천의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변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금융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이 있으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이는 다시 여성노인들의 유배우 효과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성노인의 소득은 남편을 통해 획득되기 때문이다. 한편,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여성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남성노인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남성노인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남성노인들에게서 자녀동거확률이 낮다.

배우자 유무와 더불어 흥미로운 성별 효과의 차이는 기능상태제한여부에서 발견된다. 여성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제한이 있으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들은 기능제한에 따른 자녀동거확률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여성노인들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제한은 자녀와의 동거로 이어지지만 남성노인들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뜻이 된다.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에게 기능상태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들은 자녀와 동거하기 보다는 별거하면서 아내에게 수발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반면, 여성노인들은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으면 자녀와 함께 살면서 수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세대간 지원교환

<표 3-3>은 노인의 성에 따라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대체로 남녀노인 모두에게서 가장 많은 유형은 상호교환형이며, 일방적 수급형, 무교환형, 일방적 제공형의 순서로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성노인들 중 상호교환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60.0%로 남성노인의 44.5%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는 남녀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의 종류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노인들은 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자녀들을 돕는데, 이러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들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반면, 여성노인들은 주로 가사나 손자녀 돌보기 등을 통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여성노인은 상당수에 이를 것이다.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남녀노인들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이와 같이 다르다면, 결국 여성노인에게서 상호교환형이 더 많이 발견될 것이다.

<표 3-3> 노인의 성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구분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
무교환형	5.0	9.5	6.8
일방적 제공형	1.4	3.7	2.3
일방적 수급형	33.6	42.3	37.0
상호교환형	60.0	44.5	53.9
계	100.0	100.0	100.0
(명)	(1,692)	(1,094)	(2,786)

노인가구형태와 더불어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에 중요한 변수는 노인들의 성이었다. 여기서는 남녀노인 각각에게서 세대간 지원교환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자. 다음의 <표 3-4>와 <표 3-5>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들을 분리하여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여성노인들의 경우를 <표 3-4>를 통해 먼저 살펴보면,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이 가구형태,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자녀수, 소득 등에 따라 차이를 알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에 비해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여성노인들은 자녀와 아무런 도움을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학교육을 받은 여성노인은 글을 모르는 여성노인에 비해 무교환형의 확률이 높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는,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이 남편이 없는 여성노인들보다 무교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여성노인의 자녀수가 많으면 무교환형의 확률은 낮아진다. 소득의 경우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여성노인들에게서 무교환형의 확률은 높다. 또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여성노인들에게서도 무교환형의 확률은 높다.

여성노인들중에서 일방적 수급형(vs. 상호교환형)에 속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으로 나타난다. 가구형태의 경우, 무교환형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와 별거하는 여성노인들에게서 일방적 수급형의 확률이 높다. 한편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일방적 수급형의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는 중간학력수준의 여성노인에게서 일방적 수급형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의 일방적 수급형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일수록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표 3-4〉 여성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노인독신	2.416 ***	11.204	2.321 ***	10.184	
	노인부부	1.619 ***	5.047	2.041 ***	7.698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124	0.883	0.201	1.222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15	1.015	0.335 **	1.397	
	75세 이상	0.062	1.064	0.642 ***	1.900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글자해독	0.028	1.028	-0.101	0.904	
	초등학교	-0.249	0.780	-0.416 **	0.660
	중고등학교	0.424	1.528	-0.066	0.936
	대학교	1.806 ***	6.086	-0.878	0.416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유배우	1.183 **	3.263	0.500 *	1.648	
자녀수	-0.152 **	0.859	0.023	1.024	
자녀성별(아들만 있음):딸만 있음	-0.163	0.849	0.336	1.400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있음	0.428	1.535	-0.139	0.871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있음	0.878 **	2.405	0.060	1.062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받음	0.515	1.673	-0.226	0.798	
경로연금/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수급	2.410 ***	11.130	0.283	1.328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있음	-0.182	0.834	0.382 ***	1.466	
상수	-4.191 ***		-2.661 ***		

주: *= $p<0.1$, **= $p<0.05$, ***= $p<0.01$

남성노인들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표 3-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무교환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성노인들에게서도 무교환형의 확률은 가구형태, 자녀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노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성노인들의 무교환형 확률 또한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에게서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또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남성노인에게는 무교환형의 확률이 높다.

남성노인들의 일방적 수급형(vs. 상호교환형) 확률 또한 무교환형의 그것과 비슷한 모습을 띤다. 여기에서도 가구형태, 자녀수, 소득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자녀수는 무교환형의 확률을 감소시키지만, 일방적 수급형의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에서도 무교환형의 분석에서와는 달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5> 남성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노인독신	1.859 ***	6.418	0.952 **	2.592
노인부부	1.014 ***	2.756	0.850 ***	2.339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163	0.850	-0.007	0.993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386	0.680	0.258	1.294
75세 이상	-0.131	0.877	0.152	1.164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글자해독	0.723	2.060	0.686	1.985
초등학교	-0.243	0.784	0.193	1.213
중고등학교	0.134	1.143	0.297	1.346
대학교	0.360	1.434	0.257	1.293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유배우	0.375	1.455	0.306	1.357
자녀수	-0.160 **	0.852	0.095 **	1.099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딸만 있음	-0.148	0.862	-0.374	0.688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304	1.355	-0.499 ***	0.607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있음	0.341	1.407	-0.044	0.957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199	1.220	-0.248	0.781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1.194 ***	3.300	0.694 **	2.001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21	0.886	-0.015	0.985
상수	-1.962 **		-1.441 ***	

주: *= $p<0.1$, **= $p<0.05$, ***= $p<0.01$

3.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만족도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남녀노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았다. <표 3-6>은 노인들의 성에 따라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0.62)들에게서 전통적 태도 점수가 약간 더 높은 한편, 자녀관계만족도 점수(3.72)는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노인의 성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단위: 점,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전통적 태도 (대상자수)	0.62 (1,693)	0.50 (1,093)	0.57 (2,786)
자녀관계 만족도 (대상자수)	3.72 (1,689)	3.80 (1,091)	3.75 (2,780)

주: 1) 전통적인 태도 점수는 3점 척도
 2) 자녀관계만족도 점수는 5점 척도

다음의 <표 3-7>은 노인의 성별로 전통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들내에서 전통적 태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변수들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여성노인들에서 전통적 태도는 가구형태, 거주지역, 연령, 배우자유무,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여성노인들 중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의 전통적 태도는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에 있어서는 고연령층일수록 전통적 태도가 강하다. 여성노인의 교육수준과 전통적 태도는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는 약하다. 또한 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여성노인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여성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3-7〉 성별 전통적 태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여성노인		남성노인	
	b	β	b	β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노인독신	-0.212 **	-0.133	-0.238 **	-0.088
노인부부	-0.117 *	-0.068	-0.196 **	-0.142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068 *	0.043	-0.024	-0.017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139 **	0.084	0.067	0.045
75세 이상	0.291 **	0.185	0.131 **	0.082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글자해독	-0.010	-0.006	-0.098	-0.044
초등학교	-0.113 **	-0.073	-0.212 *	-0.151
중고등학교	-0.204 **	-0.083	-0.375 **	-0.263
대학교	-0.471 **	-0.062	-0.297 **	-0.145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유배우	-0.211 **	-0.137	-0.150	-0.065
자녀수	0.014	0.034	0.002	0.004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딸만 있음	0.029	0.009	0.189	0.047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있음	-0.105	-0.054	-0.135 **	-0.098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있음	-0.045	-0.015	-0.222 **	-0.134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받음	-0.068	-0.022	-0.053	-0.035
경로연금/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수급	-0.241	-0.111	-0.112	-0.046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029	0.019	-0.065	-0.040
상수	0.686 **		1.113 **	

주: *=p<0.1, **=p<0.05, ***=p<0.01

남성노인들의 전통적 태도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변수로는 가구형태,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이 있다. 여성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남성노인들의 전통적 태도 또한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에게서 약하다. 이와 더불어 고령층의 남성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교육수준에서도 고학력의 노인일수록 대체로 전통적인 태도가 약하다. 소득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전통적인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통적 태도에 이어 자녀관계만족도에 있어 남녀노인별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변수들이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의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표 3-8〉 성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여성노인		남성노인	
	b	β	b	β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노인독신	-0.138 ***	-0.074	-0.330 **	-0.096
노인부부	0.006	0.003	0.085	0.049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146 ***	0.079	0.028	0.015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45	-0.023	0.000	0.000
75세 이상	0.029	0.016	0.083	0.041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글자해독	0.063	0.032	-0.033	-0.012
초등학교	0.062	0.034	0.139	0.078
중고등학교	0.204 **	0.072	0.099	0.055
대학교	0.097	0.011	0.266	0.102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유배우	0.088	0.049	0.155	0.053
자녀수	-0.006	-0.013	0.009	0.016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딸만 있음	0.155	0.041	0.442 ***	0.087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210 ***	-0.092	0.035	0.020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있음	0.178 **	0.052	0.012	0.006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031	-0.009	0.041	0.021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476 ***	-0.187	-0.439 ***	-0.142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29 ***	-0.072	-0.247 ***	-0.120
상수	3.780 ***		3.500 ***	

주: *=p<0.1, **=p<0.05, ***=p<0.01

이 표에 의하면 남성노인들보다 여성노인들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더 많다. 우선 여성노인들의 경우, 자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구형태,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등을 들 수 있다. 가구형태 별 자녀관계만족도 차이로는 홀로 사는 여성노인들의 만족도가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들의 만족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보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높다. 교육수준에서는 중고등학교를 다닌 여성노인들에게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면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여성노인들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여성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여성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자녀관계만족도가 낮다.

남성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여성노인들과 마찬가지로 가구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 비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다. 한편, 남성노인들에서는 딸만 있는 노인들이 아들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자녀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서는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며,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 또한 낮게 나타난다.

제 2 절 여성노인의 경제상태

1. 소득원별 소득유무

성별 소득원별 소득유무를 비교해보면, 근로 및 사업·부업소득이 있는 비중이 여성노인(17.5%)의 경우 남성노인(44.1%)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있는 비중도 여성노인(7.2%)은 남성노인(21.8%)의 3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비중도 여성노인(6.3%)은 남성노인(26.9%)의 23.4%에 불과했다. 그러나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소지 비율은 남성의 2.5배에 달했고, 경로연금 소지 비율도 남성의 1.7배에 달했다. 사적이전소득 있는 비율도 여성노인(82.5%)이 남성노인(72.8%)에 비해 10% 포인트 높았다(표 3-9 참조).

〈표 3-9〉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17.5	44.1	27.8
근로소득	10.1	19.7	13.9
사업 및 부업소득	7.5	26.0	14.7
자산소득	7.2	21.8	12.9
재산소득	5.2	15.2	9.0
금융소득	1.9	8.5	4.5
개인연금	0.3	0.5	0.4
공적이전	91.2	94.8	92.6
공적연금	6.3	26.9	14.3
기타 사회보험 급여	0.1	0.4	0.2
경로연금	14.6	8.4	12.2
교통수당	89.2	90.4	89.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0.3	4.2	7.9
참전명예수당	0.3	12.1	4.9
사적이전	82.5	72.8	78.7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81.4	70.3	77.1
사회단체 보조금	0.9	0.8	0.9
기타 소득	2.0	10.8	5.4
월평균 총수입	99.5	99.9	99.7

주: 각 항목별 중복응답 비율임.

2.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

노인의 성별 월 평균소득을 보면, 여성은 30만원, 남성은 79만원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6배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다. 소득원별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은 5.4만원, 남성은 32만원으로 무려 6배 가량 차이가 난다. 자산소득도 여성 3만원, 남성 15.6만원으로 5.2배 차이가 난다. 공적연금은 여성 2.2만원, 남성 16.4만원으로 무려 7.6배 차이가 난다.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남성 0.7만원, 여성 2.0만원으로 여성이 2.9배 가량 높다. 사적이전소득도 여성이 14.7만원, 남성 12.2만원으로 여성이 21% 정도 높다(표 3-10 참조).

〈표 3-10〉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월 평균소득수준 및 비율: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평균(비율)	평균(비율)	평균(비율)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5.39(18.2)	32.00(40.4)	15.71(32.2)
근로소득	3.00(10.1)	15.66(19.8)	7.91(16.2)
사업 및 부업소득	2.39(8.2)	16.32(20.6)	7.80(16.0)
자산소득	2.95(9.9)	15.60(19.7)	7.85(16.1)
재산소득	1.88(6.3)	11.53(14.6)	5.62(11.5)
금융소득	1.02(3.4)	3.82(4.8)	2.11(4.3)
개인연금	0.04(0.1)	0.27(0.3)	0.13(0.3)
공적이전	5.72(19.3)	19.15(24.2)	10.92(22.4)
공적연금	2.17(7.3)	16.37(20.7)	7.67(15.7)
기타 사회보험 급여	0.02(0.1)	0.24(0.3)	0.11(0.2)
경로연금	0.60(2.0)	0.32(0.4)	0.49(1.0)
교통수당	0.85(2.9)	0.85(1.1)	0.85(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04(6.9)	0.69(0.9)	1.51(3.1)
참전명예수당	0.05(0.2)	0.67(0.9)	0.29(0.6)
사적이전	14.73(49.7)	12.21(15.4)	13.75(28.2)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4.43(48.7)	11.25(14.2)	13.20(27.0)
사회단체 보조금	0.08(0.3)	0.15(0.2)	0.11(0.2)
기타 소득	0.22(0.7)	0.80(1.0)	0.45(0.9)
월평균 총수입	29.64(100.0)	79.12(100.0)	48.84(100.0)

한편, 성별 중위소득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21만원, 남성이 51만원으로 2.4배 가량 남성이 더 높다. 사적이전소득은 여성이 10만원, 남성이 7만원으로 여성이 더 높다.

〈표 3-11〉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0	0	0
근로소득	0	0	0
사업 및 부업소득	0	0	0
자산소득	0	0	0
재산소득	0	0	0
금융소득	0	0	0
개인연금	0	0	0
공적이전	1.0	1.2	1.0
공적연금	0	0	0
기타 사회보험 급여	0	0	0
경로연금	0	0	0
교통수당	0.9	0.9	0.9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0	0	0
참전명예수당	0	0	0
사적이전	10.0	7.0	1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0.0	5.0	10.0
사회단체 보조금	0	0	0
기타 소득	0	0	0
월평균 총수입	21.0	51.0	28.0

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만 포함한 경우,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여성 31만원, 남성 73만원으로 2.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자산소득은 여성 42만원, 남성 73만원으로 1.7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공적연금은 여성 34만원, 남성 61만원으로 1.8배 정도 남성이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여성 20만원, 남성 16.5만원으로 여성이 1.2배 가량 높다. 사적이전소득도 여성이 18만원, 남성이 17만원으로 여성이 1만원 가량 높다.

〈표 3-12〉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수)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30.80	72.59	56.48	(793)
근로소득	29.57	79.83	57.23	(394)
사업 및 부업소득	31.84	62.72	53.06	(419)
자산소득	41.53	72.60	61.93	(360)
재산소득	37.17	75.74	62.49	(256)
금융소득	53.29	47.11	48.79	(123)
개인연금	14.88	47.83	32.74	(11)
공적이전	6.27	20.19	11.80	(2,638)
공적연금	34.33	61.13	53.86	(406)
기타 사회보험 급여	22.41	69.93	55.87	(5)
경로연금	4.13	3.83	4.05	(347)
교통수당	0.95	0.94	0.95	(2,55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9.88	16.50	19.19	(225)
참전명예수당	14.40	5.53	5.91	(140)
사적이전	17.87	16.78	17.48	(2,238)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7.74	15.99	17.12	(2,196)
사회단체 보조금	8.86	19.62	12.56	(25)
기타 소득	11.47	7.47	8.36	(153)
월평균 총수입	29.77	79.35	49.03	(2,840)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경우만 포함한 경우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 25만원, 남성 56만원으로 2.2배 정도 차이가 나며, 자산소득은 여성 20만원, 남성 30만원으로 1.5배 정도 차이가 난다. 공적연금은 여성 11만원, 남성 20만원으로 9만원정도 차이를 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여성 21만원, 남성 15만원으로 여성이 6만원 정도 더 높다. 사적보조금도 여성이 13만원, 남성이 10만원으로 여성이 3만원 정도 더 높다.

〈표 3-13〉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25.00	56.00	38.23
근로소득	30.00	68.53	40.00
사업 및 부업소득	20.00	40.00	30.00
자산소득	20.00	30.00	30.00
재산소득	20.00	30.00	30.00
금융소득	14.00	20.25	20.00
개인연금	8.31	45.71	17.97
공적이전	1.00	1.20	1.20
공적연금	11.33	20.00	18.94
기타 사회보험 급여	25.16	72.01	61.77
경로연금	4.50	3.66	4.50
교통수당	0.90	0.90	0.9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1.00	15.00	20.00
참전명예수당	17.77	5.00	5.16
사적이전	12.97	10.00	10.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2.00	10.00	10.00
사회단체 보조금	5.00	6.86	5.00
기타 소득	3.00	3.00	3.00
월평균 총수입	21.00	51.00	28.00

3. 빈곤율 및 소득계층분포

성별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빈곤율 이하에 놓여진 여성과 남성은 각각 41%와 31%로 여성이 10% 포인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선 150%를 기준으로 여성의 61.4%가 포진하고, 남성의 52.4%가 포진하여 9% 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표 3-14〉 노인소속가구의 성별 소득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여성	남성	전체
빈곤선 100%	41.2 (41.2)	31.2 (31.2)	37.3 (37.3)
빈곤선 120%	10.3 (51.5)	10.6 (41.8)	10.4 (47.7)
빈곤선 150%	9.9 (61.4)	10.6 (52.4)	10.2 (57.9)
빈곤선 180%	7.9 (69.3)	7.8 (60.2)	7.9 (65.7)
빈곤선 200%	5.0 (74.2)	6.5 (66.7)	5.6 (71.3)
빈곤선 300%	12.3 (86.5)	15.3 (82.0)	13.5 (84.8)
빈곤선 300% 이상	13.5 (100.0)	18.0 (100.0)	15.2 (100.0)
(대상자수)	(1,715)	(1,087)	(2,802)

주: () 밖의 값은 소득구간의 구성 비율, ()내 값은 누적 구성비율임.

4. 취업관련 실태

노인의 성별 취업유무를 살펴보면, 현재대 여성노인의 경우 평생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14.1%로 남성노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을 계속 하고 있는지 여부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표 3-15 참조).

반면,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경우 퇴직 및 실업을 한 비율이 전체 노인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여성과 남성노인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표 3-15〉 성별 취업유무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14.1	0.3	8.7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1.9	57.6	60.2
현재 일을 하고 있다	24.0	42.1	31.1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성별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직종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 및 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에서 남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3-16 참조).

〈표 3-16〉 성별 현 취업 직종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0	3.4	1.8
전문가	0.0	2.0	1.0
기술공 및 준전문가	0.2	1.9	1.1
사무종사자	0.4	0.8	0.6
서비스종사자	4.8	1.5	3.0
판매종사자	6.6	4.3	5.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53.8	56.3	5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	3.6	2.0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5	4.9	2.8
단순노무종사자	33.3	20.7	26.8
계	100.0	100.0	100.0
(명)	(420)	(463)	(883)

현재 취업중인 노인의 성별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자영업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여성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 및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경우 현재 취업중이라 하더라도 직업의 질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17 참조).

현재 노인이 일을 하는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남녀노인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여성노인이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의 경우 건강유지나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하는 경우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18 참조).

〈표 3-17〉 성별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자영업자	33.2	64.9	49.9
고용주	.5	3.9	2.3
무급가족종사자	33.7	3.4	17.1
상용근로자	1.2	4.5	2.9
임시근로자	2.6	10.5	6.8
일용근로자	22.7	8.6	15.2
기타	6.2	4.3	5.2
계	100.0	100.0	100.0
(명)	(419)	(467)	(886)

〈표 3-18〉 성별 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3.6	9.4	6.7
돈이 필요해서	73.0	66.1	69.4
건강유지를 위해서	5.3	13.7	9.7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6.0	4.3	5.1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1.4	3.9	2.7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0.0	0.4	0.2
일손이 모자라서	9.8	1.7	5.5
기타	1.0	0.4	0.7
계	100.0	100.0	100.0
(명)	(419)	(466)	(885)

노인의 취업만족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해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19 참조). 이는 취업 불만족 이유와 함께 살펴볼 때, 임금수준이나, 일의 내용, 일의 양에 있어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에 비해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질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3-20 참조).

〈표 3-19〉 성별 취업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매우 만족한다	1.7	6.4	4.2
만족하는 편이다	25.4	39.3	32.7
그저 그렇다	26.3	23.4	24.8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7.8	26.0	31.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8.9	4.9	6.8
계	100.0	100.0	100.0
(명)	(418)	(466)	(884)

〈표 3-20〉 성별 취업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임금(소득)	41.3	59.7	49.1
업무(일) 내용	18.4	11.1	15.3
업무(일) 량	39.8	26.4	34.1
복리후생(휴가 등)	-	1.4	0.6
인간관계	0.5	0.7	0.6
기타	0.0	0.7	0.3
계	100.0	100.0	100.0
(명)	(196)	(144)	(340)

또한 성별 향후 취업 지속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남녀노인 모두 향후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21 참조). 그러나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남성노인에 비해 향후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현 직장 이직 여부와 관련해서는 남녀노인 모두 이직을 희망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22 참조).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취업 불만족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직을 희망하고 있지 않아, 이는 노동수요의 질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노동공급의 질적인 측면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여성노인에 비해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노동공급의 경쟁력을 다소 갖추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3-21〉 성별 향후 계속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그만두고 싶다	38.9	18.7	28.2
계속하고 싶다	61.1	81.3	71.8
계	100.0	100.0	100.0
(명)	(419)	(466)	(885)

〈표 3-22〉 성별 현 직장 이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찾고 있다	-	1.8	1.1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직하고 싶다	2.7	3.7	3.3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97.3	94.5	95.6
계	100.0	100.0	100.0
(명)	(256)	(379)	(635)

다음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남녀노인 모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3-23 참조).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여성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가사 및 가족수발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23〉 성별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6.1	9.0	7.0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	4.8	6.9	5.5
건강이 좋지 않아서	63.4	47.3	58.1
일자리가 없어서	10.1	31.4	17.0
가사(집안일)/가족수발 때문에	10.0	1.4	7.2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3.7	2.3	3.3
기타	1.9	1.7	1.8
계	100.0	100.0	100.0
(명)	(1,320)	(641)	(1,961)

향후 취업희망 여부는 남성노인(30.6%)이 여성노인(11.0%)에 비해 취업희망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성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아니오	89.0	69.4	82.6
예	11.0	30.6	17.4
계	100.0	100.0	100.0
(명)	(1,322)	(641)	(1,963)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향후 취업 이유를 성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보다 높은 비율로 경제적 필요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25 참조).

〈표 3-25〉 성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일하는 것이 좋아서	3.5	7.7	5.9
돈이 필요해서	66.9	49.5	56.8
건강유지를 위해서	9.2	21.9	16.6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3.5	3.1	3.3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12.0	3.1	6.8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4.9	13.8	10.1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0.0	0.5	0.3
기타	0.0	0.5	0.3
계	100.0	100.0	100.0
(명)	(142)	(196)	(338)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실제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취업 희망도가 실제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책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3-26 참조).

〈표 3-26〉 성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아니오	74.5	56.9	64.2
예	25.5	43.1	35.8
계	100.0	100.0	100.0
(명)	(153)	(218)	(371)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3-27 참조).

〈표 3-27〉 성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취업을 소개시켜 주는 기관을 몰라서	6.1	4.1	5.1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28.9	48.4	39.0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40.4	38.5	39.4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21.9	4.9	13.1
기타	2.6	4.1	3.4
계	100.0	100.0	100.0
(명)	(114)	(122)	(236)

노인이 원하는 일의 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형태를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28 참조). 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가사일이나 집안일과 병행할 수 있는 근로형태를 더 선호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남녀 노인모두 자영업이나 창업보다는 취업을 더 선호하지만, 여성 노인에게 비해 남성노인이 창업에 대한 선호도도 높게 나타났다.

〈표 3-28〉 성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26.8	22.1	24.0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42.5	31.5	36.1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30.1	41.3	36.6
자영업(창업)	0.7	5.2	3.3
계	100.0	100.0	100.0
(명)	(153)	(213)	(366)

일자리를 찾을 때의 우선순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임금 수준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며, 일의 내용, 그리고 일의 양과 시간대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29 참조). 남성노인이 과거 경험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성노인은 과거 직업력을 통해 전문성 및 숙련도를 연결 시키기 보다는 임금 및 일의 내용과 같은 일의 질적인 측면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시간대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성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임금수준	26.6	18.7	22.0
일의 양과 시간대	21.4	21.0	21.1
과거 경험과의 연관이 있는 일인가 여부	6.5	22.4	15.8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내용 여부	0.6	5.6	3.5
기타 업무(일) 내용	26.0	15.0	19.6
복리후생(휴가 등 복지제도)	0.0	0.5	0.3
집과의 거리(출퇴근거리)	17.5	10.7	13.6
사업장 규모	0.6	0.0	0.3
계속고용 가능여부	0.6	5.1	3.3
기타	0.0	0.9	0.5
계	100.0	100.0	100.0
(명)	(154)	(214)	(368)

성별 취업관련 정부지원대책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남녀노인 모두 일자리 연계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적합 일자리 제공에 대한 욕구가 높으며,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직업훈련의 욕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3-30 참조).

〈표 3-30〉 성별 취업관련 정부지원 선호도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19.8	13.2	17.2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60.8	56.7	59.2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8.4	10.8	9.4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1.1	2.2	1.5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5.7	6.6	6.1
기타	4.1	10.1	6.5
정부지원 필요없음	0.1	0.3	0.1
계	100.0	100.0	100.0
(명)	(1,700)	(1,098)	(2,798)

성별 노인의 주관적 경제형편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주관적으로 경제형편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31〉 성별 주관적 경제형편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매우 좋다	2.2	2.6	2.3
약간 좋다	8.2	10.4	9.0
보통이다	38.2	39.4	38.7
약간 나쁘다	28.5	26.8	27.9
매우 나쁘다	22.9	20.8	22.1
계	100.0	100.0	100.0
(명)	(1,849)	(1,174)	(3,023)

5. 소득수준 영향요인

성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유배우인 경우,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자녀동거노인의 순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

수록, 가구주인 경우 노인총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과 비교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아지는 유의미한 변수였으며, 무배우 및 자녀수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으며, 나머지 부분은 여성노인의 분석결과와 유사하였다(표 3-32 참조).

〈표 3-32〉 성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096	-4.2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39	-1.864#	-.015	-.729	-.035	-2.498*
연령	-.008	-.360	-.070	-3.228**	-.025	-1.658#
교육연수	.109	4.721***	.106	4.672***	.128	7.206***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76	-2.174*	-.016	-.536	-.044	-1.86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97	1.748#	.100	3.197**	.160	6.379***
노인부부	.096	3.010**	.125	4.814***	.086	4.360***
건강상태	.006	.309	.006	.320	.017	1.171
자녀수	.039	1.851#	.031	1.520	.028	1.996*
취업(무직기준): 취업	.221	10.264***	.246	11.425***	.245	16.030***
log 1인당 가구소득	.338	13.760***	.649	28.476***	.426	26.189***
가구주 여부	.426	7.376***	.272	10.290***	.346	13.860***
상수 b	.829*		-.170		.526*	
Adjusted R square	.319		.621		.505	
F	74.656***		165.092***		241.535***	

주: #=p<.1, *=p<.05, **=p<.01, ***=p<.001

성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노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독거가구 대비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 일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거의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다(표 3-33 참조).

〈표 3-33〉 성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083	-1.86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80	-1.565	-.030	-.850	-.053	-1.981*
연령	-.157	-2.807**	-.235	-6.404***	-.182	-6.440***
교육연수	.061	1.099	.015	.408	.033	.97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98	1.010	-.076	-1.416	.038	.73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60	-1.803#	-.067	-1.251	-.035	-.757
노인부부	.051	.591	.019	.479	.014	.399
건강상태	.037	.723	.050	1.445	.052	1.915#
자녀수	-.034	-.659	.014	.382	-.016	-.604
취업(무직기준): 취업						
log 1인당 가구소득	.425	7.424***	.602	15.394***	.505	16.305***
가구주 여부	.402	4.542***	.140	3.654***	.196	5.487***
상수 b	2.620**		3.897***		3.156***	
Adjusted R square	.259		.489		.486	
F	11.644***		47.555***		68.975***	

주: #=p<.1, *=p<.05, **=p<.01, ***=p<.001

성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은 교육연수가 길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여성노인의 유의미한 영향변수에 더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무배우인 경우, 자녀수가 적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높은 반면, 가구주 여부는 유의미하지 않았다(표 3-34 참조).

성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공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노인공적이전소득이 높다는 점에서 여성노인과 상이한 영향을 보이며, 남성노인에서는 건강상태 및 자녀수도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다(표 3-35 참조).

〈표 3-34〉 성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009	.144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28	-1.653	-.167	-3.176**	-.160	-3.791***
연령	-.017	-.208	.026	.431	.011	.242
교육연수	.147	1.676#	-.074	-1.184	-.009	-.173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136	-1.084	.212	2.312*	.066	.821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노인부부	-.258	-1.417	.135	1.406	.001	.011
건강상태	.148	1.279	.077	1.156	.050	.849
자녀수	.065	.894	.014	.272	.039	.940
취업(무직기준): 취업	-.042	-.546	-.140	-2.526*	-.106	-2.474*
log 1인당 가구소득	-.149	-1.891#	-.209	-3.835***	-.183	-4.136***
가구주 여부	.577	6.390***	.628	10.539***	.597	12.285***
상수 b	.552	3.033**	.096	1.549	.260	4.429***
Adjusted R square		-.445		-1.534		-.979
F		.463		.454		.473
		10.603***		18.819***		27.896***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35〉 성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175	-5.6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60	2.531*	.103	3.240**	.074	3.861***
연령	.014	.535	-.071	-2.092*	-.002	-.073
교육연수	-.083	-3.146**	.155	4.325***	.053	2.16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41	-1.035	-.072	-1.531	-.031	-.9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노인부부	.097	1.501	-.013	-.271	-.82	2.401*
건강상태	.067	1.823#	.026	.638	.031	1.153
자녀수	-.105	-4.458***	-.036	-1.150	-.067	-3.489***
취업(무직기준): 취업	-.261	-10.847***	-.019	-.592	-.151	-7.936***
log 1인당 가구소득	-.072	-2.897**	-.157	-4.632***	-.108	-5.157***
가구주 여부	.089	3.159**	.203	5.596***	.140	6.332***
상수 b	.199	2.963**	.128	3.048**	.200	5.881***
Adjusted R square		.709		.841		.546
F		.171		.103		.147
		30.839***		11.900***		38.777***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

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경우도 거의 동일하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공적연금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표 3-36〉 성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006	-.106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41	-1.786#	-.105	-2.374*	-.118	-3.117*
연령	.279	3.569**	.087	1.879#	.136	3.615***
교육연수	.151	1.671#	.184	3.380**	.195	3.725***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34	-.225	.142	1.399	.004	.0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08	-.042	.121	1.187	-.023	-.331
노인부부	-.073	-.522	-.018	-.351	-.049	-1.014
건강상태	-.046	-.639	-.036	-.836	-.038	-1.024
자녀수	-.092	-1.147	-.074	-1.699#	-.085	-2.350*
취업(무직기준): 취업	-.152	-1.799#	-.316	-6.521***	-.281	-6.863***
log 1인당 가구소득	.466	5.656***	.432	8.521***	.446	10.436***
가구주 여부	.149	.768	.109	2.195*	.178	3.678***
상수 b		-3.592**		-2.368*		-2.442**
Adjusted R square		.485		.542		.546
F		10.358***		32.764***		41.643***

주: #=p<.1, *=p<.05, **=p<.01, ***=p<.001

성별 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집단의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자녀동거가구 순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에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녀수가 적은 변수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참조).

〈표 3-37〉 성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196	3.17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25	-2.420*	-.058	-.531	-.112	-2.462*
연령	-.104	-1.935#	-.101	-1.023	-.083	-1.847#
교육연수	.047	.877	.097	-.892	.077	1.512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58	-.533	.038	.203	.028	.28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33	1.771#	.240	1.204	.296	3.086**
노인부부	.251	2.447*	.118	.647	.166	1.877#
건강상태	-.085	-1.602	-.028	-.277	-.060	-1.323
자녀수z	-.242	-4.344***	-.238	-2.028*	-.228	-4.607***
취업(무직기준): 취업	-.226	-4.238***	.040	.383	-.139	-2.955*
log 1인당 가구소득	.098	1.564	-.016	-.138	.063	1.160
가구주 여부	.258	1.958	.122	.842	.172	2.165*
상수 b	3.223***		3.193*		2.622**	
Adjusted R square	.357		.142		.327	
F	14.443***		2.475*		15.766***	

주: #= $p < .1$, *= $p < .05$, **= $p < .01$, ***= $p < .001$

성별 노인사적노인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집단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자녀동거가구 순으로, 자녀수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노인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지역, 교육연수 변수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독거노인, 자녀수, 취업, 가구소득, 가구주 여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관찰되었다(표 3-38 참조).

〈표 3-38〉 성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여성					.047	1.422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81	-3.242**	-.045	-1.238	-.069	-3.359**
연령	.008	.167	.029	.763	.006	.287
교육연수	.133	4.789***	.046	1.156	.103	4.02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7	-.671	.010	.208	-.005	-.14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89	2.585*	.144	2.847**	.264	7.114***
노인부부	.102	2.765**	.057	1.188	.078	2.651**
건강상태	.039	1.621	.001	.035	.024	1.209
자녀수	.152	6.164***	.146	4.130***	.149	7.365***
취업(무직기준): 취업	-.268	-10.509***	-.262	-6.862***	-.269	-12.207***
log 1인당 가구소득	.281	9.444***	.245	5.985***	.264	11.023***
가구주 여부	.249	3.300**	.084	1.690#	.118	3.109**
상수 b	.513		.218		.474	
Adjusted R square	.202		.133		.176	
F	33.994***		12.152***		40.682***	

주: #=p<.1, *=p<.05, **=p<.01, ***=p<.001

6.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성별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여성집단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노인부부 > 자녀동거가구 > 독거노인 순으로,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을 소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성집단도 거의 일치하는데, 자녀동거가구 > 독거가구인 것은 동일하나, 노인부부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상이하였다(표 3-39 참조).

성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 양집단의 유의미한 변수 및 영향방향이 많이 달랐다. 여성집단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인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자산소득을 소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이에 비해 남성은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가구 순으로, 가구주인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 소지 확률이 높아졌다(표 3-40 참조).

〈표 3-39〉 성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472	23.1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2.138	27.553***	2.643	35.027***	2.265	58.185***
연령	.875	73.824***	.836	104.457***	.852	198.044***
교육연수	.904	20.172***	.844	70.206***	.873	86.72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325	13.243***	.363	9.715**	.532	10.012**
노인부부	1.497	3.775#	.727	2.632	.883	.921
가구주	15.488	71.451***	6.981	53.204***	7.398	132.217***
건강상태	1.382	22.619***	1.333	19.044***	1.366	44.734***
자녀수	1.131	9.606**	1.122	5.563*	1.122	14.203***
log 1인당 가구소득	1.314	6.342*	2.304	37.001***	1.535	31.325***
상수 b	4.698***		7.813***		7.109***	
Chi-square	275.174***		343.336***		817.343***	
-2 log likelihood	1342.770		1172.790		2551.884	

주: #=p<.1, *=p<.05, **=p<.01, ***=p<.001

〈표 3-40〉 성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554	9.43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044	.039	.656	5.227*	.792	2.769#
연령	.976	1.585	1.029	3.604#	1.008	.433
교육연수	1.080	8.231**	1.022	1.154	1.044	7.31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438	3.016#	1.925	4.049*	2.072	8.635**
노인부부	1.087	.072	1.465	3.246#	1.422	4.651*
가구주	2.508	3.043	2.973	12.414***	2.794	21.922***
건강상태	1.155	2.433	1.114	2.436	1.128	4.706*
자녀수	1.051	.849	1.028	.301	1.044	1.418
log 1인당 가구소득	1.978	19.428***	1.856	25.786***	1.872	44.299***
상수 b	-5.405**		-7.695***		-6.536***	
Chi-square	84.320***		89.626***		285.571***	
-2 log likelihood	821.361		1070.281		1904.977	

주: #=p<.1, *=p<.05, **=p<.01, ***=p<.001

성별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하면, 여성노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가구 > 노인부부, 가구주인 경우에 공적이전소득 소지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이전소득 소지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표 3-41 참조).

〈표 3-41〉 성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462	7.30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103	.201	1.049	.020	1.085	.202
연령	1.683	111.562***	1.747	42.629***	1.701	156.264***
교육연수	.970	1.099	.985	.166	.975	1.272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474	1.723	1.641	.522	.727	.793
노인부부	.569	5.720*	.889	.107	.649	5.342*
가구주	1.900	1.372*	1.417	.477	1.593	2.454
건강상태	.910	1.080	.931	.291	.925	1.088
자녀수	.912	1.964	1.054	.218	.946	.968
log 1인당 가구소득	.912	.388	1.570	5.166*	1.096	.589
상수 b	-32.059***		-37.003***		-33.078***	
Chi-square	320.215***		101.798***		427.193***	
-2 log likelihood	716.521		346.823		1071.788	

주: #=p<.1, *=p<.05, **=p<.01, ***=p<.001

성별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여성노인은 농어촌 거주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소득을 가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42 참조). 남성의 경우는 농어촌 거주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구주인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소득 소지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은 교육연수 및 자녀수가 유의미한 변수라는 점이 구분된다.

〈표 3-42〉 성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339	33.037***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2.877	22.736***	1.855	13.499***	2.216	35.710***
연령	.903	20.276***	.909	28.992***	.915	43.501***
교육연수	.953	2.374	1.091	19.694***	1.046	7.74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120	2.222	1.043	.015	1.668	4.400*
노인부부	1.489	1.452	1.275	1.530	1.143	.742
가구주	3.776	6.686*	1.631	3.374#	2.811	24.664***
건강상태	.929	.540	.967	.250	.945	1.060
자녀수	.909	2.611	1.098	3.394#	1.016	.181
log 1인당 가구소득	2.763	34.142***	1.794	25.111***	2.055	56.421***
상수 b		-281		1.425		.690
Chi-square		114.126***		150.949***		459.463***
-2 log likelihood		707.115		1131.342		1871.857

주: #=p<.1, *=p<.05, **=p<.01, ***=p<.001

성별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농어촌 거주 경
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안 좋을
수록, 자녀수가 작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공부조소득을 소지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표 3-43 참조).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공공부조소득을 소지할 확
률이 높아졌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서 유의미한 지역 및 가구주 변수가 유의미
하지 않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성과 거의 같은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성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722	2.44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413	4.785*	1.128	.221	1.344	4.907*
연령	1.067	23.546***	1.117	30.806***	1.082	52.472***
교육연수	.916	12.395***	.932	5.405*	.921	18.717***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904	.070	4.540	9.346	2.341	9.053**
노인부부	1.170	.413	1.275	.325	1.054	.073
가구주	2.887	7.441**	.676	.690	1.065	.064
건강상태	.696	23.482***	.573	28.914***	.653	50.520***
자녀수	.689	82.609***	.778	12.450***	.710	94.145***
log 1인당 가구소득	.800	5.029*	.682	5.708*	.762	10.596**
상수 b (sig.)		-3.628**		-5.792***		-4.012***
Chi-square (sig.)		286.288***		133.274***		424.866***
-2 log likelihood		1191.507		520.725		1732.965

주: #=p<.1, *=p<.05, **=p<.01, ***=p<.001

성별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해 보면, 여성은 독거노인 > 자녀동거가구 > 노인부부 순으로, 가구주가 아닌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4 참조). 남성은 농어촌 거주 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가구주가 아닌 경우와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남녀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이었다.

〈표 3-44〉 성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1.340	3.4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177	1.152	1.583	7.322**	1.348	7.028**
연령	.994	.241	1.042	7.507**	1.020	4.632*
교육연수	1.008	.178	1.035	3.507#	1.020	2.248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075	5.418*	.684	1.652	.916	.189
노인부부	.500	12.061**	1.184	.805	.887	.847
가구주	.192	26.789***	.380	13.254***	.461	20.012***
건강상태	1.117	2.901#	.908	2.268	.989	.060
자녀수	1.452	92.601***	1.282	26.220***	1.388	120.256***
log 1인당 가구소득	1.016	.027	.823	3.423#	.942	.747
상수 b		.737		-1.470		-.971
Chi-square		185.572***		94.947***		274.665***
-2 log likelihood		1428.371		1196.471		2667.884

주: #=p<.1, *=p<.05, **=p<.01, ***=p<.001

7.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성별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해 보면, 여성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유배우인 경우,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자녀동거의 순으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아닌 경우, 노인총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 남성은 농어촌 거주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표 3-45 참조).

〈표 3-45〉 성별 노인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086	3.0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62	2.858**	.065	2.289*	.064	3.697***
연령	.021	.885	.100	3.286**	.044	2.348*
교육연수	.091	3.761***	.048	1.489	.084	3.82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68	-1.863#	.009	.214	-.029	-1.00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 독거노인	.127	2.200*	.004	.080	.016	.507
노인부부	.130	3.911***	.055	1.504	.122	4.985***
건강상태	.244	11.505***	.195	7.104***	.232	13.373***
자녀수	.077	3.554***	.026	.930	.061	3.523***
취업(무직기준): 취업	-.099	-4.269***	.001	.021	-.051	-2.611**
log 1인당 가구소득	.359	13.327***	.239	5.660***	.338	15.187***
가구주 여부	-.124	-2.025*	.009	.224	-.027	-.841
총소득	.067	2.671**	.234	5.491***	.119	5.135***
상수 b		-.576#		-1.760***		-1.064***
Adjusted R square		.260		.254		.253
F		51.620***		32.090***		74.814***

주: #=p<.1, *=p<.05, **=p<.01, ***=p<.001

8.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성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아닌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노인총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남성의 경우에는 농어촌 거주, 교육연수가 길수록, 무배우인 경우,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상태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좋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3-46 참조).

〈표 3-46〉 성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남성기준)					.062	2.30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43	2.050*	.072	2.631**	.055	3.281**
연령	-.002	-.067	.042	1.419	.024	1.311
교육연수	.076	3.209**	.091	2.918**	.088	4.13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3	.665	.089	2.172*	.076	2.69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 독거노인	.195	3.489***	-.075	-1.742#	-.017	-.562
노인부부	.023	.716	.024	.672	.0025	1.074
건강상태	.208	9.790***	.224	8.199***	.216	12.496***
자녀수	.010	.480	.028	1.029	.018	1.063
취업(무직기준): 취업	-.062	-2.749**	-.048	-1.539	-.065	-3.429**
log 1인당 가구소득	.057	2.096*	.099	2.375*	.075	3.357**
가구주 여부	-.257	-4.356***	-.014	-.358	-.032	-1.058
주관적 경제	.364	15.634***	.299	10.140***	.342	18.819***
총소득	.077	3.158**	.051	1.210	.069	3.102**
상수 b	1.188***		.438		.738**	
Adjusted R square	.315		.301		.310	
F	61.751***		37.125***		91.255***	

주: #=p<.1, *=p<.05, **=p<.01, ***=p<.001

제 3 절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1. 여성노인의 건강실천행위

<표 3-47>에서 여성노인의 흡연율(7.5%)과 음주율(22.1%)은 남성노인의 흡연율(33.4%)과 음주율(53.3%)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3-47〉 성별 건강실천행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흡연상태			
현재 피움	7.5	33.4	17.5
과거 피웠음	7.0	46.5	7.0
피운적 없음	85.4	20.2	85.4
음주상태			
현재 마심	22.1	53.3	34.2
과거 마셨음	11.3	26.4	17.2
전혀 안 마심	66.6	20.3	48.6
운동실천여부			
아주 규칙적으로 한다	24.7	37.0	29.5
가끔 한다	10.4	10.2	10.3
전혀 안 한다	64.9	52.8	60.2
1주일간 평균 운동일수(일)	(5.0)	(5.3)	(5.1)
영양식 섭취노력 정도			
매우 그렇다	5.6	8.0	6.5
그런 편이다	24.7	35.9	29.1
그저 그렇다	21.6	20.4	21.1
그렇지 않다	37.5	26.4	33.2
매우 그렇지 않다	10.7	9.2	1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독감예방접종률	77.7	71.5	75.3
건강검진수진율	50.1	56.4	52.6
(대상자수)	(1,745)	(1,106)	(2,851)

주: 1) 1주일간 평균운동일수는 운동을 하는 1,134명에 대한 평균 운동일수임.

여성노인의 운동실천 상태를 보면, 규칙적으로(24.7%) 또는 가끔(10.4%) 운동을 하는 노인이 34.7%로 남성노인(47.2%)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매 식사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식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영양식 섭취 노력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30.3%로 남성노인(43.9%) 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지난 1년간 독감예방접종률은 여성노인은 77.7%가 접종하여 남성노인(71.5%) 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노인은 50.1%로 남성노인의 건강검진수진율 56.4% 보다 낮았다.

즉, 건강위해 행위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나 건강생활 실천행위와 운동실천율, 영양식 섭취노력 및 건강검진수진율 역시 여성노인이 더 낮은 편이다.

2. 여성노인의 만성질병상태

여성노인의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 상태를 <표 3-48>에서 살펴보면 95.0%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노인(84.3%)의 만성질환유병률에 비하여 약 10% 포인트 더 높은 편이다. 특히, 3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65.7%로 남성노인의 37.0%에 비하여 약 2배정도 더 높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건강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주요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을 비교하여 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관절염 유병률이 56.3%로 남성노인의 21.6%에 비하여 약 3배 정도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고혈압 유병률(44.4%)도 남성노인(33.6%)에 비하여 약 10% 포인트 더 높다.

<표 3-48> 성별 본인인지 만성질병상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만성질병수			
없음	5.0	15.7	9.2
1개	11.6	25.8	17.1
2개	17.7	21.5	19.2
3개 이상	65.7	37.0	54.5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연령별 만성질환유병률			
65~69세	95.5	82.1	89.6
70~74세	96.6	86.1	92.4
75세 이상	93.2	86.0	90.9
계	95.0	84.3	90.8

〈표 3-48〉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암	2.2	3.3	2.6
관절염	56.3	21.6	42.8
당뇨병	14.4	12.0	13.5
고혈압	44.4	33.6	40.2
중풍·뇌혈관질환	5.7	6.5	6.0
협심증·심근경색증	7.7	5.2	6.8
만성기관지염	6.6	9.5	7.7
천식	5.3	6.9	5.9
(대상자수)	(1,744)	(1,106)	(2,850)

주: 1)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한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통증 제외)이 있다는 비율이 여자노인(56.0%)의 경우 남자노인(39.3%)에 비하여 약 17% 포인트 더 높다.

〈표 3-49〉 성별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힘든 점이 있음	56.0	39.3	50.0
(대상자수)	(1,657)	(932)	(2,589)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이유 ¹⁾			
일상생활수행 제한	45.9	35.8	43.0
간호와 수발	0.9	1.1	0.9
경제적 어려움	21.9	25.1	22.8
외로움·소외감	16.3	15.3	16.0
사회활동 제한	14.8	21.6	16.7
기타	0.3	1.1	0.6
계	100.0	100.0	100.0
(명)	(928)	(366)	(1,294)

주: 1)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1,29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또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여성노인의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5.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1.9%,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 16.3%, 사회활동의 제한 14.8% 등의 순으로 남성노인의 어려운 점에 비하여 일상생활수행 제한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의 수발에 정책적 관심을 요구한다고 하겠다(표 3-50 참조).

만성질병이 한 가지라도 있는 노인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은 82.5%이며, 여성노인이(85.0%)이 남성노인(78.1%) 보다 의료기관 이용률이 더 높았다.

여성노인이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보면, 병·의원이 85.7%로 가장 많으며, 보건(지/진료)소가 7.9%, 한방 병·의원은 4.9% 등의 순이며, 남성노인과 비슷한 경향이다.

〈표 3-50〉 성별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의료기관이용률	85.0	78.1	82.5
(대상자수)	(1,657)	(932)	(2,589)
이용 의료기관 종류 ¹⁾			
병의원	85.7	85.6	85.6
한방 병의원	4.9	2.8	4.2
보건(지/진료)소	7.9	9.5	8.4
약국	1.6	1.8	1.6
기타	-	0.4	0.1
계	100.0	100.0	100.0
(명)	(1,408)	(727)	(2,135)

주: 1) 만성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여성노인의 경우 47.5%로서 남성노인의 43.5%보다 의료비 부담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표 3-51 참조).

〈표 3-51〉 성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매우 부담	13.6	11.3	12.8
부담이 되는 편	33.9	32.2	33.4
그저 그렇다	10.0	10.2	10.1
부담이 없는 편	25.2	28.9	26.5
전혀 부담 없음	5.8	10.1	7.3
무료 또는 기타	11.4	7.3	10.0
계	100.0	100.0	100.0
(명)	(1,408)	(726)	(2,134)

주: 1)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여성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낙상사고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인식이 여성노인의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26.2%로 남성노인의 46.9%에 비하여 약 21% 포인트 더 낮으며,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여성노인이 45.8%로 남성노인의 26.6%에 비하여 약 20% 포인트 더 높은 경향이다(표 3-52 참조).

〈표 3-52〉 성별 주관적 건강인식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매우 좋다	4.1	15.6	8.6
약간 좋다	22.1	31.3	25.6
보통이다	28.1	26.5	27.4
약간 나쁘다	32.3	18.2	26.8
매우 나쁘다	13.5	8.4	11.5
계	100.0	100.0	100.0
(명)	(1,746)	(1,107)	(2,853)

주: 1)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여성노인 중 지난 1년 동안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노인은 18.6%로 남성노인의 9.9%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여성노인의 경우 낙상사고가 가정내 사고였다는 비율이 29.6%로 남성노인(10.1%) 보다 매우 높은 경향이다(표 3-53 참조).

〈표 3-53〉 성별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낙상 사고율 (대상자수)	18.6 (1,743)	9.9 (1,106)	15.2 (2,849)
낙상사고 장소			
가정내 사고	29.6	10.1	24.7
외부에서의 사고	70.4	89.9	75.3
계 (명)	100.0 (324)	100.0 (109)	100.0 (433)

주: 1) 낙상사고율은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낙상사고 장소는 낙상사고 경험이 있는 4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시력, 청력 및 씹기능력

노인의 시력은 보조기 미착용시 ‘나쁜편’이 34.6%, ‘아주나쁨’이 9.7%로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나쁜편’이 37.3%, ‘아주나쁨’이 10.3%이고 남성은 ‘나쁜편’이 30.3%, ‘아주나쁨’이 8.6%로 여성의 시력이 남성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의 경우 보통보다 좋은 노인이 나쁜 노인보다 비율이 더 높았으며 여성노인은 ‘나쁜편’이 16.4%, ‘아주나쁨’이 2.3% 이었고, 남성노인은 ‘나쁜편’이 18.2%, ‘아주나쁨’이 2.9%로 남성노인의 청력이 여성노인보다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씹기의 경우 여성노인은 ‘나쁜편’이 37.3%, ‘아주나쁨’이 39%, 남성노인은 ‘나쁜편’이 37.9%, ‘아주나쁨’이 33%로 여성들의 씹기 능력이 남성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4 참조).

〈표 3-54〉 성별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시력	매우좋다	5.2	3.5
	좋은편	33.7	28.7
	보통	22.2	23.6
	나쁜편	30.3	34.6
	아주나쁨	8.6	9.7
	계	100.0	100.0
청력	매우좋다	10.3	8.1
	좋은편	43.9	44.3
	보통	24.8	28.0
	나쁜편	18.2	17.1
	아주나쁨	2.9	2.5
	계	100.0	100.0
씹기	매우좋다	3.2	2.1
	좋은편	12.7	10.6
	보통	13.2	13.1
	나쁜편	37.9	37.5
	아주나쁨	33.0	36.7
	계	100.0	100.0
	(1,745)	(1,107)	(2,852)
	(1,745)	(1,105)	(2,850)

노인들은 과반수 이상이 시력보조기를 착용하였으며 여성은 63.3%, 남성은 74.6%의 착용률을 보였다. 안경을 껴올 때 여성노인의 21.2%, 남성노인의 15.6%는 여전히 시력이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청력보조기를 착용한 노인은 전체의 10.8%이고 여성노인 9.8%, 남성노인은 12.1%로 남성의 청력보조기 착용률이 더 높았다. 한편 전체노인의 70.8%, 여성노인의 72.4%, 남성노인의 68.2%가 씹기보조기를 착용하였다. 틀니 등 씹기보조기 착용시 여성노인은 36%가 ‘나쁜편’, 4.6%가 ‘아주나쁨’, 남성노인은 30.7%가 ‘나쁜편’, 4.7%가 ‘아주나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노인은 씹기 보조기, 남성은 시력 및 청력 보조기 착용률이 더 높았으나 여성은 보조기 착용시에도 씹기 능력과 시력이 남성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표 3-55 참조).

〈표 3-55〉 성별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정도와 보조기 착용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시력			
시력보조기착용 비율	63.3	74.6	67.1
매우좋다	1.3	0.9	1.2
좋은편	32.4	35.9	33.7
보통	45.1	47.5	46.0
나쁜편	20.4	15.3	18.5
아주나쁨	0.8	0.3	0.6
계	100.0	100.0	100.0
(명)	(525)	(320)	(845)
청력			
청력보조기착용 비율	9.8	12.1	10.8
매우좋다	3.0	-	1.6
좋은편	24.2	7.1	16.4
보통	48.5	57.1	52.5
나쁜편	24.2	32.1	27.9
아주나쁨	-	3.6	1.6
계	100.0	100.0	100.0
(명)	(33)	(28)	(61)
씹기			
씹기보조기착용 비율	72.4	68.2	70.8
매우좋다	0.7	0.6	0.7
좋은편	19.5	23.4	20.9
보통	39.2	40.6	39.7
나쁜편	36.0	30.7	34.1
아주나쁨	4.6	4.7	4.6
계	100.0	100.0	100.0
(명)	(961)	(534)	(1,495)

5. 요양욕구

가. 신체기능

신체기능과 관련하여 ‘옷벗고 입기’는 98.8%, ‘세수하기’는 99.4%, ‘양치질하기’는 99.6%, ‘목욕하기’는 97.1%, ‘식사하기’는 99.6%, ‘체위변경하기’는 99.8%, ‘일어나 앉기’는 99.5%, ‘움켜타기’는 99.5%, ‘방밖으로 나오기’는 99.3%, ‘화장

실사용하기'는 99.4%, '대변 조절하기'는 99.5%, '소변 조절하기'는 98.3%가 '완전자립'이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56 참조).

〈표 3-56〉 성별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99.0	98.4	98.8
	부분도움	0.9	1.4	1.1
	완전도움	0.1	0.3	0.2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7)	(2,852)
세수하기	완전자립	99.5	99.4	99.4
	부분도움	0.4	0.5	0.5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7)	(2,852)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9.5	99.8	99.6
	부분도움	0.3	0.1	0.2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목욕하기	완전자립	97.1	97.0	97.1
	부분도움	2.0	2.0	2.0
	완전도움	0.9	1.0	0.9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식사하기	완전자립	99.5	99.7	99.6
	부분도움	0.4	0.3	0.4
	완전도움	0.1	-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표 3-56〉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9.8	99.9	99.8
	부분도움	0.2	0.1	0.1
	완전도움	0.1	-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9.5	99.4	99.5
	부분도움	0.2	0.5	0.4
	완전도움	0.2	0.1	0.2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7)	(2,852)
옹겨타기	완전자립	99.3	99.7	99.5
	부분도움	0.5	0.1	0.3
	완전도움	0.2	0.2	0.2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7)	(2,852)
방밖으로 나오기	완전자립	99.1	99.6	99.3
	부분도움	0.5	0.2	0.4
	완전도움	0.6	0.2	0.3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5)	(2,850)
화장실사용하기	완전자립	99.3	99.6	99.4
	부분도움	0.4	0.3	0.4
	완전도움	0.3	0.1	0.2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대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9.4	99.5	99.5
	부분도움	0.5	0.4	0.5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소변 조절하기	완전자립	98.0	98.7	98.3
	부분도움	1.9	1.3	1.7
	완전도움	0.1	-	0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이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 단장하기’는 98.5%, ‘집안일’은 95.4%, ‘식사준비’는 95.1%, ‘빨래하기’는 95.3%, ‘근거리 외출하기’는 96.5%, ‘교통수단 이용하기’는 91.8%, ‘물건 사러가기’는 97.0%, ‘금전 관리하기’는 89.9%, ‘전화 사용하기’는 91.9%, ‘약 챙겨먹기’는 99.1%가 완전자립이 가능하였다. 여성노인은 전반적으로 남성노인에 비하여 도구적 일상생활수행에 있어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완전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수단 이용하기’는 여성노인의 10.4%, ‘금전관리’는 14.9%, ‘전화 사용하기’는 ‘11.6%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표 3-57 참조).

〈표 3-57〉 성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몸 단장하기	완전자립	98.6	98.3	98.5
	부분도움	1.2	1.6	1.4
	완전도움	0.2	0.1	0.2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7)	(2,852)
집안일	완전자립	95.2	95.7	95.4
	부분도움	4.0	3.1	3.6
	완전도움	0.9	1.3	1.0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식사준비	완전자립	95.1	95.1	95.1
	부분도움	3.9	3.2	3.6
	완전도움	1.0	1.7	1.3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빨래하기	완전자립	95.4	95.1	95.3
	부분도움	3.3	2.8	3.1
	완전도움	1.3	2.1	1.6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표 3-57〉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근거리 외출하기	완전자립	95.8	97.6	96.5
	부분도움	3.0	1.7	2.5
	완전도움	1.2	0.6	1.0
	계	100.0	100.0	100.0
	(명)	(1,746)	(1,106)	(2,852)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89.6	95.3	91.8
	적은 부분도움	6.1	2.1	4.6
	많은 부분도움	2.5	1.7	2.2
	완전도움	1.8	0.9	1.4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물건 사러가기	완전자립	96.2	98.3	97.0
	적은 부분도움	2.2	0.8	1.7
	많은 부분도움	0.7	0.5	0.6
	완전도움	0.9	0.4	0.7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금전 관리하기	완전자립	85.1	97.4	89.9
	부분도움	14.4	2.4	9.7
	완전도움	0.5	0.3	0.4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88.4	97.5	91.9
	적은 부분도움	8.5	1.6	5.8
	많은 부분도움	2.6	0.7	1.9
	완전도움	0.6	0.2	0.4
	계	100.0	100.0	100.0
(명)	(1,744)	(1,106)	(2,850)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99.1	99.0	99.1
	부분도움	0.9	0.9	0.9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나. 인지기능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은 ‘방금 전이나 며칠 전 일을 잊음’이 13.2%, ‘상황 판단력 감퇴’가 4.6%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인지기능 장애 측정 항목 9개 가운데 8개에 있어서 여성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58〉 성별 인지기능 장애 비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수)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	14.1	11.8	13.2	(2,851)
날짜 계절 불인지	1.3	0.8	1.1	(2,851)
장소 불인지	0.2	0.1	0.1	(2,851)
가족 친척 불인지	0.2	0.2	0.2	(2,851)
본인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1.0	0.5	0.8	(2,851)
지시사항 이해 못함	2.3	1.0	1.8	(2,851)
일정표 이해 못함	0.9	0.3	0.7	(2,851)
상황 판단력 감퇴	4.6	3.5	4.2	(2,851)
의사소통 전달 장애	1.5	1.0	1.3	(2,851)

다. 문제행동 영역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우울상태나 울기 포함’이 4.8%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이 2.4%, ‘환각·환청’이 1.3%, ‘돈물건감추기’가 1.2%,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이 1.0%로 1%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4가지 증세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출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3-59 참조).

〈표 3-59〉 성별 문제행동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수)
절도나 상해 위협(망상)	0.6	0.5	0.6	(2,849)
환각·환청	1.4	1.0	1.3	(2,849)
우울상태나 울기도함	5.8	3.3	4.8	(2,849)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	2.8	1.9	2.4	(2,849)
도움에 저항	1.0	0.6	0.8	(2,849)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1.3	0.6	1.0	(2,849)
외출하면 길을 잃음	0.7	0.7	0.7	(2,849)
폭언이나 위협행동	0.6	1.3	0.9	(2,849)
이유없이 크게 소리내거나 고함침	1.1	0.7	0.9	(2,849)
밖으로 나가려고 함	0.2	0.2	0.2	(2,849)
물건·옷 등을 망가뜨림	0.1	-	0.1	(2,849)
먹지 못하는 것 먹으려고 함	0.2	-	0.1	(2,849)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함	0.2	0.4	0.3	(2,849)
물건 훔쳐서 집에 가지고 옴	0.2	-	0.1	(2,849)
혼자있기 두려움	0.5	0.3	0.4	(2,849)
사람 혼동이나 오인	0.2	0.1	0.2	(2,849)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님	0.3	0.3	0.3	(2,849)
돈 물건감추기	1.4	0.8	1.2	(2,849)
부적절한 옷입기	0.2	0.1	0.1	(2,849)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	1.0	0.5	0.8	(2,849)
부적절한 노출이나 성행위	0.1	-	0.1	(2,849)
대소변 벽이나 옷에 바름	0.1	-	0.1	(2,849)

라. 간호처치 욕구

간호처치 욕구 상태의 경우 ‘통증간호’가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복막투석 및 간호’가 0.9%이고 기타 간호처치 욕구는 0.1~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통증간호 및 복막투석 등의 간호처치 욕구는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나 도뇨관리, 산소요법 등은 남성의 간호처치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0 참조).

〈표 3-60〉 성별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수)
기관지 절개 간호	0.1	0.5	0.2	(2,851)
흡인	0.1	0.4	0.2	(2,851)
산소요법	0.1	0.5	0.2	(2,851)
욕창	0.1	0.3	0.1	(2,851)
경관영양	0.1	0.4	0.2	(2,851)
통증간호	6.1	4.1	5.3	(2,851)
정맥주사요법	0.3	0.4	0.4	(2,851)
도뇨관리	0.1	0.4	0.2	(2,851)
장루간호	0.1	0.3	0.1	(2,851)
상처간호	0.2	0.3	0.2	(2,851)
복막투석 및 간호	1.1	0.7	0.9	(2,851)

마. 재활욕구 출현율

재활욕구의 마비 출현율은 전반적으로 2.0~6.1%의 비율을 보였으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상지 마비 출현율은 여성노인이 2.5%, 남성노인이 1.5%로 나타났으며 좌측상지 마비 출현율은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각각 2.4%, 1.3%로 나타났다. 하지 마비 출현율은 우측하지의 경우 여성노인이 7.7%, 남성노인이 3.4%로 나타났으며, 좌측하지는 여성노인이 7.8%, 남성노인이 3.5%로 상지마비 출현율보다 하지 마비가 출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3-61 참조).

〈표 3-61〉 성별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우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7.5	98.5	97.9
불완전마비	2.0	1.1	1.7
완전마비	0.5	0.5	0.5
계	100.0	100.0	100.0
(명)	(1,738)	(1,099)	(2,837)
좌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7.6	98.7	98.0
불완전마비	1.8	1.0	1.5
완전마비	0.6	0.3	0.5
계	100.0	100.0	100.0
(명)	(1,736)	(1,097)	(2,833)
우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2.3	96.7	94.0
불완전마비	6.8	3.1	5.3
완전마비	0.9	0.3	0.7
계	100.0	100.0	100.0
(명)	(1,711)	(1,076)	(2,787)
좌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2.2	96.5	93.9
불완전마비	6.8	3.2	5.4
완전마비	1.0	0.3	0.7
계	100.0	100.0	100.0
(명)	(1,710)	(1,078)	(2,788)

재활욕구의 구축 출현율을 살펴보면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출현율이 각각 28.1%, 17.8%로 다른 관절의 출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활욕구(마비) 출현율과 마찬가지로 여성노인의 재활욕구(구축) 출현율이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62 참조).

〈표 3-62〉 성별 재할욕구(구축)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어깨관절 구축	구축없음	93.6	96.5	94.7
	우관절구축	2.1	1.7	1.9
	좌관절구축	1.7	0.9	1.4
	양관절구축	2.7	0.8	2.0
	계 (명)	100.0 (1,738)	100.0 (1,097)	100.0 (2,835)
팔꿈치관절 구축	구축없음	94.5	96.6	95.3
	우관절구축	2.0	1.4	1.7
	좌관절구축	1.6	0.9	1.3
	양관절구축	2.0	1.1	1.6
	계 (명)	100.0 (1,739)	100.0 (1,096)	100.0 (2,835)
손목 및 수지관절구축	구축없음	92.5	93.8	93.0
	우관절구축	2.6	2.1	2.4
	좌관절구축	1.9	1.9	1.9
	양관절구축	3.0	2.2	2.7
	계 (명)	100.0 (1,739)	100.0 (1,095)	100.0 (2,834)
고관절 구축	구축없음	65.5	82.0	71.9
	우관절구축	5.2	2.9	4.3
	좌관절구축	5.3	1.8	4.0
	양관절구축	24.0	13.2	19.9
	계 (명)	100.0 (1,686)	100.0 (1,057)	100.0 (2,743)
무릎관절 구축	구축없음	76.7	91.1	82.2
	우관절구축	5.2	2.1	4.0
	좌관절구축	4.8	1.6	3.5
	양관절구축	13.3	5.2	10.2
	계 (명)	100.0 (1,719)	100.0 (1,077)	100.0 (2,796)
발목관절 구축	구축없음	91.9	94.5	92.9
	우관절구축	1.3	1.7	1.5
	좌관절구축	2.0	0.9	1.6
	양관절구축	4.7	2.9	4.0
	계 (명)	100.0 (1,723)	100.0 (1,080)	100.0 (2,803)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문제행동, 재활마비, 재활구축 영역에서 여성들의 욕구가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욕구와 관련된 특징들은 간호처치 욕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표 3-63〉 성별 노인 요양욕구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여성	남성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13(1.05)	12.11(0.77)	-0.67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10.79(2.23)	10.43(1.94)	-4.60***
인지능력	0.26(0.76)	0.19(0.61)	-2.73***
문제행동	0.20(1.06)	0.13(0.57)	-2.19**
간호처치	0.08(0.36)	0.08(0.61)	-0.23
재활마비	4.23(0.79)	4.11(0.50)	-5.12***
재활구축	8.00(3.02)	7.05(2.34)	-9.24***

주: *= $p<0.1$, **= $p<0.05$, ***= $p<0.01$

한편 같은 연령집단에서 여성과 남성의 요양욕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65~69세 노인집단의 경우 여성들의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재활마비, 재활구축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노인들의 경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능력,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 관련 요양욕구도 여성노인들이 더 높았고,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재활마비와 재활구축에서 여성노인들의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집단간 차이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령을 통제하여도 여성노인들의 요양관련 욕구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더 큰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표 3-64 참조).

〈표 3-64〉 연령·성별 영양욕구

구분	평균(표준편차)		t값	전체
	여성	남성		
65~69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5(0.42)	12.03(0.29)	-0.787	12.05(0.37)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34(1.36)	10.19(1.24)	-1.841**	10.28(1.32)
인지능력	0.16(0.55)	0.14(0.47)	-0.526	0.16(0.52)
문제행동	0.11(0.52)	0.10(0.54)	-0.067	0.11(0.54)
간호처치	0.08(0.28)	0.11(0.86)	0.754	0.10(0.61)
재활마비	4.14(0.58)	4.07(0.48)	-1.914**	4.11(0.55)
재활구축	7.45(2.53)	6.75(1.94)	-5.213***	7.15(2.32)
70~74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11(1.06)	12.04(0.30)	-1.107	12.09(0.84)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55(1.97)	10.20(1.04)	-3.260***	10.41(1.67)
인지능력	0.24(0.70)	0.14(0.56)	-2.270**	0.20(0.66)
문제행동	0.15(0.67)	0.09(0.39)	-1.544	0.13(0.58)
간호처치	0.07(0.29)	0.04(0.19)	-2.158**	0.06(0.26)
재활마비	4.21(0.73)	4.12(0.49)	-2.132**	4.18(0.65)
재활구축	7.83(2.74)	7.10(2.34)	-4.020***	7.54(2.61)
75세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23(1.43)	12.32(1.45)	0.860	12.26(1.44)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1.46(2.91)	11.14(3.27)	-1.466	11.37(3.03)
인지능력	0.38(0.96)	0.34(0.82)	-0.644	0.37(24.67)
문제행동	0.33(1.60)	0.23(0.76)	-0.986	0.30(1.40)
간호처치	0.08(0.45)	0.05(0.25)	-0.808	0.08(0.41)
재활마비	4.34(0.98)	4.14(0.53)	-3.900***	4.29(0.88)
재활구축	8.73(3.53)	7.53(2.87)	-5.096***	8.37(3.39)

주: *=p<0.1, **=p<0.05, ***=p<0.01

6. 수발실태

가.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성별에 따른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수발자 없음’이 여성노인은 77.2%, 남성노인은 73.5%로 여성노인들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남성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성별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

구분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
수발자 없음	77.2	73.5	76.2
동거 가구원	18.4	24.1	20.0
비동거 가구원	4.4	2.4	3.8
계	100.0	100.0	100.0
(명)	(662)	(249)	(911)

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여성노인의 수발자 중 45.6%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 수발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인 29.2%보다 높았다. 이는 남성노인들은 비경제활동 배우자들이 수발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표 3-66 참조).

〈표 3-66〉 성별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활동 없음	54.4	70.8	59.4
파트타임	4.1	9.2	5.7
전일제 일	41.5	20.0	34.9
계	100.0	100.0	100.0
(명)	(147)	(65)	(212)

다. 수발기간

수발기간을 살펴보면 노인의 43.9%가 5년 이상 수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에 따라 나누어 보면, 여성노인의 수발기간은 ‘5년 이상’ 46.9%, ‘1~3년’ 23.1%, ‘3~5년’ 15.6%, ‘1년 미만’ 14.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은 ‘5년 이상’ 36.9%, ‘3~5년’ 23.1%, ‘1년 미만’ 21.5% ‘1~3년’ 18.5%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수발 기간이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67〉 성별 수발기간

(단위 :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1년 미만	14.3	21.5	16.5
1~3년	23.1	18.5	21.7
3~5년	15.6	23.1	17.9
5년 이상	46.9	36.9	43.9
계	100.0	100.0	100.0
(명)	(147)	(65)	(212)

라. 주 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부담유형

수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2%이었으며 남성노인 수발자들은 65.7%, 여성노인 수발자들은 47.7%로 남성노인 수발자들이 여성노인 수발자 보다 수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 수발자들은 수발시 가장 힘든 점으로 육체적 피로(51.1%)와 경제적 부담(31.1%)이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여성노인 수발자들은 육체적 피로(27.4%)와 경제적 부담(12.3%)보다 심리적 부담(43.8%)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성별 주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부담정도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수발의 어려움			
없다	52.3	34.3	46.8
있다	47.7	65.7	53.2
계	100.0	100.0	100.0
(명)	(151)	(67)	(218)
수발시 가장 힘든 점			
취업기회 상실	4.1	2.2	3.4
육체적 피로	27.4	51.1	36.4
사생활 제한	8.2	2.2	5.9
사회생활 제한	2.7	4.4	3.4
경제적 부담	12.3	31.1	19.5
가족간 갈등	1.4	-	0.8
심리적 부담	43.8	8.9	30.5
계	100.0	100.0	100.0
(명)	(73)	(45)	(118)

마. 주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수발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74.8%이고 남성은 25.2%를 차지하였다.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은 수발대상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3-69〉 성별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주수발자의 성별			
남자	36.4	-	25.2
여자	63.6	100.0	74.8
계	100.0	100.0	100.0
(명)	(151)	(67)	(218)
주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19.6	80.0	38.5
장남·며느리	34.3	10.8	26.9
그 외 아들·며느리	13.3	1.5	9.6
딸·사위	23.8	4.6	17.8
손자녀·배우자	2.1	-	1.4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2.1	-	1.4
비혈연동거인·이웃	2.8	-	1.9
유급봉사원 (가정봉사원, 파출부, 간병인)	2.1	3.1	2.4
계	100.0	100.0	100.0
(명)	(143)	(65)	(208)
수발자의 연령			
30세 미만	1.8	-	1.4
30~49세	59.5	33.3	53.9
50~64세	37.8	60.0	42.6
65세 이상	0.9	6.7	2.1
계	100.0	100.0	100.0
(명)	(111)	(30)	(141)

여성노인의 주 수발자는 여성이 63.6%, 남성이 36.4%로 장남·며느리가 34.3%, 딸·사위가 23.8%, 배우자가 19.6%를 차지하였다. 한편 남성노인의 주수발자는 배우자가 80%, 장남·며느리가 10.8%로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연령에서도 여성노인의 주수발자는 30~49세 59.5%, 50~64세 37.8%로 나타났으나

남성노인의 주수발자는 50~64세 60.7%, 30~49세 33.3%로 남성노인의 주수발자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의 주수발자의 대부분이 자식인 반면 남성노인의 주수발자의 대부분은 배우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발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수발자의 연령이 차이가 있고, 특히 중고령여성들은 연로한 배우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육체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여성수발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바. 수발행위 평균빈도

수발행위 빈도를 보면 청소와 세탁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머리감기, 특별식 준비, 외출 동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변지원, 옷갈아입기, 개인위생, 체위변경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분석에 포함된 노인들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표 3-70〉 성별 수발행위 평균빈도

(단위: 회)

구분	여성	남성	전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개인위생(1일 중)	0.07(0.33)	0.19(0.76)	0.11(0.50)
옷갈아입기(1일 중)	0.27(1.13)	0.48(1.14)	0.33(1.13)
체위변경(1일 중)	0.00(0.00)	0.08(0.76)	0.03(0.42)
소변보기(1일 중)	0.10(0.56)	0.21(1.01)	0.14(0.73)
노인방 청소(1주 중)	2.46(2.90)	5.00(2.57)	3.24(3.03)
노인의료 및 침구 세탁(1주 중)	2.12(2.43)	3.88(2.30)	2.66(2.52)
특별식 준비(1주 중)	0.43(1.35)	1.05(2.43)	0.62(1.78)
머리감기 및 목욕(1주 중)	0.70(1.58)	1.30(2.12)	0.89(1.78)
대변보기(1주 중)	0.14(0.87)	0.09(0.52)	0.13(0.78)
외출시 수행(1주 중)	0.53(0.99)	0.82(1.68)	0.62(1.24)
계(명)	151	67	218

7.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가.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과 ‘경로식당/무료급식’은 각각 84.5%와 81.2%로 가장 높았으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은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노인식사배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1〉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46.2	60.1	51.6	(2,948)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81.3	89.6	84.5	(2,948)
단기보호시설	6.7	10.7	8.2	(2,948)
주간보호시설(탁노소)	8.3	11.7	9.6	(2,948)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1.4	30.6	25.0	(2,948)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61.2	61.9	61.5	(2,847)
경로식당/무료급식	77.8	86.6	81.2	(2,848)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71.6	69.8	70.9	(2,846)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51.0	58.0	53.7	(2,846)
보장구대여 서비스	12.1	17.8	14.3	(2,846)

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은 0.2%~12.6%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반대로 ‘보장구대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용(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낮지만 남성노인보다 이용욕구는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표 3-72 참조).

〈표 3-72〉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없음	99.4	99.7	99.5
	있음	0.5	0.2	0.3
	현재 이용중	0.1	0.2	0.1
	계	100.0	100.0	100.0
	(명)	(806)	(664)	(1,470)
노인(전문)요양시설/ 양로시설	없음	99.8	99.9	99.8
	있음	0.2	0.1	0.2
	현재 이용중	0	0	0.0
	계	100.0	100.0	100.0
	(명)	(1,417)	(990)	(2,407)
단기보호시설	없음	100.0	100.0	100.0
	있음	0.0	0.0	0.0
	현재 이용중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명)	(117)	(118)	(4235)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없음	100.0	99.2	99.6
	있음	0.0	0.8	0.4
	현재 이용중	-	-	-
	계	100.0	100.0	100.0
	(명)	(144)	(130)	(274)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없음	98.1	98.5	98.3
	있음	1.1	0.6	0.8
	현재 이용중	0.8	0.9	0.8
	계	100.0	100.0	100.0
	(명)	(375)	(338)	(713)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없음	98.4	99.1	98.7
	있음	0.7	0.7	0.7
	현재 이용중	0.8	0.2	0.6
	계	100.0	100.0	100.0
	(명)	(1,067)	(684)	(1,751)
경로식당/무료급식	없음	86.4	88.9	87.4
	있음	8.6	7.6	8.2
	현재 이용중	5.0	3.5	4.4
	계	100.0	100.0	100.0
	(명)	(1,356)	(957)	(2,313)

〈표 3-72〉 계속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거동불편) 노인식사 배달	없음	96.5	99.1	97.5
	있음	1.2	0.3	0.8
	현재 이용중	2.3	0.6	1.7
	계	100.0	100.0	100.0
	(명)	(1,247)	(772)	(2,019)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없음	96.5	97.4	96.9
	있음	2.3	1.7	2.0
	현재 이용중	1.2	0.9	1.1
	계	100.0	100.0	100.0
	(명)	(888)	(641)	(1,529)
보장구대여 서비스	없음	98.6	98.0	98.3
	있음	0.5	1.5	1.0
	현재 이용중	0.9	0.5	0.7
	계	100.0	100.0	100.0
	(명)	(211)	(197)	(408)

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

노인복지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전문병원은 38.7%, 노인요양시설은 29.5%를 차지하였다(표 3-73 참조).

노인요양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여성노인이 더 높고, 노인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남성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3〉 성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상자)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37.7	40.3	38.7	(2,846)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30.1	28.6	29.5	(2,842)
단기보호시설	12.9	17.1	14.5	(2,847)
주간보호시설(탁노소)	14.6	17.6	15.8	(2,847)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30.7	34.2	32.0	(2,845)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32.7	27.7	30.7	(2,846)
경로식당/무료급식	21.1	16.8	19.4	(2,847)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28.0	22.6	25.9	(2,845)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46.6	43.2	45.2	(2,845)
보장구대여 서비스	27.4	28.1	27.6	(2,844)

8.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장기요양관련 정책 중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가 4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간보호서비스 확대’가 28.8% 순이다.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요구도가 높고,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요구가 더 높았다.

〈표 3-74〉 노인의 성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4.0	3.7	3.9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31.3	24.9	28.8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1.9	1.5	1.7
요양시설 확대	1.5	0.9	1.3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	38.0	48.6	42.1
보장구 대여서비스 확대	8.5	6.1	7.6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0.9	0.9	0.9
기타	13.9	13.4	13.7
정부지원 필요없음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1,718)	(1,101)	(2,819)

9. 성별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성별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일상생활능력(ADL), 인지능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변수와 주수발자 특성인 주수발자 연령, 주수발자 성별, 수발기간, 수발어려움유무, 수발행위, 주수발자 취업상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서비스 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5>와 같다.

<표 3-75> 성별 서비스 인지도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별(여성기준) : 남성					-.577	-1.022
연령	-.030	-.834	-.010	-.165	-.010	-.344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412	.607	.971	.628	.272	.459
교육수준	.583	3.585***	.164	.816	.355	3.015***
노인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음 기준) : 하고 있음	-.271	-.353	-3.17	-3.008***	-1.341	2.150**
일상생활능력(ADL)	-.192	-2.030**	.123	.744	-.065	-.807
인지능력	-.035	-.220	-.178	-.591	-.105	-.761
문제행동	-.104	-.609	.059	.211	-.168	-1.212
간호처치	.315	.480	.577	.305	.636	1.017
재활마비	-.005	-.035	-.466	-1.376	-.115	-.838
재활구축	.035	.576	-.058	-.572	-.025	-.492
주수발자의 연령	-.010	-.578	.059	1.091	.002	.143
주수발자(여성 기준) : 남성	.359	.678			.170	.339
수발기간	.012	.452	-.018	-.367	-.005	-.224
수발어려움(있음 기준) : 없음	.114	.291	-.697	-.873	-.280	-.799
수발행위	.021	.600	-.062	-1.046	.001	.045
주수발자(비취업 기준) : 파트타임	-1.421	-1.297	-.456	-1.006	-1.037	-1.230
전일제	-.228	-.520	.516	.600	-.292	-.759
상수 b	7.075**		2.597		5.634**	
Adjusted R square	.225		.457		.066	
F	1.633*		1.968**		1.750**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노인의 경우, 노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서비스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상생활능력(ADL)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10.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6>과 같다.

<표 3-76>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별(여성기준) : 남성					-.144	-1.027
연령	.018	1.787*	.005	.494	.013	1.802*
결혼상태(기혼기준) : 미혼	-.188	-.985	.025	.094	-.100	-.679
교육수준	.037	.807	-.022	-.687	-.002	-.053
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음 기준) : 하고 있음	.245	1.192	-.079	-.442	.100	.665
일상생활능력(ADL)	-.007	-.267	-.016	-.576	.001	.071
인지능력	.004	.081	.019	.413	-.002	-.051
문제행동	-.007	-.159	.000	-.005	-.022	-.653
간호처치	-.137	-.819	.444	1.385	-.055	-.386
재활마비	.075	1.718*	.022	.402	.045	1.323
재활구축	.009	.549	.004	.215	.005	.365
주수발자의 연령	-.004	-.726	.009	.992	-.001	-.224
주수발자(여성기준) : 남성	-.134	-.903			.136	-1.090
수발기간	.000	.051	.006	.745	-5.9E-05	-.011
수발어려움(있음기준) : 없음	.040	.368	.039	.290	.022	.256
수발행위	.009	.867	-.007	-.707	.005	.648
주수발자(비취업 기준) : 파트타임	-.335	-1.092	.180	.735	.018	.088
전일제	.287	2.336**	.020	.138	.206	2.155**
상수 b		-1.471*		-.712		-1.056*
Adjusted R square		.024		-.110		.003
F		1.201		.664		1.032

주 : *= $p<0.1$, **= $p<0.05$, ***= $p<0.01$

전체 노인의 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

제 취업인 경우에 이용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만 이용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1. 성별에 따른 서비스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성별에 따른 서비스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77>과 같다.

<표 3-77> 성별 서비스 희망률

변수	여성		남성		전체	
	β	t	β	t	β	t
성별(여성기준): 남성					.282	.415
연령	-.015	-.356	-.126	-1.725*	-.061	-1.780*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828	-1.053	1.616	.826	-.373	-.524
노인교육수준	.519	2.741***	-.496	-1.958*	.014	.099
노인경제활동(하고 있지 않음 기준): 하고 있음	1.552	1.681*	-1.040	-.780	.085	.111
일상생활능력(ADL)	-.146	-1.335	-.051	-.244	-.055	-.576
인지능력	-.175	-.922	-.256	-.671	-.214	-1.278
문제행동	.033	.166	.266	.749	.049	.291
간호처치	-.271	-.356	1.224	.513	-.064	-.085
재활마비	.075	.420	.421	.983	.103	.625
재활구축	.171	2.400**	.103	.796	.131	2.156**
주수발자의 연령	-.021	-1.026	.004	.056	-.020	-1.053
주수발자(여성기준): 남성	.442	.720			.557	.923
수발기간	-.011	-.357	.024	.399	.009	.000
수발어려움(있음기준): 없음	-.045	-.098	-1.824	-1.808*	-.503	-1.193
수발행위	-.002	-.060	.051	.682	.014	.382
주수발자(비취업): 파트타임	-.414	-.325	-1.455	-.795	-.044	-.043
전일제	.208	.406	-2.238	-2.059**	-.325	-.700
상수 b	3.946		11.864*		7.623***	
Adjusted R square	.080		.246		.069	
F	1.695*		2.091**		1.775**	

주 : * = p < 0.1, ** = p < 0.05, *** = p < 0.01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 노인의 경우, 노인연령이 적을수록, 재활구축이 많을수록 서비스 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와 재할구축이 많을수록 서비스 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낮고 수발어려움이 있을수록 서비스 이용 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제 4 절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을 크게 ① 여가활동, ② 사회단체활동,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④ 자원봉사활동, ⑤ 정보화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여성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가. 여가활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가장 즐거움(보람)을 느꼈던 활동’으로 규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2가지를 지적하게 한 결과, 전체 노인들의 경우 가장 큰 즐거움이나 보람을 느낀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친구만남·친가방문·동호인 모임 등의 사교활동,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보기, 관광·등산·낚시·답사 등의 여행, 종교활동 등의 순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두 번째로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낀 순서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히 즐거움을 느낀 활동이 전혀 없는 노인도 11% 정도에 이르고 있다(표 3-78 참조).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낀 활동으로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사교활동,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보기, 종교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두 번째로 보람과 즐거움을 느낀 활동으로는 사교활동, TV시청·라디오청취·신문보기,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여행, 종교활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여성들의 여가활동 실태를 남성노인들과 비교하여

보면,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낀 활동에서 남성노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거의 유사한 여가활동 참여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여성노인들은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우인교류형 여가활동, 정적이고 소극적인 기분전환형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78〉 성별 여가활동 참여 실태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학습활동	0.3	0.3	0.5	0.3	0.4	0.3
사회(자원)봉사활동	0.6	0.3	1.4	0.6	0.9	0.4
컴퓨터, 인터넷활동	0.1	0.2	0.5	0.9	0.2	0.5
스포츠활동	1.5	1.2	4.4	2.5	2.6	1.7
사교활동	21.3	16.4	22.6	14.2	21.8	15.6
여행	3.9	5.1	9.1	9.1	5.9	6.7
영화감상, 연극·운동경기관람 등	0.2	0.2	0.5	0.5	0.3	0.4
서예, 독서,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공예 등	0.4	0.8	3.1	2.7	1.4	1.5
건강가요, 시조, 장구, 풍물 등	1.1	2.0	1.5	0.6	1.2	1.5
바둑, 장기, 화투 등	2.1	2.5	4.0	3.6	2.8	2.9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32.7	12.5	26.7	13.6	30.4	12.9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9.7	14.6	8.9	14.1	9.4	14.4
자녀 및 손자녀양육	3.3	2.7	2.5	2.6	3.0	2.7
집안일하기	1.2	0.3	0.3	0.2	0.8	0.3
종교활동	7.1	4.2	1.9	0.5	5.1	2.8
기타	1.8	0.7	2.9	1.6	2.2	1.1
특별히 없음	12.8	35.9	9.4	32.1	11.5	3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744)	(1,102)	(1,746)	(1,104)	(2,846)	(2,850)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남성과 같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우인교류형 여가활동이나 소극적인 기분전환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긴 하지만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남성노인들에 비해 가족중심적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여가활동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이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만이 여가활동 참여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관적 건강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9〉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변수	여성(β)	남성(β)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116*
연령	-.018	-.077	-.038
교육수준	.093	.105	.11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158	-.088	-.094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15	-.011	-.007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162	-.210	-.154
자녀수	.063	.017	.023
자녀 접촉 빈도	-.026	.053	.017
자녀 연락 빈도	.026	-.058	-.026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106*	-.097	.111*
월평균 용돈액수	.126	.061	.073
월평균 총수입액	-.089	-.014	-.036
주관적 건강평가	.169**	.272***	.221***
만성질환수	-.023	.082	.022
일상생활 동작능력	-.047	-.052	-.055
사회적 지지	.085	.062	.086*
(상수)	3.452	3.825**	4.058**
R square	.128	.162	.130
adjusted R square	.077	.119	.105
F	2.501**	3.755***	5.096***

주: *=P<.05, **=P<.01, ***=P<.001

2. 사회단체 활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활동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 및 직능단체라는 5가지 유형의 단체에 의 ① 참여 여부, ② 월 참여빈도, ③ 향후 참여의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단체 가입률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등의 5개 단체에 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여성노인들의 경우 종교단체 가입률은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높지만 나머지 4개 단체의 가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노인들이 가입한 단체의 수는 평균 0.85개로서 남성노인들의 평균 가입단체의 수인 0.95개에 비해 가입한 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들에 비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80〉 성별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구분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대상자수)
종교단체	57.2	31.3	47.2(2,851)
문화활동단체	0.5	1.8	1.0(2,851)
운동단체	1.3	8.0	3.9(2,851)
사교단체	26.4	50.3	35.6(2,851)
정치단체	0.6	4.0	1.9(2,851)

나. 사회단체 월 참여빈도

사회단체에 가입한 여성노인들의 월 참여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참여하는 여성노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주 1회, 주 2~3회 정도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 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의

경우에는 월 1회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정치 또는 직능단체의 경우에는 월 1회 미만 참여하는 여성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종교단체 주1회 이상 참여빈도는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더 적으며, 사교단체의 참여빈도는 상대적으로 더 잦은 것으로 나타나 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81〉 성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분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거의 매일	8.4	12.4	9.4	-	-	-	12.5	9.0	9.7
주 2~3회	19.9	14.2	18.5	12.5	15.0	14.3	25.0	5.6	9.7
주 1회	24.0	27.5	24.9	37.5	20.0	25.0	12.5	12.4	12.4
2주 1회	4.2	4.0	4.2	-	20.0	14.3	12.5	12.4	12.4
월 1회	8.3	9.8	8.7	50.0	15.0	25.0	29.2	47.2	43.4
월 1회 미만	35.1	32.1	34.3	-	30.0	21.4	8.3	13.5	1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98)	(346)	(1,344)	(8)	(20)	(28)	(24)	(89)	(113)

구분	사교단체			정치·직능단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전체
거의 매일	3.3	0.9	2.0	-	2.2	1.8
주 2~3회	3.5	2.3	2.8	-	2.2	1.8
주 1회	5.2	8.3	6.9	-	4.4	3.6
2주 1회	13.0	10.4	11.6	-	8.9	7.3
월 1회	49.7	44.0	46.6	40.0	28.9	30.9
월 1회 미만	25.4	34.1	30.2	60.0	53.3	5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61)	(557)	(1,018)	(10)	(45)	(55)

다. 사회단체 향후 가입희망률

현재 사회단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 현재 사회단체 가입률보다는 앞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보면, 종교단체에 향후 가입할 의향을 지니고 있는 비율은 여성노인이 높고 나머지 4개 종류의 사회단체에 향후에 가입하고자 하는 비율은 남성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82〉 성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대상자수)
종교단체	58.2	33.0	48.4(2,847)
문화활동단체	1.2	2.8	1.8(2,848)
운동단체	1.9	9.5	4.8(2,849)
사교단체	26.3	49.8	35.4(2,849)
정치단체	0.7	3.9	1.9(2,850)

라.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월평균 수입이 많고, 연령이 적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83 참조).

〈표 3-83〉 여성노인의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변수	여성(β)	남성(β)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150**
연령	-.070	-.142**	-.103**
교육수준	.213**	.237***	.256***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204	-.101	-.04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49**	-.171**	-.165***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213	-.110	-.049
자녀수	.022	.067	.027
자녀 접촉 빈도	.083	.130*	.115**
자녀 연락 빈도	.047	-.027	.008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07	-.014	-.021
월평균 용돈액수	.198**	.104	.128**
월평균 총수입액	-.019	.173*	.138**
주관적 건강평가	.013	-.090	-.041
만성질환수	-.051	.060	.006
일상생활 동작능력	-.078	-.043	-.053
사회적 지지	.142*	.130*	.127**
(상수)	2.969	3.651*	3.355*
R square	.202	.265	.233
adjusted R square	.155	.227	.210
F	4.301***	7.025***	10.327***

주: *=P<.05, **=P<.01, ***=P<.00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③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④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성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9.0%,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6%로서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84〉 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참여한 경험 없음	86.4	89.4	87.6
현재 참여하고 있음	9.0	6.5	8.0
과거에 참여한 경험 있음	4.6	4.1	4.4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2)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부설, 대한노인회 산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5〉 성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8.4	12.9	9.9
노인복지회관(노인대학)	43.9	35.3	41.1
대한노인회(노인대학, 노인교실)	9.3	18.1	12.2
종교기관(노인대학, 노인교실)	26.6	21.6	24.9
기타	11.8	12.1	11.9
계	100.0	100.0	100.0
(명)	(237)	(115)	(353)

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의 18.9%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남성노인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노인들이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86〉 성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단위: %, 명)

구분	향후 평생교육 참여율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						계(명)
		기초학습	외국어 학습	여가· 취미	기술강좌	재취업 프로그램	기타	
여성	18.9	17.6	7.1	70.8	0.3	0.9	3.3	100.0(329)
남성	20.5	6.6	5.3	72.1	2.2	5.3	8.4	100.0(226)
전체	19.5	13.2	6.3	71.4	1.1	2.7	5.4	100.0(555)

향후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노인이 70.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학습에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17.6%,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7.1%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보면, 여성노인의 경우 기초학습과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높지만 여가·취미프로그램, 기술강좌, 재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여성노인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한다

고 한 경우가 각각 약 29%, 시간이 없어서와 필요성을 못 느껴서 참여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각각 약 13%인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의 문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더 많았다.

〈표 3-87〉 성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시간이 없어서	13.8	19.9	16.1
건강이 안 좋아서	29.3	19.3	25.4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9.8	34.5	31.6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3.2	17.3	14.8
참가비용비 부담스러워서	7.7	3.2	6.0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3.5	2.0	2.9
교육장소가 멀어서	1.5	0.8	1.2
교육장소를 몰라서	0.7	0.9	0.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0.3	2.0	0.9
기타	0.3	0.1	0.2
계	100.0	100.0	100.0
(명)	(1,383)	(865)	(2,248)

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의 경우 연령 변인만이 사회단체 참여 여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8 참조).

〈표 3-88〉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변수	여성		남성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334	.716
연령	.022	1.023	.059*	1.061	.034	1.034
교육수준	.127	1.135	.093	1.097	.120	1.12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191	1.211	9.549	14035.41	.594	1.81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528	1.695	.486	1.625	.513*	1.670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234	1.263	9.107	9019.912	.559	1.749
자녀수	-.019	.982	.063	1.065	.020	1.020
자녀 접촉 빈도	.354**	1.425	.211	1.235	.296***	1.344
자녀 연락 빈도	-.220	.803	-.053	.949	-.133	.875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360*	.698	-.250	.779	-.323*	.724
월평균 용돈액수	-.001	.999	.003	1.003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07	.993	-.002	.998	-.003	.997
주관적 건강평가	-.171	.843	-.323	.724	-.233	.792
만성질환수	.108	1.114	.006	1.006	.081	1.084
일상생활 동작능력	4.687	.009	4.687	.009	.681	.506
사회적 지지	-.098	.906	-.098	.906	.051	1.052
(상수)	7.364	1578.14	87.165	7165.5	9.116	9097.85
Chi-Square / df	36.899** / 15		28.950** / 15		55.424*** / 15	
-2Log Likelihood	385.491		259.753		486.901	
Nagelkerke R square	.106		.120		.094	

주: *=P<.05, **=P<.01, ***=P<.001

4. 자원봉사활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② 실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 ③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④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여성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9.0%,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2.8%로서, 남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89 참조).

〈표 3-89〉 성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경험없음	88.2	81.3	85.5
과거 참여경험	9.0	12.9	10.5
현재 참여하고 있음	2.8	5.8	4.0
계	100.0	100.0	100.0
(명)	(1,745)	(1,106)	(2,851)

나. 실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 참여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자원봉사 활동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여성노인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71% 정도가 실비 자원봉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들에 비해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3-90〉 성별 실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찬성하지 않는다	28.9	30.2	29.4
찬성한다	71.1	69.8	70.6
계	100.0	100.0	100.0
(명)	(1,703)	(1,095)	(2,798)

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참여빈도 및 활동영역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8.8%만이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노인들의 19.1%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1 참조).

〈표 3-91〉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향후 자원봉사 참여율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계(명)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기타	
여성	8.8	7.2	2.6	39.2	7.8	41.2	2.0	100.0(153)
남성	19.1	7.7	5.3	34.4	19.2	31.1	2.4	100.0(209)
전체	12.8	7.5	4.1	36.5	14.4	35.4	2.2	100.0(362)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빈도와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 월 1회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아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적은 빈도로 참여할 의향을 지니고 있었다.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과 유사하게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지만,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여성노인에게서 더 높은 반면 나머지 자원봉사활동 영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2〉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단위: %, 명)

구분	여성	남성	전체
사회복지분야	36.6	12.9	22.9
지역사회봉사활동	50.3	56.0	53.6
교통 및 환경분야	2.0	14.4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3.3	2.9	3.0
교육 및 문화예술	3.9	8.1	6.4
보건의료분야	3.9	3.8	3.9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1.9	1.1
계	100.0	100.0	100.0
(명)	(153)	(209)	(362)

라.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52%로서 남성노인들에 비해 건강문제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3〉 성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구분	(단위: %, 명)		
	여성	남성	전체
시간이 없어서	14.2	23.2	17.5
건강이 안 좋아서	52.1	33.9	45.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4.4	30.9	26.7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1	4.2	3.5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4.1	4.7	4.3
봉사할 곳을 몰라서	0.6	0.7	0.7
봉사할 곳이 멀어서	0.1		0.1
할만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0.8	2.0	1.2
기타	0.6	0.3	0.5
계	100.0	100.0	100.0
(명)	(1,570)	(887)	(2,457)

마.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자녀 수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가 긍정적인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3-94 참조).

〈표 3-94〉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영향요인

변수	여성		남성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101	.904
연령	-.025	.975	-.031	.970	-.024	.976
교육수준	.419**	1.520	.247*	1.280	.294**	1.342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445	1.561	5.440	230.383	1.586	4.884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196*	3.306	-.816*	.442	-.039	.962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078	.925	5.005	149.218	1.230	3.422
자녀수	-.001	.999	.241*	1.273	.124	1.132
자녀 접촉 빈도	.217	1.242	.140	1.151	.220**	1.246
자녀 연락 빈도	.020	1.020	-.354	.702	-.160	.852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82	.921	.644**	.525	.363**	.696
월평균 용돈액수	-.010	.990	.005	1.005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02	1.002	-.002	.998	.001	1.001
주관적 건강평가	-.274	.760	-.171	.842	-.183	.833
만성질환수	-.069	.933	.107	1.113	.027	1.028
일상생활 동작능력	-6.557	.001	-.218	.804	-.460	.631
사회적 지지	.102	1.107	-.133	.875	-.023	.978
(상수)	.213	1.006	.101	1.106	6.843	937.657
Chi-Square / df	50.7928*** / 15		40.920*** / 15		55.938*** / 15	
-2Log Likelihood	220.778		243.515		503.881	
Nagelkerke R square	.209		.170		.116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5.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가.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 ①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 ② 향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필요성, ③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9%로서 남성노인의 11.0%에 비해 이용률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5 참조).

〈표 3-95〉 성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률	향후 이용필요성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	(대상자 수)
여성	1.9	16.8	10.0	(1,744)
남성	11.0	40.2	26.2	(1,107)
전체	5.4	25.9	16.3	(2,851)

여성노인 중에서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6.8%로서 남성노인의 40.2%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 여성노인은 10.0%로 남성노인의 26.2%와 비교해 볼 때, 여성노인이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여성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6 참조).

〈표 3-96〉 여성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변수	여성		남성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137	1.147
연령	-.233**	.792	-.058	.943	-.076**	.927
교육수준	1.301***	3.671	.617***	1.853	.702***	2.017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3.490	32.783	8.998	8088.044	2.616	13.687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377	.686	-.152	.859	-.123	.885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3.883	48.546	9.908	20090.85	3.249	25.770
자녀수	-.237	.789	-.175	.839	-.223*	.800
자녀 접촉 빈도	.159	1.173	-.090	.914	-.041	.960
자녀 연락 빈도	.145	1.156	.016	1.016	.040	1.040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381	.683	.046	1.047	.074	.928
월평균 용돈액수	.021*	1.021	.006	1.006	.010**	1.011
월평균 총수입액	-.005	.995	.001	1.001	.000	1.000
주관적 건강평가	.223	1.249	-.117	.890	-.030	.970
만성질환수	.202	1.224	-.047	.954	.007	1.007
일상생활 동작능력	-8.118	.000	-4.267	.014	-5.379	.005
사회적 지지	-.383	.682	.025	1.026	-.021	.979
(상수)	182.699	2213.467	83.618	2064.087	115.511	1464.520
Chi-Square / df	97.336*** / 15		141.102*** / 15		276.992*** / 16	
-2Log Likelihood	119.835		370.603		512.712	
Nagelkerke R square	.476		.351		.305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제 5 절 요약 및 함의

1. 여성노인의 경제상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다. 노인소속가구의 소득계층 분포를 살펴본 결과, 여성노인의 41.2%가 빈곤선 이하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의 빈곤율이 31.2%라는 점을 감안하면, 10%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여성노인이 자녀동거가구에도 다수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노인과의 빈곤격차가 그나마 작게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여성노인의 소득수준은 월 29.6만원인데 반해 남성노인의 소득은 월 79.1만원으로, 남성노인 소득이

여성노인 소득의 2.6배에 이르고 있다. 남성노인 소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여성노인의 절대소득이 너무 낮다는 의미이다.

여성노인의 소득원은 남성노인에 비하여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은 약간 높은 반면, 근로사업부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의 항목에서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가구형태,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 변수가 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여타 변수의 통제 하에서도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에서는 같은 조건하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부조소득에서는 동일 조건하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은 소득수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대체로 소득원별 소득을 가질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된 상황에서는 여성노인이라는 요인이 긍정적인 경제상태 인식 및 높은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해보면 여성노인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남성노인에 비해 열악하여 빈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남성에 비한 상대적 비중에서도 모두 공공부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공공부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여타 노인의 인적, 가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여성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소득만 여성노인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노인이

가지는 고연령 다수, 농어촌 거주 다수, 낮은 교육수준 등의 인적 특성이 가지는 사회적 취약성과 더불어 여성이라는 성적 특성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다만, 소득원별 유무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 통제 하에서 여성이 소득원을 가질 확률이 남성에게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가지는 양적 크기에서 보여졌던 여성의 특성적 영향과 달리, 소득의 유무만을 따지는 것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사회적 취약성 변수 속에 여성의 취약한 성적 특성의 영향력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여성노인의 인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또한 여성의 취약한 특성과 취약한 가구적 특성이 결합될 때에는 현행 사회복지체계 내에서도 최우선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그 결과 공공부조소득의 수급자 중 여성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적소득보장체계 중에서도 공적연금소득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에 비해 현격하게 격차를 보이는 소득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여성노인은 공적소득보장체계 내에서도 사후대책이며 빈곤층에 대한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소득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보편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소득을 통해서 거의 보호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적연금이 근로연령기의 안정적 근로활동에 기반한 각출을 전제로 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가정내 노동 및 비정규경제활동 등 근로연령기의 취약한 경제활동으로 공적연금 수급조건인 안정적 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보험료 각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2. 여성노인의 건강상태 및 영양욕구

여성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건강위해 행위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나, 건강실천행위인 운동실천율과 영양식 섭취 노력, 건강검진수진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 낮은 편이다.

만성질환율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10% 포인트 더 높고, 특히 3종류 이

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65.7%로 남성노인의 37.0%에 비해 높아 건강이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으며,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쁘고, 낙상사고율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시력과 씹기 능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쁘고 청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보조기와 청력보조기의 착용률은 남성노인이, 씹기 보조기는 여성노인의 착용률이 더 높았고, 여성은 보조기 착용 시에도 씹기 능력과 시력이 남성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있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비율이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에 비하여 더 높았다. 특히 외출 또는 외부와의 접촉 등에 있어서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제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인지기능 장애 비율, 문제행동 출현율, 재활욕구의 마비출현율, 재활욕구의 구축출현율 등은 여성노인의 욕구가 남성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욕구와 관련된 특징들은 간호처치 욕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집단 간 차이는 어느 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지만 연령을 통제하여도 여성노인들의 요양관련 욕구는 남성노인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의 수발실태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남성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주 수발자는 장남·며느리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딸·사위,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의 경우는 배우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장남·며느리 순으로 대다수가 여성임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의 주수발자는 30~49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남성노인의 주수발자는 50~64세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고령 여성들은 연로한 배우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많은 육체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여성 수발자들은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주수발자들의 경제활동도 남성노인집단과 여성노인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수발자 중 절반 가량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노인 수발자들의 경제활동 비율은 약 30%를 차지하였다. 한편 여성노인들의 수발기간이 남성노인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과 반대로 ‘보장구대여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이용(경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낮지만 남성노인보다 이용욕구는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과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서비스, 가정 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여성노인이 더 높고, 노인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이용희망률은 남성노인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는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와 ‘주간보호서비스 확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남성노인이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여성노인의 요구가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 주수발자 특성보다는 노인특성과 관련된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 전체노인에서는 교육수준과 경제활동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보다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별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 이용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주수발자가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만 이용경험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희망률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경우, 전체노인에서는 연령과 재활구축변수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에는 노인의 교육수준과 재활구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노인연령과 교육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고, 전체노인 및 여성노인과는 달리 수발의 어려움이 있을수록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3. 여성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족중심적 여가활동과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노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들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이점을 보이는 것 이외에는 거의 유사한 여가활동 참여 경향을 보였다.

여가활동 영향요인 분석에서 여성노인의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와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들에 비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종교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분석에서 여성노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9.0%,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4.6%로서 남성노인들에 비하여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에서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참여도가 높았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인이 2.8%로서, 남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여성노인 중에서 현재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9%로서 남성노인의 11.0%에 비해 이용률이 현격히 낮았다. 여성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여성노인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농어촌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 1 절 농어촌노인의 가족관계

1. 자녀동거여부

<표 4-1>은 노인들의 거주지역별 가구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농어촌노인과 도시 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데, 노인독신과 노인부부가 거주하는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비율이 농어촌지역(69.7%)이 더 높는데 비하여,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농어촌 보다(30.3%)는 도시 노인(43.8%)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표 4-1> 노인들의 거주지역별 가구형태분포

구분	(단위: %, 명)		
	농어촌	도시	전체
노인독신가구	25.5	20.3	22.0
노인부부가구	44.2	35.9	38.7
자녀동거가구	30.3	43.8	39.3
계	100.0	100.0	100.0
(명)	(917)	(1,869)	(2,786)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는 다음의 <표 4-2>에서 찾아진다. 남녀노인의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역별 비교에서도 각 집단에서 발견되는 유의미한 변수의 차이는 크다. 농어촌노인에 비해 도시노인에게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변수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무엇보다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는 자녀들의 도시 이동으로 인해 세대간 동거가 일어날 조건이 취약함을 반영한다. 따라서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젊은층의 이촌향도라는 거시적 환경변화에 의해 자녀동거가 제약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어촌노인들에게서 유의미한 변수로는 배우자유무, 자녀수, 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역시 농어촌노인들의 경우도 무배우 노인보다는 유배우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동거확률은 높다. 소득 또한 여러 형태의 소득이 있으면 자녀동거확률이 낮아지는데 눈여겨 볼 것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다. 농어촌노인들은 대체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농사일에 종사하는데, 이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들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경제력을 의미할 가능성도 있지만, 건강상태를 어느 정도 반영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지역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변수	농어촌노인		도시노인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0.335	0.715	-0.361 ***	0.697
연령(65-69세 기준): 70~74세	-0.115	0.891	-0.078	0.925
75세 이상	-0.090	0.914	-0.199	0.820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10	0.896	0.545 ***	1.725
초등학교	-0.149	0.862	0.509 ***	1.664
중고등학교	0.174	1.190	0.381 **	1.464
대학교	0.313	1.367	-0.151	0.860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0.999 ***	0.368	-0.826 ***	0.438
자녀수	0.125 ***	1.133	0.047	1.048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0.574	0.563	0.207	1.229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592 ***	0.553	-0.299 **	0.742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1.331 ***	0.264	-0.645 ***	0.524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264	0.768	-0.279 *	0.757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460 **	0.631	-1.112 ***	0.329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34	1.144	0.351 ***	1.421
상수	-0.178	0.837	0.135	1.144

주: *= $p<0.1$, **= $p<0.05$, ***= $p<0.01$

도시노인들의 자녀동거확률은 성,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소득, 건강상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역시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교육수준 또한 최저학력과 최고학력의 차이는 없지만 중간학력에서 자녀동거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한편, 농어촌노인과 마찬가지로 유배우 노인들이 무배우 노인들보다 자녀동거확률이 낮다. 소득에서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

소득과 금융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동거확률이 낮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동거확률은 높게 나타난다.

2.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거주지역에 따른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분포는 성별에 따른 분포만큼이나 뚜렷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다음의 <표 4-3>에 의하면, 도시노인(41.6%)에 비해 농어촌노인(34.7%)에서 일방적 수급형 비율이 약간 더 높은 대신 상호교환형 비율은 약간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선 거주지역에 따른 자녀동거율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노인에 비해 농어촌노인이 자녀와 별거하는 비율이 높다. 세대간 지원교환은 자녀와의 동거상황에서 더 쉽게 일어나므로, 자녀별거율이 높은 농어촌노인들에게서 상호교환형은 적게 발견될 수 있다.

<표 4-3> 노인의 거주지역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구분	(단위: %, 명)		
	농어촌	도시	전체
무교환형	6.9	6.7	6.8
일방적 제공형	1.6	2.7	2.3
일방적 수급형	41.6	34.7	37.0
상호교환형	49.9	55.8	53.9
계	100.0	100.0	100.0
(명)	(917)	(1,869)	(2,786)

노인전체에 대한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분석에서 거주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각 지역에 따라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의 <표 4-4>와 <표 4-5>는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각각에 대하여 다항로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표 4-4>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무교환형의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가구형태, 아들유무, 소득 등에 그치고 있다.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 사는 농어촌노인들은 자녀와 동거하는 농어촌노인들보다 무교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들이 없는 농어촌노인들은 아들이 있는 농어촌노인들보다 무교환형의 확률이 높다. 즉, 딸만 있는 농어촌노인들은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무교환형 확률 또한 높다.

농어촌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확률(vs. 상호교환형)은 무교환형의 확률분석에서보다 더 다양한 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노인 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소득 등이 포함된다. 농어촌노인들이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살 경우 이들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확률은 높다. 또한 농어촌노인 중에서도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확률은 낮다. 한편, 연령에서는 고령층에서 일방적 수급형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에서는 중간 학력의 노인들의 일방적 수급형 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어촌노인 중에서 유배우 노인들이 무배우 노인들보다 일방적 수급형에 속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딸만 있는 농어촌노인이 아들이 있는 농어촌노인보다 일방적 수급형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농어촌노인이 일방적 수급형에 속할 확률은 낮게 나타난다.

<표 4-4> 농어촌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 노인독신	1.775 ***	5.899	2.169 ***	8.747
노인부부	1.102 ***	3.010	1.087 ***	2.965
성(남성기준) : 여성	-0.580	0.560	-0.436 **	0.647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61	0.941	0.146	1.158
75세 이상	0.054	1.055	0.421 **	1.523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250	1.284	-0.102	0.903
초등학교	-0.107	0.899	-0.501 **	0.606
중고등학교	0.345	1.412	0.159	1.172
대학교	0.330	1.390	-0.901	0.406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928	2.531	0.940 ***	2.560
자녀수	-0.107	0.899	0.066	1.068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1.436 *	4.203	1.274 **	3.576
근로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33	0.876	-0.441 **	0.643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076	0.926	-0.093	0.911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409	1.506	-0.032	0.968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1.685 ***	5.393	0.243	1.275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444	0.641	-0.073	0.929
상수	-2.857 ***		-1.641 ***	

주: *= $p<0.1$, **= $p<0.05$, ***= $p<0.01$

농어촌노인들에 비해 도시노인들의 경우는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더욱 다양한 한편, 그 관계성도 좀 더 분명하다. 다음의 <표 4-5>에 의하면 도시노인들 중에서 무교환형의 확률은 가구형태, 성, 배우자유무, 자녀수, 소득 등에 의해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시노인들 중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은 세대간 지원교환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의 무교환형 확률은 더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도 무교환형의 확률은 다른데, 무배우 노인들보다 유배우 노인들에게서 이 확률이 높다. 자녀수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무교환형의 확률은 낮다. 또한 도시노인들 중에서의 무교환형 확률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높으며,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게서도 높다.

〈표 4-5〉 도시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 노인독신	2.766 ***	15.901	2.159 ***	8.662
노인부부	1.210 ***	3.354	1.321 ***	3.747
성(남성기준) : 여성	-0.622 **	0.537	-0.708 ***	0.493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318	0.727	0.411 ***	1.508
75세 이상	-0.095	0.909	0.502 ***	1.652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88	1.207	0.050	1.051
초등학교	-0.423	0.655	-0.261	0.770
중고등학교	0.135	1.145	-0.160	0.852
대학교	0.515	1.673	-0.137	0.872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1.304 ***	3.684	0.926 ***	2.525
자녀수	-0.177 ***	0.838	0.032	1.033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0.543	0.581	-0.179	0.836
근로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655 ***	1.925	-0.256 *	0.774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685 ***	1.983	-0.016	0.984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244	1.277	-0.369 **	0.691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2.106 ***	8.213	0.640 ***	1.897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037	1.038	0.421 ***	1.523
상수	-3.242 ***		-1.928 ***	

주: *= $p<0.1$, **= $p<0.05$, ***= $p<0.01$

3.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다음의 <표 4-6>은 노인의 거주지역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상에서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간의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표 4-6〉 지역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구분	(단위: 점, 명)		
	농어촌	도시	노인전체
전통적태도	0.60	0.56	0.57
자녀관계만족도	3.77	3.74	3.75
(대상자수)	(917)	(1,869)	(2,786)

주: 1) 전통적인태도점수는 3점 척도.

2) 자녀만족도평균점수는 5점 척도.

농어촌노인과 도시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의 <표 4-7>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거주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우선 농어촌 노인의 경우, 전통적 태도는 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소득에 따라 다르다. 농어촌노인 중에서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는 약하다. 또한 농어촌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의 전통적 태도가 더 약하다. 연령에서는 고령층에서 전통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에서는 대학교 교육을 제외하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한편, 배우자 유무에서는 유배우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딸만 있는 노인들이 아들이 있는 노인들에 비해 전통적 태도가 다소 약하다. 소득에서는 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도시노인들에서는 아들유무의 효과를 제외하고 농어촌노인들에서 발견된 변수별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도시노인들의 전통적 태도도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홀로 살거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에게서 약하다. 또한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에게서 전통적 태도는 약하다. 연령이 높을수록 전통적 태도가 강한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러한 태도는 약하다. 배우자 유무에 있어서도 농어촌노인과 마찬가지로 유배우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아들유무에 있어서는 농어촌노인과는 달리 딸만 있는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소득에서는 다시 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 농어촌노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4-7〉 지역별 전통적 가족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농어촌노인		도시노인	
	b	β	b	β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 노인독신	-0.168 **	-0.099	-0.245 ***	-0.138
노인부부	-0.263 ***	-0.176	-0.120 ***	-0.081
성(남성기준) : 여성	-0.137 **	-0.090	-0.160 ***	-0.110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76	0.046	0.128 ***	0.082
75세 이상	0.146 **	0.092	0.272 ***	0.174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00	-0.059	0.035	0.019
초등학교	-0.150 **	-0.099	-0.124 **	-0.083
중고등학교	-0.234 **	-0.095	-0.266 ***	-0.161
대학교	-0.263	-0.057	-0.248 ***	-0.08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209 **	-0.139	-0.168 ***	-0.116
자녀수	0.011	0.024	0.007	0.015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0.296 *	-0.062	0.161 **	0.052
근로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33 **	-0.086	-0.104 **	-0.061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62 **	-0.066	-0.160 ***	-0.078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056	-0.029	-0.052	-0.024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145 **	-0.069	-0.273 ***	-0.115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022	0.014	-0.017	-0.011
상수	1.053 ***		0.901 ***	

주: *= $p<0.1$, **= $p<0.05$, ***= $p<0.01$

거주지역별 자녀관계만족도는 전통적 태도만큼 유의미한 변수들이 많지 않다. 다음의 <표 4-8>는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에 대한 회귀 분석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성, 자녀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에 비해 자녀관계만족도가 다소 높다. 한편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은 반면,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는 낮다. 건강상태 또한 농어촌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에 중요한데,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농어촌노인의 그것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도시노인들에게서는 가구형태가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는 낮다. 한편, 도시노인 중에서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의 효과도 어느 정도 발견되는데, 고령층에서 자녀관계만족도가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의 노인일수록 자녀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들유무에서는 딸만 있는 도시노인들이 아들이 있는 도시노인들보다 자녀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편, 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는데, 이는 생계형 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불만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노인에서도 역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으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의 만족도 또한 낮다.

〈표 4-8〉 지역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농어촌노인		도시노인	
	b	β	b	β
가구형태(자녀동거 기준) : 노인독신	-0.046	-0.024	-0.256 ***	-0.116
노인부부	-0.009	-0.005	0.093 *	0.050
성(남성기준) : 여성	0.127 *	0.074	0.089	0.049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03	0.002	-0.030	-0.016
75세 이상	-0.013	-0.007	0.094 *	0.048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049	-0.026	0.092	0.040
초등학교	-0.062	-0.036	0.161 **	0.087
중고등학교	-0.040	-0.015	0.200 ***	0.098
대학교	0.127	0.025	0.296 ***	0.084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168	0.099	0.055	0.031
자녀수	0.028 *	0.056	-0.017	-0.032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기준) : 딸만 있음	0.035	0.007	0.284 ***	0.073
근로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018	-0.010	-0.118 **	-0.056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220 **	0.079	0.004	0.002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093	0.043	-0.034	-0.013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492 ***	-0.209	-0.474 ***	-0.161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66 ***	-0.095	-0.173 ***	-0.090
상수	3.617 ***		3.696 ***	

주: *= $p<0.1$, **= $p<0.05$, ***= $p<0.01$

제 2 절 농어촌노인의 경제상태

1. 소득원별 소득유무

지역별 소득원별 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근로사업부업소득은 농어촌이 38.3%, 도시가 22.8%로 농어촌이 15%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이 있는 비율은 농어촌 3.3%, 도시 9.6%로 도시지역이 6% 포인트 가량 높았다. 공적연금은 농어촌 17.8%, 도시 12.6%로 농어촌이 5% 포인트 가량 높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농어촌, 도시 모두 8% 수준으로 비슷하다. 경로연금은 농어촌 14.3%, 도시 11.1%로 농어촌이 약간 높다.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은 농어촌이 80.6%, 도시가 75.4%로 농어촌이 약간 높았다(표 4-9 참조).

〈표 4-9〉 지역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38.3	22.8	27.8
근로소득	13.1	14.2	13.9
사업 및 부업소득	27.1	8.7	14.7
자산소득	3.3	9.6	12.9
재산소득	7.1	10.0	9.0
금융소득	3.1	5.2	4.5
개인연금	0.3	0.5	0.4
공적이전	30.4	62.2	92.6
공적연금	17.8	12.6	14.3
기타 사회보험 급여	0.3	0.2	0.2
경로연금	14.3	11.1	12.1
교통수당	89.2	89.9	89.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7.6	8.0	7.9
참전명예수당	5.6	4.6	4.9
사적이전	27.2	51.5	78.7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80.6	75.4	77.1
사회단체 보조금	1.3	0.7	0.9
기타 소득	12.0	2.2	5.4
월평균 총수입	99.7	99.7	99.7

2.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

지역별 노인소득수준을 비교해보면, 농어촌 39만원, 도시 54만원으로 농어촌 노인의 소득수준이 도시 노인소득수준의 7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근로사업부 업소득은 농어촌이 17만원, 도시 15만원으로 농어촌이 2만원 가량 높다. 반면 자산소득은 농어촌 2.5만원, 도시 10.5만원으로 도시가 8만원 정도 높다. 공적연금소득은 농어촌이 4.7만원, 도시 9.1만원으로 도시가 4.4만원 가량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농어촌 1.2만원, 도시 1.7만원으로 비슷하다. 사적이전소득은 농어촌 12만원, 도시 15만원으로 도시가 약 3만원 가량 높다(표 4-10 참조).

〈표 4-10〉 지역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16.65(42.4)	15.25(28.5)	15.71(32.2)
근로소득	4.86(12.4)	9.39(17.6)	7.91(16.2)
사업 및 부업소득	11.79(30.1)	5.86(11.0)	7.80(16.0)
자산소득	2.47(6.3)	10.45(19.5)	7.85(16.1)
재산소득	1.69(4.3)	7.53(14.1)	5.62(11.5)
금융소득	0.83(2.1)	2.72(5.1)	2.11(4.3)
개인연금	0.04(0.1)	0.18(0.3)	0.13(0.3)
공적이전	7.81(19.9)	12.44(23.3)	10.92(22.4)
공적연금	4.71(12.0)	9.11(17.0)	7.67(15.7)
기타 사회보험 급여	0.16(0.4)	0.08(0.2)	0.11(0.2)
경로연금	0.57(1.5)	0.46(0.9)	0.49(1.0)
교통수당	0.83(2.1)	0.86(1.6)	0.85(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23(3.1)	1.65(3.1)	1.51(3.1)
참전명예수당	0.31(0.8)	0.28(0.5)	0.29(0.6)
사적이전	12.04(30.7)	14.58(27.3)	13.75(28.2)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1.28(28.8)	14.12(26.4)	13.20(27.0)
사회단체 보조금	0.23(0.6)	0.05(0.1)	0.11(0.2)
기타 소득	0.52(1.3)	0.41(0.8)	0.45(0.9)
월평균 총수입	39.23(100.0)	53.49(100.0)	48.84(100.0)

지역별 중위소득은 농어촌 26만원, 도시 30만원으로 약 4만원 정도 도시가 높았으며, 소득원별로는 별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표 4-11 참조).

〈표 4-11〉 노인의 지역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0	0	0
근로소득	0	0	0
사업 및 부업소득	0	0	0
자산소득	0	0	0
재산소득	0	0	0
금융소득	0	0	0
개인연금	0	0	0
공적이전	1.00	1.20	1.00
공적연금	0	0	0.90
기타 사회보험 급여	0	0	0
경로연금	0	0	0
교통수당	0.80	0.90	0.9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0	0	0
참전명예수당	0	0	0
사적이전	10.00	10.00	10.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7.72	10.00	10.00
사회단체 보조금	0	0	0
기타 소득	0	0	0
월평균 총수입	26.00	30.00	28.00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경우만 포함한 경우, 근로사업부업소득은 농어촌 43.5만원, 도시 67.1만원으로 도시가 23.6만원이나 높았다(표 4-12 참조). 즉, 근로소득을 가진 경우에는 도시가 돈벌이에 가까운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소득도 농어촌 25.5만원, 도시 74.1만원으로 약 50만원 가량 차이가 났다. 공적연금소득은 농어촌 26.6만원, 도시 72.6만원으로 46만원 정도 도시지역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도 농어촌 16.2만원, 도시 20.6만원으로 4만원 가량 도시가 높았다. 사적이전소득도 농어촌 14.5만원, 도시 19만원으로 4.5만원 가량 도시가

높았다. 즉,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경우를 보면, 도시가 농어촌보다 모든 소득원에서 소득수준이 높고, 농어촌은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노인의 지역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43.51	67.06	56.48	(793)
근로소득	37.17	66.19	57.23	(394)
사업 및 부업소득	43.61	67.25	53.06	(419)
자산소득	25.46	74.11	61.93	(360)
재산소득	23.87	75.89	62.49	(256)
금융소득	29.80	53.84	48.79	(123)
개인연금	11.17	40.27	32.74	(11)
공적이전	8.40	13.46	11.80	(2,638)
공적연금	26.55	72.58	53.86	(406)
기타 사회보험 급여	50.87	61.75	55.87	(5)
경로연금	3.96	4.10	4.05	(347)
교통수당	0.93	0.95	0.95	(2,55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6.21	20.55	19.19	(225)
참전명예수당	5.45	6.19	5.91	(140)
사적이전	14.46	19.07	17.48	(2,238)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3.99	18.74	17.12	(2,196)
사회단체 보조금	18.55	7.29	12.56	(25)
기타 소득	4.34	19.10	8.36	(153)
월평균 총수입	39.34	53.73	49.03	(2,840)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경우 중위소득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근로사업 부업소득은 농어촌 30만원, 도시 42만원으로 12만원 가량 도시가 높으며, 자산 소득 역시 농어촌 15만원, 도시 32만원으로 17만원 가량 도시가 높다. 공적연금 소득은 농어촌 10만원, 도시 30만원으로 도시가 3배나 높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농어촌 15만원, 도시 21만원으로 6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사적이전 소득은 농어촌 10만원, 도시 15만원으로 도시가 5만원 정도 높다(표 4-13 참조).

〈표 4-13〉 노인의 성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30.00	42.00	38.23
근로소득	30.00	50.00	40.00
사업 및 부업소득	30.00	40.00	30.00
자산소득	15.00	32.00	30.00
재산소득	14.20	32.00	30.00
금융소득	14.65	30.00	20.00
개인연금	9.62	30.00	17.97
공적이전	1.00	1.20	1.20
공적연금	10.00	30.00	18.94
기타 사회보험 급여	44.11	70.83	61.77
경로연금	4.50	4.50	4.50
교통수당	0.90	0.90	0.9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5.00	21.00	20.00
참전명예수당	5.00	6.00	5.16
사적이전	10.00	15.00	10.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0.00	15.00	10.00
사회단체 보조금	7.91	5.00	5.00
기타 소득	2.00	8.00	3.00
월평균 총수입	26.00	30.00	28.00

3. 빈곤율 및 소득계층분포

지역별 빈곤율 및 소득분포를 살펴보면, 농어촌지역의 빈곤율은 45%인 반면, 도시지역의 빈곤율은 34%로, 농어촌지역 빈곤율이 11% 포인트 정도 높았다. 빈곤선의 150% 이하에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68%가 포진하며, 도시는 53%가 포진하여 역시 15% 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표 4-14 참조).

〈표 4-14〉 노인소속가구의 지역별 소득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농어촌	도시	전체
빈곤선 100%	44.86(44.9)	33.79(33.8)	37.37(37.4)
빈곤선 120%	12.15(57.0)	9.49(43.3)	10.35(47.7)
빈곤선 150%	11.38(68.4)	9.54(52.8)	10.14(57.9)
빈곤선 180%	9.17(77.6)	7.27(60.1)	7.89(65.7)
빈곤선 200%	3.54(81.1)	6.59(66.7)	5.60(71.3)
빈곤선 300%	11.71(92.7)	14.23(80.9)	13.42(84.8)
빈곤선300%이상	7.18(100.0)	19.08(100.0)	15.24(100.0)
계(명)	100.0(905)	100.0(1,897)	100.0(2,802)

주: () 밖의 값은 소득구간의 구성 비율, ()내 값은 누적 구성비율임.

4. 취업관련 실태

지역별 노인의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이 도시 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노인의 전체 수에 비해 도시노인의 전체 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노인의 경우에는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표 4-15 참조).

〈표 4-15〉 지역별 노인의 취업경험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5.2	10.5	8.7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44.5	67.8	60.2
현재 일을 하고 있다	50.3	21.7	31.0
계	100.0	100.0	100.0
(명)	(930)	(1,921)	(2,851)

지역별 취업노인의 직종을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노동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종

사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도시 노인의 경우에도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전체 노인의 경우 이 분야의 비율이 타 직종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4-16 참조).

〈표 4-16〉 지역별 노인의 현 취업직종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0.6	3.3	1.9
전문가	0.4	1.8	1.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0	1.5	1.2
사무종사자	0.2	1.1	0.6
서비스종사자	1.2	5.0	3.0
판매종사자	3.3	7.7	5.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75.5	31.4	55.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8	3.3	2.0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8	4.9	2.8
단순노무종사자	15.6	39.4	26.8
계	100.0	100.0	100.0
(명)	(471)	(414)	(885)

취업노인의 근무형태는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및 임시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7〉 지역별 취업노인의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자영업자	57.0	41.8	49.9
고용주	0.9	3.8	2.3
무급가족종사자	23.8	10.8	17.7
상용근로자	0.9	5.3	2.9
임시근로자	2.8	11.3	6.8
일용근로자	12.8	18.0	15.2
기타	1.9	8.9	5.2
계	100.0	100.0	100.0
(명)	(470)	(416)	(886)

취업 노인의 취업이유는 지역과 상관없이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하는 이유가 도시 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농어촌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4-18 참조).

〈표 4-18〉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4.9	8.6	6.7
돈이 필요해서	68.7	70.3	69.5
건강유지를 위해서	9.6	10.1	9.8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6.2	3.6	5.0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1.5	4.1	2.7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0.4	-	0.2
일손이 모자라서	7.9	2.9	5.5
기타	0.6	0.5	0.6
계	100.0	100.0	100.0
(명)	(467)	(417)	(984)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를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취업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표 4-19 참조).

〈표 4-19〉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매우 만족한다	2.1	6.7	4.3
만족하는 편이다	32.6	32.6	32.6
그저 그렇다	23.5	26.1	24.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3.9	28.8	31.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9	5.8	6.9
계	100.0	100.0	100.0
(명)	(469)	(417)	(886)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모두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일의 내용과 일의 양에 대해 불만족스런 경우가 도시노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도시노인은 농어촌노인에 비해 복리후생 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표 4-20 참조).

〈표 4-20〉 지역별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임금(소득)	45.9	53.5	49.1
업무(일) 내용	17.3	12.5	15.3
업무(일) 량	36.2	31.3	34.1
복리후생(휴가 등)	-	1.4	0.6
인간관계	0.5	0.7	0.6
기타	-	0.7	0.3
계	100.0	100.0	100.0
(명)	(203)	(151)	(354)

지역별 노인의 취업 유지 희망비율을 살펴보면, 지역과 상관없이 전체 노인 모두 계속 취업하고 싶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4-21 참조).

〈표 4-21〉 지역별 노인의 취업 유지 희망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그만두고 싶다	28.8	27.6	28.3
계속하고 싶다	71.2	72.4	71.7
계	100.0	100.0	100.0
(명)	(468)	(416)	(884)

지역별 취업노인의 이직 여부를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도시 노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노동수요적인 측면이 제한되어 있어 직장 또는 일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22 참조).

〈표 4-22〉 지역별 취업노인의 이직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찾고 있다	-	2.3	1.1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직하고 싶다	0.6	6.3	3.3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99.4	91.4	95.6
계	100.0	100.0	100.0
(명)	(333)	(301)	(634)

다음은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평생 취업 경험이 없는 노인의 경우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았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체 노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도시 노인에 비해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거나, 가사 일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표 4-23 참조). 도시노인이 농어촌노인에 비해 가사 일

등에 의해 일을 하지 못한 이유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 지역의 취업이 농어촌 지역에 비해 가사일을 병행 할 수 있는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아닐 확률이 높아서일 수 있으며, 또한 가사일이나 가족수발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더욱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도시노인의 취업희망도가 농어촌노인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3〉 지역별 노인의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3.9	8.1	7.1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	3.7	6.1	5.5
건강이 좋지 않아서	71.8	53.9	58.1
일자리가 없어서	8.7	19.6	17.0
가사(집안일)/가족수발 때문에	4.8	7.9	7.2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5.2	2.6	3.2
기타	2.0	1.8	1.8
계	100.0	100.0	100.0
(명)	(461)	(1,500)	(1,961)

〈표 4-24〉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 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아니오	92.2	79.7	82.6
예	7.8	20.3	17.4
계	100.0	100.0	100.0
(명)	(462)	(1,501)	(1,963)

현재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유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농어촌노인을 위한 소일거리 형식의 취업형태를 개발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자존감의 배양이나, 대인관계를 위한 욕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25 참조).

〈표 4-25〉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일하는 것이 좋아서	5.4	6.3	6.2
돈이 필요해서	43.2	57.9	56.3
건강유지를 위해서	24.3	15.5	16.4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2.7	3.6	3.5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13.5	6.3	7.0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8.1	10.2	10.0
기타	2.7	0.3	0.6
계	100.0	100.0	100.0
(명)	(37)	(304)	(341)

<표 4-26>은 이직을 희망하는 경우나,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의 노인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욕구와 실제적 수요와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결과 구직활동 경험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농어촌노인의 경우가 도시 노인에 비해 구직경험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4-27>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노인의 이유를 살펴본 것이다. 도시 노인에 비해 농어촌노인은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 노인의 경우에는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부족,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도 높게 나타났다.

〈표 4-26〉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아니오	61.5	64.5	64.2
예	38.5	35.5	35.8
계	100.0	100.0	100.0
(명)	(39)	(332)	(371)

〈표 4-27〉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취업을 소개시켜 주는 기관을 몰라서	8.7	4.2	4.7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30.4	39.6	38.7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2.2	37.7	39.1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4.3	14.6	13.6
기타	4.3	3.8	3.8
계	100.0	100.0	100.0
(명)	(23)	(212)	(235)

<표 4-28>은 지역별 미취업 노인이 원하는 일의 형태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 노인의 경우에는 도시 노인에 비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이나 시간제 근로 형태 등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경제적 보장을 위한 종일제 근로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29>는 일자리를 구할 때 선호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 그리고 집과의 출퇴근 거리 등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4-28〉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원하는 일의 형태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23.7	24.4	24.3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47.4	34.8	36.1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21.1	38.4	36.6
자영업(창업)	7.9	2.4	3.0
계	100.0	100.0	100.0
(명)	(38)	(328)	(366)

〈표 4-29〉 지역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임금수준	15.4	22.8	22.0
일의 양과 시간대	23.1	20.7	20.9
과거 경험과의 연관이 있는 일인가 여부	17.9	15.8	16.0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내용 여부	2.6	4.0	3.8
기타 업무(일) 내용	17.9	19.5	19.3
복리후생(휴가 등 복지제도)	-	0.3	0.3
집과의 거리(출퇴근거리)	20.5	12.8	13.6
사업장 규모	0.0	0.3	0.3
계속고용 가능여부	2.6	3.3	3.3
기타	-	0.6	0.5
계	100.0	100.0	100.0
(명)	(39)	(329)	(368)

지역별 취업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 모두 일자리 연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도시 노인에 비해 적합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기술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표 4-30 참조).

〈표 4-30〉 지역별 취업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23.0	14.5	17.2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55.8	60.8	59.2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7.9	10.1	9.4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1.4	1.6	1.5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5.7	6.2	6.0
기타	6.1	6.6	6.5
정부지원 필요없음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900)	(1,897)	(2,797)

지역별 주관적 경제형편을 살펴보면,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주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표 4-31 참조).

〈표 4-31〉 지역별 주관적 경제형편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매우 좋다	1.8	2.5	2.3
약간 좋다	7.3	9.9	9.1
보통이다	42.3	37.0	38.7
약간 나쁘다	26.8	28.4	27.8
매우 나쁘다	21.8	22.2	22.1
계	100.0	100.0	100.0
(명)	(975)	(2,049)	(3,024)

5. 소득수준 영향요인

지역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을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농어촌의 경우 남성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노인 총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유배우의 경우,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노인 총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2 참조).

〈표 4-32〉 지역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 여성	-.098	-2.451*	-.099	-3.597***	-.096	-4.2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35	-2.498*
연령	-.006	-.219	-.032	-1.716#	-.025	-1.658#
교육연수	.061	2.251*	.156	7.000***	.128	7.206***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7	-.624	-.055	-1.923#	-.044	-1.86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99	4.332***	.148	4.973***	.160	6.379***
노인부부	.116	3.140**	.076	3.267**	.086	4.360***
건강상태	.012	.515	.017	.957	.017	1.171
자녀수	.005	.204	.038	2.223*	.028	1.996*
취업(무직기준): 취업	.286	10.971***	.228	12.337***	.245	16.030***
log 1인당 가구소득	.477	18.291***	.395	19.461***	.426	26.189***
가구주 여부	.356	7.968***	.337	11.194***	.346	13.860***
상수		-.045		.750*		.526*
Adjusted R square		.555		.485		.505
F		106.285***		164.210***		241.535***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농어촌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자녀동거가구 > 독거가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시의 경우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3 참조).

〈표 4-33〉 지역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 여성	.004	.046	-.106	-1.928#	-.083	-1.861#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53	-1.981*
연령	-.173	-4.169***	-.197	-5.015***	-.182	-6.440***
교육연수	-.105	-2.206*	.137	2.945**	.033	.97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96	1.031	.012	.184	.038	.73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52	-1.798#	.033	.618	-.035	-.757
노인부부	.038	.635	-.010	-.236	.014	.399
건강상태	.129	3.108**	.011	.301	.052	1.915#
자녀수	-.006	-.141	-.011	-.299	-.016	-.604
취업(무직기준): 취업						
log 1인당 가구소득	.536	12.234***	.466	10.877***	.505	16.305***
가구주 여부	.291	4.744***	.154	3.409**	.196	5.487***
상수		1.946*		3.985***		3.156***
Adjusted R square		.461		.495		.486
F		31.356***		43.703***		68.975***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을 비교해 보면, 농어촌은 노인부부 > 자녀동거 가구,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에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도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4 참조).

지역별 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 농어촌은 남성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 > 자녀동거가구, 건강상태가 안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5 참조).

<표 4-34> 지역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 여성	.134	.832	-.033	-.445	.009	.144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60	-3.791***
연령	-.028	-.277	.028	.510	.011	.242
교육연수	.200	1.638	-.079	-1.264	-.009	-.173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39	-.162	.066	.730	.066	.821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27	1.027	-.013	-.145	.001	.011
노인부부	.437	2.146*	.006	.096	.050	.849
건강상태	.101	.979	.028	.554	.039	.940
자녀수	.035	.381	-.151	-2.926**	-.106	-2.474*
취업(무직기준): 취업	-.199	-1.939#	-.191	-3.693***	-.183	-4.136***
log 1인당 가구소득	.432	4.047***	.676	11.683***	.597	12.285***
가구주 여부	.124	.877	.319	4.587***	.260	4.429***
상수		-1.218		-1.182		-.979
Adjusted R square		.326		.439		.473
F		4.920***		20.120***		27.896***

주: #=P<.1, *=P<.05, **=P<.01, ***=P<.001

<표 4-35> 지역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 여성	.224	-3.857***	-.161	-4.373***	-.175	-5.670***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74	3.861***
연령	-.020	-.541	.008	.300	-.002	-.073
교육연수	.031	.782	.061	2.027*	.053	2.16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17	-.263	-.035	-.903	-.031	-.9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13	1.699#	.071	1.793#	-.82	2.401*
노인부부	-.003	-.049	.040	1.287	.031	1.153
건강상태	-.094	-2.798**	-.056	-2.404*	-.067	-3.489***
자녀수	-.162	-4.942***	-.145	-6.311***	-.151	-7.936***
취업(무직기준): 취업	-.097	-2.568*	-.109	-4.437***	-.108	-5.157***
log 1인당 가구소득	.178	4.687***	.121	4.484***	.140	6.332***
가구주 여부	.161	2.500*	.210	5.248***	.200	5.881***
상수		1.077		.407		.546
Adjusted R square		.137		.150		.147
F		13.469***		29.296***		38.777***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을 분석해보면, 농어촌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공적연금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 지역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 여성	.069	.648	-.091	-1.101	-.006	-1.06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18	-3.117*
연령	.207	3.078**	.106	2.004*	.136	3.615***
교육연수	.228	2.831**	.152	2.097*	.195	3.725***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49	.366	-.085	-.777	.004	.0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61	-.465	-.029	-.331	-.023	-.331
노인부부	-.073	-.817	-.043	-.652	-.049	-1.014
건강상태	-.046	-.680	-.042	-.816	-.038	-1.024
자녀수	-.264	-4.295***	.018	.362	-.085	-2.350*
취업(무직기준): 취업	-.304	-4.210***	-.313	-5.692***	-.281	-6.863***
log 1인당 가구소득	.428	6.377***	.515	8.292***	.446	10.436***
가구주 여부	.250	2.691**	.142	2.179*	.178	3.678***
상수		-2.119#		-2.490*		-2.442**
Adjusted R square		.428		.485		.546
F		12.168***		21.520***		41.643***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을 비교해보면, 농어촌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도시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7 참조).

<표 4-37> 지역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076	.651	.242	3.180**	.196	3.173**
지역(도시기준)					-.112	-2.462*
연령	-.149	-1.815#	-.061	-1.091	-.083	-1.847#
교육연수	.109	1.230	.067	1.022	.077	1.512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143	-.895	.066	.485	.028	.28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37	.225	.497	4.071***	.296	3.086**
노인부부	.063	.463	.289	2.294*	.166	1.877#
건강상태	-.103	-1.279	-.032	-.547	-.060	-1.323
자녀수	-.277	-3.219**	-.178	-2.988**	-.228	-4.607***
취업(무직기준): 취업	-.143	-1.732#	-.139	-2.340*	-.139	-2.955*
log 1인당 가구소득	-.019	-.202	.144	2.035*	.063	1.160
가구주 여부	.141	.944	.163	1.688#	.172	2.165*
상수 b	4.493**		1.291		2.622**	
Adjusted R square	.204		.354		.327	
F	4.299***		12.120***		15.766***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은 농어촌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의 순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도시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 순으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았다(표 4-38 참조).

〈표 4-38〉 지역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006	-.104	.070	1.731#	.047	1.422
지역(도시기준)					-.069	-3.359**
연령	.028	.751	.001	.019	.006	.287
교육연수	.076	1.892#	.120	3.701***	.103	4.02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0	.320	-.012	-.310	-.005	-.14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375	5.363***	.223	5.083***	.264	7.114***
노인부부	.105	1.862#	.069	1.988*	.078	2.651**
건강상태	.014	.418	.029	1.165	.024	1.209
자녀수	.164	4.864***	.140	5.543***	.149	7.365***
취업(무직기준): 취업	-.278	-7.179***	-.267	-10.090***	-.269	-12.207***
log 1인당 가구소득	.317	7.961***	.238	7.942***	.264	11.023***
가구주 여부	.113	1.661#	.114	2.480*	.118	3.109**
상수 b		-.321		.705#		.474
Adjusted R square		.183		.153		.176
F		16.730***		24.978***		40.682***

주: #=P<.1, *=P<.05, **=P<.01, ***=P<.001

6.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지역별 노인근로소득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농어촌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소지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도시의 경우 남성인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자녀동거가구 > 독거가구,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소지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9 참조).

〈표 4-39〉 지역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642	2.480	.418	21.298***	.472	23.1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2.265	58.185***
연령	.857	77.215***	.849	116.915***	.852	198.044***
교육연수	.918	11.471**	.855	73.270***	.873	86.72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559	2.474	.495	8.482***	.532	10.012**
노인부부	1.020	.007	.835	1.304	.883	.921
가구주	10.463	55.484***	6.357	76.987***	7.398	132.217***
건강상태	1.320	12.627***	1.390	31.479***	1.366	44.734***
자녀수	1.117	4.952*	1.120	8.516**	1.122	14.203***
log 1인당 가구소득	1.678	15.641***	1.518	18.573***	1.535	31.325***
상수		6.568		7.675***		7.109***
Chi-square		309.019***		448.504***		817.343***
-2 log likelihood		929.311		1610.179		2551.884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에 따르면, 농어촌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가구 순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남성인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구주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이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0 참조).

지역별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하면, 농어촌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유의미하게 공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동거가구 > 노인부부의 경우에 공적이전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1 참조).

〈표 4-40〉 지역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593	1.643	.538	7.971**	.554	9.43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792	2.769#
연령	1.012	.275	1.007	.244	1.008	.433
교육연수	1.079	5.399*	1.033	2.968#	1.044	7.31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5.719	9.406**	1.539	2.336	2.072	8.635**
노인부부	2.494	5.220*	1.304	2.106	1.422	4.651*
가구주	2.164	2.502	3.004	19.798***	2.794	21.922***
건강상태	1.129	1.214	1.126	3.396#	1.128	4.706*
자녀수	1.057	.665	1.039	.790	1.044	1.418
log 1인당 가구소득	1.870	10.992**	1.901	34.043***	1.872	44.299***
상수 b (sig.)		-7.738***		-6.359***		-6.536***
Chi-square (sig.)		74.356***		209.953***		285.571***
-2 log likelihood		532.441		1363.279		1904.977

주: #=P<.1, *=P<.05, **=P<.01, ***=P<.001

〈표 4-41〉 지역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1.021	.001	.369	8.830**	.462	7.30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085	.202
연령	1.875	54.277***	1.645	101.107***	1.701	156.264***
교육연수	1.021	.220	.961	2.117	.975	1.272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580	.558	.743	.507	.727	.793
노인부부	.995	.000	.543	7.707**	.649	5.342*
가구주	3.423	4.093*	1.293	.550	1.593	2.454
건강상태	.874	.905	.943	.435	.925	1.088
자녀수	.933	.457	.949	.600	.946	.968
log 1인당 가구소득	1.205	.697	1.084	.318	1.096	.589
상수 b (sig.)		-40.937***		-30.417***		-33.078***
Chi-square (sig.)		151.866***		283.039***		427.193***
-2 log likelihood		320.213		743.574		1071.788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분석하면, 농어촌의 경우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소득 소지 확률이 높아졌다. 도시의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가구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공적연금 소지 확률이 높아졌다(표 4-42 참조).

〈표 4-42〉 지역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367	9.766**	.295	25.861***	.339	33.037***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2.216	35.710***
연령	.894	26.608***	.928	18.846***	.915	43.501***
교육연수	1.007	.058	1.070	10.986**	1.046	7.74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849	2.131	1.486	1.668	1.668	4.400*
노인부부	1.038	.019	1.211	1.004	1.143	.742
가구주	2.931	9.003**	2.532	12.848***	2.811	24.664***
건강상태	.932	.616	.955	.416	.945	1.060
자녀수	.991	.025	1.032	.389	1.016	.181
log 1인당 가구소득	2.247	25.263***	1.859	26.282***	2.055	56.421***
상수		3.037#		-.025		.690
Chi-square		147.797***		309.611***		459.463***
-2 log likelihood		721.667		1138.973		1871.857

주: #=P<.1, *=P<.05, **=P<.01, ***=P<.001

지역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안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공공부조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았다. 도시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독거노인 > 자녀동거노인, 건강상태가 안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공공부조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표 4-43 참조).

지역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농어촌의 경우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아졌다. 도시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표 4-44 참조).

〈표 4-43〉 지역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798	.441	.672	2.192	.722	2.44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344	4.907*
연령	1.088	23.856***	1.078	28.265***	1.082	52.472***
교육연수	.961	1.409	.899	20.552***	.921	18.717***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631	1.138	2.812	8.231**	2.341	9.053**
노인부부	.672	1.665	1.362	1.494	1.054	.073
가구주	.900	.068	1.231	.417	1.065	.064
건강상태	.656	18.809***	.643	32.730***	.653	50.520***
자녀수	.808	15.098***	.651	84.532***	.710	94.145***
log 1인당 가구소득	.731	4.625*	.788	5.239*	.762	10.596**
상수	-4.344**		-3.649**		-4.012***	
Chi-square	110.345***		326.816***		424.866***	
-2 log likelihood	680.259		1032.796		1732.965	

주: #=P<.1, *=P<.05, **=P<.01, ***=P<.001

〈표 4-44〉 지역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821	.357	1.587	6.480**	1.340	3.4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348	7.028**
연령	1.023	1.729	1.019	2.951#	1.020	4.632*
교육연수	.974	.918	1.038	5.791*	1.020	2.248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784	1.996	.750	1.524	.916	.189
노인부부	1.203	.540	.822	1.673	.887	.847
가구주	.485	4.205*	.428	17.928***	.461	20.012***
건강상태	1.017	.040	.984	.092	.989	.060
자녀수	1.333	27.422***	1.417	94.196***	1.388	120.256***
log 1인당 가구소득	1.125	.767	.872	2.733#	.942	.747
상수	-1.373		-.709		-.971	
Chi-square	47.223***		226.880***		274.665***	
-2 log likelihood	793.358		1857.942		2667.884	

주: #=P<.1, *=P<.05, **=P<.01, ***=P<.001

7.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지역별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을 비교하면, 농어촌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노인부부 > 자녀동거가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유의미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노인부부 > 자녀동거가구,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총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유의미하게 낙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5 참조).

<표 4-45> 지역별 노인 주관적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042	.774	.102	3.094**	.086	3.070**
지역(도시기준)					.064	3.697***
연령	.027	.807	.052	2.301*	.044	2.348*
교육연수	.079	2.188*	.076	2.812**	.084	3.82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62	-1.066	-.016	-.472	-.029	-1.00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27	.436	.013	.377	.016	.507
노인부부	.146	2.952**	.110	3.949***	.122	4.985***
건강상태	.240	7.705**	.230	11.000***	.232	13.373***
자녀수	.068	2.248*	.054	2.652**	.061	3.523***
취업(무직기준): 취업	.014	.381	-.078	-3.388**	-.051	-2.611**
log 1인당 가구소득	.316	7.787***	-.345	13.057***	.338	15.187***
가구주 여부	-.044	-.710	-.020	-.549	-.027	-.841
총소득	.030	.676	.153	5.585***	.119	5.135***
상수		-.471		-1.271***		-1.064***
Adjusted R square		.209		.273		.253
F		21.365***		60.428***		74.814***

주: #=P<.1, *=P<.05, **=P<.01, ***=P<.001

8.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지역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을 비교분석하면, 농어촌의 경우 노인부부 > 독거노인 > 자녀동거 순이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나타냈다. 도시의 경우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무배우의 경우, 자녀동거가구 > 독거노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낙관적일수록, 노인총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6 참조).

〈표 4-46〉 지역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041	-.804	.100	3.134**	.062	2.303*
지역(도시기준)					.055	3.281**
연령	-.023	-.702	.048	2.184*	.024	1.311
교육연수	.043	1.255	.101	3.888***	.088	4.13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21	.385	.097	2.939**	.076	2.69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 독거노인	.126	2.148*	-.072	-2.079*	-.017	-.562
노인부부	.105	2.226*	.001	.037	.0025	1.074
건강상태	.236	7.719***	.209	10.029***	.216	12.496***
자녀수	.046	1.606	.003	.155	.018	1.063
취업(무직기준): 취업	-.016	-.466	-.090	-4.040***	-.065	-3.429**
log 1인당 가구소득	.125	3.145**	.054	2.027*	.075	3.357**
가구주 여부	-.076	-1.306	-.020	-.562	-.032	-1.058
주관적 경제	.346	11.027***	.335	15.070***	.342	18.819***
총소득	-.010	-.251	.102	3.829***	.069	3.102**
상수		1.286**		.500		.738**
Adjusted R square		.293		.323		.310
F		30.389***		70.460***		91.255***

주: #=P<.1, *=P<.05, **=P<.01, ***=P<.001

제 3 절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

1. 농어촌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농어촌노인의 흡연율은 20.4%로 도시노인의 16.1%보다 높은 수준이며, 음주율은 농어촌노인(34.6%)과 도시노인(34.0%)과 비슷한 수준이다(표 4-47 참조).

〈표 4-47〉 지역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구분	(단위: %)		
	농어촌	도시	전체
흡연상태			
현재 피움	20.4	16.1	17.5
과거 피웠음	22.1	22.4	22.3
피운적 없음	57.5	61.4	60.1
음주상태			
현재 마심	34.6	34.0	34.2
과거 마셨음	18.1	16.8	17.2
전혀 안 마심	47.3	49.2	48.6
운동실천여부			
아주 규칙적으로 한다	18.8	34.6	29.5
가끔 한다	5.8	12.5	10.3
전혀 안 한다	75.4	52.9	60.2
1주일간 평균 운동일수(일)	(5.2)	(5.1)	(5.1)
영양식 섭취노력 정도			
매우 그렇다	4.8	7.4	6.5
그런 편이다	27.4	29.9	29.1
그저 그렇다	21.2	21.1	21.1
그렇지 않다	31.6	33.9	33.2
매우 그렇지 않다	15.0	7.7	10.1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20)	(2,851)
독감예방접종률	80.1	73.0	75.3
건강검진수진율	53.7	52.0	52.6
(대상자수)	(930)	(1,920)	(2,850)

주: 1) 1주일간 평균운동일수는 운동을 하는 1,134명에 대한 평균 운동일수임.

농어촌노인의 운동실천 상태를 보면, 규칙적으로(18.8%) 또는 가끔(5.8%) 운동을 하는 노인이 24.6%로 도시노인(47.1%)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표 4-27 참조). 매 식사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식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보면, 농어촌노인은 영양식 섭취 노력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런 편이다’의 비율이 32.2%로 도시노인(37.3%) 보다 낮은 편이다.

농어촌노인의 독감예방접종률은 80.1%로 도시노인의 접종률(73.0%) 보다 높은 편이며, 건강검진수진율도 농어촌노인(53.7%)이 도시노인(52.0%) 보다 약간 높았다.

2. 농어촌노인의 만성질병상태

농어촌노인의 경우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상태는 92.1%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이는 도시노인의 만성질환유병률(90.2%)에 비하여 약간 높은 정도이다. 3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농어촌노인은 57.4%로 도시노인의 53.1%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만성질병은 지역간에 비슷한 수준이다. 주요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에서도 농어촌노인의 경우 관절염과 만성기관지염 유병률이 약간 더 높지만 지역간 비슷한 수준이다(표 4-48 참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통증 제외)이 있다는 비율이 농어촌노인(51.9%)의 경우 도시노인(49.0%)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농어촌노인의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37.2%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사회활동의 제한 22.2%,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1.7%,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 17.9% 등의 순이다. 도시지역(13.8%)에 비하여 사회활동제한(22.2%)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만성질병이 한 가지라도 있는 농어촌노인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은 85.3%로, 도시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다(표 4-49 참조).

〈표 4-48〉 지역별 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환상태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만성질환수			
없음	7.9	9.8	9.2
1개	15.6	17.8	17.1
2개	19.1	19.2	19.2
3개 이상	57.4	53.1	54.5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20)	(2,851)
연령별 만성질환유병률			
65~69세	90.5	89.2	89.6
70~74세	94.7	91.2	92.4
75세 이상	91.6	90.5	90.9
계	92.1	90.2	90.8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암	2.2	2.9	2.6
관절염	44.9	41.8	42.8
당뇨병	10.7	14.9	13.5
고혈압	37.3	41.7	40.2
중풍·뇌혈관질환	5.8	6.1	6.0
협심증·심근경색증	4.4	7.9	6.7
만성기관지염	8.2	7.5	7.7
천식	6.9	5.5	6.0
(대상자수)	(931)	(1,920)	(2,851)

주: 1)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농어촌노인이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보면, 병·의원이 79.7%로 가장 많으며, 보건(지/진료)소가 14.2% 등으로 도시에 비해 병의원의 이용률은 낮은 반면, 대체로 접근성이 높은 보건(지/진료)소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4-50 참조).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정도를 농어촌지역은 부담이 된다는 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며, 무료 또는 기타에 의한 치료가 도시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특성상 병의원 접근성이 떨어지며, 보건

(지/진료)소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다(표 4-51 참조).

〈표 4-49〉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힘든 점이 있음 (대상자수)	51.9 (857)	49.0 (1,731)	50.0 (2,588)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힘든 이유 ¹⁾			
일상생활수행 제한	37.2	46.2	43.1
간호와 수발	0.9	0.9	0.9
경제적 어려움	21.7	23.3	22.8
외로움·소외감	17.9	15.0	16.0
사회활동 제한	22.2	13.8	16.7
기타	-	0.8	0.5
계 (명)	100.0 (446)	100.0 (849)	100.0 (1,295)

주: 1)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자를 분석대상으로 함.

〈표 4-50〉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의료기관이용률 (대상자수)	85.3 (857)	81.1 (1,732)	82.5 (2,589)
이용 의료기관 종류 ¹⁾			
병의원	79.7	88.7	85.6
한방 병의원	3.7	4.4	4.2
보건(지/진료)소	14.2	5.4	8.4
약국	2.2	1.4	1.6
기타	0.1	0.1	0.1
계 (명)	100.0 (730)	100.0 (1,406)	100.0 (2,136)

주: 1)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6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표 4-51〉 지역별 노인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매우 부담	12.2	13.2	12.8
부담이 되는 편	30.5	34.8	33.3
그저 그렇다	9.4	10.5	10.1
부담이 없는 편	26.0	26.7	26.4
전혀 부담 없음	8.2	6.8	7.3
무료 또는 기타	13.7	8.1	10.0
계	100.0	100.0	100.0
(명)	(731)	(1,406)	(2,137)

주: 1)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농어촌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낙상사고

동년배와 비교한 주관적 건강인식의 경우 농어촌노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30.5%로 도시노인의 35.8%에 비하여 조금 낮은 편이며, 반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농어촌노인이 41.5%로 도시노인의 36.8%에 비하여 더 높은 경향이다(표 4-52 참조).

농어촌노인 중 지난 1년 동안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노인은 15.4%로 도시노인(15.1%)과 비슷한 수준이며, 낙상사고 장소는 농어촌노인의 경우 가정내 사고비율이 28.7%로 도시노인(23.1%) 보다 약간 더 높은 편이다(표 4-53 참조).

〈표 4-52〉 지역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매우 좋다	6.0	9.7	8.5
약간 좋다	24.5	26.1	25.6
보통이다	28.0	27.2	27.5
약간 나쁘다	29.2	25.7	26.9
매우 나쁘다	12.3	11.1	11.5
계	100.0	100.0	100.0
(명)	(930)	(1,920)	(2,850)

〈표 4-53〉 지역별 노인의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낙상 사고율 (대상자수)	15.4 (931)	15.1 (1,920)	15.2 (2,851)
낙상사고 장소			
가정내 사고	28.7	23.1	24.9
외부에서의 사고	71.3	76.9	75.1
계 (명)	100.0 (143)	100.0 (290)	100.0 (433)

주: 1) 낙상사고율은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낙상사고 장소는 낙상사고 경험이 있는 4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청력, 씹기, 시력능력

신체기능 중 씹기 능력이 나쁘다는 응답이 74.2%로 시력(44.2%), 청력(19.6%)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를 지역에 따라 나누어 보면 시력, 청력, 씹기 모두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4〉 지역별 노인의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단위: %)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시력	매우좋다	2.6	4.0	3.5
	좋은편	26.3	29.8	28.7
	보통	25.5	22.7	23.6
	나쁜편	35.3	34.2	34.6
	아주나쁨	10.3	9.3	9.6
청력	매우좋다	4.9	9.6	8.1
	좋은편	41.7	45.6	44.3
	보통	31.4	26.4	28.0
	나쁜편	19.1	16.1	17.1
	아주나쁨	2.9	2.3	2.5
씹기	매우좋다	1.2	2.6	2.1
	좋은편	8.2	11.8	10.6
	보통	10.2	14.5	13.1
	나쁜편	34.0	39.2	37.5
	아주나쁨	46.4	31.9	36.7
계 (명)	100.0 (931)	100.0 (1,920)	100.0 (2,851)	

시력과 청력, 씹기 모두 도시노인들이 농어촌노인보다 보조기 착용률이 더 높았으며,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보조기 착용 이후의 시력, 청력, 씹기 능력이 도시노인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표 4-55 참조).

〈표 4-55〉 지역별 노인의 보조기 착용률 및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 정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시력	시력보조기착용비율	61.2	70.2	67.1
	매우좋다	0.4	1.5	1.2
	좋은편	31.2	35.0	33.8
	보통	46.5	45.7	46.0
	나쁜편	20.8	17.6	18.6
	아주나쁨	1.1	0.2	0.4
	계 (명)	100.0 (260)	100.0 (586)	100.0 (846)
청력	청력보조기착용비율	8.8	12.1	10.9
	매우좋다	5.3	0.0	1.6
	좋은편	21.1	16.3	17.7
	보통	36.8	55.8	50.0
	나쁜편	31.6	27.9	29.0
	아주나쁨	5.2	0.0	1.7
	계 (명)	100.0 (19)	100.0 (43)	100.0 (62)
씹기	씹기보조기착용비율	70.2	71.1	70.8
	매우좋다	0.8	0.6	0.7
	좋은편	17.5	22.8	20.9
	보통	39.5	39.8	39.7
	나쁜편	36.3	32.9	34.1
	아주나쁨	5.9	3.9	4.6
	계 (명)	100.0 (526)	100.0 (969)	100.0 (1495)

5. 요양욕구

가. 신체기능

신체기능과 관련하여 ‘옷벗고 입기’는 98.8%, ‘세수하기’는 99.4%, ‘양치질하기’는 99.7%, ‘목욕하기’는 97.1%, ‘식사하기’는 99.6%, ‘체위변경하기’는 99.8%, ‘일

어나 앉기'는 99.5%, '옮겨타기'는 99.5%, '방밖으로 나오기'는 99.3%, '화장실사용하기'는 99.4%, '대변 조절하기'는 99.5%, '소변 조절하기'는 98.3%가 '완전자립'이라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노인들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지역별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6 참조).

〈표 4-56〉 지역별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99.0	98.8	98.8
	부분도움	0.9	1.1	1.1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930)	100.0 (1,920)	100.0 (2,850)
세수하기	완전자립	99.4	99.5	99.4
	부분도움	0.5	0.4	0.5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931)	100.0 (1,921)	100.0 (2,852)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99.6	99.7	99.7
	부분도움	0.3	0.2	0.2
	완전도움	0.1	0.1	0.1
	계 (명)	100.0 (930)	100.0 (1,920)	100.0 (2,850)
목욕하기	완전자립	96.9	97.2	97.1
	부분도움	2.4	1.8	2.0
	완전도움	0.7	1.0	0.9
	계 (명)	100.0 (930)	100.0 (1,920)	100.0 (2,850)
식사하기	완전자립	99.5	99.6	99.6
	부분도움	0.4	0.3	0.3
	완전도움	0.1	0.1	0.1
	계 (명)	100.0 (930)	100.0 (1,920)	100.0 (2,850)

〈표 4-56〉 계속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9.6	99.9	99.8
	부분도움	0.3	0.1	0.2
	완전도움	0.1	0.0	0.0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20)	(2,851)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9.6	99.5	99.5
	부분도움	0.3	0.3	0.3
	완전도움	0.1	0.2	0.2
	계	100.0	100.0	100.0
	(명)	(930)	(1,920)	(2,850)
움켜타기	완전자립	99.6	99.5	99.5
	부분도움	0.3	0.3	0.3
	완전도움	0.1	0.2	0.2
	계	100.0	100.0	100.0
	(명)	(930)	(1,920)	(2,850)
방밖으로 나오기	완전자립	99.5	99.3	99.3
	부분도움	0.3	0.4	0.4
	완전도움	0.2	0.3	0.3
	계	100.0	100.0	100.0
	(명)	(930)	(1,920)	(2,850)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9.4	99.4	99.4
	부분도움	0.5	0.3	0.4
	완전도움	0.1	0.3	0.2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20)	(2,851)
대변조절하기	완전자립	99.2	99.6	99.5
	부분도움	0.7	0.3	0.4
	완전도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19)	(2,850)
소변조절하기	완전자립	98.9	98.0	98.3
	부분도움	1.1	1.9	1.7
	완전도움	0.0	0.1	0.0
	계	100.0	100.0	100.0
	(명)	(931)	(1,919)	(2,850)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이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몸단장하기’는 98.5%, ‘집안일’은 95.3%, ‘식사준비’는 95.1%,

‘빨래하기’는 95.3%, ‘근거리 외출하기’는 96.6%, ‘교통수단 이용하기’는 91.8%, ‘물건 사러가기’는 97.1%, ‘금전 관리하기’는 89.8%, ‘전화 사용하기’는 91.9%, ‘약 챙겨먹기’는 99.1%가 완전자립이 가능하였다. 노인들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또한 대부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교통수단 이용’, ‘금전관리’, ‘전화사용’을 하는데 노인들이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7 참조).

〈표 4-57〉 지역별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몸 단장하기	완전자립	98.4	98.5	98.5
	부분도움	1.5	1.3	1.3
	완전도움	0.1	0.2	0.2
	계	100.0 (930)	100.0 (1920)	100.0 (2850)
집안일	완전자립	95.5	95.3	95.3
	부분도움	3.5	3.6	3.6
	완전도움	1.0	1.1	1.1
	계	100.0 (931)	100.0 (1920)	100.0 (2851)
식사준비	완전자립	95.4	94.9	95.1
	부분도움	3.4	3.7	3.6
	완전도움	1.2	1.4	1.3
	계	100.0 (931)	100.0 (1921)	100.0 (2852)
빨래하기	완전자립	95.7	95.1	95.3
	부분도움	2.9	3.2	3.1
	완전도움	1.4	1.7	1.6
	계	100.0 (931)	100.0 (1921)	2851 (2851)
근거리 외출하기	완전자립	97.3	96.2	96.6
	부분도움	1.8	2.8	2.5
	완전도움	0.9	1.0	0.9
	계	100.0 (930)	100.0 (1921)	100.0 (2851)

〈표 4-57〉 계속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91.3	92.0	91.8
	적은 부분도움	5.5	4.1	4.6
	많은 부분도움	2.2	2.2	2.2
	완전도움	1.0	1.7	1.4
	계	100.0 (931)	100.0 (1921)	100.0 (2852)
물건 사러가기	완전자립	97.3	96.9	97.1
	적은 부분도움	1.5	1.7	1.6
	많은 부분도움	0.5	0.7	0.6
	완전도움	0.7	0.7	0.7
	계	100.0 (명) (930)	100.0 (명) (1920)	100.0 (명) (2850)
금전 관리하기	완전자립	85.6	91.8	89.8
	부분도움	13.6	7.9	9.8
	완전도움	0.8	0.3	0.4
	계	100.0 (명) (931)	100.0 (명) (1920)	100.0 (명) (2851)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89.8	92.9	91.9
	적은 부분도움	7.3	5.1	5.8
	많은 부분도움	2.4	1.7	1.9
	완전도움	0.5	0.3	0.4
	계	100.0 (명) (931)	100.0 (명) (1920)	100.0 (명) (2851)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99.0	99.1	99.1
	부분도움	0.9	0.9	0.9
	완전도움	0.1	0.0	0.0
	계	100.0 (명) (930)	100.0 (명) (1920)	100.0 (명) (2850)

나. 인지기능

인지기능 장애의 경우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이 가장 높은 비율 (13.2%)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노인들은 13.9%, 도시노인은 12.9%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표 4-58 참조).

〈표 4-58〉 지역별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	13.9	12.9	13.2	(2,851)
날짜 계절 불인지	1.2	1.0	1.1	(2,851)
장소 불인지	0.1	0.2	0.1	(2,851)
가족 친척 불인지	0.3	0.2	0.2	(2,851)
본인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1.3	0.6	0.8	(2,851)
지시사항 이해 못함	1.2	2.0	1.8	(2,851)
일정표 이해 못함	1.0	0.5	0.7	(2,851)
상황 판단력 감퇴	3.5	4.5	4.2	(2,851)
의사소통 전달 장애	1.1	1.5	1.4	(2,851)

다. 문제행동 영역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다. ‘우울상태나 울기도함’이 4.8%로 가장 높았고,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이 2.4%, ‘환각·환청’이 1.3%, ‘돈물건 감추기’가 1.2%,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이 1.0%로 1%이상을 차지하였다. ‘우울상태나 울기도 함’은 도시노인이 5.5%, 농어촌노인이 3.4%이며, ‘불규칙수면과 주야혼돈’은 도시노인은 2.7%, 농어촌노인은 1.9%를 차지하였고,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이유없이 크게 소리내거나 고함침’ 등의 문제행동 출현율 모두 도시노인들이 농어촌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59 참조).

〈표 4-59〉 지역별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절도나 상해 위협(망상)	0.5	0.6	0.6	(2,849)
환각·환청	1.5	1.1	1.3	(2,849)
우울상태나 울기도함	3.4	5.5	4.8	(2,849)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	1.9	2.7	2.4	(2,849)
도움에 저항	0.5	1.0	0.8	(2,849)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0.5	1.3	1.0	(2,849)
외출하면 길을 잃음	0.5	0.8	0.7	(2,849)
폭언이나 위협행동	0.6	1.0	0.9	(2,849)
이유없이 크게 소리내거나 고함침	0.5	1.1	0.9	(2,849)
밖으로 나가려고 함	0.2	0.2	0.2	(2,849)
물건·옷 등을 망가뜨림	0.1	0.1	0.1	(2,849)
먹지 못하는 것 먹으려고 함	0.1	0.2	0.2	(2,849)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함	0.3	0.3	0.3	(2,849)
물건 훔쳐서 집에 가지고 옴	0.1	0.1	0.1	(2,849)
혼자있기 두려움	0.2	0.5	0.4	(2,849)
사람 혼동이나 오인	0.2	0.2	0.2	(2,849)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님	0.2	0.3	0.3	(2,849)
돈 물건감추기	1.1	1.2	1.2	(2,849)
부적절한 옷입기	0.2	0.1	0.1	(2,849)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	0.6	0.9	0.8	(2,849)
부적절한 노출이나 성행위	0.1	0.1	0.1	(2,849)
대소변 벽이나 옷에 바름	0.1	0.1	0.1	(2,849)

라. 간호처치 욕구

노인의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은 ‘통증간호’가 5.3%로 가장 높았는데 도시는 4.0%, 농어촌은 8.2%로 농어촌은 도시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막 투석의 경우도 도시노인들보다 농어촌노인의 간호처치 욕구가 2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60 참조).

〈표 4-60〉 지역별 노인의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기관지 절개 간호	0.3	0.2	0.2	(2,851)
흡인	0.2	0.2	0.2	(2,851)
산소요법	0.3	0.2	0.2	(2,851)
욕창	0.2	0.1	0.1	(2,851)
경관영양	0.3	0.2	0.2	(2,851)
통증간호	8.2	4.0	5.3	(2,851)
정맥주사요법	0.4	0.3	0.3	(2,851)
도뇨관리	0.2	0.2	0.2	(2,851)
장루간호	0.2	0.1	0.1	(2,851)
상처간호	0.3	0.2	0.2	(2,851)
복막투석 및 간호	1.4	0.7	0.9	(2,851)

마. 재활욕구 출현율

재활욕구(마비) 출현율은 전반적으로 2.0~6.1%의 비율을 보였으며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상지마비 출현율은 농어촌노인이 2.4%, 도시노인이 2.0%이고, 좌측상지마비 출현율은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이 각각 2.3%, 1.8%로 나타났다. 하지마비 출현율은 우측하지의 경우 농어촌노인이 7.7%, 도시노인이 5.2%로 나타났고, 좌측하지는 농어촌노인이 6.8%, 도시노인이 5.8%로 농어촌노인의 재활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4-61 참조).

〈표 4-61〉 지역별 노인의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우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7.6	98.0	97.9
불완전마비	1.7	1.6	1.7
완전마비	0.6	0.4	0.5
계	100.0	100.0	100.0
(명)	(929)	(1,908)	(2,837)
좌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7.7	98.2	98.0
불완전마비	1.9	1.3	1.5
완전마비	0.3	0.5	0.5
계	100.0	100.0	100.0
(명)	(927)	(1,906)	(2,833)
우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2.3	94.8	94.0
불완전마비	6.7	4.6	5.3
완전마비	1.0	0.5	0.7
계	100.0	100.0	100.0
(명)	(909)	(1,877)	(2,786)
좌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3.2	94.2	93.9
불완전마비	6.3	5.0	5.4
완전마비	0.5	0.8	0.7
계	100.0	100.0	100.0
(명)	(909)	(1,878)	(2,787)

재활욕구(구축) 출현율을 살펴보면 고관절 및 무릎관절의 출현율이 각각 28.1%, 17.8%로 다른 관절의 출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깨관절구축은 농어촌노인 6.1%, 도시노인 4.9%의 출현율을 보였다. 팔꿈치관절구축은 농어촌노인 6.2%, 도시노인 4.0%, 손목및수지관절구축은 농어촌노인 9.2%, 도시노인 5.9%, 무릎관절구축은 농어촌노인 22.4%, 도시노인 15.6%, 발목관절구축은 농어촌노인 7.0%, 도시노인 7.1%의 출현율을 보였다.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이 도시지역거주 노인들에 비하여 관절구축으로 인한 요양욕구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표 4-62 참조).

〈표 4-62〉 지역별 노인의 재활욕구(구축)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어깨관절 구축	구축없음	93.9	95.1	94.7
	우관절구축	1.8	2.0	1.9
	좌관절구축	1.3	1.4	1.4
	양관절구축	3.0	1.5	2.0
	계	100.0	100.0	100.0
	(명)	(928)	(1,907)	(2,835)
팔꿈치관절 구축	구축없음	93.8	96.0	95.3
	우관절구축	2.4	1.5	1.8
	좌관절구축	1.4	1.3	1.3
	양관절구축	2.4	1.2	1.6
	계	100.0	100.0	100.0
	(명)	(928)	(1,908)	(2,836)
손목 및 수지관절구축	구축없음	90.8	94.1	93.0
	우관절구축	3.3	1.9	2.4
	좌관절구축	2.0	1.8	1.9
	양관절구축	3.9	2.2	2.7
	계	100.0	100.0	100.0
	(명)	(927)	(1,905)	(2,832)
고관절 구축	구축없음	63.0	76.2	71.9
	우관절구축	5.0	4.0	4.3
	좌관절구축	4.3	3.8	3.9
	양관절구축	27.7	16.1	19.9
	계	100.0	100.0	100.0
	(명)	(901)	(1,843)	(2,744)
무릎관절 구축	구축없음	77.6	84.4	82.2
	우관절구축	4.6	3.8	4.1
	좌관절구축	3.8	3.4	3.5
	양관절구축	14.0	8.4	10.2
	계	100.0	100.0	100.0
	(명)	(919)	(1,879)	(2,798)
발목관절 구축	구축없음	93.0	92.9	92.9
	우관절구축	2.2	1.2	1.5
	좌관절구축	1.3	1.7	1.6
	양관절구축	3.5	4.2	4.0
	계	100.0	100.0	100.0
	(명)	(919)	(1,884)	(2,803)

<표 4-63>에서 요양욕구와 관련해서 거주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 영역에서 농어촌노인들의 욕구가 도시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욕구와 관련된 특징들은 간호처치 욕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연령을 통제하였을 경우 65~69세 노인집단은 농어촌노인들의 재활구축 출현율이 도시노인들보다 높았고, 70~74세 노인들의 경우에는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구축 영역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문제행동은 다른 영역과 달리 도시노인의 출현율이 농어촌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75세 이상 노인집단은 재활구축 영역에서 농어촌노인들의 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장기간에 걸친 육체노동으로 인해 노년기에 재활구축 관련 요양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4-63> 지역별 노인요양욕구 차이

변수	평균(표준편차)		t값
	농어촌	도시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12.12(0.97)	12.12(0.94)	0.126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10.69(2.09)	10.62(2.14)	-0.749
인지능력	0.23(0.72)	0.23(0.69)	-0.014
문제행동	0.13(0.82)	0.19(0.94)	1.487
간호처치	0.12(0.60)	0.06(0.38)	-2.733***
재활마비	4.21(0.73)	4.16(0.67)	-1.781**
재활구축	8.09(3.09)	7.40(2.63)	-5.712***

주: *= $p<0.1$, **= $p<0.05$, ***= $p<0.01$

〈표 4-64〉 연령별 지역별 노인의 영양욕구

변수	평균(표준편차)		t값
	농어촌	도시	
65~69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3(0.28)	12.04(0.41)	-0.53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29(1.08)	10.27(1.41)	-0.177
인지능력	0.13(0.41)	0.16(0.55)	0.754
문제행동	0.08(0.41)	0.12(0.58)	1.137
간호처치	0.13(0.73)	0.08(0.54)	-1.394
재활마비	4.12(0.53)	4.10(0.55)	-0.481
재활구축	7.53(2.61)	6.96(2.14)	-3.613***
70~74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5(0.44)	12.10(0.97)	0.748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47(1.60)	10.38(1.69)	-0.696
인지능력	0.20(0.65)	0.19(0.65)	-0.208
문제행동	0.06(0.29)	0.16(0.66)	2.749***
간호처치	0.11(0.32)	0.03(0.22)	-3.587***
재활마비	4.21(0.70)	4.16(0.62)	-1.051
재활구축	8.07(2.99)	7.29(2.38)	-3.640***
75세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28(1.62)	12.25(1.33)	-0.274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1.38(3.04)	11.36(3.02)	-0.106
인지능력	0.37(0.99)	0.36(0.87)	-0.125
문제행동	0.26(1.33)	0.32(1.44)	0.538
간호처치	0.10(0.59)	0.05(0.25)	-1.634
재활마비	4.34(0.93)	4.25(0.84)	-1.306
재활구축	8.83(3.57)	8.13(3.27)	-2.822***

주: *= $p<0.1$ **= $p<0.05$ ***= $p<0.01$

6. 수발실태

가.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노인의 거주지역별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수발자 없음’이 농어촌노인은 77.1%, 도시노인은 75.7%로 농어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에 비해 약간 높았다. 수발실태와 관련하여 농어촌노인들은 동거가구원이 18.8%, 비동거가구원이 4.1%, 도시노인들은 동거가구원이 20.6%, 비동거가구원이 3.7% 수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65 참조).

〈표 4-65〉 지역별 노인의 수발실태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수발자 없음	77.1	75.7	76.2
동거 가구원	18.8	20.6	20.0
비동거 가구원	4.1	3.7	3.8
계	100.0	100.0	100.0
(명)	(314)	(596)	(910)

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도시노인 수발자 중 35.5%, 농어촌노인 수발자 중 49.3%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노인 수발자의 43.8%는 전일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반수 이상의 수발자들이 경제활동과 노인수발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의 경우에는 더 큰 부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66〉 지역별 노인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활동 없음	50.7	64.5	59.7
파트타임	5.5	5.1	5.2
전일제 일	43.8	30.4	35.1
계	100.0	100.0	100.0
(명)	(73)	(138)	(211)

다. 수발기간

수발대상 노인들은 43.5%가 5년 이상 수발을 받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른 노인수발기간을 분석한 결과, 농어촌노인의 수발기간은 ‘5년 이상’ 40.3%, ‘1~3년’ 23.6%, ‘3~5년’ 18%, ‘1년 미만’ 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노인은 ‘5년 이상’ 45.1%, ‘3~5년’ 18.3%, ‘1년 미만’ 15.5% ‘1~3년’ 21.1%로 도시노인들의 수발기간이 농어촌노인들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4-67 참조).

〈표 4-67〉 지역별 노인의 수발기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1년 미만	18.1	15.5	16.4
1~3년 미만	23.6	21.1	22.0
3~5년 미만	18.0	18.3	18.1
5년 이상	40.3	45.1	43.5
계	100.0	100.0	100.0
(명)	(72)	(142)	(214)

라. 주 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부담유형

수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3.0%이었으며 농어촌은 56.9%, 도시는 51.0%로 농어촌노인 수발자들이 도시노인 수발자 보다 수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노인 수발자들은 수발시 가장 힘든 점으로 심리적 부담(41.5%)과 육체적 피로(26.8%)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도시노인 수발자들은 육체적 피로(42.7%)와 심리적 부담(24.0%) 순으로 응답하였고, 경제적 부담은 두 집단 모두 약 20%정도의 비율을 보였다(표 4-68 참조).

〈표 4-68〉 지역별 노인의 수발 어려움 및 수발시 가장 힘든 점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수발의 어려움			
없다	43.1	49.0	47.0
있다	56.9	51.0	53.0
계	100.0	100.0	100.0
(명)	(72)	(145)	(217)
수발시 가장 힘든 점			
취업기회 상실	2.4	2.7	2.6
육체적 피로	26.8	42.7	37.1
사생활 제한	7.4	5.3	6.0
사회생활 제한	2.4	4.0	3.4
경제적 부담	19.5	20.0	19.8
가족간 갈등	0.0	1.3	0.9
심리적 부담	41.5	24.0	30.2
계	100.0	100.0	100.0
(명)	(41)	(75)	(116)

마. 지역별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표 4-69>에서 수발자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75.1%이고 남성은 24.9%를 차지하였다.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은 수발대상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농어촌노인의 주 수발자는 여성이 72.2%, 남성이 27.8%로 장남·며느리가 41.8%, 배우자 31.3%, 그 외 며느리와 아들이 10.4%, 딸·사위가 9%를 차지하였다. 한편 도시노인의 주수발자는 배우자가 41.7%, 딸·사위가 21.5%, 장남·며느리가 19.4%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서도 농어촌노인의 주수발자는 30~49세와 50~64세가 각각 48.9%이고, 도시노인의 주수발자는 30~49세 57.0%, 50~64세 38.7%로 농어촌노인의 주수발자의 연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9> 지역별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주수발자의 성별			
남자	27.8	23.4	24.9
여자	72.2	76.6	75.1
계	100.0	100.0	100.0
(명)	(72)	(145)	(217)
주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31.3	41.7	38.4
장남·며느리	41.8	19.4	26.5
그 외 아들·며느리	10.4	9.0	9.5
딸·사위	9.0	21.5	17.5
손자녀·배우자	1.5	1.4	1.4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1.5	2.1	1.9
비혈연동거인·이웃	4.5	0.7	1.9
유급봉사원(가정봉사원, 파출부, 간병인)	0.0	4.2	2.9
계	100.0	100.0	100.0
(명)	(67)	(144)	(211)
주수발자의 연령			
30세 미만	2.2	1.1	1.5
30-49세	48.9	57.0	54.3
50-64세	48.9	38.7	42.1
65세 이상	0.0	3.2	2.1
계	100.0	100.0	100.0
(명)	(47)	(93)	(140)

바. 지역별 수발행위 평균빈도

수발행위 빈도를 보면 청소와 세탁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머리감기, 특별식 준비, 외출 동행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변지원, 옷갈아입기, 개인위생, 체위변경의 빈도는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 분석에 포함된 노인들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큰 어려움이 없는 노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도시노인에 비하여 농어촌노인들의 수발행위 빈도가 높은 것은 개인위생, 체위변경 두 영역이었고, 나머지는 도시노인들의 평균빈도가 더 높았다(표 4-70 참조).

〈표 4-70〉 지역별 노인의 수발행위 평균빈도

(단위: 회)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개인위생(1일 중)	0.14(0.744)	0.09(0.324)	0.11(0.504)
옷갈아입기(1일 중)	0.09(0.321)	0.45(1.355)	0.33(1.133)
체위변경(1일 중)	0.08(0.726)	-	0.03(0.419)
소변보기(1일 중)	0.14(0.894)	0.14(0.632)	0.14(0.728)
노인방 청소(1주 중)	2.79(2.842)	3.46(3.107)	3.24(3.031)
노인의료 및 침구 세탁(1주 중)	2.42(2.377)	2.78(2.589)	2.66(2.520)
특별식 준비(1주 중)	0.60(1.721)	0.64(1.801)	0.62(1.771)
머리감기 및 목욕(1주 중)	0.79(1.650)	0.94(1.840)	0.89(1.777)
대변보기(1주 중)	0.13(0.820)	0.13(0.765)	0.13(0.782)
외출시 수행(1주 중)	0.42(0.959)	0.72(1.355)	0.62(1.243)

7.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가.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과 ‘경로식당/무료급식’은 각각 84.5%와 81.2%로 가장 높았으나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은 10% 미만을 차지하였다. ‘보장구대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도시노인이 농어촌노인보다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1 참조).

〈표 4-71〉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47.1	53.8	51.6	(2,848)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84.6	84.5	84.5	(2,848)
단기보호시설	6.1	9.3	8.3	(2,848)
주간보호시설(탁노소)	7.6	10.5	9.6	(2,848)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0.1	27.3	25.0	(2,848)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61.3	61.6	61.5	(2,847)
경로식당/무료급식	78.2	82.6	81.2	(2,848)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68.8	71.9	70.9	(2,846)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52.5	54.3	53.7	(2,846)
보장구대여 서비스	14.5	14.2	14.3	(2,846)

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율은 0.2~12.6%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로식당이용률이 12.6%로 가장 높고, 농어촌노인은 주간보호 이용률이 1.4%, 가정간호서비스 이용률이 5.3%로 도시노인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표 4-72 참조).

〈표 4-72〉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없음	99.8	99.4	99.5
	있음	0.2	0.4	0.3
	현재 이용중	0.0	0.2	0.1
	계	100.0	100.0	100.0
	(명)	(439)	(1,031)	(1,470)
노인(전문)요양시설/ 양로시설	없음	100.0	99.8	99.8
	있음	0.0	0.2	0.2
	현재 이용중	0.0	0.0	0.0
	계	100.0	100.0	100.0
	(명)	(787)	(1,621)	(2,408)

〈표 4-72〉 계속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단기보호시설	없음	100.0	100.0	100.0
	있음	0.0	0.0	0.0
	현재 이용중	0.0	0.0	0.0
	계 (명)	100.0 (58)	100.0 (178)	100.0 (236)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없음	98.6	100.0	99.6
	있음	1.4	0.0	0.4
	현재 이용중	0.0	0.0	0.0
	계 (명)	100.0 (72)	100.0 (202)	100.0 (274)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없음	98.4	98.5	98.5
	있음	0.0	1.1	0.8
	현재 이용중	1.6	0.4	0.7
	계 (명)	100.0 (188)	100.0 (524)	100.0 (712)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없음	98.8	98.6	98.7
	있음	0.5	0.8	0.7
	현재 이용중	0.7	0.6	0.6
	계 (명)	100.0 (570)	100.0 (1,181)	100.0 (1,751)
경로식당/무료급식	없음	84.7	88.7	87.5
	있음	9.8	7.4	8.2
	현재 이용중	5.5	3.9	4.4
	계 (명)	100.0 (727)	100.0 (1,585)	100.0 (2,312)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없음	98.1	97.3	97.6
	있음	0.3	1.0	0.8
	현재 이용중	1.6	1.7	1.6
	계 (명)	100.0 (640)	100.0 (1,378)	100.0 (2,018)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없음	94.7	97.9	96.9
	있음	3.5	1.3	2.0
	현재 이용중	1.8	0.8	1.1
	계 (명)	100.0 (488)	100.0 (1,041)	100.0 (1,529)
보장구대여 서비스	없음	98.6	98.2	98.3
	있음	0.7	1.1	1.0
	현재 이용중	0.7	0.7	0.7
	계 (명)	100.0 (134)	100.0 (274)	100.0 (408)

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

노인복지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가정(방문) 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노인전문병원은 38.7%, 노인요양시설은 29.5%를 차지하였다. 농어촌노인들의 경우는 가정간호서비스가 51.2%로 이용희망률이 가장 높았고, 도시노인도 가정간호서비스가 42.3%로 가장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였다.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노인전문병원,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보장구대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였으며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3 참조).

〈표 4-73〉 지역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39.9	38.1	38.7	(2,846)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24.8	31.8	29.5	(2,842)
단기보호시설	14.2	14.7	14.5	(2,847)
주간보호시설(탁노소)	14.5	16.4	15.8	(2,847)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34.1	31.0	32.0	(2,845)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32.9	29.7	30.7	(2,846)
경로식당/무료급식	21.7	18.4	19.5	(2,847)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28.6	24.6	25.9	(2,845)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51.2	42.3	45.2	(2,845)
보장구대여 서비스	30.2	26.4	27.6	(2,844)

8.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장기요양관련 정책 중 요양시설확대가 42.2%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28.8%), 가정간호서비스 확대(13.7%) 순으로 밝혀졌다.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74 참조).

〈표 4-74〉 지역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정부지원 필요 없음	4.4	3.6	3.9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30.3	28.1	28.8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1.8	1.6	1.7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1.1	1.4	1.3
요양시설 확대	34.5	45.9	42.2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	8.8	6.8	7.4
보장구 대여서비스 확대	0.7	1.0	0.9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18.3	11.5	13.7
기타	0.1	0.1	0.1
계	100.0	100.0	100.0
(명)	(911)	(1,906)	(2,817)

9. 거주지역별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특성 요인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일상생활능력(ADL), 인지능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변수와 주수발자 특성인 주수발자 연령, 주수발자 성별, 수발기간, 수발어려움유무, 수발행위, 주수발자 취업상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서비스 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75>와 같았다. 전체노인의 경우, 노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노인의 경우 모델이 유의하지 않았다(표 4-75 참조).

<표 4-75> 지역별 서비스 인지도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β	t	β	t	β	t
노인성별(여성)						
남성	-1.290	-.920	-.393	-.578	-.577	.565
노인연령	-.094	-1.496	.027	.781	-.010	-.344
노인결혼상태(기혼)						
독신	1.096	.868	-.006	-.008	.272	.459
노인교육수준	.458	1.581	.275	1.970*	.355	3.015***
노인경제활동(무)						
경제활동유	-.221	-.228	-2.995**	-2.397**	-1.341	-2.150**
일상생활능력(ADL)	.047	.285	-.055	-.541	-.065	-.807
인지능력	-.548	-1.778*	.043	.268	-.105	-.761
문제행동	-.261	-.795	-.172	-1.100	-.168	-1.212
간호처치	.053	.037	.788	1.045	.636	1.017
재활마비	-.131	-.483	-.082	-.444	-.115	-.838
재활구축	-.028	-.247	-.045	-.742	-.025	-.492
주수발자의 연령	.031	.947	-.008	-.408	.002	.143
주수발자(여성)						
남성	.176	.202	.370	.561	.170	.339
수발기간	.014	.330	-.013	-.428	-.005	-.224
수발어려움(있음)						
없음	.276	.409	-.349	-.812	-.280	-.799
수발행위	.067	.963	-.019	-.527	.001	.045
주수발자(비취업)						
파트타임	-2.061	-1.335	-1.043	-.929	-1.037	-1.230
전일제	.130	.170	-.601	-1.232	-.292	-.759
상수b (sig)	7.867		3.891		5.634**	
Adjusted R square	.000		.048		.066	
F (sig)	1.000		1.354		1.750**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가.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지역에 따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6>과 같다. 전체 노인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취업에 비해 전일제 취업인 경우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노인특성인 연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4-76〉 지역별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도시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노인성별(여성)						
남성	-.087	-.472	-.253	-.881	-.144	-1.027
노인연령	.013	1.426	.024	1.842*	.013	1.802*
노인결혼상태(기혼)						
독신	.010	.054	-.259	-.996	-.100	-.679
노인교육수준	-.027	-.719	.076	1.271	-.002	-.053
노인경제활동(무)						
경제활동유	.126	.371	.128	.645	.100	.665
일상생활능력(ADL)	.027	.969	-.027	-.796	.001	.071
인지능력	.026	.601	-.006	-.103	-.002	-.051
문제행동	-.019	-.452	-.044	-.691	-.022	-.653
간호처치	.029	.142	-.037	-.150	-.055	-.386
재활마비	.064	1.287	-.007	-.128	.045	1.323
재활구축	-.002	-.145	.020	.864	.005	.365
주수발자의 연령	-.001	-.117	-.001	-.164	-.001	-.224
주수발자(여성)						
남성	-.193	-1.078	-.076	-.423	-.136	-1.090
수발기간	.006	.706	-.009	-.972	-.00006	-.011
수발어려움(있음)						
없음	.079	.676	-.008	-.060	.022	.256
수발행위	.006	.648	.003	.213	.005	.648
주수발자(비취업)						
파트타임	.014	.047	-.177	-.556	.018	.088
전일제	.236	1.791*	.170	1.081	.206	2.155**
상수b (sig)		-1.561**		-1.378		-1.056*
Adjusted R square		.018		-.165		.003
F (sig)		1.133		.511		1.032

주: *= $p<0.1$, **= $p<0.05$, ***= $p<0.01$

나. 지역에 따른 서비스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특성 요인

지역에 따른 서비스 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77>과 같다.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결과 전체노인과 도시노인의 경우 연령과 재활구축변수만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희망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없었다.

〈표 4-77〉 지역별 서비스 희망률

구분	도시		농어촌		전체	
	β	t	β	t	β	t
노인성별(여성)						
남성	.945	1.109	-2.000	-1.292	.282	.415
노인연령	-.107	-2.501**	-.037	-.534	-.061	-1.780*
노인결혼상태(기혼)						
독신	-.443	-.507	.166	.120	-.373	-.524
노인교육수준	-.097	-.555	.264	.831	.014	.099
노인경제활동(무)						
경제활동유	-1.100	-.704	1.199	1.093	.085	.111
일상생활능력(ADL)	-.080	-.633	.015	.083	-.055	-.576
인지능력	-.174	-.859	-.412	-1.196	-.214	-1.278
문제행동	.070	.358	.090	.245	.049	.291
간호처치	.091	.097	.707	.458	-.064	-.085
재활마비	-.042	-.180	.098	.329	.103	.625
재활구축	.215	2.808***	-.042	-.333	.131	2.156**
주수발자의 연령	-.035	-1.428	.017	.477	-.020	-1.053
주수발자(여성)						
남성	1.254	1.520	.054	.560	.557	.923
수발기간	-.048	-1.311	.041	.883	.000009	.000
수발어려움(있음)						
없음	-.104	-.194	-.895	-1.202	-.503	-1.193
수발행위	.018	.403	.068	.885	.014	.382
주수발자(비취업)						
파트타임	.293	.208	-.565	-.332	-.044	-.043
전일제	-.574	-.939	-.318	-.379	-.325	-.700
상수b (sig)	12.286***		3.496		7.623***	
Adjusted R square	.119		-.143		.069	
F (sig)	1.961**		.577		1.775**	

주: *= $p<0.1$, **= $p<0.05$, ***= $p<0.01$

제 4 절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을 크게 ① 여가활동, ② 사회단체활동,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④ 자원봉사활동, ⑤ 정보화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가. 여가활동 실태

농어촌노인들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사교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의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모두 가족중심형 여가활동과 우인교류형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매우 낮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표 4-78 참조).

〈표 4-78〉 지역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학습활동	0.2	0.1	0.5	0.3	0.4	0.2
사회(자원)봉사활동	0.3	0.3	1.1	0.5	0.9	0.4
컴퓨터, 인터넷활동	0.1	0.1	0.3	0.6	0.2	0.5
스포츠활동	1.2	0.9	3.3	2.2	2.6	1.8
사교활동	18.9	16.8	23.1	15.0	21.7	15.6
여행	5.1	6.5	6.3	6.7	5.9	6.6
영화감상, 연극·운동경기 관람 등	0.3	0.3	0.3	0.4	0.3	0.4
서예, 독서,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공예 등	0.6	1.3	1.8	1.7	1.4	1.5
건강가요, 시조, 장구, 풍물 등	0.5	1.5	1.6	1.5	1.2	1.5
바둑, 장기, 화투 등	2.7	3.7	2.9	2.6	2.8	2.9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40.0	11.2	25.7	13.8	30.4	12.9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6.9	13.5	10.6	14.8	9.4	14.4
자녀 및 손자녀양육	3.3	2.8	2.8	2.6	3.0	2.7
집안일하기	0.2	0.3	1.1	0.3	0.8	0.3
종교활동	3.7	2.3	5.7	3.1	5.1	2.8
기타	2.1	1.1	2.3	1.1	2.2	1.1
특별히 없음	13.8	37.4	10.4	33.0	11.5	3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26)	(930)	(1,920)	(1,920)	(2,846)	(2,850)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여가활동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여가활동 참여도는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여가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농어촌노인일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노인들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9 참조).

〈표 4-79〉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변인	농어촌(β)	도시(β)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145*	.144	.116*
연령	-.067	.021	-.038
교육수준	.061	.259**	.118*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114	-.516	-.094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07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020	-.563	-.154
자녀수	.002	.036	.023
자녀 접촉 빈도	.001	.047	.017
자녀 연락 빈도	.006	.081	.026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77	.151	.111*
월평균 용돈액수	.029	.094	.073
월평균 총수입액	.111	.186*	.036
주관적 건강평가	.231***	.197**	.221***
만성질환수	.073	-.064	.022
일상생활 동작능력	-.070	.002	-.055
사회적 지지	.078	.095	.086*
(상수)	3.538	2.864	4.058**
R square	.126	.185	.130
adjusted R square	.085	.130	.105
F	3.113***	3.390***	5.096***

주: *=P<.05, **=P<.01, ***=P<.001

2. 사회단체 활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활동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 및 직능단체라는 5가지 유형의 단체에 의 ① 참여 여부, ② 월 참여빈도, ③ 향후 참여의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단체 가입률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등의 5개 단체에 농어촌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농어촌노인들이 가입한 평균 사회단체의 수는 0.86개 단체로 도시노인의 0.91개 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그리고 단체 종류별로는 농어촌노인의 경우 문화활동, 운동, 사교단체의 가입률은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 운동, 사교, 단체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노인들의 사회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표 4-80 참조).

〈표 4-80〉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종교단체	54.9	51.8	47.2	(2,851)
문화활동단체	0.6	1.1	1.0	(2,851)
운동단체	3.1	4.3	3.9	(2,851)
사교단체	34.0	36.4	35.6	(2,851)
정치단체	3.0	1.4	1.9	(2,851)

나. 사회단체 월 참여빈도

사회단체에 가입한 농어촌노인들의 월 참여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경우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노인이 약 41%, 문화활동 단체는 월 1회 이하 참여하는 경우가 약 57%, 운동단체와 사교단체의 경우 월 1회 이하 참여하는 경우가 각각 약 69%, 약 84%이며, 정치 및 직능단체의 경우 월 1회 미만 참여하는 비율이 약 61%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단체 보다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81 참조).

〈표 4-81〉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분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농어촌	도시	전체	농어촌	도시	전체	농어촌	도시	전체
거의 매일	5.7	11.1	9.4	-	-	-	10.3	9.6	9.8
주 2~3회	15.7	19.7	18.4	14.3	14.3	14.3	3.4	10.8	8.9
주 1회	20.0	27.1	24.9	14.3	33.3	28.6	13.8	12.0	12.5
2주 1회	3.1	4.6	4.2	14.3	14.3	14.3	3.4	15.7	12.5
월 1회	9.7	8.3	8.8	28.6	19.0	21.4	44.8	43.4	43.8
월 1회 미만	45.8	29.1	34.3	28.6	19.0	21.4	24.1	8.4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421)	(925)	(1,346)	(7)	(21)	(28)	(29)	(83)	(112)

구분	사교단체			정치·직능단체		
	농어촌	도시	전체	농어촌	도시	전체
거의 매일	1.3	2.3	2.0	-	3.6	1.8
주 2~3회	2.2	3.0	2.8	3.6	-	1.8
주 1회	5.0	7.7	6.9	7.1	-	3.6
2주 1회	6.9	13.7	11.6	10.7	3.6	7.1
월 1회	41.2	49.1	46.6	17.9	42.9	30.4
월 1회 미만	43.4	24.2	30.2	60.7	50.0	55.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18)	(699)	(1,017)	(28)	(28)	(56)

다. 사회단체 향후 가입희망률

현재 사회단체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사회단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의 경우 현재 사회단체에 가입한 비율보다는 향후 가입희망률이 높게 나타났지만,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단체에서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가입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4-82 참조).

〈표 4-82〉 지역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상자수)
종교단체	45.5	49.8	48.4	(2,847)
문화활동단체	1.2	2.1	1.8	(2,848)
운동단체	3.8	5.4	4.8	(2,849)
사교단체	34.2	36.0	35.4	(2,849)
정치단체	3.0	1.4	1.9	(2,850)

라.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어촌노인의 경우 여성노인,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여성노인,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월평균 총 수입액이 많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3 참조).

〈표 4-83〉 농어촌노인의 사회단체 참여 영향요인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177*	.164*	.150**
연령	-.135*	-.038	-.103**
교육수준	.236***	.335***	.256***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195	-.535	-.04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65***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191	-.561	-.049
자녀수	.040	-.001	.027
자녀 접촉 빈도	.078	.159*	.115**
자녀 연락 빈도	.018	-.026	.008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42	.086	.021
월평균 용돈액수	.203**	.065	.128**
월평균 총수입액	.124	.154*	.138**
주관적 건강평가	.073	.002	.041
만성질병수	.032	-.037	.006
일상생활 동작능력	-.066	.017	-.053
사회적 지지	.123*	.134*	.127**
(상수)	3.327*	1.693	3.355*
R square	.217	.309	.233
adjusted R square	.181	.263	.210
F	6.009***	6.690***	10.327***

주: *=P<.05, **=P<.01, ***=P<.00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③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④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7.0%,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3.9%로서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4-84 참조).

〈표 4-84〉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구분	(단위: %, 명)		
	농어촌	도시	전체
참여한 경험없음	89.2	86.8	87.6
현재 참여하고 있음	7.0	8.5	8.0
과거에 참여한 경험있음	3.9	4.7	4.4
계	100.0	100.0	100.0
(명)	(932)	(1,920)	(2,852)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농어촌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의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부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5 참조). 이와 같이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들이 이용한 평생교육 프로그

램 실시기관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학이나 노인복지회관이 주로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4-85〉 지역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4.0	12.5	10.1
노인복지회관(노인대학)	31.0	44.7	40.8
대한노인회(노인대학, 노인교실)	16.0	11.0	12.4
종교기관(노인대학, 노인교실)	37.0	20.0	24.8
기타	12.0	11.8	11.8
계	100.0	100.0	100.0
(명)	(100)	(255)	(355)

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의 15.3%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4-86 참조).

〈표 4-86〉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단위: %, 명)

구분	향후 평생교육 참여율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						계(명)
		기초학습	외국어 학습	여가·취미	기술강좌	재취업 프로그램	기타	
농어촌	15.3	18.3	3.5	72.5	0.7	0.7	4.2	100.0(415)
도시	21.6	11.6	7.2	70.8	1.2	3.4	5.8	100.0(142)
전체	19.5	13.3	6.3	71.3	1.1	2.7	5.4	100.0(557)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농어촌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취미 프로그램

에 참여하겠다는 농어촌노인이 72.5%, 기초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노인이 18.3%로 나타나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농어촌노인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28.3%,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26.3%, 시간이 없어서가 17.6%인 것으로 나타나,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건강문제와 시간부족 문제로 인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4-87 참조).

〈표 4-87〉 지역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시간이 없어서	17.6	15.4	16.1
건강이 안 좋아서	26.3	24.9	25.4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8.3	33.3	31.6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15.0	14.7	14.8
참가비용비 부담스러워서	5.0	6.5	6.0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8	3.0	2.9
교육장소가 멀어서	2.2	.7	1.2
교육장소를 몰라서	2.2	.1	.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5	1.2	1.0
기타		.3	.2
계	100.0	100.0	100.0
(명)	(778)	(1,472)	(2,250)

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 농어촌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어촌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많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

적으로 평가할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와의 접촉빈도만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88 참조).

〈표 4-88〉 농어촌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변수	농어촌		도시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여성	-.837	.433	-.214	.807	-.334	.716
연령	.052	1.053	.033	1.033	.034	1.034
교육수준	.318*	1.375	.080	1.083	.120	1.12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5.214	183.912	.246	1.279	.594	1.81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513*	1.670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5.063	158.131	.259	1.296	.559	1.749
자녀수	.281*	1.324	-.058	.944	.020	1.020
자녀 접촉 빈도	.334**	1.396	.265**	1.303	.296***	1.344
자녀 연락 빈도	-.365	.694	-.077	.926	-.133	.875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514*	.598	.258	.773	.323*	.724
월평균 용돈액수	.001	1.001	-.002	.998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04	.996	-.003	.997	-.003	.997
주관적 건강평가	.171	.843	.261	.771	.233	.792
만성질환수	-.025	.976	.108	1.114	.081	1.084
일상생활 동작능력	-.608	.544	-.705	.494	-.681	.506
사회적 지지	.051	1.052	.036	1.037	.051	1.052
(상수)	.970	2.639	10.775	47809.791	9.116	9097.853
Chi-Square / df	26.844*** / 15		35.365*** / 15		55.424*** / 15	
-2Log Likelihood	183.170		406.818		486.901	
Nagelkerke R square	.147		.088		.094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4. 자원봉사활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 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② 실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 ③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④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6.9%,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2%로서,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과거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한 노인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9 참조).

〈표 4-89〉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경험 없음	89.9	83.3	85.5
과거 참여경험	6.9	12.3	10.6
현재 참여하고 있음	3.2	4.3	4.0
계	100.0	100.0	100.0
(명)	(932)	(1,921)	(2,853)

나. 실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 참여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자원봉사 활동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농어촌노인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의 71.7%가 실비 자원봉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해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4-90 참조).

〈표 4-90〉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도시	농어촌	전체
찬성하지 않는다	29.9	28.3	29.4
찬성한다	70.1	71.7	70.6
계	100.0	100.0	100.0
(명)	(1,891)	(907)	(2,798)

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참여빈도 및 활동영역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의 10.6%가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노인의 13.8%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91 참조).

〈표 4-91〉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향후 자원봉사 참여율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계(명)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주 월 2~3회	월 1회	기타	
농어촌	10.6	5.1	2.0	24.5	19.4	44.9	4.1	100.0(98)
도시	13.8	8.7	5.3	40.4	12.5	31.7	1.5	100.0(265)
전체	12.8	7.7	4.4	36.1	14.3	35.3	2.2	100.0(363)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빈도와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월 1회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44.9%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정도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24.5%로 나타나,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농어촌노인의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빈도는 동일 특성을 지닌 도시노인과 비교하여 볼 때, 도시노인에 비하여 참여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 노인 내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4-92 참조).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의 경우 도시노인과 유사하게 지역사회봉사활동과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92〉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사회복지분야	22.2	23.4	23.1
지역사회봉사활동	56.6	52.1	53.3
교통 및 환경분야	8.1	9.4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3.0	3.4	3.3
교육 및 문화예술	7.1	6.0	6.3
보건의료분야	3.0	4.2	3.8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	1.5	1.1
계	100.0	100.0	100.0
(명)	(99)	(265)	(364)

라.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43%로서 건강문제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 반면에 시간이 없어서,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는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93〉 지역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농어촌	도시	전체
시간이 없어서	19.8	16.3	17.5
건강이 안 좋아서	42.7	47.1	45.6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7.8	26.2	26.7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5	3.4	3.4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3.6	4.7	4.4
봉사할 곳을 몰라서	0.8	0.6	0.7
봉사할 곳이 멀어서	0.2	-	0.1
할만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0.8	1.4	1.2
기타	0.6	0.4	0.5
계	100.0	100.0	100.0
(명)	(824)	(1,632)	(2,456)

마.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노인,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월평균 용돈액수와 수입액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만이 자원봉사활동 참여 가능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4 참조).

〈표 4-94〉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변인	농어촌		도시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1.401*	4.061	-.714	.490	-.101	.904
연령	-.037	.963	-.019	.981	-.024	.976
교육수준	.284	1.329	.332**	1.394	.294**	1.342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9.302	1096.307	1.314	3.722	1.586	4.884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39	.962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9.666	1576.188	.648	1.912	1.230	3.422
자녀수	.141	1.151	.147	1.158	.124	1.132
자녀 접촉 빈도	.213	1.237	.205	1.227	.220**	1.246
자녀 연락 빈도	-.385	.680	-.100	.905	-.160	.852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980**	.375	-.145	.865	.363**	.696
월평균 용돈액수	.036**	1.037	-.002	.998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15*	.985	.002	1.002	.001	1.001
주관적 건강평가	.177	.837	.256	.774	.183	.833
만성질환수	-.183	.833	.076	1.079	.027	1.028
일상생활 동작능력	-17.843	.000	-.304	.738	-.460	.631
사회적 지지	-.139	.870	.065	1.067	-.023	.978
(상수)	384.319	8.083	2.430	11.354	6.843	937.657
Chi-Square / df	61.217*** / 15		32.714*** / 15		55.938*** / 15	
-2Log Likelihood	130.207		334.899		503.881	
Nagelkerke R square	.353		.104		.116	

주: * = P < .05, ** = P < .01, *** = P < .001

5.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가.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노인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 ② 향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필요성, ③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3%로서 도시노인의 6.5%에 비해 이용률이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5 참조).

〈표 4-95〉 지역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률	향후 이용필요성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	(대상자수)
농어촌	3.3	18.5	10.8	(931)
도시	6.5	29.5	18.9	(1,920)
전체	5.4	25.9	16.3	(2,851)

농어촌노인 중에서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8.5%로서 도시노인의 29.5%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 농어촌노인은 10.8%로 도시노인의 18.9%와 비교해 볼 때, 농어촌노인이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농어촌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농어촌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노인이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고, 월평균 용돈액수가 많은 노인이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96 참조).

〈표 4-96〉 농어촌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변인	농어촌		도시		전체	
	B	Exp(B)	B	Exp(B)	전체B	Exp(B)
성(남성 기준) : 여성	-.774	.461	.308	1.360	.137	1.147
연령	-.146	.864	-.056	.946	-.076**	.927
교육수준	1.215***	3.369	.600***	1.823	.702***	2.017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8.983	7969.353	2.491	12.071	2.616	13.687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23	.885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9.233	1020.379	3.263	26.118	3.249	25.770
자녀수	.030	1.030	-.302*	.740	-.223*	.800
자녀 접촉 빈도	-.022	.978	-.045	.956	-.041	.960
자녀 연락 빈도	.193	1.213	-.018	.982	.040	1.040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734*	.480	.080	1.083	.074	.928
월평균 용돈액수	.008	1.008	.012**	1.012	.010**	1.011
월평균 총수입액	.002	1.002	.000	1.000	.000	1.000
주관적 건강평가	-.498	.608	.068	1.070	-.030	.970
만성질병수	-.087	.916	.027	1.027	.007	1.007
일상생활 동작능력	-3.969	.019	-4.957	.007	-5.379	.005
사회적 지지	.372	1.451	-.072	.931	-.021	.979
(상수)	81.409	2266.736	104.972	3878.918	115.511	1464.520
Chi-Square / df	108.322*** / 15		178.866*** / 15		276.992*** / 16	
-2Log Likelihood	92.842		396.782		512.712	
Nagelkerke R square	.577		.372		.305	

주: *= $P < .05$, **= $P < .01$, ***= $P < .001$

제 5 절 요약 및 함의

1. 농어촌노인의 경제상태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았다. 노인가구의 소득계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농어촌노인의 44.9%가 빈곤선 이하에 포진하고 있는 데 비하여, 도시노인은 33.8%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율에 있어 지역별로 11%의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농어촌노인의 소득수준은 월 39만원으로 도시노인의 월 53만원보다 14만원 정도 낮았다.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근로사업부업소득을 가진 비율이 높고,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소득을 가진 비율이 약간 높은 반면, 자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소지 비율은 도시노인에 비해 낮았다. 농어촌노인이 공적연금소지비율이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공적연금 적용확대가 농어촌지역에 1995년, 도시지역에 1999년으로 농어촌지역이 4여년 정도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원별 소득수준에서는 농어촌노인이 근로사업부업소득이 약간 높은데 비하여,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사적이전소득은 도시노인이 모두 높았다.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가구형태, 성,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일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하에서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대체로 소득원별 소득을 가질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농어촌노인이라는 요인이 긍정적인 경제상태 인식 및 높은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요약해보면 농어촌노인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도시노인에 비해 열악하여 빈곤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이 노출되어 있다. 또한 절대적 비중에 있어서나 다른 가구형태에 비한 상대적 비중에서도 모두 근로사업소득의 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취약한 소득실태에 직면하여 고령에도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정년없는 자영 경제활동을 통하여 근로사업부업을 통하여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여타 노인의 인적, 가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농어촌노인이라는 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어촌노인이 가지는 고연령 다수, 여성 다수, 낮은 교육수준 등의 인적 특성이 가지는 사회적 취약성과 더불어 농어촌 거주라는 지역적 특성이 여전히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의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다만, 소득원별 유무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 통제 하에서 농어촌노인이 소득원을 가질 확률이 도시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가지는 양적 크기에서 보여졌던 농어촌노인의 특성적 영향과 달리, 소득의 유무만을 따지는 것에서는 농어촌노인이 가지는 사회적 취약성 변수속에 농어촌노인의 취약한 지역적 특성의 영향력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농어촌노인의 인적, 가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체계 내에서도 농어촌노인은 도시노인보다 우선 보호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 공공부조 수급율도 농어촌에서 더욱 높다. 공공부조 수급자격 소득인정기준(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전국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일 조건의 재산가액이 낮은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에 비해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즉, 공공부조에 있어서는 농어촌노인에게 도시노인보다 유리한 수급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적소득보장체계 중에서도 공적연금소득은 독거노인이 여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농어촌노인은 공적소득보장체계 내에서도 사후대책이며 빈곤층에 대한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소득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보편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소득을 통한 보호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 및 영양욕구

농어촌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건강위해 행위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건강실천행위인 운동실천율과 영양식 섭취 노력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만성질환유병률은 농어촌이 도시에 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이고, 만성질환치료에 위한 의료기관으로 보건(지/진료)소 이용률이 높으며, 주관적 건강인식은 농어촌이 도시보다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시력, 청력, 씹기 모두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더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과 청력, 씹기 모두 도시노인들이 농어촌노인 보다 보조기 착용률이 더 높았으며,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보조기 착용 이후의 시력, 청력, 씹기 능력이 도시노인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서 거주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 또한 대부분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교통수단 이용', '금전관리', '전화사용'을 하는데 노인들이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가지 항목 모두 농어촌노인이 도시노인보다 수행능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간호처치 욕구출현율, 재활욕구의 마비출현율, 재활욕구의 구축출현율에서 농어촌노인들의 욕구가 도시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양욕구와 관련된 특징들은 간호처치 욕구를 제외하고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악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집단은 재활구축 영역에서 농어촌노인들의 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 노인들이 장기간에 걸친 육체노동으로 인해 노년기에 재활구축 관련 영양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약간 더 많았으며 비동거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더 높았다. 농어촌노인의 주 수발자는 장남·며느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배우자, 그 외 며느리와 아들, 딸·사위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노인의 주수발자는 배우자가 가장 많았으며

딸·사위, 장남·며느리 순이었다. 또한 농어촌노인의 주수발자의 연령이 더 높았고, 농어촌노인 수발자의 과반수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노인 수발자의 전일제 경제활동 비율이 도시노인 수발자들의 경우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과반수 이상의 농어촌노인 수발자들이 경제활동과 노인수발의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발기간은 도시노인들의 수발기간이 농어촌노인들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노인 수발자들이 농어촌 거주노인 수발자 보다 수발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부담은 두 집단 모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농어촌 수발자들은 심리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에 대한 부담 순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 수발자들은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부담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것은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장남·며느리의 비중이 높고, 도시 노인들은 배우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보장구대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도시노인이 농어촌노인보다 인지율이 높았고, 서비스 이용(경험)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주간보호와 가정간호서비스는 농어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농어촌노인들과 도시노인 모두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가장 높았다. 한편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노인전문병원, 치매상담센터, 가사지원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경로식당, 노인식사배달, 보장구대여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높은 이용희망률을 보였으며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에 대한 이용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들에 비해 가정봉사원 서비스 및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도시노인들은 요양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의 영향요인 분석에서 전체노인의 경우, 노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도시와 농어촌노인의 경우 모델의 설명력이 유의하지 않았다.

노인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노인과 도시노인의 경우 같은 노인 특성에서 연령과 결혼상태, 교육수준, 일상생활능력(ADL), 재활마비 변수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노인특성인 연령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농어촌노인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장 큰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도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과 사교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도시지역 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가활동의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모두 가족중심형 여가활동과 우인교류형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높고, 개인적 발전을 도모하거나 창의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는 매우 낮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 노인일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 평가가 긍정적인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았다.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단체종류별 가입률은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종교, 문화, 운동, 사교, 정치 및 직능단체들이 도시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노인들의 사회단체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7.0%,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3.9%로서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한노인회와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부설,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농어촌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많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다.

농어촌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6.9%,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2%로서, 도시노인들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한 노인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결과, 여성노인,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월평균 용돈액수와 수입액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3.3%로서 도시노인의 6.5%에 비해 이용률이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제 1 절 독거노인의 가족관계

1. 자녀동거여부

노인가구형태별 사례들의 분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인가구형태는 노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의 <표 5-1>은 자녀와의 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분석을 노인전체와 배우자 유무별로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은 배우자 유무, 성, 거주지역,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동거확률은 무배우 노인보다는 유배우 노인에게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배우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지 않아도 배우자와 함께 독자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녀동거확률은 성과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른데,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도시노인보다는 농어촌노인에게서 낮다. 대체로 여성노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남성노인들보다 더 자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동거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도시에 비해 농어촌노인의 자녀동거확률이 낮은 것은 농어촌노인들의 자녀 대부분 도시에 살면서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교육수준의 효과는 일관적이지 못하다. 이는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가 자녀별거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는 저학력 노인이 많으며 노인부부가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닌 노인들이 많았다. 교육수준구성이 서로 다른 노인독신가구 및 노인부부가구를 구분하지 않은 채 자녀별거로 통합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불분명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녀동거확률에 대한 자녀수의 효과는 정적인데,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 중의 한명과 동거할 확률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표 5-1> 노인전체와 배우자 유무별 자녀동거여부에 대한 로짓회귀계수와 유의도

변수	노인전체(n=2786)		무배우 노인(n=1173)		유배우 노인(n=1613)	
	b	exp(b)	b	exp(b)	b	exp(b)
성별(남성기준) : 여성	-0.361 ***	0.697	0.150	1.161	-0.446 ***	0.640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581 ***	0.559	-0.406 ***	0.666	-0.725 ***	0.484
연령(65~69세 기준): 70~74세	-0.096	0.908	0.002	1.002	-0.166	0.847
75세 이상	-0.159	0.853	0.017	1.017	-0.440 ***	0.644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270 **	1.310	0.430 **	1.537	0.035	1.035
초등학교	0.256 *	1.291	0.580 ***	1.785	0.045	1.046
중고등학교	0.245	1.277	0.334	1.397	0.001	1.001
대학교	-0.191	0.826	-0.101	0.904	-0.493	0.611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866 ***	0.421	-----	-----	-----	-----
자녀수	0.067 **	1.069	0.070 *	1.072	0.071 *	1.073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0.048	1.049	-0.640 **	0.527	0.847 ***	2.333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412 ***	0.662	-0.838 ***	0.433	-0.213	0.808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755 ***	0.470	-1.158 ***	0.314	-0.548 ***	0.578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299 **	0.742	-0.808 ***	0.446	-0.167	0.846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867 ***	0.420	-0.923 ***	0.397	-0.614 **	0.541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285 ***	1.330	0.725 ***	2.064	-0.146	0.864
상수	0.292	1.340	-0.478	0.620	-0.273	0.761
카이자승	241.081		172.882		79.274	
자유도	16		15		15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소득에서는 고려된 소득원천이 있으면 자녀동거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의미는 소득원천종류에 따라 다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과 금융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의 존재는 노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을 가진 노인들에게서 낮은 자녀동거확률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자녀와의 별거를 통해 사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빈곤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체로 자립적인 소득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녀로부터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사회부조를 받는 노인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을 위해 자녀와 별거하기 보다는 자녀로부터의 도움 혹은 자녀와의 동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녀와 별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건강에서는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

에 비해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건강보호와 수발이 대체적으로 세대간 동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우자 유무별로 자녀동거확률을 살펴보면 노인전체의 분석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노인전체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되었던 자녀동거확률의 성별차이는 무배우 노인에게서는 발견되지 않고, 유배우 노인에게서만 발견된다. 이는 사별을 하고 나서 자녀와 동거할 가능성이 남녀 노인 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유배우 노인들의 경우,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자녀동거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즉, 아내가 있는 남성노인들에 비해 남편이 있는 여성노인들은 자녀와 따로 떨어져 부부끼리만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자녀와의 동거에서 오는 불편함과 마찰을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더 클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과 도시노인간 차이는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 무배우, 유배우 노인 모두에게 있어 도시노인에 비해 농어촌노인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은 낮다. 연령의 효과는 전체 노인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배우 노인에게서는 나타나고 있다. 유배우 노인 중 에서 75세 이상 노인들은 65~69세 노인들에 비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65~69세 노인들에게는 아직 결혼이나 직장을 통해 부모를 떠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반면, 75세 이상에서는 그러한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의 효과는 무배우 노인에게서만 다시 등장하고 있다. 무배우 노인들의 경우 글자를 모르는 노인에 비해 글자를 해독하거나 초등학교를 다닌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들은 글자를 모르는 노인들에 비해 자녀동거확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무배우 노인 중에서 학력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우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따라서 소득원천별 자녀별거가구의 함의가 다르듯이 교육수준별로도 노인독신가구의 함의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 즉, 최저학력과 최고학력의 양극에 위치한 무배우 노인들이 자녀별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자녀수는 무배우, 유배우 노인 모두에게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아들유무는 배우자 유무별로 그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배우 노인 중에서 딸만 있는 노인들은 아들이 있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낮다. 즉,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딸과 함께 살기보다는 혼자서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유배우 노인에게서는 딸만 있는 경우가 아들이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자녀동거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배우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노인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딸이 있을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유무별 소득의 효과는 전체노인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무배우 노인들의 경우, 고려된 소득 원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동거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한편, 유배우 노인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등의 효과가 그 통계적 유의미성을 상실하지만 여전히 재산소득과 금융소득, 사회부조 등이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기능상태 제한의 효과는 흥미롭다. 무배우 노인들의 경우,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으면 자녀와 동거할 확률이 높다. 한편, 유배우 노인들에서는 기능상태 제한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신체적 수발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의 동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배우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와의 동거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2.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이든 일방적 수급형(vs. 상호교환형)이든 노인들의 가구형태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는 가구형태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즉, 동일한 가구형태에 속한 노인들의 특성에 따라 세대간 지원교환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 5-2>에서 가구형태별로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 일방적 수급형이 가장 많으며, 이를 이어 상호교환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는 상호교환형이 다수(76.6%)를 차지하며 일방적 수급형은 그 뒤를

있고 있다. 따라서 가구형태별로 세대간 지원교환을 살펴보면 노인독신가구와 노인부부가구에서는 일방적 수급형(48.5%, 48.3%)과 상호교환형(39.1%, 39.3%)이 대부분이며, 자녀동거가구에서는 상호교환형(76.6%)이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들도 가구경계를 넘어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거나, 자녀와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노인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도 일방적으로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 보다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매우 많음을 보여준다.

<표 5-2> 가구형태별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 분포

(단위: %, 명)

구분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전체
무교환형	11.4	10.0	1.0	6.8
일방적 제공형	1.0	2.4	3.0	2.3
일방적 수급형	48.5	48.3	19.4	37.0
상호교환형	39.1	39.3	76.6	53.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14)	(1,077)	(1,095)	(2,786)

다음의 <표 5-3>, <표 5-4>, <표 5-5>는 각각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을 다항로지모형에 의해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을 <표 5-3>를 통해 살펴보자. 이 표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간의 지원교환 유형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이미 가구형태가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상당한 차이를 설명하거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독신가구 거주 노인들중에서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은 거주지역, 교육수준,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도시에서 독거노인에 비해 농어촌에서 독거노인들은 자녀와 지원을 교환하지 않을 확률이 낮다. 이는 대체로 도시 노인이 농어촌노인에 비해 물리적으로 자녀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까울지라도, 자녀와의 접촉이나 지원이 적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교환형은 대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독거노인에게서도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들과

자녀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받는 독거노인들에게서도 무교환형의 확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교육수준의 효과와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대학이상의 교육을 받은 노인들이 연금 수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독거노인들 또한 자녀와 지원교환이 없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일방적 수급형 확률은 연령에 의해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대체로 독거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역시 노령화에 따른 경제력과 건강상실에 따라 자녀에게의 지원은 힘들어지는 반면, 자녀로부터의 도움에 대한 필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표 5-3> 노인독신가구 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성별(남성기준) : 여성	-0.701	0.496	-0.258	0.773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610 *	0.543	0.223	1.250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25	1.025	0.393 *	1.482
75세 이상	0.072	1.074	0.596 **	1.814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10	1.116	0.004	1.004
초등학교	-0.399	0.671	-0.364	0.695
중고등학교	0.508	1.661	-0.088	0.916
대학교	1.822 **	6.182	-0.510	0.601
자녀수	-0.124	0.884	0.056	1.057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0.339	0.712	0.139	1.149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05	1.111	-0.074	0.929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558	1.747	-0.115	0.891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830 *	2.294	-0.067	0.935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2.335 ***	10.324	0.301	1.352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090	0.914	0.021	1.022
상수	-0.918		-0.138	

주: *= $p<0.1$, **= $p<0.05$, ***= $p<0.01$

노인독신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이 극히 제한적이다. 다음의 <표 5-4>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의 다항로지분분석결과이다. 우

선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은 자녀수와 소득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무교환형의 확률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들과 지원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에서는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게서 무교환형의 확률이 높게 나타난다.

일방적 수급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은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비록 자녀와 떨어져 부부끼리만 산다고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노쇠한 노인이라면 자녀로부터의 도움을 일방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한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확률이 낮다. 이에 비해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을 확률이 높다. 즉,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것인지, 혹은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것인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표 5-4〉 노인부부가구 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성별(남성기준) : 여성	-0.425	0.653	-0.331 *	0.718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119	0.888	0.000	1.000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002	0.998	0.519 ***	1.681
75세 이상	0.175	1.191	0.436 **	1.546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47	1.159	-0.128	0.880
초등학교	-0.331	0.718	-0.396	0.673
중고등학교	-0.087	0.916	-0.151	0.860
대학교	0.283	1.327	-0.448	0.639
자녀수	-0.138 *	0.871	0.008	1.008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0.523	1.687	-0.091	0.913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295	1.343	-0.494 ***	0.610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374	1.454	-0.134	0.875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101	0.904	-0.206	0.814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1.884 ***	6.581	0.792 **	2.207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368	0.692	0.033	1.033
상수	-0.608		0.490	

주: *= $p<0.1$, **= $p<0.05$, ***= $p<0.01$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게서 세대간 지원교환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의 <표 5-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중에서 무교환형(vs. 상호교환형)의 확률은 연령, 아들유무, 소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자녀와 아무런 도움을 주고받지 않을 확률은 우선 고연령층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에서는 신체적 쇠약과 함께 자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무교환형의 확률은 낮아진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들과 경로연금 및 국민기초생활급역을 받는 노인들에게서도 무교환형의 확률은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동거노인 중에서 무교환형에 속하는 사례는 소수(일방적 제공형을 포함하여 4%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상에서 나타난 변수간 차이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오토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세대간 지원교환 분석에서는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 혹은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받는가를 더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5-5>에 의하면, 일방적 수급형 확률은 성, 배우자 유무, 소득, 건강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은 이에 해당하는 남성노인에 비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할 가능성이 낮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더 많은 역할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배우자 유무별로는 유배우 노인들이 무배우 노인들보다 일방적 수급형의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는 유배우 노인들의 특성(예컨대,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젊은 유배우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무배우 노인들보다 동거가족원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자녀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는데, 이는 연금수급자들이 동거하는 자녀세대와 함께 생활비의 일부를 지출하거나 대부분을 지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강상태는 역시 신체적, 정신적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일방적인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표 5-5〉 자녀동거가구 거주노인의 세대간 지원교환에 관한 다항로지분석결과

변수	무교환 vs. 상호교환		일방적 수급 vs. 상호교환	
	b	exp(b)	b	exp(b)
성별(남성기준) : 여성	-0.551	0.577	-1.640 ***	0.194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327	1.387	0.254	1.289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721	0.486	-0.173	0.841
75세 이상	-1.516 **	0.220	0.246	1.279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798	2.222	0.055	1.056
초등학교	-0.387	0.679	-0.360	0.697
중고등학교	0.582	1.789	-0.350	0.704
대학교	0.194	1.214	-0.090	0.914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728	2.070	0.474 **	1.606
자녀수	-0.260 **	0.771	0.077	1.080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19.684 .	0.000	0.370	1.447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938 **	2.556	-0.325	0.722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693	2.000	0.347	1.415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648	1.912	-0.546 *	0.579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1.437 **	4.210	0.440	1.552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64	1.179	0.673 ***	1.961
상수	-2.652 **		-1.186 **	

주: *= $p<0.1$, **= $p<0.05$, ***= $p<0.01$

3. 전통적 태도 및 자녀관계 만족도

노인들의 가구형태에 따라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가구형태는 전통적 태도나 자녀관계만족도와 쌍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의 <표 5-6>은 노인가구 가구형태별로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전통적인 태도는 자녀동거가구에 거주하는 노인(0.73)에게 가장 강한 반면, 노인부부가구에 거주하는 노인(0.41)에서는 가장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태도가 강한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동거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표 5-6> 가구형태별 전통적 태도와 자녀관계만족도 점수

(단위: 점, 명)

구분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전체
전통적태도 (대상자수)	0.58 (614)	0.41 (1,077)	0.73 (1,095)	0.57 (2,786)
자녀관계만족도 (대상자수)	3.51 (613)	3.87 (1,076)	3.76 (1,092)	3.75 (2,780)

주: 1) 전통적인태도점수는 3점 척도.
2) 자녀만족도평균점수는 5점 척도.

다음의 <표 5-7>은 노인의 가구형태별로 전통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회귀분석으로 접근한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우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에 비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게서 유의미한 변수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더 이질적임을 반영한다.

<표 5-7> 가구형태별 전통적 가족관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b	β	b	β	b	β
성별(남성기준) : 여성	-0.100	-0.046	-0.090 *	-0.070	-0.226 ***	-0.137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150 **	0.104	-0.069	-0.053	0.094 *	0.052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145 *	0.093	0.063	0.046	0.131 **	0.076
75세 이상	0.142 **	0.100	0.150 ***	0.097	0.347 ***	0.209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105	-0.065	0.081	0.046	-0.043	-0.023
초등학교	-0.118	-0.077	-0.099	-0.077	-0.131 *	-0.081
중고등학교	-0.364 ***	-0.153	-0.189 **	-0.131	-0.301 ***	-0.153
대학교	-0.240	-0.046	-0.173 *	-0.081	-0.322 **	-0.077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	-	-	-	-0.169 ***	-0.108
자녀수	0.037 **	0.094	0.005	0.012	-0.009	-0.020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0.088	-0.036	0.014	0.003	0.296 ***	0.076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80 ***	-0.114	-0.091 **	-0.068	-0.108 *	-0.057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42 *	-0.070	-0.143 ***	-0.084	-0.191 **	-0.069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064	-0.029	-0.002	-0.001	-0.110	-0.044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258 ***	-0.155	-0.049	-0.022	-0.239 ***	-0.083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005	-0.003	-0.077 *	-0.053	0.057	0.035
상수	0.604 ***		0.573 ***		0.989 ***	

주: * = p < 0.1, ** = p < 0.05, *** = p < 0.01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세대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는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시에서 독거노인에 비해 농어촌에서 독거노인들에게서 더 강한 전통적 태도가 발견된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전통적 태도가 강해진다.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간 학력의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약하게 나타난다. 또한 자녀수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데, 자녀수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태도도 강하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에게서 전통적 태도는 약하게 나타난다.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의 경우도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성과 건강상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전통적인 태도가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게서 약하게 나타난다. 연령의 효과는 독거노인의 그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고령층에서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다. 교육수준면에서는 고학력의 노인들의 전통적인 태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에서는 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전통적인 태도가 약하다.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들 중 기능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전통적인 태도가 다소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주로 수발을 들면서 자녀수발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가 약해질 가능성을 반영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에게서는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아들유무, 소득 등이 전통적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중에서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의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한편, 세대간 관계에 대한 전통적 태도는 도시노인보다 농어촌노인에게서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수준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전통적 태도가 약하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무배우 노인에 비해 유배우 노인들의 전통적 태도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유무의 효과는 흥미로운데, 딸만 있는 노인에게서 전통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효과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내에서 발견되는 것이므로 딸과 함께 사는 노인들에게서 오히려 전통적인 태도가 강하다는 뜻이 된다. 아

마도 이들은 아들과의 동거라는 규범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살면서 심리적인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에 대한 역작용으로 보다 전통적인 태도를 지향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 소득에서는 역시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전통적인 태도가 약하게 발견된다.

개별노인들이 자신들의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가구형태별로 어떻게 다른가는 다음의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독거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는 성, 거주지역, 연령, 교육수준, 소득,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홀로 사는 여성노인들은 그러한 남성노인들에 비해 자녀관계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는 남성노인들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홀로 살더라도 자녀와 더 많은 접촉과 도움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에서는 도시노인보다 농어촌노인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높다. 교육수준에서는 중간 학력의 노인들에게서 자녀관계만족도가 어느 정도 높게 나타난다. 소득에서는 재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높으며,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만족도가 낮다. 한편,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다. 이는 수발이 필요하면서도 독거노인들의 경우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을 반영한다.

부부끼리 사는 노인들의 경우, 자녀관계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소득과 건강상태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부부끼리 사는 노인들 중에서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이들 노인들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없이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에게 수발이 필요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러한 수발은 배우자가 주로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낮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부부끼리 사는 노인들 중에서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에게서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것에서 다시 확인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자녀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교육수준, 아들유무, 소득, 건강상태 등이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학

력의 노인들에게서 자녀관계 만족도는 높다. 아들유무의 효과는 흥미로운데, 딸만 있는 노인들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딸만 있는 노인들이 딸과 따로 살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 자녀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딸과의 동거가 노인과 딸 간의 친밀한 관계에 기초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득에서는 역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노인들과 경로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노인들의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또한 건강상태에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자녀관계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다.

〈표 5-8〉 가구형태별 자녀관계만족도에 관한 회귀분석결과

변수	노인독신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b	β	b	β	b	β
성별(남성기준) : 여성	0.422 ***	0.144	0.031	0.019	0.108	0.061
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0.243 ***	0.124	0.012	0.007	0.099	0.051
연령(65~69세 기준) : 70~74세	-0.285 ***	-0.135	-0.006	-0.003	0.071	0.038
75세 이상	-0.044	-0.023	0.010	0.005	0.122	0.068
교육수준(글자모름 기준) : 글자해독	0.090	0.042	-0.139	-0.061	0.071	0.035
초등학교	0.015	0.007	-0.020	-0.012	0.167 **	0.095
중고등학교	0.262 *	0.082	-0.057	-0.031	0.211 **	0.100
대학교	0.302	0.043	-0.009	-0.003	0.394 **	0.085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	----	----	----	0.107	0.063
자녀수	0.026	0.048	0.001	0.002	-0.022	-0.044
자녀성별(아들만 있음) : 딸만 있음	0.101	0.031	0.210	0.039	0.420 ***	0.099
근로/사업 및 부업소득(없음 기준) : 있음	-0.058	-0.027	-0.057	-0.033	-0.160 **	-0.078
재산/금융소득(없음 기준) : 있음	0.188 *	0.068	0.074	0.034	-0.060	-0.020
공적/사적연금(받지 않음 기준) : 받음	-0.094	-0.031	0.092	0.045	-0.006	-0.002
경로연금/ 기초생활(수급 아님 기준) : 수급	-0.425 ***	-0.189	-0.663 ***	-0.227	-0.265 ***	-0.085
기능상태제한(없음 기준) : 있음	-0.172 **	-0.086	-0.219 ***	-0.117	-0.147 **	-0.083
상수	3.125 ***		3.993 ***		3.618 ***	

주: *= $p<0.1$, **= $p<0.05$, ***= $p<0.01$

제 2 절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1. 소득원별 소득유무

노인의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소득 유무를 분석해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노인 부부, 독거노인,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근로사업부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근로소득이나 사업 및 부업소득의 세부항목에 있어서도 그 순서는 동일하였다.

〈표 5-9〉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

(단위: %)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25.6	34.6	22.5	27.8
근로소득	14.2	14.9	12.6	13.9
사업 및 부업소득	11.7	20.8	10.5	14.7
자산소득	13.6	16.4	8.9	12.9
재산소득	9.3	11.5	6.5	9.0
금융소득	4.8	6.2	2.7	4.5
개인연금	0.3	0.5	0.4	0.4
공적이전	95.2	90.0	93.5	92.6
공적연금	11.5	19.3	11.0	14.3
기타 사회보험 급여	0.1	0.1	0.4	0.2
경로연금	26.5	8.0	7.5	12.2
교통수당	91.8	87.3	90.8	89.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0.8	5.0	2.9	7.9
참전명예수당	2.2	7.5	4.0	4.9
사적이전	72.9	77.1	83.8	78.7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70.5	75.3	82.9	77.1
사회단체 보조금	1.6	1.2	0.1	0.9
기타 소득	4.4	7.7	3.8	5.4
월평균 총수입	100.0	99.3	99.9	99.7

자산소득의 경우에도 노인부부, 독거노인,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자산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재산소득 및 금융소득의 경우는 동일한 순서를 유지하였으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작은 차이긴 하지만 노인부부, 자녀동거노인, 독거노인 순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 자녀동거노인, 노인부부 순으로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노인부부, 독거노인, 자녀동거 순으로 공적연금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많은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소득원 소지율은 독거노인이 압도적으로 높고, 노인부부, 자녀동거노인 순이었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자녀동거노인, 노인부부, 독거노인 순이었다.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도 동일한 순이었다.

이와 같이 볼 때, 독거노인은 여타 가구형태와 비교하여, 공공부조이전소득의 소득원을 가진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적이며, 근로소득, 자산소득은 자녀동거노인 보다는 높지만 노인부부 노인보다는 낮고, 사적이전소득은 가장 낮았다. 독거노인의 매우 취약한 사적지지망이 반영된 결과이다.

2.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

가구형태별 개별노인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노인부부 61만원, 독거노인은 42만원, 자녀동거노인 41만원 순이었다.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의 소득에 생활비가 포함된 반면, 자녀동거노인의 소득에는 용돈만 포함된 것을 감안한다면, 독거노인의 소득수준이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원별로는 근로사업부업소득의 경우 노인부부 22만원, 자녀동거노인 14만원, 독거노인 8만원 순으로 독거노인이 가장 낮고, 자산소득은 노인부부 12만원, 독거노인 6만원, 자녀동거노인 4만원 순이었다(표 5-10 참조).

공적연금은 노인부부 12만원, 자녀동거노인 6만원, 독거노인 4만원 순인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독거노인 5만원, 노인부부 0.7만원, 자녀동거노인 0.3만원 순이었다. 사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 16만원, 자녀동거노인 13만원, 노인부부 12만원 순으로, 사적이전소득원이 있는 비율은 독거노인이 낮았지만, 이전액은 독거노인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0〉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7.92	21.98	14.26	15.71
근로소득	4.59	9.38	8.48	7.91
사업 및 부업소득	3.33	12.59	5.79	7.80
자산소득	6.38	12.32	4.33	7.85
재산소득	2.81	9.31	3.70	5.62
금융소득	3.49	2.84	0.54	2.11
개인연금	0.08	0.21	0.09	0.13
공적이전	11.37	13.93	7.69	10.92
공적연금	4.42	11.60	5.78	7.67
기타 사회보험 급여	0.05	0.06	0.19	0.11
경로연금	1.13	0.31	0.28	0.49
교통수당	0.85	0.80	0.89	0.85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4.71	0.74	0.34	1.51
참전명예수당	0.20	0.42	0.21	0.29
사적이전	16.02	12.76	13.35	13.75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 금	15.54	12.12	12.83	13.20
사회단체 보조금	0.20	0.16	0.01	0.11
기타 소득	0.31	0.47	0.51	0.45
월평균 총수입	41.97	61.02	41.00	48.84

노인의 중위소득수준을 보면,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월 28만원 수준인데, 독거노인은 31만원, 노인부부 31만원, 자녀동거노인 21만원 순이었다. 소득원별 중위값은 사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곤 대부분 소득이 없었다. 이는 소득원별 소득이 있는 비율이 10~20%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표 5-11 참조).

〈표 5-11〉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전체 노인 포함

(단위: 만원)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0.00	0.00	0.00	0.00
근로소득	0.00	0.00	0.00	0.00
사업 및 부업소득	0.00	0.00	0.00	0.00
자산소득	0.00	0.00	0.00	0.00
재산소득	0.00	0.00	0.00	0.00
금융소득	0.00	0.00	0.00	0.00
개인연금	0.00	0.00	0.00	0.00
공적이전	1.14	1.00	1.20	1.00
공적연금	0.00	0.00	0.00	0.00
기타 사회보험 급여	0.00	0.00	0.00	0.00
경로연금	0.00	0.00	0.00	0.00
교통수당	0.80	0.80	0.90	0.9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0.00	0.00	0.00	0.00
참전명예수당	0.00	0.00	0.00	0.00
사적이전	10.00	7.00	10.00	10.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10.00	5.00	10.00	10.00
사회단체 보조금	0.00	0.00	0.00	0.00
기타 소득	0.00	0.00	0.00	0.00
월평균 총수입	31.00	31.00	21.00	28.00

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의 평균소득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살펴보면, 근로사업부업소득은 노인부부 64만원, 자녀동거 63만원인 반면, 독거노인은 31만원으로 여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쳤다. 자산소득은 노인부부 77만원, 자녀동거가구 50만원, 독거노인 47만원 수준이었다. 공적연금은 노인부부 60만원, 자녀동거노인 53만원, 독거노인 3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독거노인 23만원, 노인부부 15만원, 자녀동거노인 12만원 수준이었다. 사적이전소득은 독거노인 22만원, 노인부부 17만원, 자녀동거노인 16만원 수준이었다. 즉, 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 독거노인은 근로소득이 매우 취약하고, 공적연금소득도 낮은 편인 반면, 공공부조소득은 높고, 사적이전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12 참조).

〈표 5-12〉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평균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30.90	63.60	63.40	56.48	(793)
근로소득	32.31	63.04	67.56	57.23	(394)
사업 및 부업소득	28.42	60.59	55.05	53.06	(419)
자산소득	46.65	76.61	49.86	61.93	(360)
재산소득	30.35	80.81	58.18	62.49	(256)
금융소득	72.08	49.55	20.88	48.79	(123)
개인연금	23.06	44.71	23.78	32.74	(11)
공적이전	11.94	15.47	8.22	11.80	(2,638)
공적연금	38.09	60.23	52.95	53.86	(406)
기타 사회보험 급여	35.00	72.00	57.26	55.87	(5)
경로연금	4.27	3.91	3.73	4.05	(347)
교통수당	0.93	0.92	0.98	0.95	(2,556)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2.59	14.76	11.73	19.19	(225)
참전명예수당	9.09	5.63	5.36	5.91	(140)
사적이전	22.05	16.54	15.94	17.48	(2,238)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22.07	16.10	15.48	17.12	(2,196)
사회단체 보조금	12.39	13.42	5.55	12.56	(25)
기타 소득	7.16	6.24	13.28	8.36	(153)
월평균 총수입	41.97	61.49	41.10	49.03	(2,840)

해당 소득원이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소득의 결과와 그 경향에 있어 대동소이하다. 근로사업부업소득이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은 자녀동거노인 50만원, 노인부부 노인 42만원, 독거노인 23만원 수준이었다.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은 자녀동거노인 20만원, 노인부부 17만원, 독거노인 1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경우 독거노인 22만원, 노인부부 14만원, 자녀동거 9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이 있는 경우의 중위소득은 독거노인 20만원, 노인부부 및 자녀동거노인은 각각 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역시 독거노인은 소득수준에서 근로사업부업소득 및 공적연금은 비교적 취약한 반면, 공공부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비교적 높은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표 5-13 참조).

〈표 5-13〉 가구형태별 소득원별 중위소득수준: 소득원 있는 경우만 포함
(단위: 만원)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근로 및 사업, 부업소득	22.55	42.00	50.00	38.23
근로소득	25.00	50.00	53.47	40.00
사업 및 부업소득	19.56	40.00	33.00	30.00
자산소득	20.00	30.00	30.00	30.00
재산소득	15.00	30.00	50.00	30.00
금융소득	23.67	31.51	13.00	20.00
개인연금	29.26	42.08	8.00	17.97
공적이전	1.20	1.20	1.20	1.20
공적연금	14.41	17.00	20.00	18.94
기타 사회보험 급여	35.00	72.00	63.53	61.77
경로연금	4.50	4.50	3.50	4.50
교통수당	0.90	0.90	1.00	0.9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22.00	14.00	9.33	20.00
참전명예수당	6.00	6.00	5.00	5.16
사적이전	20.00	10.00	10.00	10.00
친인척으로부터의 보조금	20.00	10.00	10.00	10.00
사회단체 보조금	16.43	5.00	7.95	5.00
기타 소득	5.00	3.00	4.00	3.00
월평균 총수입	31.00	31.00	21.00	28.00

3. 빈곤율 및 소득계층분포

가구형태별로 빈곤선 100% 이하에 놓여있는 비율이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 독거노인 중 62.4%가 빈곤하며, 노인부부가구의 39.4%, 자녀동거가구의 19.1%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경우 80%가 빈곤선 150%미만에 놓여지며, 동기준에 노인부부는 63.8%, 자녀동거가구는 36.4%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14 참조).

〈표 5-14〉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소득분포

(단위: %, 명)

소득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빈곤선 100%	62.4(62.4)	39.4(39.4)	19.1(19.1)	37.3(37.3)
빈곤선 120%	11.8(74.2)	13.7(53.1)	5.9(25.0)	10.4(47.7)
빈곤선 150%	7.2(81.4)	10.8(63.8)	11.4(36.4)	10.2(57.8)
빈곤선 180%	7.2(88.6)	6.2(70.1)	10.0(46.4)	7.9(65.7)
빈곤선 200%	2.6(91.2)	4.7(74.7)	8.6(55.0)	5.6(71.3)
빈곤선 300%	3.8(94.9)	10.8(85.5)	22.5(77.4)	13.5(84.7)
빈곤선 300% 이상	5.1(100.0)	14.5(100.0)	22.6(100.0)	15.3(100.0)
(대상자수)	(667)	(1,095)	(1,041)	(2,803)

주: () 밖의 값은 소득구간의 구성 비율, ()내 값은 누적 구성비율임.

4. 취업관련 실태

노인의 가구형태별 취업경험유무를 살펴보면(표 5-15 참조), 전체적으로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 가구 유형의 노인보다 평생 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부부노인보다는 독거노인의 취업경험 유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표 5-16>은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현 직종 분포를 살펴본 것인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 가구 유형보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5〉 가구형태별 취업경험 유무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	9.9	7.1	9.6	8.7
일을 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65.5	51.9	65.2	60.2
현재 일을 하고 있다	24.6	41.0	25.2	31.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7)	(1,084)	(1,099)	(2,850)

〈표 5-16〉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현 직종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1.5	3.3	1.8
전문가	0.6	1.5	1.0	1.0
기술공 및 준전문가	1.2	0.7	0.7	1.1
사무종사자	-	0.2	1.0	0.6
서비스종사자	5.8	2.2	2.9	3.0
판매종사자	8.1	2.7	7.2	5.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45.9	63.9	49.2	55.1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2	2.5	2.3	2.0
기계,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3.5	3.6	2.8
단순노무종사자	37.2	21.1	29.0	26.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72)	(402)	(307)	(883)

<표 5-17>은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근무형태를 살펴본 것인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 가구 유형보다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와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7〉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근무형태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자영업자	53.7	50.9	46.2	49.9
고용주	0.0	2.7	2.9	2.3
무급가족종사자	1.8	21.4	21.3	17.7
상용근로자	0.6	2.9	4.3	2.9
임시근로자	6.1	7.4	6.1	6.8
일용근로자	29.3	10.6	14.1	15.1
기타	8.5	4.1	5.1	5.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64)	(444)	(277)	(885)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 가구 유형의 노인에 비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일손이 모자라서 일을 하는 경우가 타가구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18 참조).

〈표 5-18〉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일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일을 하는 것이 좋아서	5.5	6.5	7.6	6.7
돈이 필요해서	76.1	69.4	65.7	69.5
건강유지를 위해서	4.9	11.0	10.8	9.8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7.4	5.2	3.6	5.1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1.2	3.4	2.5	2.7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위해서	-	0.2	0.4	0.2
일손이 모자라서	2.5	4.1	9.4	5.4
기타	2.5	0.2	-	0.6
계	100.0	100.0	100.0	100
(명)	(163)	(444)	(277)	(884)

가구 유형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취업만족도가 타가구 유형의 노인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취업에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타가구 유형의 노인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19 참조).

〈표 5-19〉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취업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매우 만족한다	2.4	5.2	4.0	4.3
만족하는 편이다	28.5	33.1	34.1	32.5
그저 그렇다	21.8	25.0	26.1	24.7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38.2	30.2	29.7	31.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9.1	6.5	6.2	6.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65)	(444)	(276)	(885)

가구 유형별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가구 노인에 비해 일의 내용에 대해 불만족스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노인 부부는 타가구 유형에 비해 임금에 대한 불만보다는 일의 양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임금(소득)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표 5-20 참조).

〈표 5-20〉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취업 불만족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임금(소득)	51.9	43.8	56.0	49.3
업무(일) 내용	18.2	14.2	14.0	15.0
업무(일) 량	27.3	41.4	27.0	33.9
복리후생(휴가 등)	-	-	2.0	0.6
인간관계	2.6	-	1.0	0.9
기타	-	0.6	-	0.3
계	100.0	100.0	100.0	100.0
(명)	(77)	(162)	(100)	(339)

가구형태별 취업 노인의 계속 취업 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녀동거노인의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 독거노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의 경우 타가구 유형의 노인에 비해 계속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1 참조).

〈표 5-21〉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계속취업 여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그만두고 싶다	35.4	28.6	23.8	28.4
계속하고 싶다	64.6	71.4	76.2	71.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64)	(444)	(277)	(885)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현 직장 이직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 노인이 이직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이직활동을 한 경험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이직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22 참조).

〈표 5-22〉 가구형태별 취업노인의 이직 여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일을 찾고 있다	-	0.9	1.9	1.1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나 이직하고 싶다	2.8	1.9	5.7	3.3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97.2	97.2	92.4	95.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07)	(317)	(211)	(635)

다음은 현재 미취업 노인의 미취업 이유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미취업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타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가사 일이나 가족수발 때문에 취업하고 있지 않은 비율이 타가구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5-23 참조).

〈표 5-23〉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미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6.6	7.8	6.8	7.1
일할 필요가 없어서(경제적 여유 등)	4.6	7.5	4.4	5.5
건강이 좋지 않아서	69.6	52.0	55.8	58.1
일자리가 없어서	11.5	22.0	16.5	17.0
가사(집안일)가족수발 때문에	2.4	6.3	10.9	7.2
자녀들이 못하게 해서	2.8	2.8	3.9	3.3
기타	2.6	1.6	1.7	1.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03)	(640)	(819)	(1,962)

가구형태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향후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며,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취업희망을 원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표 5-24 참조).

〈표 5-24〉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향후 취업 희망여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아니오	90.3	78.1	81.5	82.6
예	9.7	21.9	18.5	17.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03)	(640)	(820)	(1,963)

가구형태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희망 이유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앞서 지역유형별 취업이유와 비교해 보면, 농어촌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소득 뿐 아니라 시간을 보내기 위한 소일거리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표 5-25 참조).

〈표 5-25〉 가구형태별 미취업 노인의 향후 취업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일하는 것이 좋아서	4.2	6.4	6.6	6.2
돈이 필요해서	70.8	45.0	62.5	56.5
건강유지를 위해서	6.3	22.9	13.8	16.5
사람들과 사귄 수 있어서	0.0	3.6	4.6	3.5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12.5	5.7	5.9	6.8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느끼고 싶어서	6.3	15.7	5.9	10.0
기타	0.0	0.7	0.7	0.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48)	(140)	(152)	(340)

다음은 취업욕구가 실제적인 구직활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본 것인데, <표 5-26>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를 가구형

태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독거노인의 경우 실제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타가구 유형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즉, 독거노인 중에서 향후 취업을 원하는 노인의 경우 타가구 유형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요구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26〉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아니오	59.6	62.7	67.1	64.2
예	40.4	37.3	32.9	35.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2)	(150)	(170)	(372)

가구형태별로 미취업 노인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27 참조).

〈표 5-27〉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취업을 소개시켜 주는 기관을 몰라서	6.5	3.2	6.1	5.0
구직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서	32.3	45.2	34.8	38.5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51.6	37.6	37.4	39.3
가사일이나 자녀들의 반대로	3.2	12.9	16.5	13.4
기타	6.5	1.1	5.2	3.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1)	(93)	(115)	(239)

가구 유형별 미취업 노인이 원하는 일의 형태에 대한 욕구를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타가구 유형에 비해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중일제 근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제적 욕구

가 타가구 유형에 비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28 참조).

노인부부와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에 대한 욕구가 더 높게 나타나 이들을 위한 탄력적 근무형태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5-28〉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원하는 일 형태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돈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	25.0	25.9	22.6	24.3
용돈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제 근로	26.9	36.7	38.1	36.0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 수 있는 종일제 근로	42.3	34.0	36.9	36.5
자영업(창업)	5.8	3.4	2.4	3.3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2)	(147)	(168)	(367)

가구형태별 미취업 노인의 일자리 선택시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임금수준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의 경우에는 일의 내용,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일의 양과 시간대가 타가구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29 참조).

〈표 5-29〉 가구형태별 미취업노인의 일자리 선택시 우선순위(1순위)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임금수준	26.0	16.9	26.2	22.4
일의 양과 시간대	18.0	19.6	23.2	21.0
과거 경험과의 연관이 있는 일인가 여부	10.0	21.6	12.5	15.8
사회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업무내용 여부	2.0	5.4	3.0	3.8
기타 업무(일) 내용	20.0	21.6	17.3	19.4
복리후생(휴가 등 복지제도)	0.0	0.0	0.6	0.3
집과의 거리(출퇴근거리)	20.0	10.8	13.7	13.4
사업장 규모	2.0	0.0	0.0	0.3
계속고용 가능여부	2.0	4.1	2.4	3.0
기타	0.0	0.0	1.2	0.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0)	(148)	(168)	(366)

가구형태별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욕구를 살펴보면, 일자리 연계, 적합직종 개발, 새로운 기술 및 직업훈련, 노인고용의무화 등에 대한 순으로 가구형태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30 참조).

〈표 5-30〉 가구형태별 노인의 취업관련 정부지원 욕구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	19.7	16.3	16.6	17.2
일자리 연계(취업알선)	58.6	59.0	59.6	59.2
새로운 기술이나 정신교육	9.8	9.8	8.6	9.4
노인고용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조	1.1	2.0	1.4	1.5
노인적합직종에 대한 노인고용 의무화	6.8	6.0	5.8	6.1
기타	4.0	6.8	7.6	6.5
정부지원 필요없음	-	0.1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50)	(1,071)	(1,078)	(2,799)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관적 경제형편을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타가구 유형의 노인들보다 주관적으로 경제적 형편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5-31 참조).

〈표 5-31〉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관적 경제 형편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매우 좋다	0.6	2.4	3.3	
약간 좋다	5.2	10.7	10.3	
보통이다	33.0	40.4	40.3	
약간 나쁘다	31.6	25.8	27.3	
매우 나쁘다	29.5	20.7	18.8	
계	100.0	100.0	100.0	
(명)	(648)	(1,062)	(1,130)	

5. 소득수준 영향요인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총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인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유배우인 경우,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독거노인의 경우와 노인부부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가구소득, 취업여부, 가구주여부, 교육기간, 독거노인, 노인부부, 성, 지역, 자녀수, 결혼상태, 연령순이었다(표 5-32 참조).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총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여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집단의 경우 성, 교육연수, 취업여부, 1인당 가구소득은 전체집단과 마찬가지로 동일 방향으로 총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의 경우에는 전체집단 분석과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2〉 가구형태별 노인총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003	-.291	-.348	-13.753***	-.143	-5.144***	-.096	-4.2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05	.464	-.036	-1.621	-.043	-1.768#	-.035	-2.498*
연령	-.001	-.067	.044	1.931#	-.106	-3.870***	-.025	-1.658#
교육연수	.030	2.259*	.100	3.711***	.188	6.181***	.128	7.206***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44	-1.86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 독거노인							.160	6.379***
노인부부							.086	4.360***
건강상태	.011	.969	-.023	-1.009	.080	3.304**	.017	1.171
자녀수	.015	1.347	.020	.903	.054	2.190*	.028	1.996*
취업(무직기준): 취업	-.002	-.177	.273	11.473***	.379	14.487***	.245	16.030***
log 1인당 가구소득	.974	78.629***	.432	18.113***	.170	7.035***	.426	26.189***
가구주 여부							.346	13.860***
상수		.096		-.192		2.786***		.526*
Adjusted R square		.921		.543		.408		.505
F		970.866***		160.505***		95.119***		241.535***

주: #=p<.1, *=p<.05, **=p<.01, ***=p<.001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근로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인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가구소득, 연령, 가구주여부, 지역, 건강상태, 성 순이었다(표 5-33 참조).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 성, 지역, 연령, 1인당 가구소득이 전체집단과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집단의 경우 성, 연령, 1인당 가구소득만이 전체집단과 마찬가지로 동일 방향으로 근로소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노인의 경우 성, 연령, 교육기간, 건강상태, 1인당 가구소득이 전체집단 분석에서와 같이 동일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3〉 가구형태별 노인근로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025	-.425*	-.208	-5.089***	-.200	-3.334**	-.083	-1.86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67	-3.134**	-.012	-.305	-.063	-1.182	-.053	-1.981*
연령	-.130	-2.296*	-.216	-5.327***	-.194	-3.326**	-.182	-6.440***
교육연수	.001	.020	-.011	-.239	.179	2.645**	.033	.97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38	.73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35	-.757
노인부부							.014	.399
건강상태	.067	1.184	.021	.534	.097	1.768#	.052	1.915#
자녀수	-.052	-.986	-.002	-.057	-.022	-.385	-.016	-.604
log 1인당 가구소득	.641	11.254***	.545	12.317***	.262	4.743***	.505	16.305***
가구주 여부							.196	5.487***
상수		1.040		4.462***		4.894***		3.156***
Adjusted R square		.549		.470		.336		.486
F		30.557***		48.257***		18.842***		68.975***

주: #=p<.1, *=p<.05, **=p<.01, ***=p<.001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자산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수가 작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

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의 경우 총소득과 달리 자녀수가 작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에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에 투자하여 축적된 자산이 없다는 가설이 가능하며, 축적된 자산이 있는 경우 굳이 취업하여 근로소득을 벌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산소득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가구소득, 가구주여부, 취업, 지역, 자녀수 순이었다(표 5-34 참조).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도시인 경우, 교육기간이 긴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집단과 비교하여 자녀수가 다른 방향으로 유의미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노인부부집단의 경우 남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과는 성, 자녀수의 측면에서 자산소득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도 노인부부와 마찬가지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가구형태별 노인자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147	1.993#	-.199	-3.695***	-.175	-1.490,	.009	.144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54	-1.984#	-.093	-1.740#	-.319	-3.164**	-.160	-3.791***
연령	-.059	-.732	.064	1.102	-.088	-.770	.011	.242
교육연수	.274	2.530*	-.092	-1.402	-.002	-.014	-.009	-.173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66	.821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01	.011
노인부부							.050	.849
건강상태	.084	1.120	-.025	-.440	-.002	-.024	.039	.940
자녀수	.161	2.006*	-.191	-3.377**	-.185	-1.824#	-.106	-2.474*
취업(무직기준): 취업	-.149	-1.895#	-.198	-3.533***	-.134	-1.243	-.183	-4.136***
log 1인당 가구소득	.497	5.491***	.725	11.417***	.193	1.857#	.597	12.285***
가구주 여부							.260	4.429***
상수	-.269		-.870		4.313*		-.979	
Adjusted R square	.598		.560		.204		.473	
F	17.805***		28.462***		4.025***		27.896***	

주: #=p<.1, *=p<.05, **=p<.01, ***=p<.001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공적이전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공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 총소득과 달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수가 작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에 공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공공부조의 수급요건이 부양자녀가 작고, 농어촌에서 낮은 주택가격 등으로 보다 용이하게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자녀수, 가구소득, 가구주여부, 성, 취업, 지역, 건강상태, 독거노인, 교육기간 순이었다(표 5-35 참조).

〈표 5-35〉 가구형태별 노인공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115	-3.075**	-.288	-8.034***	-.248	-7.073***	-.175	-5.6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65	1.823#	.063	1.990*	.093	3.057**	.074	3.861***
연령	.047	1.256	-.003	-.106	-.038	-1.009	-.002	-.073
교육연수	-.153	-3.729***	.134	3.466**	.131	3.416**	.053	2.16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31	-.9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82	2.401*
노인부부							.031	1.153
건강상태	-.156	-4.257***	-.058	-1.819#	.002	.079	-.067	-3.489***
자녀수	-.391	-10.960***	-.024	-.760	-.054	-1.768#	-.151	-7.936***
취업(무직기준): 취업	-.148	-3.899***	-.126	-3.696***	.011	.341	-.108	-5.157***
log 1인당 가구소득	.255	6.755***	.174	5.088***	-.030	-.997	.140	6.332***
가구주 여부							.200	5.881***
상수		.632		.045		1.762**		.546
Adjusted R square		.251		.157		.123		.147
F		27.612***		23.706***		18.898***		38.777***

주: #=p<.1, *=p<.05, **=p<.01, ***=p<.001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에도 성, 지역, 건강상태, 자녀수, 취업에서는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교육연수는 낮을수록 공적이전소득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은 전체집단과 상이하다. 노인부부집단은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나 자녀수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다. 자녀 동거가구에서는 성, 지역, 교육기간, 자녀수가 전체집단과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공적이전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공적연금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총소득과 달리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1인당 가구소득, 취업, 교육연수, 연령, 가구주여부, 지역 순이었다(표 5-36 참조).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에는 연령, 자녀수, 취업, 가구소득이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집단은 남성의 경우에 공적연금소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지역, 교육연수, 자녀수, 취업, 가구소득이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에서는 자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전체집단과 분석결과와 동일한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공적연금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가구형태별 노인공적연금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010	-.131	-.180	-3.469**	.059	.679	-.006	-.106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40	-.551	-.110	-2.058*	-.193	-2.491*	-.118	-3.117*
연령	.175	2.346*	.084	1.653	.140	1.843#	.136	3.615***
교육연수	.032	.341	.126	1.761#	.399	4.415***	.195	3.725***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04	.05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23	-.331
노인부부							-.049	-1.014
건강상태	-.054	-.758	-.021	-.394	-.045	-.623	-.038	-1.024
자녀수	-.115	-1.724#	-.098	-1.900#	-.039	-.512	-.085	-2.350*
취업(무직기준): 취업	-.366	-4.766***	-.293	-5.096***	-.164	-2.065*	-.281	-6.863***
log 1인당 가구소득	.678	8.852***	.421	6.833***	.296	3.980***	.446	10.436***
가구주 여부							.178	3.678***
상수		-3.374**		-1.113		-1.841		-2.442**
Adjusted R square		.698		.536		.459		.546
F		23.036***		31.034***		13.575***		41.643***

주: #=p<.1, *=p<.05, **=p<.01, ***=p<.001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공공부조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의 경우, 자녀수가 작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 가구주인 경우에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조소득이 경우 총소득과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취업을 안 한 경우에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공공부조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자녀수, 성, 독거노인, 취업, 지역, 가구주여부, 연령, 노인부부 순이었다(표 5-37 참조).

가구형태별로 독거노인집단, 노인부부집단, 자녀동거노인집단으로 분리하여 결혼상태, 가구주여부, 가구형태변수만 제거하고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독거노인집단의 경우에는 대체로 전체집단 분석과 방향성은 동일하나, 상이한 점은 자녀수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1인당 가구소득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집단은 유의미한 영향변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동거집단은 1인당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공공부조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가구형태별 노인공공부조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207	3.375**	.134	1.214	.071	.644	.196	3.17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50	-2.578*	-.176	-1.564	.037	.365	-.112	-2.462*
연령	-.119	-2.025*	-.005	-.051	-.170	-1.524	-.083	-1.847#
교육연수	.083	1.317	.158	1.353	-.053	-.448	.077	1.512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8	.28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96	3.086**
노인부부							.166	1.877#
건강상태	-.082	-1.433	-.139	-1.291	.128	1.267	-.060	-1.323
자녀수	-.286	-4.819	-.034	-.287	-.102	-.954	-.228	-4.607***
취업(무작기준): 취업	-.301	-4.925***	-.076	-.688	-.024	-.228	-.139	-2.955*
log 1인당 가구소득	.383	6.471***	.135	1.294	-.431	-4.253***	.063	1.160
가구주 여부							.172	2.165*
상수		1.214		.981		5.599***		2.622**
Adjusted R square		.448		.060		.214		.327
F		19.576***		1.746**		3.974**		15.766***

주: #=p<.1, *=p<.05, **=p<.01, ***=p<.001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사적이전소득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의미하게 사적이전소득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큰 순서는 취업, 가구소득, 자녀수, 독거노인, 교육연수, 지역, 가구주여부, 노인부부 순이었다(표 5-38 참조).

독거노인집단의 경우에는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방향은 전체집단과 동일하였다. 노인부부집단에서는 지역, 교육연수, 자녀수, 취업, 가구소득이 전체집단에서의 방향성과 동일하게 유의미 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사적이전소득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동거집단은 연령변수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노인부부집단과 동일한 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가구형태별 노인사적이전소득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049	1.205	-.009	-.217	.025	.691	.047	1.422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26	-.643	-.071	-2.047*	-.087	-2.692**	-.069	-3.359**
연령	-.043	-1.030	.119	3.385**	-.059	-1.643	.006	.287
교육연수	.052	1.163	.116	2.806**	.113	2.807**	.103	4.028***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05	-.14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64	7.114***
노인부부							.078	2.651**
건강상태	-.014	-.345	-.026	-.771*	.112	3.493***	.024	1.209
자녀수	.245	6.206***	.108	3.194**	.131	3.967***	.149	7.365***
취업(무직기준): 취업	-.446	-10.768***	-.218	-5.895***	-.204	-5.942***	-.269	-12.207***
log 1인당 가구소득	.362	8.764***	.236	6.468***	.183	5.681***	.264	11.023***
가구주 여부							.118	3.109**
상수		.953		-.639		1.494**		.474
Adjusted R square		.304		.143		.120		.176
F		27.328***		18.470***		16.624***		40.682***

주: #=p<.1, *=p<.05, **=p<.01, ***=p<.001

6. 소득원 유무 영향요인

노인 근로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53% 낮으며, 농어촌 거주와 도시 거주에 비해 근로소득 있을 확률이 130% 높으며, 연령이 1세씩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15%씩 낮아지며, 교육연수 1년 길어질 때마다 근로소득 있을 확률이 13%씩 낮아지며,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근로소득 있을 확률이 47% 낮으며, 가구주인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640% 높아지며, 건강상태가 좋아질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며, 자녀수가 1명씩 많을 때마다 근로소득 있을 확률이 12% 증가하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독거노인 집단의 경우 성은 유의미하지 않으며, 다른 변수는 모두 전체집단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한 영향변수이다. 노인부부 집단의 경우는 자녀수만 유의미하지 않고 다른 변수는 모두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자녀동거집단은 교육연수, 자녀수, 가구소득은 유의미하지 않고 다른 변수는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표 5-39 참조).

〈표 5-39〉 가구형태별 노인 근로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754	.778	.093	147.136***	.190	76.289***	.472	23.121***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2.601	21.392***	2.365	28.186***	1.774	8.871*	2.265	58.185***
연령	.870	45.757***	.855	71.514***	.827	83.035***	.852	198.044***
교육연수	.854	22.719***	.859	49.803***	.940	6.617	.873	86.72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532	10.012**
노인부부							.883	.921
가구주							7.398	132.217***
건강상태	1.508	15.135***	1.304	14.846***	1.447	22.680***	1.366	44.734***
자녀수	1.217	14.088***	1.039	.558	1.077	1.781	1.122	14.203***
log 1인당 가구소득	2.575	25.859***	1.554	15.001***	.835	2.456	1.535	31.325***
상수		4.159*		9.138***		12.739***		7.109***
Chi-square		147.916***		312.121***		260.119***		817.343***
-2 log likelihood		611.836		1084.797		910.852		2551.884

주: #=p<.1, *=p<.05, **=p<.01, ***=p<.001

노인 자산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산소득이 있을 확률이 45% 낮으며,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도시 거주에 비해 자산소득이 있을 확률이 21% 낮으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자산소득 소지 확률이 107% 높아지며, 노인부부가구도 자녀동거가구에 자산소득 소지확률이 42% 높으며, 가구주인 경우 자산소득 소지 확률이 179% 높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표 5-40 참조).

독거노인 집단의 경우 교육연수와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변수로 나타났으며, 노인부부 집단의 경우 성, 연령,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성, 지역, 연령,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동일한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표 5-40〉 가구형태별 노인 자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771	.608	.183	40.733***	.391	13.783***	.554	9.43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462	2.153	.747	2.036	.392	7.533**	.792	2.769#
연령	1.017	.608	1.037	4.277*	.931	8.442**	1.008	.433
교육연수	1.108	9.351**	1.025	1.169	1.024	.614	1.044	7.319**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072	8.635**
노인부부							1.422	4.651*
가구주							2.794	21.922***
건강상태	1.145	1.216	1.140	2.691	1.158	2.163	1.128	4.706*
자녀수	1.071	1.239	1.006	.011	1.070	.832	1.044	1.418
log 1인당 가구소득	2.229	16.433***	1.963	24.278***	1.337	2.841#	1.872	44.299***
상수		-7.014***		-7.072***		1.238		-6.536***
Chi-square		66.154***		145.687***		64.707***		285.571***
-2 log likelihood		466.659		822.926		595.639		1904.977

주: #=p<.1, *=p<.05, **=p<.01, ***=p<.001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있을 확률이 54% 낮으며, 연령이 1세씩 높아질 때 공적이전소득 발생 확률이 70% 높아지며, 노인부부가구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 비해 공적이전소득 발생확률이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41 참조).

독거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공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았으며, 노인부부의 경우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도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5-41〉 가구형태별 노인 공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321	2.898	.264	23.460***	.520	3.788#	.462	7.30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930	.031	1.338	1.245	.743	.789	1.085	.202
연령	1.279	18.246***	1.923	76.087***	2.088	57.105***	1.701	156.264***
교육연수	.925	2.355	.957	1.614	1.036	.770	.975	1.272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727	.793
노인부부							.649	5.342*
가구주							1.593	2.454
건강상태	.798	1.389	.927	.471	1.069	.273	.925	1.088
자녀수	.936	.401	.954	.291	.947	.300	.946	.968
log 1인당 가구소득	.897	.120	1.305	2.566	.774	1.351	1.096	.589
상수		-11.790**		-41.848***		-45.796***		-33.078***
Chi-square		39.105***		231.269***		174.281***		427.193***
-2 log likelihood		218.447		472.568		344.356		1071.788

주: #=p<.1, *=p<.05, **=p<.01, ***=p<.001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적연금소득이 있을 확률이 67% 낮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 거주에 비해 공적연금소득 소지 확률이 122% 높으며, 연령이 1세씩 높아질 때 공적연금소득 발생 확률은 9%씩 낮아지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 비하여, 가구주인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공적연금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표 5-42 참조).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달리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짧을수록 유의미하게 공적연금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 집단의 경우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동거노인과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소득 소지 확률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연수는 길수록 동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가구형태별 노인 공적연금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533	2.879#	.120	62.617***	.187	42.792***	.339	33.037***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3.118	16.463***	1.844	9.808**	2.251	10.552**	2.216	35.710***
연령	.927	9.843**	.924	14.604***	.849	30.673***	.915	43.501***
교육연수	.924	4.082*	1.091	13.879***	1.063	4.296*	1.046	7.740**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1.668	4.400*
노인부부							1.143	.742
가구주							2.811	24.664***
건강상태	.850	1.506	.956	.324	1.044	.195	.945	1.060
자녀수	.870	4.079*	1.130	4.005*	1.028	.137	1.016	.181
log 1인당 가구소득	4.633	37.834***	1.987	25.805***	1.239	1.646	2.055	56.421***
상수		-.925		.517		8.356***		.690
Chi-square		80.015***		224.929***		167.049***		459.463***
-2 log likelihood		398.898		835.875		589.334		1871.857

주: #=p<.1, *=p<.05, **=p<.01, ***=p<.001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도시 거주에 비해 공공부조소득 소지 확률이 34% 높으며, 연령이 1세씩 높아질 때 공공부조소득 발생 확률은 8%씩 높아지며, 교육연수가 길수록, 독거노인의 경우 자녀동거가구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안좋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공공부조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표 5-43 참조).

독거노인의 경우 전체집단 분석결과와 달리 남성의 경우 유의미하게 공공부조소득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교육연수, 건강상태, 자녀수가 공공부조소득 유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노인부부 집단의 경우 연령, 건강상태, 자녀수,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지역, 연령, 건강상태, 자녀수, 가구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표 5-43〉 가구형태별 노인 공공부조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480	4.822*	.779	.909	1.005	.000	.722	2.445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118	.277	1.013	.003	2.252	10.989**	1.344	4.907*
연령	1.081	18.636***	1.124	33.279***	1.052	6.386*	1.082	52.472***
교육연수	.888	14.336***	.925	5.382*	.960	1.179	.921	18.717***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2.341	9.053**
노인부부							1.054	.073
가구주							1.065	.064
건강상태	.623	21.297***	.564	26.549***	.803	4.259*	.653	50.520***
자녀수	.598	84.776***	.802	9.826**	.857	5.440*	.710	94.145***
log 1인당 가구소득	.983	.012	.628	7.862**	.691	9.350**	.762	10.596**
상수		-2.681#		-6.076***		-3.397*		-4.012***
Chi-square		162.628***		115.116***		47.346***		424.866***
-2 log likelihood		619.548		511.917		552.564		1732.965

주: #=p<.1, *=p<.05, **=p<.01, ***=p<.001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의 영향요인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인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아닌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아진다(표 5-44 참조).

독거노인의 경우 여성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부부는 여성의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사적이전소득 소지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방향이 독거노인과 반대이다. 자녀 동거집단 역시 여성인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적이전소득 발생확률이 높아진다.

〈표 5-44〉 가구형태별 노인 사적이전소득 유무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성(남성기준): 여성	2.301	7.795***	1.894	13.057***	2.346	18.631***	1.340	3.4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710	6.165*	1.409	4.076*	.977	.012	1.348	7.028**
연령	.965	4.342*	1.038	5.320*	1.054	8.647**	1.020	4.632*
교육연수	1.003	.013	1.031	2.290	1.014	.317	1.020	2.248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916	.189
노인부부							.887	.847
가구주							.461	20.012***
건강상태	1.248	5.183*	1.010	.022	.824	6.013*	.989	.060
자녀수	1.576	74.298***	1.265	20.993***	1.369	30.491***	1.388	120.256***
log 1인당 가구소득	.693	5.697*	.766	5.977*	1.541	17.237***	.942	.747
상수 (sig)		1.809		-1.906		-5.302***		-971
-2 log likelihood		124.942***		65.143***		99.520***		274.665***
		655.906		1095.092		868.866		2667.884

주: #=p<.1, *=p<.05, **=p<.01, ***=p<.001

7.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질은 객관적 상태도 중요하지만 노인 스스로 어떻게 상황을 인지하느냐도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는 어떠한 요인들과 관계가 있을까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농어촌 거주 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노인부부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하지 않은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노인총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표 5-45 참조).

독거노인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좋았다. 노인부부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건강상태 좋을수록, 자녀수 많을수록, 가구소득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 농어촌 거주자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에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긍정적이었다.

〈표 5-45〉 가구형태별 주관적 경제상태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066	1.810#	.061	1.737#	.117	3.605***	.086	3.070**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048	1.368	.070	2.472*	.070	2.508*	.064	3.697***
연령	.031	.859	.023	.798	.101	3.196**	.044	2.348*
교육연수	.113	2.798**	.077	2.219	.055	1.531	.084	3.82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29	-1.005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독거노인							.016	.507
노인부부							.122	4.985***
건강상태	.233	6.510***	.205	7.183***	.241	8.566***	.232	13.373***
자녀수	.141	4.072***	.050	1.770#	.006	.197	.061	3.523***
취업(무직기준): 취업	-.071	-1.917#	-.009	-.289	-.108	-3.274**	-.051	-2.611**
log 1인당 가구소득	.416	3.485**	.396	11.318***	.265	9.291***	.338	15.187***
가구주 여부	-.042	-.347	.008	.203	.227	6.477***	-.027	-.841
총소득							.119	5.135***
상수		-1.214*		-.640		-1.632***		-1.064***
Adjusted R square		.265		.252		.213		.253
F		27.593***		41.038***		33.914***		74.814***

주: #=p<.1, *=p<.05, **=p<.01, ***=p<.001

8.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

노인의 삶의 질(행복도, 만족도)은 어떠한 요인들과 관계가 있을까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전체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농어촌 거주 노인의 경우, 교육연수가 길수록, 무배우인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하지 않은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를 좋게 인식할수록, 노인총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표 5-46 참조).

독거노인집단의 경우 여성인 경우, 농어촌 거주, 교육연수가 길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좋을수록 노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노인부부집단의 경우 농어촌 거주,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1인당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낙관적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연수가 길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을 안한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인 경우, 주관적 경제상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낙관적이었다.

〈표 5-46〉 가구형태별 노인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변수	독거노인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성(남성기준): 여성	.178	5.076***	.012	.355	.019	.614	.062	2.303*
지역(도시기준): 농어촌	.103	3.075**	.056	2.008*	.024	.901	.055	3.281**
연령	-.046	-1.338	-.025	-.857	.092	3.045**	.024	1.311
교육연수	.112	2.845**	.030	.871	.134	3.954***	.088	4.131***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076	2.693**
가구형태(자녀동거기준): 독거노인							-.017	-.562
노인부부							.0025	1.074
건강상태	.289	8.114***	.234	8.096***	.164	5.924***	.216	12.496***
자녀수	.049	1.456	.006	.228	.001	.029	.018	1.063
취업(무직기준): 취업	-.041	-1.139	-.111	-3.471**	-.081	-2.561*	-.065	-3.429**
log 1인당 가구소득	.020	.170	.105	2.872**	.102	3.622***	.075	3.357**
가구주 여부	-.005	-.042	.071	1.835#	.094	2.762**	-.032	-1.058
주관적 경제	.359	9.546***	.311	10.250***	.359	12.394***	.342	18.819***
총소득							.069	3.102**
상수		1.123*		1.702***		-.090		.738**
Adjusted R square		.321		.274		.294		.310
F		32.233***		41.355***		45.936***		91.255***

주: #=p<.1, *=p<.05, **=p<.01, ***=p<.001

제 3 절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1. 독거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및 만성질병상태

본 분석의 결과 본인응답자의 17.5%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며, 22.3%가 과거에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고 있으며, 60.2%는 담배를 피운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5-47 참조). 독거노인의 현재 흡연상태는 11.8%이며, 노인부부 19.6%, 자녀동거노인 19.0%로 독거노인의 흡연율은 낮은 수준이다.

음주상태를 보면 현재 술을 마신다는 노인이 34.2%이며, 과거에 마셨으나 현재는 안 마신다는 노인이 17.2%, 그리고 술을 전혀 안마신다는 노인이 48.6%이다. 독거노인의 현재 음주율(26.0%)과 과거 음주율(12.6%)은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노인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표 5-47〉 가구형태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구분	(단위: %)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흡연상태				
현재 피움	11.8	19.6	19.0	17.5
과거에 피웠음	12.9	31.4	19.1	22.3
피운적 없음	75.3	49.0	61.9	60.2
음주상태				
현재 마심	26.0	40.0	33.5	34.2
과거 마셨음	12.6	19.6	17.6	17.2
전혀 안 마심	61.4	40.4	49.0	48.6
운동실천여부				
이주 규칙적으로 한다	29.8	32.3	26.5	29.5
가끔 한다	9.3	9.1	12.2	10.3
전혀 안 한다	60.9	58.6	61.3	60.2
1주일간 평균 운동일수(일)	(5.3)	(5.2)	(5.0)	(5.1)
영양식 섭취노력 정도				
매우 그렇다	4.9	8.0	6.1	6.6
그런 편이다	17.4	33.4	31.8	29.1
그저 그렇다	20.0	18.9	23.9	21.1
그렇지 않다	41.0	30.8	30.7	33.2
매우 그렇지 않다	16.6	8.8	7.5	1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독감예방접종률	74.6	77.3	73.8	75.3
건강검진수진율	51.0	56.1	50.1	52.6
(대상자수)	(669)	(1,082)	(1,099)	(2,848)

주: 1) 1주일간 평균운동일수는 운동을 하는 1,134명에 대한 평균 운동일수임.

규칙적 운동은 1주에 2회 이상, 1회 20분 이상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건강을 위하여 운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를 살펴 보았다. 독거노인의 운동실천 상태를 보면, 규칙적으로(29.8%) 또는 가끔(9.3%) 운동을 하는 노인이 39.1%로 노인부부가구(41.4%)에 비하면 약간 낮은 편이며, 자녀동거(38.7%)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 식사마다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영양식을 섭취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영양식 섭취 노력에 대하여 ‘매우 그렇다’ 또는 ‘그

런 편이다'의 비율이 22.3%로 노인부부가구(41.4%) 또는 자녀동거(37.9%) 보다 매우 낮은 실정으로 영양섭취에 대한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독감예방접종률은 독거노인은 74.6%가 접종하여 노인부부(77.3%) 보다 조금 낮으며, 자녀동거(73.8%)와 비슷한 경향이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독거노인은 51.0%로 노인 부부의 건강검진을 56.1% 보다 조금 낮았으며, 자녀동거 50.1%와 비슷한 수준이다.

2. 독거노인의 만성질병상태

노인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만성질병 상태는 현재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본인이 인지한 만성질병 상태를 <표 5-48>에서 살펴보면 독거노인의 96.0%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부부(88.3%) 또는 자녀동거(90.2%)의 만성질환유병률에 비하여 약 6~8% 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3종류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68.2%)이 노인부부(48.1%)와 자녀동거(52.5%)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독신가구가 건강 취약계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만성질환종류별 유병률을 비교하여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에 비하여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병은 관절염(54.9%), 고혈압(45.0%), 협심증·심근경색증(9.3%) 등이다.

〈표 5-48〉 가구형태별 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병상태

(단위: %)

구분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만성질병수				
없음	4.0	11.7	9.8	9.2
1개	13.3	20.4	16.2	17.1
2개	14.5	19.8	21.5	19.2
3개 이상	68.2	48.1	52.5	54.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연령별 만성질환유병률				
65~69세	96.0	87.0	89.8	89.6
70~74세	96.9	90.0	92.0	92.4
75세 이상	95.6	88.7	89.0	90.9
계	96.0	88.3	90.2	90.8
주요 만성질환유병률				
암	2.2	3.1	2.4	2.6
관절염	54.9	34.5	43.7	42.8
당뇨병	13.6	12.9	14.1	13.5
고혈압	45.0	37.0	40.5	40.2
중풍·뇌혈관질환	4.8	6.9	5.8	6.0
협심증·심근경색증	9.3	5.2	6.7	6.7
만성기관지염	7.8	8.2	7.2	7.7
천식	6.3	6.6	5.2	6.0
(대상자수)	(669)	(1,082)	(1,100)	(2,851)

주: 1)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중에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통증 제외)이 있다는 비율이 독거노인(57.7%)의 경우 자녀동거노인(50.3%)과 노인부부(44.5%)에 비하여 모두 더 높다(표 5-49 참조).

또한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독거노인의 가장 어려운 점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수행의 제한이 42.6%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1.8%,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 19.1%, 사회활동의 제한 14.0%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 노인에 비하여 외로움·소외감·자존감 상실 등에 대한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는 독거노인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 중 일상생활지원 등 우애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5-49〉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으로 인한 힘든 점 유무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힘든 점이 있음 (대상자수)	57.7 (643)	44.5 (955)	50.3 (991)	50.0 (2,589)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이유				
일상생활수행 제한	42.6	38.1	47.6	43.0
간호와 수발	2.2	0.2	0.6	0.9
경제적 어려움	21.8	24.2	22.3	22.8
외로움·소외감	19.1	16.0	13.5	15.9
사회활동 제한	14.0	20.2	15.7	16.7
기타	0.3	1.2	0.4	0.6
계 (명)	100.0 (371)	100.0 (425)	100.0 (498)	100.0 (1,294)

주: 1)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 점이 있다는 1,294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만성질병이 한 가지라도 있는 독거노인에 대하여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노인은 84.9%로,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약간 더 높은 수준이다. 한편 독거노인이 최근 3개월간 만성질환 치료를 위하여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을 보면, 병·의원이 86.4%로 가장 많으며, 보건(지·진료)소가 9.5% 등으로 노인부부 또는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병·의원의 이용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5-50 참조).

〈표 5-50〉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률 및 의료기관 종류

(단위: %, 명)

구분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의료기관이용률 (대상자수)	84.9 (643)	80.4 (955)	83.0 (991)	82.5 (2,589)
이용 의료기관 종류 ¹⁾				
병의원	86.4	85.3	85.3	85.6
한방 병원	2.9	3.4	5.7	4.2
보건(지/진료)소	9.5	9.8	6.4	8.4
약국	1.1	1.6	2.2	1.7
기타	-	-	0.4	0.1
계 (명)	100.0 (546)	100.0 (768)	100.0 (823)	100.0 (2,137)

주: 1) 만성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그러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부담정도를 보면 독거노인의 경우 무료 또는 기타에 의한 치료가 23.1%로서 노인부부(7.6%) 또는 자녀동거(3.6%)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관에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표 5-51 참조).

〈표 5-51〉 가구형태별 노인의 만성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매우 부담	13.2	14.0	11.5	12.8
부담이 되는 편	29.9	30.8	38.0	33.3
그저 그렇다	6.8	9.3	13.0	10.1
부담이 없는 편	21.8	29.5	26.7	26.5
전혀 부담 없음	5.3	9.0	7.0	7.3
무료 또는 기타	23.1	7.6	3.6	10.0
계 (명)	100.0 (546)	100.0 (767)	100.0 (823)	100.0 (2,136)

주: 1) 만성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2,1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3. 독거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및 낙상사고 경험

동년배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표 5-52>에서 살펴보면, 독거노인은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은 것(매우 좋다 또는 약간 좋다)으로 평가하고 있는 노인이 25.6%이며, 나쁘다는 노인이 44.2%이다. 즉, 부부가구 또는 자녀동거에 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약 6% 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노인부부가구에 비하여 약 13% 포인트 정도 더 낮았다.

<표 5-52>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식

구분	(단위: %)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매우 좋다	2.7	11.8	8.8	8.5
약간 좋다	22.9	26.6	26.3	25.6
보통이다	30.2	25.1	28.1	27.5
약간 나쁘다	30.4	25.1	26.4	26.9
매우 나쁘다	13.8	11.3	10.4	11.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1)	(2,851)

주: 1)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독거노인 중 지난 1년 동안 낙상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노인은 21.7%로 노인부부(12.6%)와 자녀동거(13.9%)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 5-53 참조).

한편 독거노인의 경우 낙상사고가 가정 내 사고였다는 비율이 29.0%로 노인부부(20.7%) 또는 자녀동거(24.3%) 보다 높은 경향이다.

〈표 5-53〉 가구형태별 노인의 낙상사고율 및 낙상사고 장소

구분	(단위: %, 명)			
	노인독신	노인부부	자녀동거	전체
낙상사고율 (대상자수)	21.7 (669)	12.6 (1,082)	13.9 (1,100)	15.2 (2,851)
낙상사고 장소				
가정내 사고	29.0	20.7	24.3	24.8
외부에서의 사고	71.0	79.3	75.7	75.2
계 (명)	100.0 (145)	100.0 (135)	100.0 (152)	100.0 (432)

주: 1) 낙상사고율은 본인응답자 2,851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2) 낙상사고 장소는 낙상사고 경험이 있는 432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4. 청력, 씹기, 시력능력

노인의 시력은 보조기 미 착용시 나쁘다는 응답이 독거노인이 51.0%, 부부노인이 41.4%,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42.8%로 독거노인의 시력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력의 경우 나쁘다는 응답은 독거노인 21.7%, 부부노인 17.6%, 자녀동거 20.4%로 나타나 독거노인이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씹는 능력 또한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신체기능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표 5-54 참조).

노인의 시력보조기 착용비율은 부부노인 71.8%, 자녀동거 65.5%, 독거노인 63.2%로 나타났으며 안경을 썼을 때에도 여전히 시력이 나쁘다는 응답이 독거노인 23.6%, 자녀동거 17.5%, 부부노인 17.2%로 나타났다. 청력보조기를 착용한 노인은 전체 10.9%로 부부노인, 독거노인, 자녀동거의 순으로 나타났다. 씹기보조기를 착용하는 비율은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 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지만 씹기보조기를 제외한 안경과 청력보조기의 착용 비율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5-55 참조).

〈표 5-54〉 가구형태별 노인의 신체기능 정도(보조기 미착용시)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시력	매우좋다	2.5	3.8	3.9	3.5
	좋은편	22.5	31.1	30.1	28.7
	보통	24.0	23.8	23.2	23.6
	나쁜편	40.3	32.1	33.5	34.6
	아주나쁨	10.8	9.3	9.3	9.6
	계 (명)	100.0 (668)	100.0 (1,081)	100.0 (1,100)	100.0 (2,849)
청력	매우좋다	4.6	10.2	8.0	8.0
	좋은편	37.1	47.0	46.0	44.3
	보통	36.5	25.3	25.5	28.0
	나쁜편	18.4	14.9	18.5	17.1
	아주나쁨	3.3	2.7	1.9	2.5
	계 (명)	100.0 (668)	100.0 (1,082)	100.0 (1,101)	100.0 (2,851)
씻기	매우좋다	1.5	2.6	2.0	2.1
	좋은편	7.2	11.3	12.1	10.6
	보통	10.8	15.0	12.6	13.1
	나쁜편	36.6	37.7	37.9	37.5
	아주나쁨	43.9	33.4	35.4	36.7
	계 (명)	100.0 (669)	100.0 (1,081)	100.0 (1,101)	100.0 (2,851)

〈표 5-55〉 가구형태별 노인의 보조기 착용시 신체기능 정도와 보조기 착용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시력보조기착용비율	63.2	71.8	65.5	67.1
매우좋다	0.5	0.9	1.9	1.2
좋은편	28.7	34.1	37.0	33.8
보통	47.2	47.8	43.5	46.1
나쁜편	23.1	16.9	16.9	18.5
아주나쁨	0.5	0.3	0.6	0.5
계 (명)	100.0 (216)	100.0 (320)	100.0 (308)	100.0 (844)
청력보조기착용비율	11.7	14.3	7.6	10.9
매우좋다	-	3.6	-	1.6
좋은편	35.3	14.3	5.9	17.7
보통	35.3	50.0	64.7	50.0
나쁜편	29.4	28.6	29.4	29.0
아주나쁨	-	3.6	-	1.6
계 (명)	100.0 (17)	100.0 (28)	100.0 (17)	100.0 (62)
씻기보조기착용비율	74.4	71.1	68.2	70.8
매우좋다	0.5	0.9	0.5	0.7
좋은편	17.0	21.8	22.9	20.9
보통	39.4	40.7	38.9	39.7
나쁜편	38.4	31.2	33.8	34.1
아주나쁨	4.7	5.3	3.8	4.6
계 (명)	100.0 (401)	100.0 (545)	100.0 (547)	100.0 (1493)

5. 요양욕구

가. 신체기능

노인의 대부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항목에서 독거노인은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6 참조).

〈표 5-56〉 가구형태별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옷 벗고 입기	완전자립	100.0	98.3	98.5	98.8
	부분도움	0.0	1.3	1.4	1.0
	완전도움	0.0	0.4	0.1	0.2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0)	100.0 (2,851)
세수하기	완전자립	100.0	99.2	99.4	99.5
	부분도움	0.0	0.6	0.5	0.4
	완전도움	0.0	0.2	0.1	0.1
	계 (명)	100.0 (669)	100.0 (1,081)	100.0 (1,100)	100.0 (2,850)
양치질하기	완전자립	100.0	99.5	99.6	99.7
	부분도움	0.0	0.4	0.2	0.2
	완전도움	0.0	0.1	0.2	0.1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0)	100.0 (2,851)
목욕하기	완전자립	99.0	96.5	96.5	97.1
	부분도움	0.9	2.5	2.1	2.0
	완전도움	0.1	1.0	1.4	0.9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0)	100.0 (2,851)
식사하기	완전자립	99.9	99.3	99.6	99.5
	부분도움	0.1	0.6	0.3	0.4
	완전도움	0.0	0.1	0.1	0.1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1)	100.0 (2,852)

〈표 5-56〉 계속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체위변경하기	완전자립	99.9	99.9	99.7	99.8
	부분도움	0.1	0.1	0.2	0.1
	완전도움	0.0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1)	(1,100)	(2,850)
일어나 앉기	완전자립	99.7	99.3	99.5	99.5
	부분도움	0.3	0.5	0.3	0.4
	완전도움	0.0	0.2	0.2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옹겨타기	완전자립	99.4	99.6	99.5	99.5
	부분도움	0.6	0.2	0.3	0.3
	완전도움	0.0	0.2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방밖으로 나오기	완전자립	99.4	99.4	99.2	99.3
	부분도움	0.3	0.4	0.5	0.4
	완전도움	0.3	0.2	0.3	0.3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화장실 사용하기	완전자립	99.4	99.4	99.4	99.4
	부분도움	0.6	0.5	0.1	0.4
	완전도움	0.0	0.1	0.5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1)	(2,852)
대변조절하기	완전자립	99.3	99.5	99.5	99.5
	부분도움	0.6	0.5	0.4	0.5
	완전도움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099)	(2,850)
소변조절하기	완전자립	98.1	99.1	97.7	98.3
	부분도움	1.9	0.9	2.2	1.7
	완전도움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8)	(1,081)	(1,099)	(2,848)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또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 관리하기’, ‘물건 사러가기’, ‘교통수단 이용하기’, ‘전화 사용하기’ 항목에서는 부부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는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57 참조).

〈표 5-57〉 가구형태별 노인의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몸 단장하기	완전자립	99.7	97.9	98.3	98.5
	부분도움	0.3	1.8	1.6	1.3
	완전도움	0.0	0.3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1)	(1,101)	(2,851)
집안일	완전자립	97.6	95.4	93.9	95.3
	부분도움	2.2	3.2	4.8	3.6
	완전도움	0.2	1.4	1.3	1.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1)	(1,101)	(2,851)
식사준비	완전자립	97.9	94.4	94.0	95.1
	부분도움	2.1	3.8	4.5	3.6
	완전도움	0.0	1.8	1.5	1.3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1)	(2,852)
빨래하기	완전자립	97.8	95.0	94.0	95.3
	부분도움	1.9	3.0	3.9	3.1
	완전도움	0.3	2.0	2.1	1.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51)
근거리 외출하기	완전자립	97.8	96.9	95.5	96.6
	부분도움	1.5	2.3	3.3	2.5
	완전도움	0.7	0.8	1.2	0.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099)	(2,850)

〈표 5-57〉 계속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교통수단 이용하기	완전자립	92.5	94.1	89.2	91.8
	적은 부분도움	4.3	2.9	6.4	4.6
	많은 부분도움	1.8	2.2	2.4	2.2
	완전도움	1.4	0.8	2.0	1.4
	계 (명)	100.0 (668)	100.0 (1,081)	100.0 (1,100)	100.0 (2,849)
물건 사러가기	완전자립	97.5	97.7	96.2	97.1
	적은 부분도움	1.5	1.0	2.4	1.6
	많은 부분도움	0.7	0.6	0.5	0.6
	완전도움	0.3	0.7	0.9	0.7
	계 (명)	100.0 (669)	100.0 (1,081)	100.0 (1,100)	100.0 (2,850)
금전 관리하기	완전자립	87.0	93.3	88.0	89.8
	부분도움	12.7	6.1	11.5	9.8
	완전도움	0.3	0.6	0.5	0.4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0)	100.0 (2,851)
전화 사용하기	완전자립	90.9	95.6	88.7	91.8
	적은 부분도움	6.4	3.2	7.9	5.8
	많은 부분도움	2.5	1.0	2.4	1.9
	완전도움	0.2	0.2	1.0	0.5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1)	100.0 (2,852)
약 챙겨먹기	완전자립	99.7	98.6	99.1	99.0
	부분도움	0.3	1.3	0.8	0.9
	완전도움	0.0	0.1	0.1	0.1
	계 (명)	100.0 (669)	100.0 (1,082)	100.0 (1,100)	100.0 (2,851)

나. 인지기능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은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이 13.2%, ‘상황 판단력 감퇴’가 4.2%로 다른 항목보다 높게 나타났다.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은 부부노인이 14.3%로 다른 가구형태 노인들보다 높은 비율이 응답하였으며, ‘상황 판단력 감퇴’는 자녀동거 노인이 5.1%로 더 높게 응답하였다(표 5-58 참조).

〈표 5-58〉 가구형태별 노인의 인지기능 장애 비율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방금 전이나 며칠 전일 잊음	10.8	14.3	13.6	13.2	(2,851)
날짜 계절 불인지	0.9	0.9	1.5	1.1	(2,851)
장소 불인지	0.3	0.1	0.2	0.2	(2,851)
가족 친척 불인지	0.3	0.2	0.1	0.2	(2,851)
본인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0.6	0.7	1.1	0.8	(2,851)
지시사항 이해 못함	1.9	1.2	2.2	1.8	(2,851)
일정표 이해 못함	0.4	0.6	0.8	0.7	(2,851)
상황 판단력 감퇴	3.7	3.5	5.1	4.2	(2,851)
의사소통 전달 장애	1.0	1.0	1.9	1.4	(2,851)

다. 문제행동 영역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은 전반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1.0%가 넘는 응답이 ‘우울상태나 울기도 함’,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 ‘환각·환청’, 돈 ‘물건 감추기’,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이유 없이 크게 소리 내거나 고함침’ 등의 항목에서 나타났다. 이 중 ‘우울상태나 울기도 함’은 독거노인이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59 참조).

〈표 5-59〉 가구형태별 노인의 문제행동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절도나 상해 위협(망상)	0.6	0.6	0.5	0.6	(2,849)
환각·환청	1.3	0.7	1.7	1.3	(2,849)
우울상태나 울기도함	6.1	3.4	5.5	4.8	(2,849)
불규칙 수면과 주야혼돈	2.1	1.6	3.5	2.4	(2,849)
도움에 저항	1.2	0.2	1.3	0.8	(2,849)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1.0	0.3	1.8	1.1	(2,849)
외출하면 길을 잃음	0.7	0.5	0.9	0.7	(2,849)
폭언이나 위협행동	0.4	0.6	1.4	0.9	(2,849)
이유없이 크게 소리내거나 고함침	1.2	0.6	1.3	1.0	(2,849)
밖으로 나가려고 함	0.3	0.2	0.1	0.2	(2,849)
물건·옷 등을 망가뜨림	0.3	0.0	0.0	0.1	(2,849)
먹지 못하는 것 먹으려고 함	0.3	0.0	0.2	0.1	(2,849)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함	0.3	0.1	0.4	0.2	(2,849)
물건 훔쳐서 집에 가지고 옴	0.3	0.0	0.1	0.1	(2,849)
혼자있기 두려움	0.6	0.2	0.4	0.4	(2,849)
사람 혼동이나 오인	0.3	0.0	0.2	0.1	(2,849)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님	0.3	0.2	0.4	0.3	(2,849)
돈 물건감추기	0.6	0.6	2.0	1.2	(2,849)
부적절한 옷입기	0.3	0.1	0.1	0.1	(2,849)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	0.7	0.6	1.2	0.9	(2,849)
부적절한 노출이나 성행위	0.3	0.0	0.0	0.1	(2,849)
대소변 벽이나 옷에 바름	0.3	0.0	0.0	0.1	(2,849)

라. 간호처치 욕구

간호처치 욕구 상태는 ‘통증간호’(5.3%)와 ‘복막투석 및 간호(0.9%)’를 제외하곤 0.1~0.3%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 두 항목에서 독거노인이 다른 가족형태의 노인들보다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0 참조).

〈표 5-60〉 가구형태별 다른 노인의 간호처치 욕구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기관지 절개 간호	0.0	0.2	0.5	0.2	(2,851)
흡인	0.0	0.3	0.3	0.2	(2,851)
산소요법	0.0	0.2	0.5	0.2	(2,851)
욕창	0.0	0.1	0.3	0.1	(2,851)
경관영양	0.0	0.3	0.3	0.2	(2,851)
통증간호	7.8	4.7	4.5	5.3	(2,851)
정맥주사요법	0.0	0.2	0.6	0.3	(2,851)
도뇨관리	0.1	0.1	0.5	0.2	(2,851)
장루간호	0.0	0.1	0.3	0.1	(2,851)
상처간호	0.1	0.2	0.4	0.2	(2,851)
복막투석 및 간호	0.9	0.7	1.1	0.9	(2,851)

마. 재활욕구 출현율

재활욕구(마비) 출현율을 살펴보면 우측상지 마비 출현율과 좌측상지 마비 출현율의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각각 2.3%로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측하지와 좌측하지 마비 출현율은 독거노인이 8.6%와 7.5%로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5-61 참조).

〈표 5-61〉 가구형태별 노인의 재활욕구(마비)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우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8.2	97.9	97.7	97.9
불완전마비	1.5	1.4	2.0	1.7
완전마비	0.3	0.7	0.3	0.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4)	(1,081)	(1,091)	(2,836)
좌측상지 마비				
마비없음	97.9	98.4	97.7	98.0
불완전마비	1.7	1.3	1.6	1.5
완전마비	0.4	0.3	0.7	0.5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2)	(1,080)	(1,092)	(2,834)
우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1.5	94.7	94.9	94.0
불완전마비	7.8	4.5	4.6	5.3
완전마비	0.8	0.8	0.5	0.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57)	(1,062)	(1,065)	(2,784)
좌측하지 마비				
마비없음	92.5	94.3	94.3	93.9
불완전마비	6.7	5.5	4.6	5.4
완전마비	0.8	0.2	1.1	0.7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57)	(1,063)	(1,068)	(2,788)

재활욕구(구축) 출현율은 고관절(28.2%)과 무릎관절(17.8%) 출현율이 다른 관절의 출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모든 유형의 관절 구축에서 독거노인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재활욕구(구축) 출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62 참조).

〈표 5-62〉 가구형태별 노인의 재활욕구(구축) 출현율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어깨관절 구축	구축없음	92.9	95.1	95.3	94.7
	우관절구축	2.0	2.1	1.7	1.9
	좌관절구축	1.8	1.1	1.5	1.4
	양관절구축	3.3	1.7	1.5	2.0
	계 (명)	100 (664)	100 (,1079)	100 (1,093)	100 (2,836)
팔꿈치관절 구축	구축없음	94.0	95.7	95.7	95.3
	우관절구축	2.2	1.8	1.5	1.8
	좌관절구축	2.0	0.8	1.4	1.3
	양관절구축	1.8	1.7	1.4	1.6
	계 (명)	100 (663)	100 (1,079)	100 (1,092)	100 (2,834)
손목 및 수지관절구축	구축없음	91.4	93.0	94.0	93.0
	우관절구축	3.3	2.2	1.9	2.4
	좌관절구축	2.6	1.6	1.9	1.9
	양관절구축	2.7	3.2	2.2	2.7
	계 (명)	100 (663)	100 (1,079)	100 (1,091)	100 (2,833)
고관절 구축	구축없음	62.9	76.1	73.1	71.8
	우관절구축	6.0	3.7	3.9	4.3
	좌관절구축	5.4	3.3	3.7	4.0
	양관절구축	25.7	16.9	19.3	19.9
	계 (명)	100 (650)	100 (1,049)	100 (1,045)	100 (2,744)
무릎관절 구축	구축없음	72.2	86.0	84.5	82.2
	우관절구축	5.6	3.7	3.5	4.1
	좌관절구축	5.2	3.1	3.0	3.5
	양관절구축	17.0	7.2	9.0	10.2
	계 (명)	100 (660)	100 (1,062)	100 (1,074)	100 (2,796)
발목관절 구축	구축없음	89.8	93.7	94.0	92.9
	우관절구축	1.7	1.3	1.5	1.5
	좌관절구축	2.6	1.2	1.5	1.6
	양관절구축	5.9	3.8	3.0	4.0
	계 (명)	100 (658)	100 (1,066)	100 (1,079)	100 (2,803)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들의 요양욕구에 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5-63>과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들의 요양욕구의 차이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 문제행동, 재활구축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구축 영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연령 집단에서 가구형태에 따른 요양욕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65~69세 노인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영역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욕구가 가장 높으며, 재활구축 영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노인들의 경우 독거노인이 간호처치와 재활구축 영역에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과 인지능력 영역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재활구축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4 참조).

<표 5-63> 가구형태별 요양욕구

(단위: %, 명)

변수	평균(표준편차)			F값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6(0.45)	12.13(1.01)	12.14(1.10)	1.689
도구적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51(1.47)	10.55(2.19)	10.82(2.37)	6.239**
인지능력	0.19(0.63)	0.22(0.66)	0.26(0.78)	1.924
문제행동	0.20(1.39)	0.10(0.48)	0.22(0.83)	5.509***
간호처치	0.08(0.28)	0.06(0.36)	0.09(0.62)	0.690
재활마비	4.22(0.74)	4.16(0.64)	4.17(0.70)	1.576
재활구축	8.26(3.13)	7.40(2.64)	7.46(2.70)	22.093***

주: *=p<0.1, **=p<0.05, ***=p<0.01

<표 5-64> 연령 및 가구형태별 영양욕구

변수	평균(표준편차)			F값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65~69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2(0.16)	12.06(0.51)	12.03(0.21)	1.588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19(0.69)	10.27(1.28)	10.32(1.55)	0.615
인지능력	0.14(0.45)	0.16(0.48)	0.14(0.57)	0.257
문제행동	0.06(0.28)	0.09(0.47)	0.15(0.67)	2.328*
간호처치	0.09(0.30)	0.07(0.44)	0.13(0.84)	1.081
재활마비	4.13(0.49)	4.12(0.57)	4.09(0.53)	0.412
재활구축	7.59(2.53)	7.03(2.26)	7.08(2.26)	4.366**
70~74세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02(0.31)	12.12(1.25)	12.08(0.41)	0.956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30(1.19)	10.39(1.89)	10.50(1.67)	0.912
인지능력	0.16(0.65)	0.18(0.60)	0.23(0.70)	0.805
문제행동	0.14(0.66)	0.08(0.38)	0.17(0.67)	2.275
간호처치	0.11(0.31)	0.05(0.28)	0.03(0.18)	5.796***
재활마비	4.17(0.63)	4.17(0.62)	4.18(0.67)	0.027
재활구축	7.99(2.86)	7.43(2.57)	7.35(2.45)	3.886
75세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ADL)	12.13(0.63)	12.29(1.38)	12.34(1.85)	1.812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	10.89(1.93)	11.40(3.57)	11.69(3.27)	5.456***
인지능력	0.26(0.72)	0.41(0.99)	0.42(0.99)	2.714*
문제행동	0.34(2.09)	0.16(0.60)	0.35(1.08)	1.510
간호처치	0.06(0.24)	0.06(0.27)	0.08(0.55)	0.381
재활마비	4.33(0.93)	4.26(0.79)	4.26(0.87)	0.525
재활구축	8.95(3.56)	8.23(3.30)	8.00(3.25)	6.174***

주: *=p<0.1, **=p<0.05, ***=p<0.01

6. 수발실태

가.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수발자 없음’이 독거노인이 89.0%, 부부노인 75.8%, 자녀동거 69.0%로 독거노인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65 참조).

〈표 5-65〉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수발자 없음	89.0	75.8	69.0	76.1
동거 가구원	0.0	22.8	29.5	20.1
비동거 가구원	11.0	1.4	1.5	3.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27)	(281)	(403)	(911)

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 중 44.8%, 독거노인 수발자 중 42.8%, 부부노인의 수발자 중 13.8%가 전일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노인의 경우 서로(배우자)를 수발하는 가능성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표 5-66 참조).

〈표 5-66〉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자의 경제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활동 없음	52.4	83.1	48.8	59.7
파트타임	4.8	3.1	6.4	5.2
전일제 일	42.8	13.8	44.8	35.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1)	(65)	(125)	(211)

다. 수발기간

노인 중 43.7%가 5년 이상 수발을 받고 있으며, 부부노인의 49.2%,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44.7%, 독거노인의 24.0%가 5년 이상 수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7 참조).

〈표 5-67〉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기간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1년 미만	12.0	18.5	16.3	16.4
1~3년	24.0	13.8	25.2	21.6
3~5년	40.0	18.5	13.8	18.3
5년 이상	24.0	49.2	44.7	43.7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5)	(65)	(123)	(213)

라. 주 수발자의 어려움 유무 및 부담유형

수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수발자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 중 56.0%, 독거노인의 수발자 중 48.0%, 부부노인의 수발자 중 29.4%로 나타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가 가장 수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부부노인의 수발자가 가장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68 참조). 수발시 가장 힘든 점은 독거노인의 수발자는 심리적 부담이 76.9%, 다음으로 취업기회 상실, 육체적 피로, 경제적 부담이 각각 7.7%로 나타났다. 부부노인의 수발자는 육체적 피로 52.0%, 경제적 부담 20.8%, 심리적 부담 16.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는 심리적 부담 33.2%, 육체적 피로 31.5%, 경제적 부담 20.4%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수발자가 심리적인 부담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의 수발자는 육체적 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노인의 수발자는 대부분이 배우자로 고령의 나이에 수발을 할 경우 육체적인 피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68〉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어려움 유무 및 어려움 점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수발의 어려움				
없다	48.0	29.4	56.0	46.8
있다	52.0	70.6	44.0	53.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5)	(68)	(125)	(218)
수발시 가장 힘든 점				
취업기회 상실	7.7	-	3.7	2.6
육체적 피로	7.7	52.0	31.5	37.4
사생활 제한	-	4.2	7.4	5.2
사회생활 제한	-	6.3	1.9	3.5
경제적 부담	7.7	20.8	20.4	19.1
가족간 갈등	-	-	1.9	0.9
심리적 부담	76.9	16.7	33.2	31.3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3)	(48)	(54)	(115)

마. 주 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주 수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수발자의 84.0%,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수발자의 80.8%, 부부노인 수발자의 60.3%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주 수발자와 노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부노인의 수발자 중 93.4%가 배우자로 부부노인의 대부분이 배우자가 수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가 주 수발자인 경우가 79.2%, 독거노인은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가 주 수발자인 경우는 58.3%인 반면 비혈연동거인·이웃 및 유급봉사원이 25.0%로 가구형태에 따라 주 수발자와 노인과의 관계가 확연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독거노인 수발자 중 30~49세가 59.1%, 50~64세는 36.4%, 부부노인 수발자 중 50~64세는 76.9%, 30~49세는 15.4%,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 중 30~49세 57.6%, 50~64세 39.6%로 부부노인의 주 수발자의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노인의 경우 주 수발자의 대부분이 배우자인 것에 기인한다(표 5-69 참조).

<표 5-69> 가구형태별 노인의 주수발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주수발자의 성별				
남자	16.0	39.7	19.2	25.2
여자	84.0	60.3	80.8	74.8
계	100	100	100	100
(명)	(25)	(68)	(125)	(218)
주수발자의 노인과의 관계				
배우자	-	93.4	19.2	38.6
장남·며느리	29.1	-	39.2	26.7
그 외 아들·며느리	12.5	1.7	13.6	10.0
딸·사위	16.7	-	26.4	17.6
손자녀·배우자	4.2	-	1.6	1.4
본인 및 배우자의 친인척	12.5	-	-	1.4
비혈연동거인·이웃	16.7	-	-	1.9
유급봉사원 (가정봉사원, 파출부, 간병인)	8.3	4.9	-	2.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4)	(61)	(125)	(210)
주수발자의 연령				
30세 미만	-	-	1.9	1.4
30-49세	59.1	15.4	57.6	53.9
50-64세	36.4	76.9	39.6	42.6
65세 이상	4.5	7.7	0.9	2.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2)	(13)	(106)	(141)

바. 수발행위 평균빈도

수발행위 빈도를 보면 노인방 청소(3.2%), 노인의료 및 침구세탁(2.7%)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른 수발행위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 모두 부부노인 집단에서 수발행위 빈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수발행위 빈도가 높지 않은 것은 <표 5-70>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노인들의 대다수가 일상생활수행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5-70〉 가구형태별 노인의 수발행위 평균빈도

(단위: 회)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개인위생(1일 중)	-	0.19(0.454)	0.08(0.571)	0.11(0.504)
옷갈아입기(1일 중)	-	0.52(1.389)	0.29(1.077)	0.33(1.133)
체위변경(1일 중)	-	0.08(0.751)	-	0.03(0.419)
소변보기(1일 중)	-	0.20(0.995)	0.13(0.621)	0.14(0.728)
노인방 청소(1주 중)	1.87(2.672)	4.70(2.676)	2.72(3.001)	3.24(3.031)
노인의료 및 침구 세탁(1주중)	2.22(2.790)	3.26(2.541)	2.43(2.414)	2.66(2.520)
특별식 준비(1주 중)	0.45(0.978)	1.15(2.501)	0.37(1.306)	0.62(1.771)
머리감기 및 목욕(1주 중)	0.86(2.276)	1.36(2.073)	0.64(1.419)	0.89(1.777)
대변보기(1주 중)	0.00(0.000)	0.29(1.159)	0.07(0.568)	0.13(0.782)
외출시 수행(1주 중)	0.62(1.204)	0.71(1.278)	0.58(1.239)	0.62(1.243)

7. 노인요양시설 및 서비스

가.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부부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가사지원서비스와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독거노인이 각각 61.5%, 70.8%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독거노인들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표 5-71 참조).

<표 5-71>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

(단위: %)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40.5	60.0	50.1	51.6	(2,848)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78.0	89.0	84.2	84.5	(2,848)
단기보호시설	4.9	9.4	9.0	8.2	(2,848)
주간보호시설(탁노소)	6.3	11.7	9.6	9.6	(2,848)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19.3	28.3	25.1	25.0	(2,848)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61.5	65.5	57.5	61.5	(2,847)
경로식당/무료급식	76.2	83.3	82.2	81.2	(2,848)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70.8	72.9	68.9	70.9	(2,846)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49.1	60.3	50.1	53.8	(2,846)
보장구대여 서비스	11.7	17.4	12.9	14.3	(2,846)

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률은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을 제외한 노인복지서비스에서 독거노인의 이용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7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독거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율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낮지만 이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요양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5-72〉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

(단위: %)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노인전문병원 (노인치매요양병원 등)	없음	98.5	99.7	99.8	99.5
	있음	1.1	0.3	0.0	0.3
	현재 이용중	0.4	0	0.2	0.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70)	(649)	(551)	(1,470)
노인(전문)요양시설/ 양로시설	없음	100.0	100.0	99.6	99.8
	있음	-	-	0.4	0.2
	현재 이용중	-	-	-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20)	(962)	(926)	(2,408)
단기보호시설	없음	100.0	100.0	100.0	100.0
	있음	-	-	-	-
	현재 이용중	-	-	-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3)	(102)	(100)	(235)
주간보호시설 (탁노소)	없음	100.0	99.2	100.0	99.6
	있음	-	0.8	-	0.4
	현재 이용중	-	-	-	-
	계	100.0	100.0	100.0	100.0
	(명)	(42)	(126)	(106)	(274)

〈표 5-72〉 계속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없음	96.2	98.7	99.3	98.5
	있음	1.5	0.7	0.4	0.7
	현재 이용중	2.3	0.6	0.3	0.8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30)	(306)	(276)	(712)
가사지원서비스 (가정봉사원 등)	없음	96.4	99.2	99.7	98.7
	있음	1.4	0.8	0.2	0.7
	현재 이용중	2.2	0.0	0.1	0.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411)	(708)	(633)	(1752)
경로식당/무료급식	없음	80.9	90.1	88.4	87.4
	있음	12.0	6.0	8.3	8.2
	현재 이용중	7.1	3.9	3.3	4.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09)	(900)	(904)	(2,313)
(거동불편) 노인식사 배달	없음	91.3	99.4	99.6	97.6
	있음	3.0	0.1	0.1	0.8
	현재 이용중	5.7	0.5	0.3	1.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473)	(788)	(757)	(2,018)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없음	94.8	96.7	98.0	96.7
	있음	3.7	1.8	1.5	2.1
	현재 이용중	1.5	1.5	0.5	1.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328)	(652)	(551)	(1,531)
보장구대여 서비스	없음	96.2	97.3	100.0	98.0
	있음	1.3	2.2	0.0	1.2
	현재 이용중	2.5	0.5	0.0	0.7
	계	100.0	100.0	100.0	100.0
	(명)	(79)	(188)	(142)	(409)

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

노인복지서비스를 향후 이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가구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노인은 노인전문병원, 단기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치매상담센터, 가정 간호서비스, 보장구대여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온 서비스가 없었다(표 5-73 참조).

〈표 5-73〉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

구분					(단위: %)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노인전문병원(노인치매요양병원 등)	35.6	40.5	38.9	38.7	(2,846)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32.9	29.6	27.4	29.5	(2,842)
단기보호시설	10.8	16.9	14.5	14.5	(2,847)
주간보호시설(탁노소)	11.4	18.2	16.0	15.8	(2,847)
치매상담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28.7	35.6	30.6	32.0	(2,845)
가사지원서비스(가정봉사원 등)	35.0	32.4	26.5	30.7	(2,846)
경로식당/무료급식	26.2	18.2	16.5	19.4	(2,847)
(거동불편) 노인식사배달	36.8	25.3	20.0	25.9	(2,845)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47.3	49.0	40.2	45.2	(2,845)
보장구대여 서비스	24.6	32.0	25.2	27.6	(2,844)

8.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장기요양관련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42.1%)와 ‘주간보호서비스 확대(28.8%)’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부부노인이 44.2%로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게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표 5-74 참조).

<표 5-74> 가구형태별 장기요양관련 정책적 우선순위

(단위: %)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가정봉사원서비스 확대	3.6	3.7	4.2	3.9
주간보호서비스 확대	29.4	27.5	29.6	28.8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1.4	1.4	2.2	1.7
요양시설 확대	2.3	0.7	1.2	1.3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	37.9	44.2	42.6	42.1
보장구 대여서비스 확대	10.3	7.2	6.5	7.6
가정간호 서비스 확대	0.6	0.9	1.0	0.9
기타	14.4	14.4	12.6	13.7
정부지원 필요없음	0.1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0)	(1,076)	(1,083)	(2,819)

9. 가구형태별 노인복지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특성 요인

가구형태별 서비스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노인특성인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일상생활능력(ADL), 인지능력, 문제행동, 간호처치, 재활마비, 재활구축변수와 주수발자 특성인 주수발자 연령, 주수발자 성별, 수발기간, 수발어려움유무, 수발행위, 주수발자 취업상태를 독립변수로 하고 서비스 인지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75>과 같다.

노인의 개인적 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전체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모델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노인의 경우 노인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 서비스 인지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노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일상생활능력(ADL)이 낮을수록 인지능력이 낮을수록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주수발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수발자의 성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에 서비스 인지도가 높았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5-75〉 가구형태별 서비스 인지도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β	t	β	t	β	t	β	t
성(여성기준) : 남성	5.684	.584	-7.277	-2.692	-1.080	-1.446	-.577	-1.022
연령	.420	1.026	-.071**	-1.313	-.044	-1.085	-.010	-.344
결혼상태(유배우기준): 무배우	1.655	.275			.184	.247	.272	.459
교육수준	3.690	1.397	.292	1.648	.474	2.719***	.355	3.015***
취업(하고있지않음기준) 하고 있음	4.236	.713	-4.16**	-3.605	-.750	-.876	-1.34	-2.150**
일상생활능력(ADL)	-1.500	-.959	-.152*	-1.745	-.032	-.194	-.065	-.807
인지능력	1.653	1.034	-.592***	-3.002	.003	.015	-.105	-.761
문제행동	-.856	-.468	.394	1.319	-.228	-1.330	-.168	-1.212
간호처치	2.372	.402	-.826	-.816	.676	.790	.636	1.017
재활마비	-.433	-.385	-.132	-.631	-.166	-.830	-.115	-.838
재활구축	.654	1.160	-.079	-1.063	-.032	-.442	-.025	-.492
주수발자의 연령	.060	.436	.170***	3.433	-.012	-.522	.002	.143
주수발자(여성기준) 남성	-1.164	-.250	-7.44**	-2.614	.837	1.403	.170	.339
수발기간	.224	.392	-.044	-1.411	.005	.159	-.005	-.224
수발어려움(있음기준) 없음	-2.599	-.691	.359	.591	-.152	-.320	-.280	-.799
수발행위	.379	.759	.043	.892	.014	.320	.001	.045
주수발자(비취업기준) 파트타임	-11.002	-1.220	1.695	1.066	-.712	-.657	-1.037	-1.230
전일제	-4.695	-1.132	-.833	-1.069	.341	.698	-.292	-.759
상수		-28.364		7.175		7.956**		5.634**
Adjusted R square		-1.369		.306		.077		.066
F		.333		2.537***		1.503		1.750**

주: * $p<0.1$, ** $p<0.05$, *** $p<0.01$

10.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가구형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76>과 같다.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을 모두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부부노인의 경우, 노인의 성별이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이용경험이 높았고, 주수발자의 성이 남성보다는 여성인 경우 이용경험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수발자 경제상태가 비취업에 비해 파트타임 경우 이용경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표 5-76〉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β	t	β	t	β	t	β	t
성(여성기준) : 남성	2.820	1.810	-2.23	3.920***	-.023	-.292	-.144	-1.027
연령	.191	2.913*	-.009	-.832	.003	.780	.013	1.802*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071	-.074			.023	.285	-.100	-.679
교육수준	.990	2.340	.006	.178	.007	.366	-.002	-.053
취업(하고 있지 않음 기준)								
하고 있음	2.521	2.648*	-.348	1.434	.061	.695	.100	.665
일상생활능력(ADL)	.124	.494	-.011	-.578	-.016	-.924	.001	.071
인지능력	.269	1.049	-.015	-.369	-.007	-.314	-.002	-.051
문제행동	.526	1.793	.039	.632	-.007	-.420	-.022	-.653
간호처치	-1.136	-1.201	-.046	-.216	-.036	-.455	-.055	-.386
재활마비	-.133	-.738	-.008	-.174	.008	.379	.045	1.323
재활구축	.116	1.279	.004	.248	.003	.460	.005	.365
주수발자의 연령	.000033	.001	.017	1.672	.002	.719	-.001	-.224
주수발자(여성기준) : 남성	-.159	-.213	-2.42	-4.033***	.083	1.311	-.136	-1.090
수발기간	-.020	-.223	-.003	-.411	-.003	-.926	-.00006	-.011
수발어려움(있음기준) : 없음	-.516	-.857	.026	.207	.037	.724	.022	.256
수발행위	.156	1.952	-.007	-.727	.000	-.048	.005	.648
주수발자(비취업기준) :								
파트타임	-3.484	-2.411	.694	2.072**	-.021	-.187	.018	.088
전일제	-.114	-.172	.040	.246	.095	1.833*	.206	2.155**
상수		-19.77*		2.071**		-.240		-1.056*
Adjusted R square		.707		.163		-.032		.003
F		3.785		1.688*		.814		1.032

주: *p<0.1, **p<0.05, ***p<0.01

11.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노인특성과 주수발자 특성 요인

가구형태에 따른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노인연령이 적을수록, 재활구축욕구가 높을수록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77 참조). 한편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수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동거 노인의 경우에는 수발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서비스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5-77〉 가구형태별 서비스 이용희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β	t	β	t	β	t	β	t
성(여성기준) : 남성	.113	.013	-4.874	-1.216	.161	.188	.282	.415
연령	.278	.769	-.169	-2.123**	-.047	-1.001	-.061	-1.780*
결혼상태(유배우기준) : 무배우	.347	.065			-.025	-.029	-.373	-.524
교육수준	1.483	.637	.046	.175	.176	.884	.014	.099
취업(하고있지 않음 기준) :								
하고 있음	1.387	.265	-1.167	-.682	.633	.616	.085	.111
일상생활능력(ADL)	-.541	-.392	-.085	-.655	-.367*	-1.954	-.055	-.576
인지능력	.463	.328	-.431	-1.475	.076	.307	-.214	-1.278
문제행동	.020	.012	.300	.678	-.034	-.175	.049	.291
간호처치	.736	.141	1.808	1.205	-1.298	-1.333	-.064	-.085
재활마비	.416	.421	-.232	-.747	.301	1.328	.103	.625
재활구축	.555	1.115	.181	1.651	.046	.567	.131	2.156**
주수발자의 연령	-.039	-.321	.070	.946	-.053	-2.014**	-.020	-1.053
주수발자(여성기준) : 남성								
남성	-1.950	-.475	-4.791	-1.135	.883	1.296	.557	.923
수발기간	.445	.883	.006	.123	-.008	-.210	.000009	.000
수발어려움(있음기준) : 없음	-1.415	-.427	-1.504	-1.672	-.331	-.609	-.503	-1.193
수발행위	-.119	-.270	.106	1.491	.018	.370	.014	.382
주수발자(비취업 기준) :								
파트타임	-1.568	-.197	.149	.063	.057	.047	-.044	-.043
전일제	-2.284	-.625	-.653	-.566	-.012	-.021	-.325	-.700
상수		-22.388		15.33**		10.75***		7.623***
Adjusted R square		-.572		.170		.053		.069
F		.580		1.711*		1.334		1.775**

주: *= $p<0.1$, **= $p<0.05$, ***= $p<0.01$

제 4 절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영역을 크게 ① 여가활동, ② 사회단체활동, ③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그리고 ④ 자원봉사활동, ⑤ 정보화라는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농어촌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실태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여가활동

가. 여가활동 참여 실태

독거노인들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다른 취미나 창의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와 여가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볼 때,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가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범위 또한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5-78 참조).

〈표 5-78〉 가구형태별 여가활동 참여실태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첫째	둘째
학습활동	0.1	0.3	0.6	0.4	0.4	0.1	0.4	0.2
사회(자원)봉사활동	0.7	0.1	1.2	0.6	0.6	0.5	0.9	0.4
컴퓨터, 인터넷활용	-	0.3	0.3	0.8	0.4	0.2	0.2	0.5
스포츠활동	1.6	1.0	3.5	1.9	2.4	2.1	2.6	1.8
사교활동	25.0	15.1	20.8	16.4	20.6	15.1	21.7	15.6
여행	4.0	3.7	7.3	9.0	5.7	6.2	5.9	6.7
영화감상, 연극·운동경기관람 등	-	0.3	0.6	0.6	0.2	0.2	0.3	0.4
서예, 독서, 그림그리기, 종이접기, 공예 등	1.0	1.0	1.9	1.8	1.4	1.6	1.5	1.5
건강가요, 시조, 장구, 풍물 등	0.7	0.9	1.8	1.4	1.1	1.8	1.3	1.4
바둑, 장기, 화투 등	1.8	2.7	2.5	3.0	3.8	3.1	2.8	2.9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	24.1	13.0	35.6	14.1	28.9	11.8	30.3	13.0
TV시청, 라디오청취, 신문보기	11.2	13.2	6.9	12.2	10.7	17.3	9.4	14.4
자녀 및 손자녀양육	2.4	2.8	1.9	2.4	4.4	2.8	3.0	2.7
집안일하기	0.1	0.1	0.4	0.4	1.6	0.3	0.8	0.3
종교활동	8.1	4.5	4.2	1.9	4.0	2.6	5.0	2.8
기타	1.8	0.3	2.7	1.9	2.2	0.6	2.3	1.1
특별히 없음	16.9	40.3	8.0	31.5	11.7	33.7	11.5	3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667)	(1,081)	(1,102)	(667)	(1,081)	(1,101)	(2,850)	(2,849)

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성독거노인이고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주관적 경제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여가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9 참조).

〈표 5-79〉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참여 영향요인

변수	독거노인(β)	부부노인(β)	자녀동거(β)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248**	.065	.070	.116*
연령	.020	-.081	-.028	-.038
교육수준	.089	.118*	.186*	.11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08	-.085	-.038	-.094
거주지역(도시 기준) : 농어촌	-.010	-.014	-.040	-.007
가구형태(독거 아님) : 독거				-.154
자녀수	.080	.004	-.013	.023
자녀 접촉 빈도	.002	.027	.145*	.017
자녀 연락 빈도	.037	.022	.022	.026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42	.133**	.144*	.111*
월평균 용돈액수	.129	.076	.052	.073
월평균 총수입액	-.008	-.047	-.048	-.036
주관적 건강평가	.263**	.213***	.106	.221***
만성질병수	-.064	.071	.060	.022
일상생활 동작능력	-.066	-.058	-.087	-.055
사회적 지지	.048	.086	.064	.086*
(상수)	3.161	3.860**	3.492**	4.058**
R square	.159	.123	.165	.130
adjusted R square	.065	.094	.112	.105
F	1.691*	4.224***	3.115***	5.096***

주: *=p<.05, **=p<.01, ***=p<.001

2. 사회단체 활동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단체활동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사교단체, 정치 및 직능단체라는 5가지 유형의 단체에의 ① 참여 여부, ② 월 참여빈도, ③ 향후 참여의향을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회단체 가입률

본 연구에서는 종교단체 등의 5개 단체에 독거노인들이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독거노인들이 가입한 평균 사회단체의 수는 0.75개로 부부노인 0.99개, 자녀동거노인 0.90개에 비해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적으며, 종교단체 가입률만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높을 뿐 다른 단체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80 참조).

〈표 5-80〉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사회단체 가입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종교단체	53.5	41.9	48.5	47.2	(2,851)
문화활동단체	0.4	1.5	0.8	1.0	(2,851)
운동단체	1.2	6.2	3.4	3.9	(2,851)
사교단체	18.7	45.9	35.8	35.6	(2,851)
정치단체	1.0	3.0	1.4	1.9	(2,851)

나. 사회단체 월 참여빈도

사회단체에 가입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월 참여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경우가 55% 정도이며, 사교단체는 월 1회 이하 참여하는 경우가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정치 및 직능단체에 가입한 독거노인의 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이 세 단체에 참여하는 빈도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81 참조).

부부노인과 자녀동거노인과 비교하여 볼 때, 독거노인들이 종교단체와 사교단체에 참여하는 빈도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활동 단체, 운동단체, 정치·직능단체의 참여빈도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81〉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월 참여빈도

(단위: %, 명)

구분	종교단체				문화활동단체				운동단체			
	독거	부부	동거	전체	독거	부부	동거	전체	독거	부부	동거	전체
거의 매일	7.0	11.5	9.2	9.4	-	-	-	-	12.5	7.5	13.5	9.8
주 2~3회	20.4	17.2	18.2	18.5		12.5	22.2	14.3	12.5	13.4	2.7	9.8
주 1회	28.0	23.8	23.8	24.9		12.5	55.6	25.0		10.4	18.9	12.5
2주 1회	2.8	3.1	5.8	4.1	33.3	12.5	11.1	14.3	12.5	13.4	10.8	12.5
월 1회	10.1	7.0	9.4	8.8	66.7	31.3		25.0	37.5	47.8	35.1	42.9
월 1회 미만	31.7	37.4	33.6	34.4		31.3	11.1	21.4	25.0	7.5	18.9	1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57)	(454)	(533)	(1,344)	(3)	(16)	(9)	(28)	(8)	(67)	(37)	(112)

구분	사교단체				정치·직능단체			
	독거	부부	동거	전체	독거	부부	동거	전체
거의 매일	2.4	.8	3.3	2.0			6.7	1.8
주 2~3회	3.2	4.4	.8	2.9			6.7	1.8
주 1회	4.8	8.5	5.3	6.8		6.1		3.6
2주 1회	14.4	11.1	11.1	11.5		12.1		7.3
월 1회	47.2	43.3	50.6	46.7	57.1	24.2	33.3	30.9
월 1회 미만	28.0	31.9	28.9	30.2	42.9	57.6	53.3	54.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25)	(469)	(395)	(1,016)	(7)	(33)	(15)	(55)

다. 사회단체 향후 가입희망률

현재 사회단체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독거노인들이 앞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교단체에 앞으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지만 나머지 문화활동단체, 사교단체, 운동단체, 정치·직능단체 등에서의 향후 가입희망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5-82 참조).

〈표 5-82〉 가구형태 및 사회단체 종류별 향후 가입희망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대상자수)
종교단체	53.7	43.5	50.0	48.4	(2,847)
문화활동단체	0.7	2.8	1.5	1.8	(2,848)
운동단체	1.5	7.4	4.4	4.8	(2,849)
사교단체	18.8	45.5	35.6	35.4	(2,849)
정치단체	1.3	2.9	1.4	1.9	(2,850)

라. 사회단체 참여 영향 요인

독거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부노인은 여성 노인이고,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고,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많고, 월평균 용돈액수와 총수입액이 많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하는 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3 참조).

〈표 5-83〉 가구형태별 사회단체 참여 영향 요인

변수	독거노인	부부	자녀동거	전체(β)
성(남성기준) : 여성	.168	.113*	.063	.150**
연령	-.059	-.125**	-.245***	-.103**
교육수준	.280**	.231***	.209**	.256***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002	.079	-.089	-.04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174*	.156**	.045	.165***
가구형태(독거 아님 기준) : 독거				-.049
자녀수	-.050	.054	.101	.027
자녀 접촉 빈도	.022	.139**	.136	.115**
자녀 연락 빈도	-.037	.013	-.003	.008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015	.031	.028	.021
월평균 용돈액수	.082	.132**	.106	.128**
월평균 총수입액	-.005	.158**	-.017	.138**
주관적 건강평가	.040	.048	.087	.041
만성질환수	-.036	.029	.015	.006
일상생활 동작능력	-.074	-.053	-.067	-.053
사회적 지지	.182*	.105*	.005	.127**
(상수)	2.753	3.434*	5.103***	3.355*
R square	.198	.201	.179	.233
adjusted R square	.108	.154	.127	.210
F	2.199**	3.982**	3.435***	10.327***

주: *=p<.05, **=p<.01, ***=p<.001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실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②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③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의향, ④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

독거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10.3%,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5.5%로서,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 노인들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84 참조).

〈표 5-84〉 가구형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	전체
참여한 경험없음	84.2	88.1	89.1	87.5
현재 참여하고 있음	10.3	6.5	8.2	8.0
과거에 참여한 경험있음	5.5	5.5	2.7	4.4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2)	(1,100)	(2,81)

나.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들의 경우에는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부설, 대한노인회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85 참조).

〈표 5-85〉 가구형태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	전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5.7	10.0	13.4	9.9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51.4	33.8	39.5	41.0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노인교실	5.7	16.9	13.4	12.4
종교기관 노인대학, 노인교실	26.7	22.3	26.1	24.9
기타	10.5	16.9	7.6	11.9
계	100.0	100.0	100.0	100.0
(명)	(105)	(130)	(119)	(354)

다.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19.7%가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에 비해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5-86 참조).

〈표 5-86〉 가구형태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 및 프로그램 종류
(단위: %)

구분	향후 평생교육 참여율		참여 희망 평생교육 프로그램 종류					계(명)
	평생교육 참여율	기초학습	외국어 학습	여가·취미	기술강좌	재취업 프로그램	기타	
독거노인	19.7	15.3	4.6	72.5	-	0.8	6.9	100.0(131)
부부노인	20.7	9.8	7.1	71.0	2.2	4.9	4.9	100.0(224)
자녀동거	18.3	15.6	6.0	71.4	0.5	1.5	5.0	100.0(199)
전체	19.5	13.2	6.1	71.5	1.1	2.7	5.4	100.0(554)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가·취미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독거노인이 72.5%, 기초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노인이 15.3%로 나타나 이 두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지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닌 부부노인과 자녀동거가구와 비교하였을 때 독거노인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독거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독거노인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31.5%,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30.6%,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2.4%인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 노인에 비해 건강문제로 인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5-87 참조).

〈표 5-87〉 가구형태별 향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시간이 없어서	8.6	19.0	17.8	16.1
건강이 안 좋아서	30.6	24.0	23.8	25.5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31.5	32.3	30.9	31.6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12.4	15.5	15.6	14.8
참가비용비 부담스러워서	10.5	3.8	5.2	5.9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3.6	1.7	3.7	2.9
교육장소가 멀어서	1.1	1.3	1.1	1.2
교육장소를 몰라서	1.0	1.0	.6	.8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6	1.4	.8	1.0
기타			.6	.2
계	100.0	100.0	100.0	100.0
(명)	(523)	(840)	(884)	(2,247)

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독거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만성질환의 수가 적을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접촉빈도와 연락빈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자녀접촉 빈도가 많고,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88 참조).

〈표 5-88〉 독거노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영향요인

변수	독거		부부		자녀동거		전체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277	1.319	-.581	.559	-1.109	.330	-.334	.716
연령	.046	1.047	.033	1.033	-.012	.988	.034	1.034
교육수준	.181	1.198	.095	1.100	.121	1.129	.120	1.128
결혼상태(무배우 기준) :								
유배우	6.184	485.139	-6.514	.001	-.497	.608	.594	1.812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470	1.600	.505	1.657	-.387	.679	.513*	1.670
가구형태(독거아님 기준) :								
독거							.559	1.749
자녀수	-.110	.896	.112	1.119	.043	1.044	.020	1.020
자녀 접촉 빈도	.207	1.229	.354**	1.425	.303*	1.354	.296***	1.344
자녀 연락 빈도	.023	1.024	.276*	.759	.083	.921	.133	.875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376	.687	.242	.785	.717**	.488	.323*	.724
월평균 용돈액수	.000	1.000	.000	1.000	.000	1.000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03	.997	-.003	.997	.000	1.000	-.003	.997
주관적 건강평가	-.127	.880	-.257	.774	-.131	.877	-.233	.792
만성질환수	-.166*	1.181	-.014	.986	-.142	1.152	-.081	1.084
일상생활 동작능력	-1.904	.149	-.387	.679	-.488	.614	-.681	.506
사회적 지지	.093	1.098	.072	1.075	.247	1.281	.051	1.052
(상수)	29.193	4769.738	3.115	22.541	8.431	4588.690	9.116	9097.853
Chi-Square / df	32.741*** / 15		37.692** / 15		31.302*** / 15		55.424*** / 15	
-2Log Likelihood	223.941		416.935		226.028		486.901	
Nagelkerke R square	.152		.100		.135		.094	

주: * $p < .05$, ** $p < .01$, *** $p < .001$

4. 자원봉사활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② 실비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 ③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향, ④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독거노인들 중에서 과거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6.6%,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3%로서, 부부노인과 자녀동거노인에 비

하여 과거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한 노인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89 참조).

〈표 5-89〉 가구형태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경험 없음	90.1	82.9	85.2	85.5
과거 참여경험	6.6	12.7	10.8	10.6
현재 참여하고 있음	3.3	4.3	4.0	4.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69)	(1,083)	(1,100)	(2,852)

나. 실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 참여 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자원봉사 활동시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독거노인의 의견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71.4%가 실비 자원봉사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보다는 찬성률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5-90 참조).

〈표 5-90〉 가구형태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찬성하지 않는다	28.6	31.5	27.8	29.4
찬성한다	71.4	68.5	72.2	70.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51)	(1,073)	(1,074)	(2,798)

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향, 참여빈도 및 활동영역

현재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9.1%만이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91 참조).

〈표 5-91〉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 빈도

(단위: %, 명)

구분	향후 자원봉사 참여율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빈도						계(명)
		주 5회 이상	주 3-4회	주 1-2회	월 2-3회	월 1회	기타	
독거노인	9.1	15.0	3.3	48.3	8.3	20.0	5.0	100.0(60)
부부노인	14.2	3.3	5.9	31.4	18.3	38.6	2.6	100.0(153)
자녀동거	13.5	8.7	2.7	36.9	12.8	37.6	1.3	100.0(149)
전체	12.8	7.5	4.1	36.5	14.4	35.1	2.5	100.0(362)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참여빈도와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들의 경우 주 1-2회 참여하겠다는 경우가 48.3%로 나타나,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들에 비하여 더 자주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영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의 경우 지역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하고자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5-92 참조).

〈표 5-92〉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 희망 영역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사회복지분야	32.3	24.7	17.7	23.1
지역사회봉사활동	45.2	51.3	59.9	53.7
교통 및 환경분야	8.1	9.7	8.8	9.1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6.5	1.9	3.4	3.3
교육 및 문화예술	3.2	7.8	5.4	6.1
보건의료분야	4.8	2.6	4.1	3.6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	1.9	0.7	1.1
계	100.0	100.0	100.0	100.0
(명)	(62)	(154)	(147)	(363)

라.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향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독거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 경우가 51.3%로서 건강문제가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주된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93 참조).

〈표 5-93〉 가구형태별 향후 자원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단위: %, 명)

구분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시간이 없어서	7.8	20.9	20.3	17.5
건강이 안 좋아서	51.3	41.8	45.5	45.6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29.3	27.8	24.0	26.7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3.3	2.7	4.1	3.4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6.5	4.0	3.3	4.4
봉사할 곳을 몰라서	0.3	0.5	0.8	0.6
봉사할 곳이 멀어서	-	0.1	0.1	0.1
할만한 봉사활동이 없어서	0.8	1.5	1.3	1.3
기타	0.5	0.5	0.5	0.5
계 (명)	100.0 (600)	100.0 (916)	100.0 (942)	100.0 (2,458)

마. 자원봉사 참여 영향요인

독거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며,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교육수준만이, 그리고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주관적 건강평가만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94 참조).

〈표 5-94〉 독거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영향요인

변수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B	Exp(B)	B	Exp(B)	B	Exp(B)	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190	.827	-.088	.916	.531	1.700	-.101	.904
연령	.026	1.026	-.049	.953	-.003	.997	-.024	.976
교육수준	.392*	1.479	.289**	1.335	.114	1.121	.294**	1.342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4.616	101.130	-5.879	.003	-.519	.595	1.586	4.884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2.078*	7.992	-.595	.551	.201	1.222	-.039	.962
가구형태(독거아님기준) : 독거							1.230	3.422
자녀수	.099	1.104	.135	1.144	-.227	.797	.124	1.132
자녀 접촉 빈도	.359*	1.432	.164	1.178	-.075	.928	.220**	1.246
자녀 연락 빈도	-.225	.799	-.125	.882	.132	1.141	-.160	.852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438	.645	-.326	.722	-.248	.780	-.363**	.696
월평균 용돈액수	.000	1.000	.004	1.004	.001	1.001	.000	1.000
월평균 총수입액	-.007	.993	.001	1.001	-.001	.999	.001	1.001
주관적 건강평가	-.434	.648	-.105	.900	-.620**	.538	-.183	.833
만성질환수	-.036	.965	.064	1.066	.140	1.150	.027	1.028
일상생활 동작능력	-.301	.740	-.979	.376	-.677	.508	-.460	.631
사회적 지지	.209	1.232	-.138	.871	.067	1.069	-.023	.978
(상수)	-4.812	.008	21.517	2211.873	13.925	1116.447	6.843	937.657
Chi-Square / df	39.010*** / 15		55.938*** / 15		49.266*** / 15		55.938*** / 15	
-2Log Likelihood	137.386		503.881		300.917		503.881	
Nagelkerke R square	.242		.116		.162		.116	

주: *= $p<.05$, **= $p<.01$, ***= $p<.001$

5.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가.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①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여부, ② 향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필요성, ③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거노인 중에서 현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8%로서 부부노인 8.8%, 자녀동거노인 4.4%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은 동일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지

닌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 노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95 참조).

〈표 5-95〉 가구형태별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

(단위: %, 명)

구분	현재 이용률	향후 이용필요성	향후 정보화 교육 의향	계(명)
독거노인	1.8	16.1	9.9	668
부부노인	8.8	32.1	21.1	1,082
자녀동거	4.4	25.7	15.4	1,100
전체	5.4	25.9	16.2	2,850

독거노인 중에서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6.1%로서 부부노인의 32.1%, 자녀동거노인의 25.7%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앞으로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한 독거노인은 9.9%로 부부노인 21.1%, 자녀동거 노인 15.4%와 비교해 볼 때, 독거노인이 정보화 교육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 영향요인

독거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노인의 경우에는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자녀동거노인의 경우에는 여성이고, 연령이 적고, 배우자가 있고, 주관적 건강평가가 긍정적이고, 만성질환의수가 적을수록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96 참조).

〈표 5-96〉 독거노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영향요인

변수	독거노인		부부노인		자녀동거		전체	
	B	Exp(B)	B	Exp(B)	B	Exp(B)	전체B	Exp(B)
성(남성기준) : 여성	-.842	.431	.347	1.415	1.997**	7.369	.137	1.147
연령	.038	1.039	-.110**	.895	-.217**	.805	-.076**	.927
교육수준	1.225**	3.404	.682***	1.979	.764***	2.146	.702***	2.017
결혼상태(무배우기준) : 유배우	9.734	1688.989	-6.959	.001	1.283*	3.609	2.616	13.687
거주지역(도시기준) : 농어촌	-.383	.682	-.132	.876	-.161	.851	-.123	.885
가구형태(독거아님기준) : 독거							3.249	25.770
자녀수	-.265	.767	-.200*	.819	-.100	.904	-.223*	.800
자녀 접촉 빈도	.314	1.369	-.081	.922	.041	1.042	-.041	.960
자녀 연락 빈도	.015	1.015	.061	1.062	.041	1.042	.040	1.040
주관적 경제상태 평가	.858	.424	.023	.977	.059	1.061	.074	.928
월평균 용돈액수	.025	1.025	.006	1.006	.002	1.002	.010**	1.011
월평균 총수입액	-.004	.996	.000	1.000	.001	1.001	.000	1.000
주관적 건강평가	.443	1.557	.055	.946	.683**	.505	.030	.970
만성질환수	-.097	1.102	-.005	.995	-.215*	1.240	-.007	1.007
일상생활 동작능력	-12.478	.000	-5.721	.003	.108	1.114	-5.379	.005
사회적 지지	-.003	.997	-.022	.979	-.199	.820	-.021	.979
(상수)	253.570	1330.107	128.677	7648.938	6.051	424.744	115.511	1464.520
Chi-Square / df	58.355*** / 15		192.932*** / 15		145.438*** / 15		276.992*** / 16	
-2Log Likelihood	50.346		448.263		228.313		512.712	
Nagelkerke R square	.559		.366		.432		.305	

주: *= $p<.05$, **= $p<.01$, ***= $p<.001$

제 5 절 요약 및 함의

1. 독거노인의 경제상태

독거노인은 여타 가구형태의 노인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았다. 노인가구의 소득계층 분포를 살펴본 결과, 독거노인의 무려 62.4%가 빈곤선 이하에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가구형태의 빈곤율이 노인부부 39.4%, 자녀동거가구 19.1%인데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독거노인의 소득수준은 월 42만원으로 자녀동거가구보다 1만원 정도 높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노인소득이 단순히 노인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넘어서서 가구생활비까지 포함된

개념임을 고려할 때, 독거노인의 노인소득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독거노인의 소득원은 여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공공부조이전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이 높았으며, 근로사업부업소득, 자산소득, 공적연금소득 등의 항목에서는 여타 가구형태에 비해 현격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총소득수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유의미하게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별 영향요인 분석결과에서는 공적이전소득, 공공부조소득에서만 같은 조건하에서 독거노인이 자녀동거노인에 비해 유의미하게 소득수준이 높으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원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하에서 독거노인 등 가구형태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의 소득원별 유무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가구주 여부, 성, 지역, 연령, 교육연수, 결혼상태, 자녀수, 취업, 1인당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독거노인 > 노인부부 > 자녀동거노인 순으로 대체로 유의미하게 소득원별 소득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 및 노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요인에서는 여타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는 독거노인이라는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요약해보면 독거노인은 절대적 소득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절대다수가 빈곤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절대적 비중이 있어서나 다른 가구형태에 비한 상대적 비중에서도 모두 공공부조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높은 편으로, 공공부조소득 및 사적이전소득에 상당부분을 의존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영향요인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여타 노인의 인적, 가구적 특성을 통제한 경우에는 독거노인이라는 가구특성이 총소득수준 및 소득원별 소득수준에 오히려 정의 방향으로 기여하거나 혹은 유의미하지 않은 요인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이 갖게 되는 고연령 다수, 여성 다수, 농어촌 거주 다수, 가구주, 무배우, 좋지않은 건강상태 다수 등의 인적, 가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소득수준이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취약한 소득수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독거노인의 인적, 가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사회복지체제 내에서도 독거노인은 최우선 보호대상으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결과 공공부조소득의 우선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소득보장체계 중에서도 공적연금소득은 독거노인이 여타 가구형태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즉, 독거노인은 공적소득보장체계 내에서도 사후대책이며 빈곤층에 대한 최종안전망인 공공부조소득 중심으로 보호되는 반면, 보편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소득을 통해서는 거의 보호되지 않고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영양욕구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건강위해 행위인 흡연율과 음주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낮은 수준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식 섭취 노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만성질환율은 독거노인의 경우 96.0%로 매우 높아 건강이 취약계층임을 알 수 있다. 만성질환으로 힘든 점이 있다는 응답이 57.7%로 타가구 형태에 비하여 높으며, 외로움·소외감을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 만성질환치료를 위한 의료비 부담정도에서 무료 또는 기타의 비율이 높다. 또한 주관적 건강인식은 타가구형태보다 더 나쁘고, 낙상사고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시력과 청력, 씹기 능력 모두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 독거노인의 신체기능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독거노인의 경우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 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지만 씹기 보조기를 제외한 안경과 청력보조기의 착용 비율은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들의 영양욕구의 차이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문제행동 출현율, 재활욕구의 구축 출현율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문제행동 영역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활구축 영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연령 집단에서 가구형태에 따른 영양욕구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보면 65~69세 노인집단에서는 문제행동 영역

에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욕구가 가장 높으며, 재활구축 영역에서는 독거노인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0~74세 노인들의 경우 독거노인이 간호처치와 재활구축 영역에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능력 영역에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재활구축에서는 독거노인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른 노인의 수발유무 및 수발가구원 실태를 살펴보면 독거노인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더 높았다. 주수발자의 경제활동 비율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독거노인 수발자와 부부노인의 수발자 순으로 밝혀졌다.

노인의 수발기간은 부부노인,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독거노인의 순으로 장기화 현상이 나타났으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수발자가 가장 수발에 어려움을 느꼈고, 부부노인의 수발자가 가장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시 가장 힘든 점은 독거노인과 자녀동거 노인의 수발자는 심리적 부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부부노인의 수발자는 육체적 피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부노인의 수발자는 대부분이 배우자로 고령의 나이에 수발을 할 경우 육체적인 피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노인의 수발자 중 절대다수는 배우자이며,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은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가 주 수발자이고, 독거노인은 주 수발자의 약 60%가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로 구성되어 있었고, 비혈연 동거인·이웃 및 유급봉사원이 25.5%를 차지하였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독거노인의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낮지만 이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요양욕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의 향후 이용희망률은 독거노인은 노인(전문)요양시설/양로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다른 가구형태의 노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기요양관련 정책 우선순위 가운데 ‘식사제공(배달) 서비스 확대’는 부부노인의 요구가 독거노인이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주간보호서비스 확대’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게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3. 독거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독거노인들이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부부노인,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고, 종교활동과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만 상대적으로 높을 뿐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이나 다른 취미나 창의적인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독거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도와 여가활동 범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단체가입률은 종교단체가입률만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높을 뿐 다른 단체에의 가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의 사회단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고, 농어촌에 거주하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들 중에서 현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10.3%,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5.5%로서,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 노인들에 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부부노인이나 자녀동거노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노인이 6.6%, 현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3%로서, 부부노인과 자녀동거노인에 비하여 자원봉사활동 참여한 노인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중에서 현재 컴퓨터 및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1.8%로서 부부노인 8.8%, 자녀동거노인 4.4%에 비해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6 장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 자료에서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인 여성노인, 농어촌 노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 정책방안과 대상별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본 정책방안

1. 소득보장 정책

가.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대간 재분배와 세대내 재분배가 작동하는 국가 운영의 연금체계를 통한 재분배 혜택에서 어떠한 국민도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적어도 재분배의 원리로 작동하는 연금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라는 사회적 귀속적 지위로 인하여 재분배 혜택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연대적인 재분배 정도에 의해 그 크기와 정도가 정해지는 기초연금을 연금체계의 한 층으로 구분하자는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층의 혜택은 시민권에 입각하여 국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즉, 최소한 1인 1기초연금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경로연금의 내실화

공적연금 보장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노령계층에 대해 현행 한시적, 경과적인 경로연금을 공적연금의 보완 소득보장제도로 확대, 영구적 제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경로연금은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고령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선별적 소득보장제도로써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급여수준이 3~5만원 수준으로 실질적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매우 한계가 많은 제도이다. 더욱이 법제도적 급여자격기준이 공공부조제도만큼 엄격하여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장내용에 비해 자격심사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경로연금 발전방향을 향후 연금체계 개편 논의와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경우에 공공부조제도와 특성 구분하여 수급자격을 재설계하는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공공부조의 수급자격 심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의 관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현실과 제도적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가능 판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 운영을 실질적 부양 관점에서 현실과 밀접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정책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라. 고용기회 확대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

도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모형도 결국 노인이 적극적인 사회적 주체로서 가능한 오랫동안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 일자리 개발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한 노인 소득보장은 매우 중요하다.

2. 보건 및 영양보호 정책

가. 노인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중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운동사업과 영양사업이다. 그러나 대부분 노인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고, 비노인 계층을 중심으로 하되 노인계층도 포함하는 수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계층의 신체적 및 정신적인 기능을 고려하고, 그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운동 및 영양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기초체력 진단을 바탕으로 각 노인의 건강상태에 알맞은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영양보호서비스 체계구축

현재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매우 낮지만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이용은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가보호 및 시설보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연령일수록 영양욕구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노인의 기능상태를 최대한 유지하고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보호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다. 자립친화형 주거환경의 개선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최소한 질적 보장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

어야 하며, 기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가능한 한 자립생활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주택개보수를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3. 노인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성화 정책

가.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현재 노인은 적극적 여가활동과 사회단체활동 참여수준이 저조하지만, 향후 여가활동과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가 의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 형평성을 제고하여 노인여가문화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노인교실은 여가성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노인교육과정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노인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후준비와 노년기 생활에 유용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고, 노인복지회관 또는 사회복지관 등 지역복지관에서의 노인학습권 강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나.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노인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기는 하지만,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이 높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실비를 지급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다. 정보화 교육의 강화

노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노인들의 경우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향후 이용 욕구는 높고, 정보화 교육 참여 의향 또한 높으므로 노인을 위한 컴퓨터 보급사업과 정보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제2절 대상별 정책방안

1.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가. 여성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1) 국민연금의 여성수급권의 향상

여성노인의 소득보장대책에서 나타나는 성별 분리적 대응을 해소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결과적 빈곤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최종안전망을 통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대책 중심 보호가 지배적이고, 남성의 경우 보편적이고 사전예방적인 일차안전망인 공적연금을 통한 보호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등의 소득보장제도별로 뚜렷한 성별 수급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과정에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던 돌봄 노동, 비공식부문 근로 등에 대한 불공평한 사회적 평가와 보상에 대한 정면적인 문제제기이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하는데 공헌해 온 여성에게도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은 이러한 연금체계 개편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며, 그동안 불공평한 여성으로서의 귀속적 사회적 지위 및 부담에 대한 불공평한 사회적 평가 및 보상의 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매우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연금체계의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여성노인의 궁극적 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하는 데는 여성도 보편적인 시민권 연금의 수혜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으로 네덜란드와 같이 각출기록과 관계없이 급여단계에서 조세방식으로 시민권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보다 적극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며, 독일, 일본 등과 같이 각출단계에서 돌봄노동 등에 대한 연금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 등은 비교적 소극적이지만 연금크레딧의 인정폭이 클 경우 여성의 연금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

여성노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여성노인들이 사회적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주고, 이를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도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수명도 길고 인생주기상 가정내 돌봄노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여성노인들에게 일자리 마련은 중요한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이다.

나. 여성노인의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1) 여성노인대상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여성노인들의 경우 영양식 섭취 및 운동 실천이 저조하고, 건강검진율은 낮은 반면 만성질환율과 낙상사고율이 높은 실정이므로, 여성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여성노인들의 경우 안과 및 치과 검진 욕구가 더 높고, 씹기 및 시력보조기

착용시에도 불편함이 더 많은 점 등을 고려해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보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성노인들의 인지기능 장애 및 문제행동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성노인들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등의 개입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노인들의 재활욕구 또한 남성보다 높았으며 물리치료 등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연령일수록 영양욕구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기능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노인부양자에 대한 성 인지적인 서비스 제공

노인수발 현황도 여성노인과 남성노인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을 남성노인들에 비해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비율이 남성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수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취업률이 높으며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족수발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 여성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1) 종교단체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노인의 적극적 여가활동 참여와 사회단체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단체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가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인의 경우 가족중심형과 우인교류형의 소극적이고 기분전환을 목적으로 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은 남성노인들과 비슷하지만, 종교활동에 참여는 경향이 더욱 강하고, 향후의 종교단체 가입의향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단체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내 종교단체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노인복지회관과 종교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여가·취미프로그램, 기초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평생교육 욕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여성노인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종교기관에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노인교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노인에게 있어서는 평생교육 비용이나 지리적 접근성이 낮은 점이 참여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생교육 비용의 보조, 교통편의서비스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

2. 농어촌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가. 농어촌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1)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농어촌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방향은 여성노인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소득보장대책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도 공공부조대책에 보다 친화적이고 공적연금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수급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농어촌노인의 경우 공적연금 가입 지원 차원에서 농특기금에서 최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노인의 연금권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 특성을 감안한 노인 일자리 개발

농어촌 구조조정으로 농어촌에서도 은퇴없이 계속 근로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개발을 통하여 근로소득 제고를 통한 삶의 질도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나. 농어촌노인의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1) 지역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농어촌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은 첫째, 농어촌노인들의 경우 흡연을 및 음주율이 높고 영양식 섭취 및 운동 실천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만성질환 치료 등을 위하여 이용률이 높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2)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농어촌노인들은 도시노인보다 시력, 청력 및 씹기 능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보조기 착용률도 더 낮고, 보조기 착용의 효과도 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검진 기회제공 및 효과적인 보조기 착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비교적 건강한 노인집단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서 농어촌노인과 도시노인 간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노인들은 간호 처치나 재활 관련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농어촌노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보건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검진과 방문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와 지원확대가 요청된다.

4) 노인부양자에 대한 성 인지적인 서비스 제공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농어촌노인들의 주수발자들은 과반수 이상이 전일제 경제활동과 노인수발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심리적 부담과 육체적 피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노인들은 주간보호와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수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다. 농어촌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1) 노인여가시설의 확충

농어촌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단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종교단체, 사교단체, 문화단체 그리고 여가와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가복지시설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가욕구가 있다고 하여도 여가 및 사회단체의 부족과 낮은 접근성으로 인하여 여가활동과 사회단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노인들의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단체와 시설에 대한 접근도를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 폐교, 종교기관의 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농어촌노인의 경우 여가활동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우므로, 지역내의 공공기관, 폐교, 종교기관의 기존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자원봉사활동 기회의 확대 및 실비 지원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경비 지원과 지역봉사대 조직이 요구된다. 농어촌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낮기는 하지만, 향후에 지역봉사와 사회복지분야에 봉사할 의향을 지닌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

하면, 지역별로 노인봉사대를 조직하여 지역개발 또는 복지분야의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지역특성을 감안한 정보화 기반구축

농어촌노인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농어촌 정보화 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농어촌노인가구에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의 활용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마을 단위로 방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가. 독거노인의 소득보장 정책

1) 보편적 연금제도의 강화

독거노인의 경우에도 공공부조대책에 보다 친화적이고 공적연금 등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수급기회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개입의 재분배 혜택의 공평성 차원에서 동등한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보장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기준의 완화

독거노인의 경우 특히 중요한 부분으로, 공공부조 수급자격 심사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및 적용, 운영을 실질적 부양 관점에서 현실과 밀접하게 일치시켜 나가는 정책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나. 독거노인의 보건 및 요양보호 정책

1) 영양개선사업의 실시

독거노인들은 영양식 섭취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건강증진에 필

수적인 영양교육 및 정보제공을 통하여 영양지도를 실시하고, 영양평가와 더불어 영양개선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독거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유병률이 매우 높고, 공공보건기관의 이용률이 높으며, 만성질환으로 인한 외로움·소외감을 더 호소하고 있으므로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3) 노년기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독거노인들은 시력, 청력, 씹기 능력 등에 있어서 취약한 상태에 있고 안경 및 보청기 착용률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독거노인들의 어려운 경제상태를 감안한 지원이 요청된다. 또한 독거노인들은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기능상 독립적이고 인지기능 장애도 별로 없지만 우울증세는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서비스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건강증진 및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개발

독거노인의 경우 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동거 가구원의 수발 비율이 다른 가구형태보다 더 높았다. 독거노인들은 대부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타 집단보다 낮은 편이지만 이용률은 가장 높았다. 독거노인 수발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향후 이들의 노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독거노인은 요양시설/양로시설, 가사지원서비스, 경로식당/무료급식, 노인식사배달 서비스에 대한 이용희망률이 높게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를 확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 독거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촉진 방안

1)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실비 지원

독거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독거노인의 사회단체 가입이나 평생교육기관 이용시 가입비, 자원봉사활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경로당이나 평생교육기관을 비용문제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거노인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여 이들 기관의 가입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한 여가 지원

지역별로 차별화된 독거노인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동일한 독거노인이자 할지라도 도시노인의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제반 사회단체에의 접근성이 높은 반면 농어촌노인의 경우에는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도시지역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기존 여가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는 반면 농어촌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3) 정보화 교육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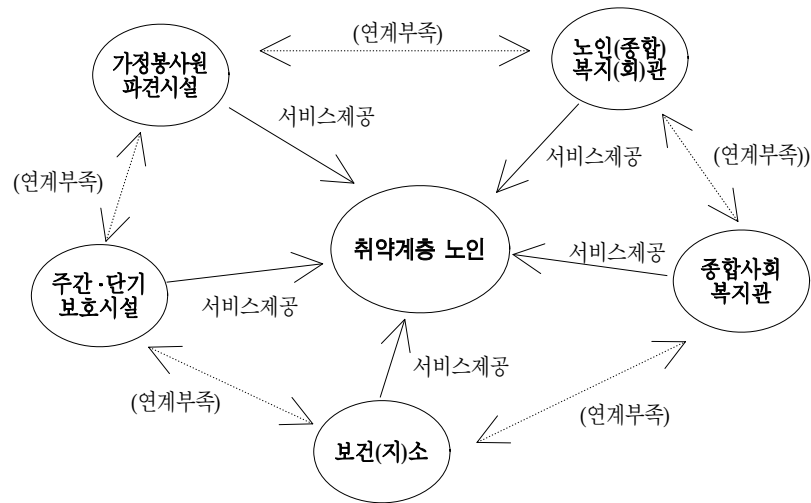
독거노인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지만 향후 참여의향을 지닌 노인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교육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라. 독거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산재해 있는 각종 시설(기관), 즉,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보건소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각

각 제공받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6-1, 표 6-1 참조). 이는 각 제공시설(기관) 상호 간 서비스 수급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유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하여 동일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이나 특정노인에 대한 서비스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그림 6-1] 현행 노인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의 예시



〈표 6-1〉 시설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제공자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가사지원, 개인활동, 우애서비스) 신체적 수발 서비스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 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사 가정봉사원
주간보호시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단기보호시설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무의탁 노인 후원을 위한 결연사업 -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인적자원 발굴 이용노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물리치료사
(종합)노인복지(회)관	<기본사업>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건강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경로당활성화사업 <선택사업>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 사업 노인용품 전시 등(상담, 계몽, 급부, 대여)	사회복지사 상담지도원 물리치료사 간호사

- 자료:1)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5.
 2) 보건복지부, 『2005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2005
 3) 보건복지부, 『방문보건사업 운영안내』,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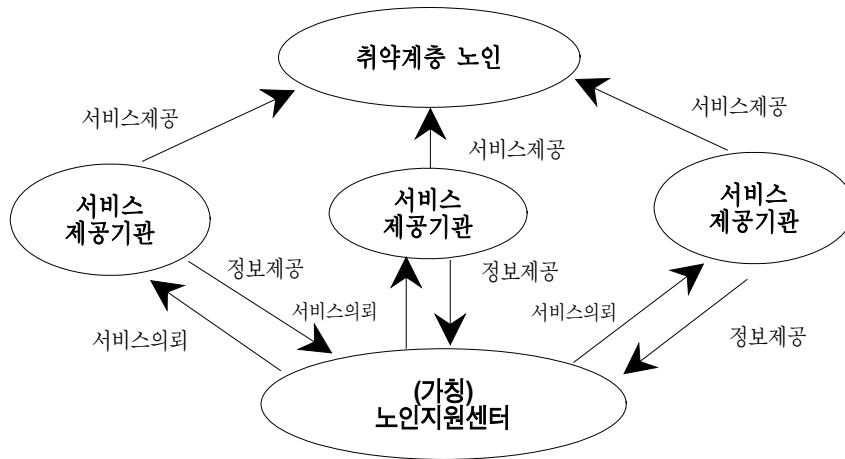
〈표 6-1〉 계속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자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서비스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서비스	생활지도원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물리치료사
	정서지원서비스	간호사
	일시보호서비스(노인 주간·단기보호)	
	<지역사회조직사업>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복지증진사업(경로잔치 등)	
	<교육·문화사업>	
	노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자활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사
	건강생활지도 및 건강상담, 골밀도무료검진	의사
	<방문보건사업>	공중보건의
	건강콜센터, 방문간호, 방문진료	한의사
	<만성질환관리사업>	영양사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육	간호사
	고혈압·당뇨병 무료검진	물리치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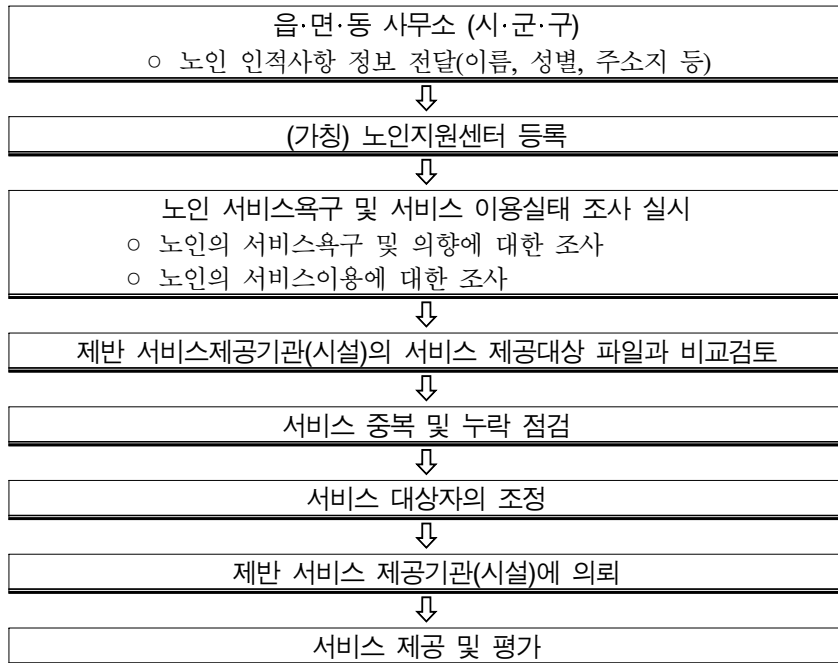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인적 사항 및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지원센터(가칭)」 역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림 6-2 참조). 동 센터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기존 복지시설내 중점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재가노인복지시설(복합형),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지)소 등 복지·보건기관이다.

「노인지원센터(가칭)」의 기능으로는 첫 번째, 특정 지역내 소재해 있는 복지·보건기관의 취약계층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 관련정보의 통합 조정관리이고, 두 번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 욕구실태를 파악하며, 세번째, 취약계층노인에 대해서는 각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연계·의뢰하고,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림 6-3 참조).

[그림 6-2] 향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그림 6-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참고문헌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서울: 일신사, 1995.
- 김두섭·박경숙·이세용,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 유형과 결정요인」, 김두섭 (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김승권 외,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9.
- 김정석, 「노년기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구성」 김두섭(편),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1.
- _____, 「가족과 가구」 김두섭·박상태·은기수 편 『한국의 인구 1』, 통계청, 2002.
- _____, 「초고령 노부모들의 세대구성별 가구형태」, 『가족과 문화』(출간예정), 2005a.
- _____, 「한국노부모들의 노후부양관 변화, 1994~2004」, 『한국노년학』(출간예정), 2005b.
- 김정석·김영순 공역. 2000. 『노년 불평등과 복지정책』 서울: 나눔의집, 1998.
- 김정석·김익기,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155~168, 2000.
- 김찬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방향: 보건복지 민영화와 서비스통합을 중심으로」, 『전환기의 사회복지 행정』,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5.
- 김혜경,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서구복지국가의 케어정책 체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3년 2호 통권 65호,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3.
- 대통령비서실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인구·고령사회대책팀, 「저출산·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제35회 국정과회의 보고참고자료, 2004.
- 박영란, 「고령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의 변화와 대응」, 『인구고령화와 보건복지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박영란·황정임, 『여성의 빈곤실태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2.
- 보건복지부,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본격추진: 시범사업, 인프라확충, 경제성평가」, (노인요양보장과 발표자료), 2005.
- 석재은·김태완, 『노인의 소득실태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석재은,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구축과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0호, 2002.9
- 석재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한국사회복지학』, 제53호, 2003.
- 석재은·원종욱·김수봉·백화중·김용하·김성민·김태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석재은·김용하·김태완, 『여성의 빈곤실태 분석과 탈빈곤 정책과제 개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석재은,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2003.
- 석재은, 「연금의 성별 격차와 여성의 연금보장 방안」, 『보건사회연구』, 24(1): 93~129, 2004.
- 선우덕, 황나미, 송현중, 박영란, 윤홍식, 김동진, 『고령화와 의료·복지대책: 노인·여성·가족 부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신용하·장경섭,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서울: 지식산업사, 1996.
- 안병철, 『사회변동과 가족』,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1997.
- 유성호,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짓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51~68, 1996.
- 윤병식 외, 『한국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이가옥 외, 『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 이가옥·우국희, 「영국의 케어 제공자에 관한 정책 연구: 보호자 권리와 유급고용의 질 강조」,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2호, 2005.
- 이가옥·이현송·김정석, 「노년기 삶의 질: 지표 개발과 평가」, 세계노인의 날 기념 제6회 학술세미나 발표자료, 2000.
- 이동우·이규식, 『노인의 삶의 질』, 1997.
- 이 순, 「지방화시대에 따른 노인보건복지 정책방안」, 『지방분권화에 따른 노인보건복지 정책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5년 4월 15일, 간암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세미나 자료집), 2005.
- 장지연·정혜선·류임량·김수영·장은숙,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4.
- 정경희 외, 『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정경희 외, 『한국의 노인복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 정경희 외,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정창수·정기선·차종천, 『산업화 과정에서의 한국가족의 실태와 전망』 서울: 집문당, 1997.
- 차홍봉 외,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보호」, 도서출판 소화, 2000.
- 한남제, 『현대가족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9.
- 한정자 외,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연구」, 여성부, 2001.
- Bengston, V.L., Burges, E. O. & T. M Parrott., "Theory, Explanation and a Third Generation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Social Gerontology", *Journal of Gerontology* 52B(2): S72 ~ S88, 1997.
- Brechin, A., Walmsley, J., Katz, J., & S. Peace, *Care Matters: Concepts, Practice and Research in Health and Social Car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8.
- Choi, N. G., "Living arrangements and household compositions of elderly couples and single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1(1/2):21 ~ 25, 1999.
- Da Vanzo J. & A. Chan.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Malaysians: Who Coresides with Their Adult Children?" *Demography*. 31(1):95 ~ 113, 1994.

- Dervarics, C., "The Coming Age of Older Women", *Population Today* 27(2): 1~2, 1999.
- Dwyer, J. W. & R. Coward,(Eds.), *Gender, Families, and Elder Care*,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1992.
-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and Social Affairs, *Family Benefits and Family Policies in Europe*, 2002.
- Goldscheider, C. & M. B. Jones., "Living Arrangements Among the Older Population: Constraints, Preferences, and Power." *Ethnicity and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 (ed.), Boulder, CO: Westview, 1989.
- Gordon, Linda, "New Feminist Scholarship on the Welfare State", in Linda Gordon(ed.), *Women, the State, and Welfare*, Wisconsi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0.
- Gornick, Janet C. and Jerry A. Jacobs, "Gender, the Welfare State, and Public Employment: A Comparative Study of Seve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3, 1998, October, pp.688~710.
- Harrington, M., *Care and Equality: Inventing a New Family Politics*. New York: Routledge, 2000.
- Huber, Manfred, "Long-term care in OECD countries: current trends and progress towards a routine indicator system", KIHASA Seminar on Long-term Care, 30 June 2005, Seoul 세미나 발표자료, 2005.
- Kammerman, Sheila B. and Alfred J. Kahn., *Family Policies Since World War II: Evolving National Commitments*, 1997.
- Kane, R. A. & Kane, R. C., *Long-Term Care: Principles, Programs, and Polici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7.
- Kim Cheong-Seok., "Living Arrangements of Korean Elderly Parents", University of Michigan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1999.
- Kim, C. S & K. O. Rhee., "Family, Self or State as a Desired Source of Support for the Elderly" 『한국인구학』, 22(2):192-219, 1999b.
- Kim, C. S. & K. O. Rhee., "Variations in Preferred Living Arrangements among

- Korean Elderl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2(2):189~202, 1997.
- Kim, C. S. & K. O. Rhee., "Living Arrangements in Old Age: Views of Elderly and Middle Aged Adults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1(2): 94~111, 1999a.
- Kim, C. S. & K. O. Rhee., "Correspondence Between Actual Coresidence and Desire for Coresidenc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llym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2(1):36~48, 2000.
- Kim, C. S.,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as a Family Strategy in Economic Crisis of Korea", 한국인구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2005.11.
- Knodel, J. & M.B. Ofstedal.,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Living Arrangements" A. Hermalin (ed.)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in Asia*,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2.
- Kojima, H., "Intergenerational Household Extension in Japan." *Ethnicity and the New Family Economy: Living Arrangements and Intergenerational Financial Flows*. Goldscheider, F. K & C. Goldscheider.(ed.), Boulder, CO: Westview, 1989.
- Korczyk, S., "Long-Term Care Workers in Five Countries: Issues and Options", Issue Paper of the AAPR Public Policy Institute, 2004.
- Logan, J. R. & B. Fuqin, "Family Values and Coresidence with Married Children in Urban China." *Social Forces*. 77(4):1253~1282, 1999.
- Loutfi, Martha Fetherolf, *Women, Gender and Work*, Geneva: ILO, 2001.
- Martin, L.,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iji, Korea, Malaysia, and the Philippines." *Demography*. 26(4):627~643, 1989.
- Matcha, D.A., *The Sociology of Aging* Allyn & Bacon, 1997.
- Meyer, M H. (Ed.), *Care Work: Gender, Labor, and the Welfare State*. New York: Routledge, 2000.
- Meyers, M. & J. Gornick., "Gendering Welfare State Variation", in N. Hirschmann & U. Liebert(eds.), *Women and Welfare: Theory and Practice in the U.S. and Europe*, 2001.

- Pampel, F., *Aging, Social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CO, Boulder: Pine Forge Press.
- Stahl SM, "Health", In Mangen DJ, Peterson WA.(eds), *Research Instrument in Social Gerontology*, 1984, 3,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tuckelberger, A., "Men and Women Age Differently" *World Health* 4:8 ~9,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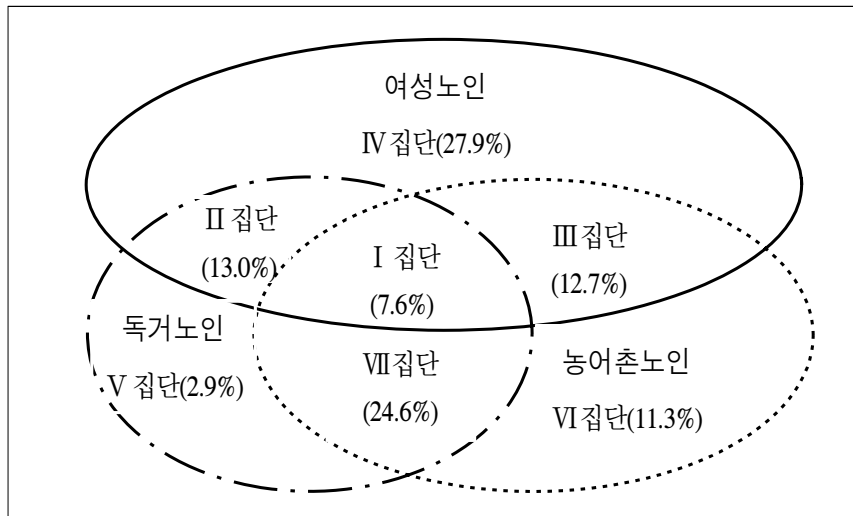
부 록

[부록] 분석대상노인의 집단유형

□ 집단유형화: 분석대상노인을 성, 지역, 가구형태를 고려하여 집합적 집단으로 분류하면 3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여성+독거+농어촌노인 I 집단, 여성+독거+도시 노인 II 집단, 여성+ 농어촌노인 III집단, 여성+도시노인 IV집단, 독거+남성노인 V 집단, 농어촌+남성노인 VI집단, 그리고 도시+남성노인 VII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그림 참조).

□ 집단유형별 노인의 제특성은 <부표 1>~<부표 6>에 제시함.

[그림] 성·지역·가구형태에 따른 분석대상노인의 구성



〈부표 1〉 집단유형별 노인의 일반특성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I 집단	II집단	III집단	IV집단	V집단	VI집단	VII집단	
연령								
65~69세	31.2	26.0	40.6	41.7	45.8	45.5	45.4	40.2
70~74세	28.4	31.2	27.6	28.0	21.7	29.1	32.4	29.4
75세 이상	40.4	42.8	31.8	30.3	32.5	25.4	22.3	30.4
교육수준								
글자모름	36.2	33.9	29.3	18.2	8.4	5.0	2.3	17.3
글자해독	35.8	24.4	29.0	24.4	10.8	15.2	8.6	20.5
초등학교	26.1	28.7	37.6	39.9	38.6	51.4	31.7	36.4
중·고등학교	1.8	11.7	4.1	15.6	32.5	22.0	41.9	20.2
대학 이상	-	1.4	-	1.9	9.6	6.5	15.6	5.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369)	(362)	(796)	(83)	(323)	(700)	(2,851)
가구소득(월평균)								
50만원 미만	80.2	78.9	19.3	12.7	50.0	26.0	13.4	30.0
50~100만원 미만	17.5	16.0	30.9	22.4	29.3	35.6	26.8	25.1
100~150만원 미만	2.3	2.2	15.2	12.7	12.2	14.2	15.5	11.7
150~200만원 미만	-	0.5	10.5	12.6	3.7	9.0	10.4	8.6
200만원 이상	-	2.4	24.2	39.5	4.9	15.2	33.8	24.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369)	(363)	(794)	(82)	(323)	(701)	(2,849)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급여	16.6	24.9	5.0	4.0	13.4	3.7	3.3	7.9
비급여	83.4	75.1	95.0	96.0	86.6	96.3	96.7	9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370)	(362)	(795)	(82)	(324)	(700)	(2,850)

〈부표 2〉 집단유형별 노인의 건강실천행위

(단위: %)

구분	여성 노인				남성			전체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집단	V 집단	VI 집단	VII 집단	
현 흡연율	8.3	9.2	9.9	5.4	31.7	38.9	31.1	17.6
현 음주율	21.7	21.7	22.4	22.3	57.8	55.7	51.9	34.3
규칙적 운동실천율	16.5	34.6	14.9	26.8	43.9	23.1	42.6	29.5
독감예방접종률	80.2	74.0	82.9	76.4	62.2	78.7	69.3	75.3
건강검진수진율	52.5	51.2	52.5	47.9	45.1	57.3	57.3	52.6
(대상자수)	(217)	(369)	(362)	(796)	(82)	(323)	(700)	(2,851)
영양식 섭취노력								
그런 편이다	22.0	21.5	33.7	35.2	26.8	37.8	48.8	35.6
그저 그렇다	18.8	20.4	22.4	22.5	22.0	22.3	19.5	21.1
그렇지 않다	59.2	58.2	43.9	42.3	51.2	39.9	31.8	4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8)	(368)	(362)	(796)	(82)	(323)	(699)	(2,848)

〈부표 3〉 집단유형별 노인의 건강상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I 집단	II 집단	III집단	IV집단	V집단	VI집단	VII집단	
본인인지 만성질환								
없음	2.3	3.2	6.1	6.2	12.0	13.6	17.3	9.2
1개	12.0	11.4	11.9	11.6	26.5	22.0	27.4	17.1
2개 이상	85.7	85.4	82.1	82.3	61.4	64.4	55.3	73.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369)	(362)	(796)	(82)	(323)	(700)	(2,851)
주관적 건강인식								
좋다	20.9	23.0	25.1	29.3	48.8	41.9	49.0	34.1
보통이다	32.9	29.3	27.3	26.6	28.0	25.6	26.7	27.5
나쁘다	46.3	47.7	46.9	44.1	23.1	32.4	24.4	3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17)	(369)	(362)	(796)	(82)	(324)	(701)	(2,850)
낙상사고율	21.2	23.6	16.9	16.3	14.5	9.6	9.4	15.2
(명)	(217)	(369)	(362)	(796)	(83)	(323)	(701)	(2,851)

〈부표 4〉 집단유형별 노인의 수발실태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I 집단	II 집단	III집단	IV집단	V집단	VI집단	VII집단	
수발자 없음	86.7	92.1	70.4	71.4	72.7	76.1	72.1	76.1
수발자 있음								
동거 가구원	-	-	28.9	26.5	-	23.9	26.2	20.1
비동거 가구원	13.3	7.9	0.7	2.0	27.3	-	1.7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90)	(126)	(152)	(294)	(11)	(67)	(172)	(912)

〈부표 5〉 집단유형별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이용희망률

(단위: %)

구분	여성				남성			전체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집단	V 집단	VI 집단	VII 집단	
노인전문병원	39.0	35.2	39.4	37.8	28.0	42.9	40.5	38.7
노인요양/양로시설	27.8	36.5	22.5	31.1	29.3	25.7	29.9	29.5
단기보호시설	14.7	8.9	14.1	13.8	9.8	14.9	19.0	14.6
주간보호시설	13.4	11.1	14.7	16.5	7.3	16.1	19.6	15.8
치매상담센터	27.3	28.5	32.8	31.7	32.9	40.9	31.3	32.0
가사지원서비스	34.9	36.4	32.2	30.6	29.3	33.0	25.0	30.7
경로식당/무료급식	22.5	28.5	21.7	17.1	26.8	20.4	14.1	19.5
(거동불편)노인식사배달	34.9	38.2	26.9	22.0	36.1	26.0	19.3	25.9
가정(방문)간호서비스	48.4	48.8	51.7	42.8	37.8	53.6	39.0	45.3
보장구대여서비스	28.1	23.6	30.1	27.6	19.5	31.6	27.3	27.6
(대상자수)	(217)	(369)	(362)	(796)	(82)	(323)	(700)	(2,851)

〈부표 6〉 집단유형별 노인의 사회참여실태

(단위: %)

구분	여성 노인				남성			전체
	I 집단	II 집단	III 집단	IV 집단	V 집단	VI 집단	VII 집단	
사회단체가입률								
종교단체	56.0	56.9	53.3	59.4	31.7	28.8	32.4	47.2
문화활동단체	-	0.5	0.3	0.8	1.2	1.5	1.9	1.0
운동단체	-	1.6	1.7	1.5	2.4	6.5	9.4	4.0
사교단체	17.5	15.7	29.8	32.2	35.4	50.2	52.1	35.7
정치·직능단체 등	0.5	1.1	0.6	0.5	2.4	7.4	2.6	1.9
평생교육프로그램								
현재 참여율	3.2	5.9	4.4	4.3	9.8	3.1	3.9	4.4
향후 참여희망률	13.8	22.2	13.8	21.1	24.4	18.0	21.1	19.5
자원봉사활동								
현재 참여율	-	4.6	1.4	3.4	6.0	7.1	5.1	4.0
향후 참여율	4.1	8.9	5.8	11.4	23.2	19.2	18.5	12.8
정보화관련활동								
컴퓨터·인터넷 이용률	-	2.7	1.1	2.4	3.7	7.7	13.4	5.4
향후 정보화교육희망률	3.7	10.8	5.5	13.2	22.0	20.7	29.2	16.2
(대상자수)	(217)	(369)	(362)	(796)	(82)	(323)	(700)	(2,851)

연구보고서 2005-15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여성·농어촌·독거노인의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
Old Person's Quality of Life and Policy Implications

발행일	2005년 12월 일	값 11,000원
저 자	오 영 희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ISBN 89-8187-356-9 93330